

하동역(驛) 상권

제4회 이육사 문학상 장편소설 대상작

전원일 장편소설
하 동 역 (驛)

(상권)

도서출판 문학마을

작가의 말

완행열차를 타고 여행을 떠날 때면 만나는 역마다 여러 가지 사연이 회상되면서 내게로 다가오는데, 아름다운 추억은 가슴을 뜨겁게 달구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추억은 비릿한 생선 냄새처럼 묻어서 쉬이 지워지지 않는다. 그런 추억들은 여행을 하는 동안 내내 내 곁을 떠나지 않고 옆 좌석에 동승해서 함께 했다.

역사(驛舍)의 모양은 흡사 여러 가지 나무 형태로 내게 다가오기도 했다. 웅장하고 세련된 역을 만날 때면 태산목을, 작고 앙증스런 역을 만나면 흰병꽃나무를, 투박하게 생긴 역은 시골 들녘을 묵묵히 지키고 선 느티나무를, 정갈하면서도 반듯하게 지은 큰 역은 메타스퀘어를 연상시키곤 했다. 스쳐가는 역들은 그렇게 나무처럼 내게로 다가왔다가 천천히 사라져 갔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 지은 역사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연출해 내기도 하고 크고 세련미 넘치는 현대식 역사는 미래를 향한 점진적 방향을 제시해 주는 듯 보였다.

그렇게 역마다 각양각색의 모양을 만들다가 사라지는 가운데 나는 어느덧 사춘기 시절로 돌아가서 투박한 우정과 아름다운 사랑을 만나 갑자기 잃어버린 젊음이 용솨음치고 깊은 열정과 슬픔에 잠기게 했다.

투박한 우정 속에는 오늘날까지 삶을 나란히 살아가는 현재가 있고, 아름다운 사랑과 못다 이룬 사랑 뒤편에는 진한 애수가 묻어서 나왔다. 텃새처럼 오랫동안 머무는 우정과 철새처럼 내 곁을 떠난 연인도 함께 공존했다. 그러면서 무수한 세월이 흐른 후 그때의 추억을 반추해보면 작은 회한으로 남아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돌아오기를 갈망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아름다운 울음소리를 내며 숲속으로 자취를 감춰 버리고 말았다. 그렇다. 앞으로만 달리는 열차는 뒤로 돌아올 수 없는 것이다. 두 눈과 귀는 같은 방향을 쳐다보면서 듣고 있지만 그 형태의 만남은 이뤄질 수 없듯이 사랑과 우정도 그렇게 나란히 놓여진 철로같이 느껴졌다.

그래도 열차를 타고 떠나는 여행은 소중한 마음의 자산이 되어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어 줘서 오늘도 철길을 쳐다보며 먼 길을 떠나고 싶어 한다. 그리고 굳은살처럼 늘어붙은 추억들을 만져본다. 아무리 벗겨내도 다시 돌아날 것 같은 굳은살은 떼어낼 수 없으며 또 굳이 떼어내고 싶지도 않다. 아름다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싶다.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함께 하고 싶다.

장편소설 ‘하동역(상·중·하)’은 2012년 7월 27일 전자책으로 출판되어 경남대학교, 김천시립도서관 등 전국의 전자도서관에서 독자들을 만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가 이번에 활자 책으로 독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원고를 교정하고 다듬는데 도움을 주신 봉하문학 편집장 박계현님, 편집위원 황재임님께 감사 말씀 드린다.

2019년 4월

저자 전 원 일

작가의 말 • 4

〈상권〉

1. 하동 가는 길 • 9
2. 에트랑제와 칠공주 • 99
3. 편백나무 숲길에서 • 124
4. 공상법 • 165
5. 피라칸타에 걸린 풍선 • 199
6. 박하사탕 • 236
7. 검은 선글라스 • 302

〈중권〉

8. 삼색병꽃나무의 노래
9. 백목련은 피고 지고
10. 보통군법회의
11. 랜드레이스 F1
12. 회전의자
13. 새끼마담

〈하권〉

14. 약속어음
15. 파문
16. 보석상자
17. 의처증과 정탐
18. 정글의 피에로

1. 하동 가는 길

하동을 가는 상행선은 아름다웠지만
돌아오는 하행선은 너무도 멀고 힘겨웠다.

1972년 고교 3년 때의 여름방학이었다.

고3 학생들은 방학 중에도 등교해서 여름방학을 잇고 짬뽕더위 속에서 자율학습이니 보충수업이니 하며 다가올 예비고사와 대학 본고사 시험에 대비해 공부를 하느라 머리를 싸매면서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선풍기 하나 없는 짬뽕 교실에 칠십 명이 넘는 학생들이 한 교실에 빼곡하게 앉아서 밤 열시까지 과외수업을 받느라 여념이 없었다. 가방은 참고서와 영어사전만으로도 팔이 빠지도록 무거운데 거기다 도시락과 찬합을 싸가지고 다녔으니 무게가 짐작을 하고도 남는

다. 찬합 하나 부피는 우리가 식기로 사용하는 밥그릇의 양과 비교해보면 네 개 정도의 분량이다. 주격으로 꼭꼭 짓눌러 담은 밥은 젓가락이 휘일 정도였다.

3교시를 마치고 나서 도시락을 먹고, 4교시 마친 후 찬합의 절반, 그리고 보충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남은 절반을 먹었다. 그렇게 먹고도 금방 배가 고프다며 학교 매점에 달려가서 빵을 여러 개씩 사 먹었다. 위장의 어느 구석에 핑크가 나지 않고서야 그렇게 밥이 들어 갈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돌아서면 허기가 졌다.

또 에어컨은 물론 선풍기조차 없는 폭염 속에서 하는 공부는 항상 머리가 멍하니 무엇을 배웠는지 기억이 흐려질 때가 태반이었다. 그렇지만 무서운 선생님들의 눈살 앞에서는 정신을 곧추 세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학교 근처 레코드가게에서 들려오는 여름 노래소리가 무더위 속 졸음에 처진 학생들을 바닷가로 불러냈다.

키보이스 노래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만난 그 사람…”

이 노래는 학생들의 마음을 크게 동요시켰다. 녹음기마저 귀한 시절이라 레코드가게 주인은 노래가 끝나면 바늘을 다시 원위치에 옮겨 놓아 노래에 둔한 학생들마저도 모두 따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학생들은 합창으로 따라 부르곤 했다.

이렇게 무더위 속에서 책과 씨름하는 동안 대학진학을 포기했던 한편에서는 클럽 만들기가 붐을 이루었다.

서클이나 동아리 같은 것인데 학생들은 너도나도 클럽을 만들기도 하고 하나쯤 가입하기도 했다. 클럽은 주로 당구장이나 탁구장,

만화방에 드나드는 학생들끼리 많이 결성했는데 그런 클럽은 내게도 다가왔다.

어느 날 유도부장 황수문과 악대부장 이우성이 우리 교실로 나를 찾아왔다.

“광휘야! 우리 클럽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너도 가입해라.”

“지금 때가 어느 땐데 뭐 그런 걸 만드노?”

나는 별 관심을 주지 않고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총학생회장에게다 전채수석인 박성곤, 학예부장 김병현, 규율부장 최대성, 럭비주장 임대근, 유도부장 황수문, 악대부장 이우성 그렇게 합해서 일곱 명이 결성할건데 너만 들어오면 된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없다는 투로 말하면서 거절했다.

“너희들은 전교 학생회에서 깃발 있는 간부지만 나는 우리 반 반장도 아닌 겨우 학급 미화부장이니 격이 맞지 않다.”

나는 혼자 생각건대 직책을 부산직할시에 견줘보면 저들이 시장, 문화원장, 경찰서장, 럭비회장, 유도회장, 예총회장으로 비유하면 나는 기껏 구청 내의 일개 동장 수준 밖에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거절한 다음날 또 그들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거의 애원에 가까웠다. 그렇지만 나는 냉담했다.

‘나 같이 평범한 학생을 왜 클럽에 자꾸 끼워 넣으려고 할까?’

나는 그들을 돌려보낸 후 생각을 거듭해도 이유를 찾지 못했는데 세 번째 찾아왔던 유도부장 황수문을 통해 조금은 영뚱해 보이는 곳에서 해답을 찾았다.

“광휘야! 우리들은 네 소문 다 듣고 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다른 학교 여학생들과 교제를 많이 하는데 그곳 여학생들이 너 모르

는 학생이 없다 카더라.”

“누가 그래?”

나는 의아해서 반문을 했으나 소문의 진원지를 캐본 후 그만 경악하고 말았다.

‘그렇구나! 그것 때문에 클럽에서 나를 회원으로 넣으려고 야단이었구나.’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부산에는 인문계 여고와 실업계 여상이 각 여섯 개 정도 있었는데 그런 여고에서 나에게 대한 소문은 학생시인, 학생화가, 축구선수, 기타리스트로 알려져 있었다. 흔히 하는 말로 엔터테인먼트 학생이었던 셈이다.

초등학교 시절에 K일보에서 주최한 백일장에 동시가 입상해서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상 받은 게 학생시인으로, 중학교 시절에 문교부장관 배 그림대회에서 제일 아래 상을 받은 게 와전되어 학생화가로, 면민체육대회에서 마을 축구대표로 출전해서 어찌다 한 골 넣은 것이 축구선수로, 고향 원두막에서 통기타를 치며 후배들과 노래 몇 번 한 것이 기타리스트로 와전된 것이었다. 거기에다 아버지가 중학교 선생님이라는 배경도 한몫을 했다.

이 모든 것은 중학교 여자동창과 후배들의 입소문으로 알려졌다. 이걸 순전히 참새들의 너스레로 무슨 대단한 사람으로 소문이 난 것이었다. 내 스스로는 제대로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아무튼 이런 나의 변명은 씨알도 먹히지 않았고 학생들 누구나 가입하고 싶어하는 멤버가 된 것이다.

그리고 학생시인이라고 불렸던 내게 클럽이름을 지으라고 일임

했으며, 하숙집에 돌아와서 불어 사전을 뒤적이다가 지은 이름이 에트랑제 클럽이었다.

“광휘야, 클럽이름이 멋지다. 그런데 ‘에트랑제’(etranger) 이기 무슨 뜻이고?”

“음…, 불어로 말이야 ‘나그네’ 혹은 ‘이방인’이라는 뜻이지.”

클럽 작명의 소임을 받고 사전을 뒤적이다가 회원 전체가 시골에서 유학 온 학생들임을 감안해서 지은 것이다.

회원들은 이름이 멋지다며 좋아했고, 내 덕택에 불어 하나를 배웠다면서 회원이 아닌 다른 학생들마저도 이름을 들먹이며 킁킁했다.

다음날에도 출근하듯이 유도부장 황수문이 우리 교실로 찾아왔다.

“광휘야! 너는 인기가 많아서 니가 아는 여학생들 많지? 날씨도 덥고 한데 이번 주 일요일 날 어데 놀러가자.”

“내가 여학생을 많이 안다고? 하하하. 아닌데? 그런데 어디 놀러 가려고? 해운대? 광안리?”

“아니다. 부산시내 해수욕장은 교외지도선생님이 짝 깔렸다 카더라. 우리 클럽 멤버 중에 규율부장 최대성의 고향이 하동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가면 쌍계사라 카는 좋은 절도 있고 불알폭포 물이 정말 시원해서 좋다고 하더라.”

“뭐? 불알폭포? 폭포가 불알처럼 생겼는가보네? 하하하.”

그것은 불일폭포가 발음이 잘못되어 불알폭포로 둔갑한 것이었다.

“그라고 니 아는 여학생들한테 연락을 해서 함께 가도록 해보자.”

“야! 아는 여학생이 한둘 정도 있기는 하지만 집에 전화도 없는데 내일 모레 간다면 안 된다. 함께 가려면 편지 보낸 후 일주일 후에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여학생이 다니는 여고 정문 앞에 찾아가 던지. 그리고 너희들도 여학생 몇 명 정도는 알 것 아니냐. 특히, 악대부장은 더 많이 알거고.”

유도부장 황수문은 한참 동안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더니 말했다.

“참! 너희 하숙집 가시나 그거 참 늘씬하고 예쁘게 생겼는데 그 애한테 한번 말해 보라. 거절하면 설득시켜 보거라. 광휘야, 알겠제?”

유도부장 황수문은 저번에 우리 하숙집에 놀러 온 적이 있었는데 하숙집 딸을 관심을 가지고 몰래 관찰했던 듯 보였다.

“네가 우리 하숙집 여학생하고 아는 것 같은데 네가 오늘 와서 직접 말해보렴?”

“말은 한 번도 걸어 보지 못했어.”

유도부장 황수문은 내 말에는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이 부탁한다는 말만 남기고 자기 교실로 돌아가 버렸다.

평소 학교 수업은 밤 열시에 마치는데 그날은 교직원 중에 부친상을 당한 선생님이 있어서 전체선생님들이 문상 간다며 저녁 일곱시에 수업을 마쳤다.

나는 평소대로 하숙집으로 귀가했다. 하숙집에 오니 하숙집 딸 미영이가 마루에 앉아 발톱 손질을 하고 있었다. 미영이는 나를 힐끗 쳐다보며 말했다.

“오빠, 오늘 일찍 오네?”

“응, 너는 오늘 집에 있었던가보네?”

나는 흘러가는 말투로 말했다.

사실, 미영이와 나는 동갑이었지만 우리 집에 가끔 찾아오는 친구들이 나보다 서너 살 많다보니 내 얼굴이 앳되어 보이지만 저보다 나이 많은 학생처럼 보였던 것 같았다. 그리고 학년도 한 학년 위니까 당연한 것처럼 미영이는 나보고 오빠라고 불렀다.

미영이는 여학생으로선 큰 키인 170센티미터의 늘씬한 키에 얼굴도 계란형의 미인이었다. 또 인물값을 한다고 부산에서 부잣집 딸들이 많이 다닌다는 B여고의 미인클럽인 칠공주 멤버라고 했다. 칠공주클럽은 각 학년마다 있다고 했는데 미영이는 2학년 칠공주 멤버라고 했다. 칠공주 멤버들은 자긍심이 대단하다고 들은 바가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칠공주 멤버가 되려면, 신체조건은 신장은 168센티미터 이상에 늘씬해야하며 부잣집 딸이어야 자격이 되었다. 그리고 선후배들로부터 일곱 명의 멤버들이 인정을 받아야 진정한 칠공주클럽으로 탄생된다고 했다. 그러다보니 B여고에서는 가짜 칠공주클럽도 수도룩하게 탄생하기도 했는데, 그런 가짜 클럽은 교내에서는 칠공주 행세를 못하고 교문 밖에서 행세를 했다. 그런 가짜 칠공주들을 선별하는 방법은 이외로 간단했다. 일곱 명 중에 한 명이라도 뚱보나 키가 작은 여학생이 섞여 있고, 한 명이라도 미모가 턱없이 떨어져 보이는 여학생이 있고, 한 명이라도 빈티가 나는 가난한 집의 딸이 끼여 있다면 그건 가짜 칠공주클럽이라고 보면 틀림없었다. 그것은 인삼 더미 속에서 무를 찾는 것만치 쉬웠다. 칠공주클럽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부산시내에서 그 유명세를 모르는 남녀학생이 없을 정도였으므로 미영이의 자존심도

대단했다.

미영이 아버지는 외항선 선장으로 외국에 나가 있었는데 월수입이 보통 봉급쟁이의 일곱 배가 넘는다고 했다. 그래도 미영이 어머니는 남편이 배 위에서 고생해서 번 돈을 빈둥거리며 쓸 수 없다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숙을 치고 있었다.

나는 양치질을 마치고 미영이 곁에 앉으며 말했다.

“미영아! 이번 일요일 뭐하노?”

한동안 대꾸도 없던 미영이가 손톱 찌꺼기를 후후 불며 말했다.

“오빠야, 내가 내일 뭐 할 건지 한번 맞춰봐.”

“내가 뭐하는지 내가 어찌 알겠어?”

“음..., 우리 친구들끼리 극장 가기로 되어 있다 아이가. 그런데 내가 무얼 하던 그런 걸 오빠가 왜 묻는데?”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밀져야 본전이다 싶어서 말을 꺼냈다.

“미영아, 우리 친구들이 이번 주 일요일 날 하동 간다 아이가. 전 체수석에다 총학생회장인 친구랑...”

나는 자랑스럽게 말을 했는데 미영이는 대뜸 말했다.

“오빠야, 나는 공부 잘하는 학생은 멋대가리가 없어 재미없고 학 생회장들은 잘난 척 많이 해서 싫더라.”

그 말을 한 후 내가 말하기도 전에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마음속으로 ‘뭐 저런 가시나가 다 있어. 공부 잘하는 것도 안 좋다고 하니. 허긴, 저 자신이 머리가 비었으니 그렇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미영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무안해하며 내방으로 돌아왔다.

내 방 문 앞에는 오늘도 전국각지에서 보내온 많은 편지가 쌓여

있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월간으로 나오는 잡지 샘플을 비롯해서 비슷한 잡지에 장난삼아 수필이라고 글을 보냈었는데 독자들이 글을 읽고 편지를 보내 왔던 것이다.

출판사에서는 글을 쓴 사람의 이름을 수필 끝 말미에 적고 주소까지 적어 놓았는데 그것을 보고 독자들이 편지를 보내오는 것이 하루 평균 오십 통이 넘었다.

나는 편지를 읽어보고 글씨가 반듯하다든지 수려한 문장과 애절한 사연이 담겨있는 몇몇 사람들에게겐 답장을 해주었지만, 필체가 개발새발이거나 맞춤법이 엉망이거나 농지거리 위주의 편지는 한 쪽에 분류한 후 이튿날 학교에 들고 가서 학급 급우들한테 나눠줬다.

“너희들, 편지를 읽고 답장해서 애인 하나 만들어 보렴.”

이런 편지가 매일 같이 오니 나중에는 귀찮아서 읽어보지도 않고 방문 밖에 방치해둔 후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렸다.

나는 그런 편지를 읽다가 문득 생각했다.

‘미영이가 공부 잘하는 학생은 싫어한다. 왜 그럴까? 그래 맞아. 미영이는 밤늦게 고고장에서 놀다가 통행금지 시간대에 집으로 후다닥 달려오는 경우가 허다 한 점, 그리고 항상 제 방에서 크게 틀어놓는 팝송 음악소리,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몇 번이고 야단을 들었고 야단 들어도 계속 팝송음악을 고집하는 점, 이런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미영이는 음악을 엄청 좋아하는 게 맞아.’

이쯤 생각에 도달한 나는 다시 문을 열고 미영이 방 앞으로 갔다.

오늘도, 내게는 생소한 어떤 팝송을 틀어 놓고 흥얼거리며 춤을

추는 미영이의 모습이 유리 창문에 비쳤다.

“미영아! 미영아! 미영아!”

세 번 정도 크게 불렀을 때 비로소 미영이는 음악을 끄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문을 열었다. 그리곤 대뜸 쏘아붙였다.

“오빠, 요즘 바람났어? 고3 학생이 공부는 하지 않고 펜팔이나 한다면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는 줄 알아? 요즘 왜 그래? 나야 대학을 포기했지만 오빠는 공부도 잘 한다며?”

미영이는 제법 어른처럼 야단을 치고 있었다.

“뭘? 무슨 펜팔?”

“몰라서 물어? 매일같이 편지가 그렇게 오는데 시침 떴고 있노?”

“아하! 그것 때문에 오해를 했나보네. 잠시 기다려봐.”

나는 내 방에서 편지뭉치를 들고 와서 미영이 팔을 이끌고 마루에 나란히 걸터앉았다.

“그것은 말이야. 이것 땀에 그린 거야.”

나는 샴터 책이며 기타 잡지에 실린 내 글을 미영이에게 펼쳐보여 주었다. 미영이는 그때서야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사를 터트렸다.

“우와!! 오빠는 글도 잘 쓰네. 그렇다면 국문과 가서 소설가나 시인하면 되겠네.”

미영이는 신기한 듯 빙그레 웃으며 책을 뒤적거렸다. 나는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말했다.

“미영아, 일요일 하동 갈 때 우리 학교 악대부장도 함께 가는데 가지 않을래?”

“뭘!? 악대부장? 지휘자 말이제!? 그 오빠도 같은 클럽이가?”

미영이는 악대부장이 같은 클럽이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으쓱해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암, 물론이지.”

미영이의 뜻하지 않은 반응에 나는 천연덕스럽게 앞산을 쳐다보면서 과시하고 있었다.

이젠 미영이가 바쁘기 시작했다. 자기 방에 들어가더니 과자며 과일을 들고 나와서 내 무릎 가까이에 바짝 달라붙었다.

“오빠! 악대부장 나한테 소개 시켜 줄 수 있어?”

나는 능청스럽게 너스레를 떨었다.

“미영이 네가 하는 행동을 좀 보고.”

미영이는 안절부절 못해하며 안달이 났다.

사실 그렇다. 미영이뿐만 아니라 악대부 지휘자는 남녀학생 모두로부터 대단한 인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 중에 우리학교 악대부지휘자 이우성은 흰칠한 키에 서구적인 외모를 가진 미남이어서 더 많은 인기와 관심을 받았다. 그런 이면에는, 다른 학교의 악대부는 군의장대 복장인 반면 우리 학교 악대부의 복장은 영국황실 근위병 같은 약간은 고전적이면서 세련된 복장이었고, 다른 학교 악대부가 대부분 금관악기인 반면에 우리 학교 악대부는 금관악기뿐만 아니라 목관악기며 현악기까지 두루 갖춰서 음악수준도 부산에서 최고였다.

전국 브라스밴드대회는 물론 서울의 유명대학에서 개최되는 음악콩쿠르에 출전해서 개인 수상자들도 많이 배출했고 단체상은 거의 다 휩쓸 정도였다. 오보에를 잘 연주하는 악대부장은 출전하는 곳마다 개인 금상을 수상했고 단체 연주를 할 때는 지휘자로서 유

감없는 실력을 발휘했다. 그래서 악대부장이 실력도 대단하고 멋있게 생겼다고 소문이 자자했었다.

부산 3부두에서의 월남 파병 환송식, 학교대항 스포츠 행사, 구덕 운동장에서 매년 시행되는 학도호국단 시범대회, 수출 천만 불 달성 기념행사 플레이드 때 부산 시내를 행진할 때면 어김없이 우리 학교 악대부가 제일 앞쪽에 섰었다. 거기다 흰칠한 키에 이국적인 외모를 갖추고 금빛 찬란한 큰 지휘봉을 휘두르며 간혹 하늘 높이 던졌다가 빙빙 돌리며 지휘하는 악대부장 이우성의 그 멋진 품은 남학생도 탄복을 하는데 여고생들이야 오죽하랴 싶었다. 발을 동동 구르고 괴성을 질러대면서 생난리를 피웠다. 여학생들은 오줌을 질 질 싸고 미쳐버린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듯하다.

미영이의 적극적인 반응에 나는 마치 선생님이 학생에게 지시하는 어조로 말했다.

“하동 가는 열차가 부산역에서 아침 여섯시 반인데 여섯시까지 대합실 앞 광장으로 와라. 알겠제?”

나는 그렇게 목소리를 깔아서 말을 남긴 후 내 방으로 와버렸다. 왜냐면 별경계 달아 올라있는 미영이에게 미주알고주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드디어 일요일 아침 먼동이 밝았다.

도대체 미인들의 결성체인 칠공주 멤버들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증도 생기고 빨리 보고 싶어서 밤새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 기분은 나뿐만 아니라 에트랑제 회원들도 모두 뜯눈으로 밤을 새웠다고 했다.

그만치 칠공주 멤버들은 남학생들에겐 선망의 대상이었고 얼굴

이라도 한번 보았으면 하고 안달들이었다.

학교에서는 일체 비밀로 하고 부산역에서 각각 만나기로 했다. 이른 아침 눈을 뜬 후 칫솔을 물고 세면장에 가는데 아래층에서 미영이 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렸다.

“미영아! 가시나 이거 어데 간다고 그릇을 차면서 새벽부터 생난 리고?”

미영이가 까치걸음으로 방문을 나서다가 그릇을 발로 차버린 듯 그 소리에 놀라 선잠에서 깨어난 미영이 어머니가 방을 나오며 내지른 섯소리였다.

때마침 세면장에서 세수를 하고 나오는 나를 훑어보던 미영이 어머니는 내게도 관심어린 어투로 말했다.

“학생 니는 또 어데 간다고 새벽부터 세수하노?”

“저는 고향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부모님 뵈 지도 오래되고 보고 싶기도 하고예.”

나는 능청스럽게 대답했다.

“그래 맞다. 자식이 부모가 보고 싶은 거는 당연한기다. 그런데 우리 미영이 가시나 저거는 앞으로 뿔이 되려고 하는지 한시도 집구석에는 안 붙어 있고 자꾸 기어 나가기만 하니 미치겠다.”

미영이 어머니는 나를 잠시 기다리게 한 후 방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더니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손에 쥐어 주었다.

“부모님한테 가면서 과자라도 한 봉지 사가지고 가거라.”

나는 거짓말을 한 터라 멧쩍게 받아들고 대문을 나섰다.

나팔백마지로 멧을 잔뜩 부린 미영이는 먼발치의 전봇대 뒤에서 나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듯 샅쭉한 표정으로 쏘아 붙였다.

“오빠, 뭣 한다고 이제 와? 우리 엄마가 오빠에게 뭐라 카더노?”

“미영이 너하고 놀러 간다고 말씀드렸더니 용돈까지 주시면서 잘 데리고 다니라고 했어.”

나는 미영이 어머니한테 받은 지폐를 호주머니에서 꺼내어 흔들어 보이며 말했다.

“피, 거짓말 하고 있노.”

나는 며칠 전에 이웃집에 맡겨둔 기타를 찾아서 메고 미영이와 함께 버스에 올랐다.

부산역에 도착하니 에트랑제 회원들은 벌써 다 모여 있었다. 부산역 앞 광장 한편에 서 있던 여학생 무리들은 미영이를 보자 손을 높이 치켜들고 흔들었다. 멀리서 봐도 금세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미영이 같이 늘씬한 키에 뽀얀 피부를 가졌고 미인으로 보이는 여학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나와 함께 도착한 미영이는 그 쪽을 보더니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고 여학생들도 환호로 답했다. 그리고 맞은편 쪽에서는 우리 에트랑제 회원들도 웅성거리면서 모여 있었는데 회원 중 네 명은 담배연기를 푹푹 내고 있었다. 나는 에트랑제 회원 쪽으로 다가가면서 칠공주들을 힐끗 살펴보았다.

여학생들의 외형을 살펴보니 앞머리는 드라이로 약간 감아 돌렸고 얇은 화장을 한 생얼굴들이었다. 바지는 미영이를 비롯한 두 명은 나팔백바지, 한 명은 청바지, 나머지 네 명은 초미니 치마를 입고 있었다. 상의는 백화점에서 사 입은 듯 세련된 연한 청색, 미색과 핑크색 셔츠를 각각 입고 있었고 모두들 색상이 밝은, 얇은 실크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선글라스까지 끼고 있었다. 그런 복장을 하고 있

는 칠공주를 보니 눈이 부셨다. 마치 유명 여배우들을 보는 듯해서 황홀감까지 들었다. 광복동 변화가와 가까운 중앙동에 학교가 있으니 멋을 안다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에트랑제 회원 쪽으로 다가오면서 면면을 살펴보았다.

학생회장이자 전체수석인 박성곤은 깡마른 체격에 키도 작고 검은 돋보기 안경테에 얼굴 표정이 없는 딱딱한 공무원 스타일, 유도부장 황수문은 뽕뽕한 체격에 걸음걸이가 일본 스모선수처럼 터벅 터벅 걷는 걸음, 학예부장 김병헌은 금붕어처럼 눈알이 튀어나와 있어 처음 봐도 웃음이 절로 나오는 외모다.

럭비주장 임대근은 얼굴이 검게 타고 어깨 폭이 보통 사람의 두 배 두께로 누가 봐도 마치 수령이 오래된 고목 같은 체격, 규율부장 최대성은 보통 체형에 검게 탄 얼굴을 가졌으나 날카로운 눈빛을 가져 간간한 형사 스타일, 악대부장 이우성은 늘씬한 큰 키에 외국 영화배우처럼 오뎅한 콧날에 좁쌀여드름 하나 없는 깔끔한 피부를 가진 젠틀맨 스타일이다. 끝으로 나는 귀공자처럼 피부가 뽕뽕하고 서글서글한 큰 눈으로 왕눈이라 불렸고 교내 3대 미남으로 불려졌다.

에트랑제 회원들은 각양각색의 외모처럼 성격도 제각각으로 달랐고 오늘 입고 온 복장도 여러 형태였다. 절반씩 교련복 바지와 청바지였지만 상의는 교련복에서 흰색의 티셔츠와 트레이닝 복장 등 제각각이어서 촌스러웠다. 단지 악대부장과 나만 달랐는데, 악대부장은 미색 나팔바지에 깃이 세워진 흰 셔츠를 입었고 나는 비둘기색 기지바지에 흰 셔츠를 입었다. 외모는 물론 복장에서조차 에트랑제 회원과 칠공주는 농사짓는 촌놈과 세련된 도회지 아가씨처럼 큰

대조를 보여 주고 있었다.

에트랑제 회원은 복장만큼 외모도 개성이 있었던 반면 여학생들은 비슷비슷한 미모에 세련된 복장을 갖추고 있어서 어느 누가 파트너가 되어도 좋다는 눈치들이 에트랑제 회원들 눈에 비쳤다. 반면에 칠공주들은 실망에 찬 눈초리로 에트랑제 회원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칠공주들 속에 섞여 저만치에 서있는 미영이에게 손짓을 하며 말했다.

“미영아, 너희 친구들하고 이쪽으로 온나. 우리가 짐이 좀 많아서 그렇다.”

나는 색소폰이며 드럼 등이 있는 짐 꾸러미를 보라며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내 말에 칠공주들은 우리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다. 바람에 머리카락을 나풀거리며 걸어오는 그녀들의 모습은 마치 해변을 걸어가는 멋진 여배우처럼 보였다.

칠공주들이 우리 앞쪽으로 가까이 왔을 때까지 우리들은 칠공주들의 미모에 홀려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 반면 칠공주들은 각양각색의 외모와 복장을 갖춘 우리들이 우습게 보였는지 웃음을 참지 못하고 손으로 입을 막으며 키득댔다.

머쓱해진 순간 학예부장 김병현이 한 여학생에게로 다가서더니 갑자기 손을 내밀었다. 순간 당황한 여학생도 영겁결에 손을 내밀어 악수를 받았다.

“에…, 저는 K고교 뽕소룡입니다. 헤헤헤.”

“지는 B여고 김봉자입니다. 호호호.”

갑작스럽게 두 사람이 서로를 소개하고 있는데 칠공주 중에 한 명이 맨 처음 자기소개를 했던 학예부장 김병현을 보면서 물었다.

“무슨 성이 그런 성도 있나요? ‘뽕’씨도 있나요?”

그 말을 들은 에트랑제 회원들은 한바탕 크게 웃었다.

학예부장 김병현은 수학여행은 물론 교내 행사 때 마이크를 잡았다 하면 몇 시간이고 입담과 개그동작으로 좌중을 웃음바다를 만들어 버리는 재주를 가졌다. 특히 운동이라고는 전혀 할 줄 모르면서도 각종 무도의 품세를 똥 폼으로 근사하게 모두 표현하며 웃겼다.

그 중에서도 이소룡의 흉내는 영락없이 꼭 같아서 ‘뽕소룡’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한동안 우리들이 히죽거리고 있는데 학예부장 김병현이 웃음을 멈추게 한 후 에트랑제 회원 쪽을 가리키며 칠공주들에게 한사람씩 소개를 했다.

“예뻐, 제가 데리고 온 아우들입니다. 우리 아우들이 오늘 여행을 하면서 잘못하는 점이 있더라도 야단치지 말고 구타하지도 말고 잘 데리고 노세요. 헤헤헤.”

그때 박초혜라는 여학생이 내 이름을 들먹이며 머리를 가우똥거렸다.

“전광휘?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인데?”

그럴 즈음 학생회장 최대성이 차표를 구입해서 우리 쪽으로 황급히 달려와서 십분 후에 열차가 출발하니 빨리 승차하자고 다그쳤다.

“순천행 완행열차가 곧 발차 합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모두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끄럽게 방송하는 여자 안내원의 말을 들으며 우리들은 줄을 지어서 객차에 올랐다.

열차에서 자리를 잡고 짐들을 화물간에 올리고 있을 쯤에 열차는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에트랑제 회원과 칠공주들은 각각 따로 자리를 잡고 있어서 양쪽의 대화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었다.

어쩌다가 서로가 눈이 마주치면 어색해했다. 이런 점을 간파한 학예부장 김병헌이 여학생 쪽을 쳐다보면서 말했다.

“부산역 앞에서 여학생들 소개 중에 김봉자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김봉자가 누구시더라?”

자기 이름을 기억한 점에 놀란 김봉자는 얼굴이 발개지면서 에트랑제 회원과 칠공주를 번갈아 쳐다보며 말했다.

“어머나! 제 이름을 기억하시네요? 그런데 왜 불렀어요?”

“엄마가 봉자씨 낳다가 방귀를 ‘뽕’ 끼었나요? 그래서 ‘뽕자’지요? 맞죠?”

학예부장 김병헌은 표정하나 바꾸지 않은 채 좌중을 둘러보면서 말한 후 나를 쳐다보며 눈을 깜짝거렸다.

학예부장의 생뚱스런 말에 처음엔 모두들 어색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그만 열차 안이 떠나갈듯 웃음이 폭발하고 말았다.

우리들이 웃고 떠드는 속에서도 미영이는 조신한 자세로 악대부장 이우성을 관심 깊게 쳐다보기도 하고 가끔 눈웃음을 보내고 있었다.

그럴 즈음 부산역 광장에서 내 이름을 언급했던 박초혜가 무엇인가 떠올랐다는 듯 말했다

“저 좀 보세요. 김해에 사는 최송자 아세요?”

“최송자 !?”

나는 최송자라는 이름에 놀라워하면서 고향의 중학교 한 해 후배인 최송자를 생각했고 함께한 칠공주들이 다니는 학교를 떠올리니 금방 감이 잡혔다. 한편으로 생각하기를 최송자가 얼마나 나에게 대해서 참새처럼 조잘거리며 떠벌렸기에 저 여학생이 내 이름을 기억해 냈을까 싶었다. 나는 대답은 하지 않고 싱긋이 웃고만 있었다.

“맞죠? 알고 있죠?”

박초혜는 마치 잃어버린 누군가를 다시 찾은 양 기뻐하면서 다시 확인하듯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있었지만 에트랑제 회원들은 나와 같은 고향이니 맞겠다고 대신으로 답해 주었다.

잠시 후에 화장실에 갔다 오던 학예부장 김병헌이 김봉자가 앉아 있는 자리를 비집고 앉았다. 그러자 틈에 끼인 미영이가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이때다 싶어서 미영이에게 말했다.

“미영아, 내 앞쪽에 앉아라.”

좌증을 들러보던 미영이는 얼굴을 붉히면서 악대부장 이우성 곁에 수줍듯 앉았다.

미영이 얼굴에는 긴장한 듯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나는 미영이가 저렇게 당황하고 부끄러워하며 얌전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기는 처음이어서 웃음까지 나왔으나 꼭 참고 있었다.

항상 사내아이처럼 집에서 거칠게 행동하던 미영이가 저렇게 요조숙녀처럼 행동을 하니 딴 사람 같이 느껴졌다.

학예부장 김병헌이 김봉자 곁에서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 소곤거린 후 두 손을 모아 소리를 내면서 말했다.

“이제 조용들 해라! 보자꾸나. 지금부터 짝공을 만들어야겠는데, 조금 전에 어떤 여학생이 부산역에서 출발할 때부터 전광휘 이름을 들은 적 있다는 등 누구를 아느냐며 자꾸 물어 샀던데 관심이 있으면 그렇다고 말 할 일이지 괜히 수작 부리지 말고 광휘 곁에 가세요.”

박초혜는 손으로 입을 막고 나를 힐끗 쳐다보고 웃었다.

“빨리 좋은 말 할 때 옆자리로 가세요. 시침 떼지 말구요.”

그래도 웃기만 할 뿐 가만히 앉아 있는 박초혜를 보면서 은근히 겁을 주듯이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아직 짝을 못 정한 눈치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짝이 없는 다섯 명은 짝을 정하는 가위 바위 보를 하겠습니다. 이긴 사람은 마음에 드는 사람 곁으로 가면 됩니다.”

학예부장 김병헌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박초혜는 후다닥 달려와서 내 곁에 앉았다. 급하게 옆으로 와서 앉는 바람에 초혜의 봉긋한 가슴이 뭉글 부딪쳤다.

“그러면 그렇지. 짝지 빼앗기면 어찌하려고. 헤헤헤.”

짝지가 없는 네 명은 가위 바위 보로 짝을 모두 정했다. 열차에 승차하면서 자연스럽게 짝이 정해진 학예부장 김병헌과 악대부장 이우성 그리고 나를 제외한 나머지 세 명은 각각으로 학생회장 박성곤은 김태자, 유도부장 황수문은 봉말순, 럭비주장 임대근은 양경숙, 규율부장 최대성은 송혜림 그렇게 짝공이 만들어졌다.

열차는 물금역을 거쳐 원동역을 지나가고 있었다.

“다음 정차 역은 삼랑진역입니다.”

열차내 안내방송이 나올 무렵 봉말순이 남학생들을 훑어보면서 말했다.

“그런데 정말로 학생들이 맞습니까?”

우리들은 봉말순이 묻는 의중을 금세 알아차렸지만 못 들은 척 하면서 탄전을 피웠다.

“앞에 앉은 전광휘오빠 말고는 전부 늙어서 물었어예.”

봉말순은 조금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눈은 정확했다.

에트랑제 회원 중에 나만 유일하게 일곱 살 때 입학하고 단 한 번도 재수를 하질 않았지만 에트랑제 회원들은 여덟. 아홉 살에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중고교 진학 때 재수, 삼수를 하다 보니 나보다 평균 서너 살이 더 많았다. 심지어 학생회장 박성곤과 규율부장 최대성은 군대 영장까지 받은 상태고 신체검사도 나 말고는 모두 받았다.

더구나 면도기마저 귀해서 말끔하게 면도하고 다니는 학생들 모습이 더 드물었다. 어떤 학생은 수염이 징그럽게 많이 돌아난다며 손톱깎이로 아예 수염을 뽑아 버리곤 했다.

그런 점은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학교에 초임교사로 오신 선생님들이 한두 해가 지난 후 회고한 바를 떠올리면 상상할 수 있다.

“내가 발령받아서 처음 교단에 섰을 때 수업에 들어가면 뽀뽀머리에 수염이 쭈뼛쭈뼛 돌아난 덩치 큰 학생들이 수업을 듣다가 이해가 안 간다며 인상을 쓰면서 질문을 한다든지 짜려보면 겁이 났음은 물론이고 마치 교도소에서 수감자를 대상으로 교화활동을 하던 기분이었다.”

그렇게 학교에는 늙은 학생들이 많았다. 일류고교는 일류고교대로 몇 번의 도전 끝에 진학했던 학생들로 인해 그러했고, 이 삼류고교는 일류고교에 진학하기 위해 몇 번 도전했다가 낙방 끝에 진학

을 했기에 또 그러했다.

그래서 에트랑제 회원들은 학교간의 우월을 드러내는 배지를 없애야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한국에 수학여행 온 일본 학생들이 두 발이 자유화인 것을 보고 무척 부러워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일반인까지 장발을 단속하는 정부를 이해하지 못했다.

아무튼 봉말순의 말을 들은 규율부장 최대성이 통명스레 말했다.

“우리 더러 학생들로 안 보인다고 하니 우리보고 오빠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냐? 지금부터 반말해도 되겠제? 그리고 너희들은 여고 2년이고 우리는 고3이니까 반말해도 괜찮제?”

칠공주들은 규율부장 최대성이 반말을 쓰겠다고 하니 기분이 언짢았는지 못들은 척 하면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분위기가 서먹해진 것을 눈치 챈 학예부장 김병헌이 좌중을 살피며 말했다.

“그러지 말고 차라리 우리가 누나라고 부르자. 응?”

에트랑제 회원들은 일제히 큰소리로 외쳤다.

“누나야!!”

우리들이 외치는 소리에 놀란 승객들은 별떡 자리에서 일어나 놀란 눈으로 우리 쪽을 쳐다보았다.

그 중에 럭비주장 임대근은 한 술 더 떠서 키득거리며 말했다.

“누나야, 짓 좀 쥐!”

능글맞게 놀리는 에트랑제 회원들을 바라보던 양경숙은 냉랭한 표정으로 말했다.

“징그러운 소리 그만하고 놀이 한번해요. 사치기사뽀뽀 놀이 알죠?”

“대상은 뭔데요?”

“바다고기 이름 연결하기. 어때요?”

에트랑제 회원들이 일제히 찬성하자 칠공주 측에서 벌칙부터 제안했다.

“지는 쪽에 벌칙으로는, 칠공주가 이기면 에트랑제 회원의 이마에 손가락 튕기기, 에트랑제 회원이 이기면 칠공주의 팔뚝에 손가락 하나로 때리기 어때요, 괜찮죠?”

모두들 좋아라하며 찬성하자 곧바로 김봉자가 먼저 운을 뚫다

“자, 시작해볼까요? 사치기 사치기 사뽀뽀.”

“고등어(여학생), 멸치(남학생), 볼락(여학생), 명태(남학생)”

이런 방식으로 계속 진행되었다.

농촌과 산촌에서 모두 자란 에트랑제 회원들이 아는 고기 종류는 한정되어 있어서 자주 끊겼었고 그때마다 이마에 손가락으로 맞아서 흑이 별경게 생기기 시작했다. 그 반면 칠공주들은 한 사람도 물고기 이름을 몰라서 어물쩍거리는 경우가 없었다.

훗날에 초혜로부터 들었던 바에 의하면 칠공주들은 우리들이 시골에서 유학 왔던 촌놈인 것을 미리 파악해서 바닷고기 이름을 제안했다고 귀띔해 주었다.

사실 횃집에서 회를 즐겨 먹거나 찾는 부류는 생활정도가 상류층들이었는데, 칠공주들은 그에 해당하는 부류였지만 나를 비롯한 에트랑제 회원들은 횃집 구경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나뿐만 아니라 에트랑제 회원들 모두는 이마가 빨개졌고 흑이 봉긋하게 돌아 올랐다. 나는 부어오른 흑을 만지면서 다른 방법으로 골탕 먹이는 방법이 없을까를 골뜩히 생각한 것이 문화가 이름을

대면 시의 제목이나 소설책 이름을 대는 게임을 생각해내면서 제안을 했다.

“잠깐 스톱! 이제는 바다 고기이름 대답하기는 그만하고 이런 것 한번 해보는 게 어때?”

내가 궁리한 것을 제안했더니 칠공주 두 명과 에트랑제 회원 두 명이 어렵다고 반대했다.

나는 예를 들어주면서 쉽다는 말을 강조했다.

“들어봐. 만약에 ‘김소월’ 하고 운을 떼면 ‘진달래꽃’ 하면 된다 아이가.”

“이육사라 하면 ‘청포도’, ‘괴테’ 하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하면 된다 아이가. 모두 교과서에 나오는 거잖아.”

이렇게 쉬운 방식으로 말하자 모두들 쉽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찬성했다.

“그렇다면 사치기사뽀뽀 출발하자.”

김소월, 김영랑, 이육사, 조지훈, 심훈 등 교과서에 나오는 시인이거나 소설가의 이름은 쉬운 듯 척척 이어갔다. 에트랑제 회원 쪽에서도 괴테, 헤밍웨이, 셰익스피어, 살롯 브론테, 앙드레지드, 톨스토이 등 서로가 거침없이 이어갔다.

그런 순간마다 이젠 칠공주 쪽에서 해답이 가끔씩 끊겨 여학생들의 팔뚝이 별장게 부어올랐다.

에트랑제 회원들이 웃음을 참느라고 애써 표정관리를 하고 있을 때 칠공주들은 자존심을 되찾고 싶은 듯 필사적인 대응을 보였는데 느닷없이 만화가 고우영씨 이름이 튀어 나왔다.

에트랑제 회원들은 그 사람은 문학가가 아니고 만화가라 했고 칠

공주들은 만화가도 문학가라고 주장을 폈다.

에트랑제 회원들은 결국 주장을 철회하고 애교로 맞아주자고 코맹맹이 소리로 말했다.

“노래가사를 쓰는 작사가도 시인이라고 하니 맞네. 때려줘요 잉.”

에트랑제 회원들은 의살스런 표정을 띠며 이마를 칠공주들 앞으로 내밀었다.

고기 이름 연결하기와 문학가 이름 연결하기 두 게임에서 계속 오답을 말한 에트랑제 회원은 유도부장 황수문과 럭비부장 임대근이었고, 정답을 모두 맞힌 사람은 학예부장 김병현이었다. 칠공주 중에서 제일 오답을 많이 낸 사람은 김봉자와 봉말순이었고 정답을 모두 맞춘 사람은 박초혜였다.

학예부장 김병현은 팔뚝이 통통 부어 오른 칠공주와 이마가 발개진 에트랑제 회원들을 번갈아보면서 놀리듯이 말했다.

“아가들아! 공부해서 남 주나! 공부 좀 해라. 통행금지에 목숨 걸지 말고. 아! 그리고 이 촌놈들아! 형편 되거든 횃집에 가서 회 좀 사 먹어라. 하하하.”

한바탕 소란을 피운 우리 일행들은 놀이를 중단하고 잠시 휴식에 들어갔다.

“자! 오징어나 땅콩, 계란도 있습니다.”

홍익회 재단에서 운영하는 이동장사가 앞쪽 객차에서 문을 열고 이동식 수레를 몰고 덜커덩 소리를 내며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야! 우리 뭐 좀 사먹자. 하도 웃고 떠들었더니 배가 고프다.”

“아저씨, 이쪽으로 와보이소.”

에트랑제 회원들은 이동수레에 실린 계란을 몽땅 다 사버렸고 칠

공주들은 땅콩과 오징어를 절반씩 샀다.

에트랑제 회원들과 칠공주들이 꼬집어낸 돈은 형태조차 판이하게 달랐다. 에트랑제 회원들의 돈은 주글주글했고 각자가 내놓은 돈 종류는 전부 천원권이었던 반면에, 칠공주들이 내놓은 돈은 지갑에 반듯하게 정리된 돈이었으며 지갑 속에는 대부분 오천원권의 지폐로 채워져 있었다.

“어이쿠! 기죽네.”

김병헌은 도다리 눈으로 칠공주들의 지갑을 훑쳐보면서 말했다.

나는 훗날에 70년대의 화폐를 떠올리면 돈 종류가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가끔 조폐공사에서 우리나라 돈의 변천사를 보여주었을 때 내가 사춘기 때 사용했던 돈의 모양과 색상은 전혀 생각나질 않았다. 그런 내 모습은 마치 치매 걸린 노인 같았다.

그것은 돈이 생길 때면 빵이나 자장면 등을 사먹는데 더 급급했던 관계로 호주머니에 돈이 붙어 있을 때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열차 화장실에 소변보러 가니 학예부장 김병헌과 럭비 주장 임대근이 차례를 기다리며 킬킬거리고 있었다.

“아까 전에 사치기사뽀뽀 놀이 하면서 미니스커트 입은 칠공주들이 웃는다고 정신없을 때 칠공주 한 명의 팬티 보았어. 꽃무늬 팬티더라. 히히히.”

“나도 보았다.”

“언제 보았는데?”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칠공주들 몸매 감상한다고 정신이 없었는데 광휘 너는 사치기사뽀뽀에 목숨을 걸고 있더라. 거기에 밥이 나오나 뭐가 나오니? 하하하.”

“그리고 보니 나만 안 보았구나. 나도 이번에 앉으면 살짝 봐야지.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다시 웃게 할 수 있을까? 하하하.”

나는 칠공주들의 팬티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지만 달리 방법은 생각나지 않았다.

학예부장 김병헌과 럭비주장 임대근이 화장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이유가 다른 곳에 있었다. 칠공주 팬티를 보고 흥분이 되어서 자위행위를 했다고 귀띔했다.

열차는 창원역을 통과하고 있었다.

창원역에서 탑승한 학생 혼성 그룹들이 객차 꼬트머리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들 학생 그룹은 노래에 무슨 한이라도 있는 양 자리를 잡자마자 남진노래 ‘님과 함께’를 불러 제쳤다.

우리들은 포래의 학생들이 노래하는 방향으로 모두 시선을 옮겼다.

뒤쪽으로 목을 빼고 일어섰던 미영이가 자리에 앉으면서 말했다.

“오빠! 이제는 놀이 그만하고 우리도 노래 부르자.”

“맞다. 광휘야, 기타 한번 튕겨 보라, 응?”

학예부장 김병헌이 짐칸에 얹어놓은 기타를 내려주면서 말했다. 기타를 전달 받은 나는 기타 커버를 벗겨낸 후 음을 조율하기 시작했다.

‘딩, 동, 디기딩’ 작은 플라스틱 피크를 가지고 힘껏 두들겨보기도 하다가 ‘도레미파’ 음을 체크하기도 했다.

“칠공주들은 팝송 부를 줄 아나요?”

“무슨 노래를 잘 쳐요?”

“비틀즈, 쓰리도그나이트, 씨씨알그룹, 탐 존스, 클리프리차드 등의 노래 부를 줄 아나요?”

“호호호. 요즘 그런 팝송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그랬다. 공부벌레 학생이든 농땡이 학생이든 상관없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듣기를 좋아했다. 특히 ‘한밤의 음악편지’, ‘별이 빛나는 밤에’ 등에서 나오는 팝송을 누구나 듣고 있었다. 팝송을 더 많이 좋아하는 학생들은 우리말로 음을 종이에 적어서 따라서 부르곤 했는데 스펠링은 약간 엉뚱한 점이 있어도 다들 그렇게 재미있게 불렀다.

다른 학생들 팀에서는 옛날노래가 한참 불리지고 있었다.

“두만강 푸른 물에 노 젓는 뱃사공…”

나는 음울 조절을 마친 후 조용한 팝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The house of rising sun, el condor pasa, Green green grass of home. Scarborough fair, Don't forget to remember me, Let it be me….

팝송은 계속 이어졌는데 칠공주들은 정말 잘 불렀다. 도리어 에트랑제 회원들보다 몇 수 위로 보였지만 에트랑제 회원들도 그런대로 잘 불렀다. 뒤쪽에서 흘러간 옛 노래를 부르던 학생들은 노래를 멈추고 우리 쪽으로 쳐다보더니 한 여학생이 난전의 장사치처럼 큰 목소리로 말했다.

“야! 우리들 쪽팔려서 노래 못하겠다야. 저쪽에서는 고상하게 팝송을 부르는데 우리는 뭐꼬. 쪽팔리게.”

그 소리를 듣고 있던 규율부장 최대성이 말했다.

“광휘야! 신나는 팝송 한번 때려 봐라. 칠 줄 아는 거 있지?”

나는 슬로우고고풍에서 고고 재즈 같은 비트풍의 음악을 바꿔서

치기 시작했다.

Keep on running, Shanghai twist, Wooly bully, Diana, Dizzy, ...

노래는 계속 이어졌다. 에트랑제 회원은 물론 칠공주들까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고고춤을 추기 시작했다.

다른 일행들은 모두 서서 춤을 추는 반면 악보를 봐가면서 기타를 쳐야하는 나만 앉은 상태였다. 덕분에 친구들은 꽃무늬 팬티만 보았다지만 나는 미니스커트 입은 네 명의 여학생들 팬티를 모두 다 볼 수 있었다.

꽃무늬 팬티는 물론 땡땡이팬티, 빨강팬티, 줄무늬팬티를 모두 훑쳐 볼 수 있었다.

특히 박초혜의 줄무늬 팬티를 보고는 기타를 튕기던 손가락이 잠시 굳어 버리기도 했다.

노래는 쉬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 닐 다이아몬드의 ‘solitary man’을 부를 때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다른 학생 팀들까지도 덩달아 신이 난 듯 일어나서 고고춤을 추었다.

분위기가 최고조로 올랐을 쯤 함안역을 훌쩍 뛰어넘고 있었다. 부산역에서 하동까지 완행열차는 세 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했으니 앞으로 삼십분 정도만 가면 하동역이다.

열차 이동장사가 우리 쪽으로 다가와서 우리들이 마신 사이다병이며 과자봉지와 계란껍질 등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었다. 이동장사 아저씨는 우리들을 보면서 눈웃음을 치며 말했다.

“학생들처럼 그렇게 놀이며 노래도 잘하고 멋지게 노는 팀은 처음 본다.”고 말한 후 살짝 윙크까지 보냈다.

우리들은 잠시 노래를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들녘의 벼들은 후끈거리는 무더위가 좋은 듯 가쁘게 성장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출산에 임박한 산모가 진통의 고통 속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 모습 같았다. 벼들은 수잉기에 이미 접어들었음을 알리듯 간간히 스쳐가는 바람에도 휩쓸리지 않고 묵묵히 서 있었다.

그렇게 끙끙 앓는 벼들과는 달리 고추잠자리 암수는 노닥거리느라 정신이 없었다. 수컷이 여섯 개 다리로 암컷의 몸을 살쭉살쭉 터치하면서 애정을 표시하는 모습은 마치 우리들의 모습 같았다.

우리들도 지금 저기 고추잠자리처럼 각자 짝을 정하고 짝들끼리 정다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으니 열차 안팎이 다를 바 없어 보였다.

세 시간 가량 놀이며 노래와 춤을 추다보니 짝지끼리는 서로 다정한 연인들처럼 모습이 바뀌져 있었다. 짝지들은 서로의 손금을 봐주며 생명선이 길다 짧다 혹은 늦바람을 피울 운이라는 등 부모 복은 없으나 자식복은 많다, 특히 둘째 아들한테 효도를 많이 받을 것이며 셋째 아들은 돈이 떨어지지 않겠다는 등 장난을 치며 키득거렸다.

이런 광경을 지켜보던 학예부장 김병헌은 수학여행을 갈 때 인솔교사가 지시하듯 말했다.

“하동역에 도착하면 그때부터 각자의 짝꿍을 책임져야 한다. 만약 약에 짝꿍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으면 남녀를 불문하고 하동에 떼어 놓고 오겠다. 알았제?”

“여보! 신경 쓰지 마. 내가 꼭 책임질게. 히히히.”

럭비주장 임대근이 체격에 어울리지 않는 간드러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에 다시 한 번 크게 웃고 있을 쯤 안내방송이 흘러 나왔다.

“승객여러분 안내방송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면 하동역에 도착

하겠습니다. 내리실 때는 잃어버린 물건이 없는지 잘 살피시고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시길 바랍니다.”

안내방송을 들은 후 우리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다.

각자의 머리 위에 있는 짐칸에서 가방이나 악기류 및 기타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다.

그런 후 짝꿍끼리 함께 짐을 나눠서 든 후 출입문 쪽으로 걸어 나왔는데, 갑장인 나와 박초혜를 제외한 다른 에트랑제 회원들은 자기 짝꿍들에게 반말을 사용하고 있었다.

“지금부터 오빠라고 불러라, 알겠제?”

“오빠들 알겠어요.”

이젠 반말을 사용하는 점에 어느 누구도 기분 나빠하는 칠공주들은 볼 수 없었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모습 같았다.

하동역 대합실을 빠져나온 우리들은 역 앞 작은 광장에 옹기종기 모여서 오늘의 일정에 대해서 논의했다. 쌍계사는 가지 말고 불일 폭포로 바로 가서 그곳에서 샤워를 하고 식사와 놀이는 그 근처 숲속에서 하기로 했다.

여름 더위는 절정을 치닫듯 후끈 달아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한 낮의 정적을 깨듯이 아이스케이크 통을 멘 소년들의 목소리가 거리 곳곳을 휘젓고 다녔다.

“아이스케키 사이소.”

또 한쪽에서는 시골 아낙들이 보자기나 다라이에 참외며 채소류, 콩, 깨 등을 머리에 이고 땀방울을 흠쳐내며 서둘러 오일장이 열리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수레에 쌀가마 가득 실은 커다란 황소는 워낭소리를 내며 입가에 흰 거품을 내면서 곡물 난전을 향해

힘차게 걸어가고 있었다.

한낮을 쫓는 옛장수의 가위소리는 더위 속에 점점 깊게 파묻혀 가고 있었고 아이스케이크 소년의 목소리도 무더위 속에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우리들은 목소리가 처진 소년을 불러서 아이스케이크를 하나씩 입에 물었다.

아이스케이크 통에서는 하얀 서리가 폴폴 쏟아져 나왔는데 아이스케이크 소년은 냉기가 빠져나갈까봐 얼른 뚜껑을 닫으면서 또 다른 고객을 찾느라 주위를 살피고 있었다. 그리고 아름답리 팽나무 아래에는 수박장사가 수박과 참외를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손님들을 부르고 있었다.

“설탕처럼 달콤한 평사리 꿀수박 사이소.”

설탕처럼 달다는 수박장사의 선전에 이끌려서 우리 일행들은 수박장사 앞으로 다가갔다. 수박장사는 맛보기용으로 깨트려 놓은 수박 한 조각을 과도로 찍어서 나더러 맛을 보라고 입으로 가져 왔다. 그러나 나는 수박장사의 말을 믿질 않았다. 수박장사는 익지 않은 것도 익었다고 속이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이다.

시골 우리 집은 해마다 수박과 참외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수박의 겉모양으로는 농익은 수박을 가려내기가 쉽지 않았다. 잘 익은 수박을 선별하는 방법은 수박 꼭지 주위에 솜털이 없거나 엉덩이 부분이 누렇게 변해 있는 것이 농익었다고 판별해서 수확하지만 확률이 높질 않았다. 그래서 우리 일꾼들이 개발해낸 방법이, 손가락으로 자신의 목을 튕겨본 후 그 소리와 비슷하게 둔탁한 소리를 내는 것이 익은 것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수확한 수박은 농익은 확률이 훨씬 높았다. 이 방법은 남의 집 수박밭에 야간 서리 할 때도 많이

적용했다. 땅에 바짝 얹드려 수박을 두드려보고 목젓을 손가락으로 튕겨 보았을 때 비슷한 소리가 나면 틀림없이 익은 수박이었다.

나는 저만치 떨어져 있는 박초혜를 불러서 여학생들이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말해보라고 했으나 자신들이 먹을 것은 가방 속에 다 들어 있다고 말했다. 나와 박초혜가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에트랑제 회원 쪽에서 내게 말했다.

“광휘야! 술 몇 병을 사야 될 것 같은데? 여학생들이…”

나는 다시 박초혜를 불러서 칠공주들도 술을 마시는지 마시면 주량이 얼마정도인지 물었더니 박초혜는 내 옆으로 다가와서 옆구리를 살짝 꼬집으며 저 가방 속에 크고 작은 양주가 열병 들어 있다고 알려줬다. 나는 양주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는지라 얼마나 독한지를 몰라서 말했다.

“사람이 열네 명인데 열병 갖고 될까?”

초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피식 웃은 후 칠공주들 쪽으로 갔다. 내가 처음으로 술을 마셔본 것은 고3이 되어서 동래산성에 봄소풍 갔을 때였다. 그 날 급우 중 한 명이 막걸리를 한 말을 넘게 마시고 취해서 업고 온 적이 있었는데, 술은 한 말 정도의 많은 양을 마셔야 취하는 줄만 알았을 뿐 양주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었다.

따라서 양주 열병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도수에 대한 개념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에트랑제 회원들 앞으로 가서 보고하듯 말했다.

“칠공주들이 오십도 넘는 양주를 열병 가지고 왔다는데 모자라지 않을까?”

“뭘? 양주를 열병 가져 왔다고? 우와! 가시나들 죽여주네! 저 가

시나들 주당들인가 봐! 내하고 럭비주장 임대근을 제외한 우리 에 트랑제 회원들은 아직 양주가 어떻게 생긴 줄도 모를 텐데 양주를 다 들고 오고! 저 가시나들이 칠공주라더니 행여 양공주들 아냐?”

학예부장 김병헌이 놀란 목소리로 크게 떠들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우리들도 큰소리로 떠들며 키득거리고 있을 때 칠공주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방금 오빠들 뭐라 했어요? 우리보고 양공주라고?”

김봉자가 옆구리에 손을 얹고 붉으락푸르락하는 표정으로 앞쪽을 나서며 럭비주장 임대근을 꺾어보면서 따지듯이 말했다.

다른 칠공주들도 일제히 웅성거리며 따지기 시작했다.

“우리들이 양공주라고 말한 게 아니고 양주라는 말을 칠공주들이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오해를 푸세요.”

내가 나서며 변명을 했지만 칠공주들은 정확하게 똑똑히 들었다며 씩씩거리며 분을 삭이지 못하고 악다구니를 했다.

“오빠라고 불러주니까 너무 오버하네. 촌놈같이 생겨가지고. 우리 여학생들은 다른 곳으로 놀러가자. 듣자하니 못하는 말이 없네.”

럭비주장 임대근은 거세게 몰아 부치는 김봉자 앞에서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렇다고 그 말은 학예부장 김병헌이가 했던 말이라고 고자질을 할 수도 없어 당황한 표정으로 얼굴색깔이 벌게져 있었다.

나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남학생들을 한편으로 불러 모았다.

“친구들, 잘못하다간 하동까지 와서 찢어지는 불상사가 생기겠어. 각자 자기 짝꿍들을 불러서 오해를 풀도록 해라. 저렇게 여학생

들이 멍쳐있으면 군중심리라는 게 형성되어 안 좋을 것 같다.”

겨우 칠공주들을 설득시킨 후 쌍계사로 가는 버스에 오를 수 있었지만 럭비주장 임대근은 아직도 기분이 풀리지 않은 듯 얼굴이 벌겍게 달아 오른 채 불평을 털어 놓고 있었다.

“봉자가시나 저거는 아까 열차 안에서도 회를 먹어보지 못한 촌놈이라고 비웃더니 지가 촌놈한테 뭐 보태준기 있나! 가시나!”

“친구야! 촌놈을 촌놈이라고 하는 기 틀린 말이야? 그렇다면 네가 도회지 놈이냐? 머시마가 그깟 일로 화를 내사면 무슨 집구석이 되겠어? 담배 한 대 피우고 기분 전환해라!”

학예부장 김병헌은 럭비주장 임대근에게 담배를 건네며 어깨를 툭 쳐주었다.

버스 안에는 악대부장과 미영이, 나와 박초혜 두 팀만 짝꿍들과 대화를 나눌 뿐 아직도 칠공주들은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숨을 크게 토해내며 구시렁거리고 있었다.

버스 안은 냉랭한 분위기가 계속 되었다. 가끔 악대부장 이우성과 미영이가 속삭이는 소리만 났을 뿐 다른 사람들은 버스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을 뿐이었다.

“악대부장, 뭐 분위기 좀 띄울 방법이 없을까? 무슨 원수진 사람들처럼 너무 어색하네.”

내가 분위기를 반전하고 싶어서 악대부장 이우성에게 귓속말을 주고받고 있을 때 그때까지 뽀로통하게 앉아있던 김봉자가 ‘깔깔 깔’ 소리 내며 웃음보를 터트렸다. 우리들은 의아해하며 김봉자를 쳐다보았다. 김봉자는 학예부장 김병헌을 꼬집고 때리고 호들갑을 떨었다.

왜 그러느냐고 이유를 물었더니 김봉자가 말하기를 학예부장 김병현을 보고 ‘뺑소룡’이라는 별명 외에 또 다른 별명이 있다고 해서 무어냐고 물었더니 ‘홍어’라고 대답을 했단다. 왜 홍어라는 별명을 가졌느냐고 이유를 물으니 자기는 성기를 두 개 달고 다닌다고 했단다.

우리 일행은 물론 버스기사와 하동 장날에 갔다 오던 노인들과 시골 아낙네들까지 우리들의 대화를 엿듣고 웃음을 참지 못하고 버스 안이 터질듯 웃음이 폭발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즐기고 있었던 버스 안내양이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쌍계사에 가실 분은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 주이소.”

버스에서 내린 우리 일행들은 불일폭포라고 써진 안내판을 보면서 짝꿍들과 짐을 나란히 들고 걷기 시작했다.

몇 걸음을 걷고 있는데 학예부장 김병현이 제자리에 모두 서라고 지시하듯 말한 후 일방적인 규칙을 발표했다.

“지금부터 제일 앞쪽 팀부터 동요나 음악시간에 배웠던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가되 제일 잘 부르는 팀에게는 푸짐한 경품을 드리고 그렇지 못한 쫘지 팀에게는 벌을 주겠다.”

“상금은 뭐꼬? 또 벌칙은 어떤 거야?”

에트랑제 회원과 칠공주들이 한목소리로 물었으나 상벌관계는 심사위원장의 고유권한이며 자꾸 묻는 그자체가 감점으로 작용하니 더 이상 묻는 것은 삼가라며 으박질렀다.

“대신 벌칙은 간단하게 말해주겠는데 나중에 하산할 때 모든 짐을 쫘지 팀 두 사람이 다 들고 오도록 하는 거다. 알겠제?”

모두들 더 이상 불평 없이 동의했고 앞쪽 팀부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깊은 산속 웅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세모시 옥색치마 금박물린 저 댕기가.”

“바위고개 언덕을 혼자 넘자니 옛 입이.”

잘들 노래를 이어갔다. 그런데 느닷없이 럭비 주장 임대근 짝꿍이 빈대떡신사를 부르기 시작했다.

“양복 입은 신사가 요리집 문 앞에서 매를 맞는다.”

“야! 그건 학교음악이 아니잖아?”

에트랑제 회원과 칠공주들은 모두가 한목소리로 외쳤고 분위기를 이끌던 학예부장 김병현은 가늘게 새우 눈을 뜨고 뼈죽 웃으면서 말했다.

“그래, 네가 매를 맞을 노래를 부르고 있네. 허긴 축구공을 가지고 놀면 공이 직선으로 갈 건데 럭비공을 갖고 노니까 공이 뼈딱하게 날아가는데 어찌겠어. 그래, 잘 자폭했다. 끝씨는 정해졌다.”

경사지를 오르는 동안 우리들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굵게 맺혀 있었다.

“잠시 쉬었다가자. 오줌도 좀 방뇨해야 하고.”

모두들 바위에 걸터앉아 땀을 흠쳐내고 있을 때 뒤쪽에서 소변을 보고 오던 규율부장 최대성이 말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고? 누가 숲에 들어가서 오줌 누는 사람 있지? 너희들 귀에는 물 떨어지는 소리 안 들리나?”

규율부장 최대성의 말을 들은 후 모두 입을 닫고 귀를 세웠다.

“그러네? 무슨 물 떨어지는 소리 같은 게 들리네. 그자?”

“그렇다면 다 왔다는 뜻인가! 불일폭포가 이 근처인 것 같다. 빨리 가보자.”

모두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물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다.

인적이 드문 천연 자연림 같은 숲속에서 떨어지는 물소리는 가까이 다가 갈수록 신비롭게 들렸다.

“저쪽이다!”

우리 일행은 코숭이를 돌아서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향했다. 무성한 잡목이 우거져 길은 보이지 않았다. 잡초가 뉘어져 사람이 다닌 흔적을 발견할 수는 있었지만 환삼덩굴과 으름덩굴 같은 덩굴식물들이 발목에 자꾸 엉켜 들었다.

뒤쪽 칠공주들은 행여 뱀이 나오면 어찌나 하면서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발을 한걸음씩 옮기며 뒤따라 왔다. 칠공주들은 뱀이 말소리를 알아듣고 달아나기를 바라듯이 앙칼진 목소리로 외치기도 했다.

“뱀들아! 물러가거라. 휘이!”

폭포소리가 들리는 우측 방향 쪽으로 걸어갔더니 가파른 언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칠공주들은 저 아래를 어떻게 내려가나 하고 겁에 질려서 한 발짝씩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다.

그렇다고 에트랑제 회원들에게도 만만한 경사는 아니었다. 칠공주들은 굽이 있는 신발을 모두 벗어 한 손에 들었다. 그리고 손에 손을 서로잡고 한 발짝씩 발을 조심스럽게 옮겼지만 미끄러짐은 마찬가지여서 몇 발자국 옮길 때마다 호들갑을 떨었다.

에트랑제 회원들은 신발이 벗겨지면서 조금씩 내려갔는데 얼마

나 숲이 우거졌는지 둔덕 같은 그 모습이 마치 음모가 많은 여성의 음부 같았고 위쪽으로 떨어지고 있는 폭포모양이 한 번도 열지 않은 음문 같았다.

폭포의 물줄기는 시원스럽게 떨어지고 있었다. 변함없는 낙차로 편안한 성생활을 나누듯 아래쪽 널따란 바위를 부드럽게 애무하고 있었다.

아래쪽으로 내려온 우리 일행은 평편한 바위 위에 짐들을 내려놓았다. 나는 미영이와 박초혜를 불러 칠공주들은 이십미터 떨어진 작은 웅덩이가 있는 곳에 가서 샤워를 하는 게 좋겠다고 권했다.

그곳은 폭포수 방향으로 사람 키만큼 되는 크기의 큰 바위가 병풍처럼 둘러져 있으니 칠공주들에게는 은폐하기에 제격인 장소로 보였다. 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칠공주들은 종종걸음으로 바위 뒤편으로 달려가서 소변을 보았다.

모두가 땀에 젖은 티라 빨리 목욕을 하고 싶어 했다. 칠공주들이 작은 웅덩이 쪽으로 모두 가고 없자 럭비주장 임대근이 윗도리를 훌훌 벗어 던져 버리고 폭포수로 달려갔다.

“아고, 시원해!”

머리와 가슴을 씻더니 팬티까지 흘러당 벗어버렸다. 럭비주장이 알몸으로 폭포로 뛰어들자 다른 에트랑제 회원들도 하나둘씩 알몸으로 뛰어 들었다. 김봉자와 봉말순은 예기치 않은 상황을 보고 바위 뒤에 숨어서 놀란 눈빛으로 바라보며 키득거렸다.

‘어머나!’

다섯 명이 발가벗고 폭포수 속으로 들어가는 동안 숫기가 없는 나와 악대부장 이우성 둘만 남았다. 우리 둘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하

고 있었다. 처음에는 두 사람만 큰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보고 있었는데 이젠 칠공주들 모두가 몸을 숨긴 후 보고 있었다. 곧 이어서 에트랑제 회원들이 우리 두 사람을 폭포수 아래로 불러들이려고 할 텐데 저렇게 칠공주들 모두가 보고 있으니 이우성과 나는 낭패가 났다는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때맞춰서 학예부장 김병현이 큰소리로 놀리듯이 외쳤다.

“광휘야! 네는 자지도 없나 보네? 우성아! 네는 좃도 없는가봐? 하하하.”

“그게 무슨 소리고?”

나와 우성이는 말의 의미를 몰라 대꾸했다.

“인마! 너희들은 국어 수업시간 때 뭐했어? 남자 성기구분을 초등학교까지는 고추, 중·고교까지는 자지, 스무 살 넘으면 좃이라 했잖아. 그러니 광휘 너는 자지고, 우성이는 스물이 넘었으니 좃 아이가? 깔깔깔.”

“인제는 알겠지? 알아들었으면 놀고 있는 자지하고 좃 데리고 빨리 들어와. 하하하.”

럭비주장 임대근까지 곁들여서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칠공주들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깔깔거렸고 호기심 띤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보았다.

나는 순간적으로 고2때 속리산 수학여행 때를 떠올렸다. 함께 놀지 않고 일찍 방으로 들어가서 자는 급우들을 모조리 발가벗겨놓고 성기에다 온갖 낙서를 하고 귀두를 실로 묶어 벽에 있는 못에 묶어 버렸던 사건이 떠올랐다. 그런 경험을 볼 때 빨리 폭포수에 합류하지 않으면 낮과 밤의 차이일 뿐 에트랑제 회원들은 칠공주들이 보

든 말든 더욱 짓궂은 행동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성이
와 나는 러닝셔츠를 벗고 폭포수 아래로 들어가서 자발적으로 팬티
를 벗었다.

폭포수 아래로 들어온 우리들은 서로의 등을 밀어주고 팬티도 씻
고 서로의 성기를 당겨보고 온갖 짓궂은 장난은 계속되었는데, 칠
공주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바위 뒤에 몸을 숨긴 채 호들갑을 떨고
있었다.

학예부장 김병헌이 학생회장 박성곤의 곁으로 가서 귀에다 대고
뒀가를 소곤거린 후 학예부장 김병헌은 마치 수학여행 때 인솔선생
님이 말하듯 목청을 깔았다.

“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명이 박 목사이신 박성곤
님이 에트랑제 회원들을 위해 합격 기도문을 설교 하겠습니까. 성
도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학예부장 김병헌이 또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러나 싶어
멀뚱히 쳐다보고 있는데 김병헌은 우리 쪽으로 다가오더니 엉덩이
를 찰싹 때리면서 말했다.

“뭘하고 있어? 목사님 설교 하려는데.”

그 말을 들은 우리들은 장난인 줄 알면서도 분위기에 응해서 갑
자기 숙연한 자세가 되어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자 학생회장 박성곤
은 마치 자신이 성자라도 된 양 근엄하게 말했다.

“성도님들은 모두 앞쪽 우뚝 높이 솟은 산봉우리를 쳐다봐 주시
기 바랍니다.”

앞산 방향은 여학생들이 목욕을 하고 있는 방향이었고 우리들은
여학생들에게 아예 알몸을 다 보여주는 꼴이 되고 말았다.

“불알폭포 신령님! 고3인 우리 에트랑제 친구들이 공부한다고 죽도록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관학교에 특기생으로 진학할 럭비주장 임대근, S예대 연극학과에 진학할 희망하는 학예부장 김병현, Y대 유도 특기생으로 갈 유도부장 황수문, K대 음악과에 특기생으로 진학할 악대부장 이우성이야 구십프로 합격한 거나 다름없지만, H대 공대를 진학해서 훌륭한 공학도를 꿈꾸고 있는 규율부장 최대성과 나머지 두 사람 중에 저는 우리학교가 개교 이래 최초로 S대 법대생 한 명 배출한다는 게 학칙처럼 되어 있으니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에트랑제 클럽의 왕자님이신 광휘는 B대 국문과에 응시해서 어찌든지 합격해서 훗날 유명한 문인이 되게 찰거머리처럼 붙여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저 앞에 있는 가시나들은 지발 똥가랑이 바람 좀 그만 넣고 앞으로는 제발 요조숙녀가 되게 해주세요. 또 우리들은 학교에 돌아가면 열심히 공부할 것을 알몸으로 맹세하나이다. 아멘. 관세음보살.”

우리들은 좋아라하며 박수소리와 함께 의기양양해 했다.

우리들의 이런 해괴한 행동을 시종일관 지켜보던 칠공주들은 계곡에 흐르는 물을 손바닥으로 퍼 올리며 깔깔거렸다. 그 때 학예부장 김병현이 여학생들 쪽으로 바라보며 외쳤다.

“아가들아! 인제 오빠들 공짜 알몸 구경 그만하고 너희들 달고 있는 것을 잘 씻어라. 오빠들 옥근은 비싼 거야. 알겠지? 그리고 우리들도 인제 폭포에서 나가자!”

씻은 팬티를 꼭 짜서 입고 바깥에 벗어 놓은 러닝셔츠로 귀에 들어간 물도 닦아 냈다. 바지를 추슬러 입고 짐 꾸러미가 있는 곳으로 가니 미영이가 생긋이 웃으며 땀질하듯 내게 다가왔다.

“오빠들 아까 전에 뭣 한다고 중얼거렸어? 그것도 발가벗고 말이야. 도대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라. 행여 오빠들 변태들 아녀?”

“아, 그것은 말이야. 너희들을 위해 중부 기도를 했던 거란다.”

“아니, 우리들을 위해서?”

“물론이지.”

“암! 그렇고말고.”

“우리를 위해 어떤 기도를 올렸는데?”

“그거야 별거 아니고 제발 빠치지 말고 오빠들 말 잘 듣고 집에 가서는 부모님 속 썩이지 말고 현재 여고 2년이지만 일 년은 잠시이므로 미리부터 입시 준비를 게을리 하지 말도록 신령님이 곁에서 지켜보면서 혼을 내주라고 부탁했지.”

더 이상 물어보았자 뻔한 얘기일 거라고 생각한 미영이는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칠공주들 쪽으로 폴짝폴짝 명랑하게 달려갔다.

무슨 중대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냥 맞이하던 칠공주들은 피시식 웃으며 내뱉었다.

“그래 무슨 뜻이 있겠어. 오빠들이 부린 장난들이었겠지.”

에트랑제 회원들은 상의는 입질 않고 러닝셔츠 차림으로 짐을 모아 둔 곳으로 갔다.

“아이고! 오빠들 배고파 죽겠다. 먹을 것 좀 내봐.”

학예부장 김병헌이 배를 움켜쥐고 엄살을 떨었다.

“오빠들, 잠시 이쪽 것부터 좀 들어 내 줘.”

가방의 지퍼를 열었더니 그곳에는 작은 광주리 같은 상자가 나왔고 그 속에 보자기로 싸맨 세 개의 묶음이 나왔다. 그런 것들을 하나씩 풀자 음식마다 신문으로 포장되어 있었는데 그곳에는 육·해·공

군 요리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돼지고기 수육을 비롯해서 쇠고기 절편, 문어 삶은 것, 해삼 말린 것, 대구 찢은 것, 통닭, 김밥 등이 쏟아져 나왔고 모든 음식 위에는 붉은 것, 노란 것, 흰 것의 가느다란 실 같은 것을 흩어 놓았고 참깨가루도 뿌려져 있었다. 이런 음식을 보니 마치 혼사를 앞두고 총각 집에서 처녀 집으로 사성과 함께 보낸 음식 같았다.

철공주들은 이런 음식을 자주 보았는지 아무렇지 않게 드러다 보았지만 에트랑제 회원들은 놀라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별것도 없네. 만날 먹던 것이구나. 나는 조금 있다가 먹으려다.”

나는 애써 태연한 척 했지만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학예부장 김병현이가 놀라운 눈빛으로 말했다.

“이야! 이거 누구 솜씨고? 이 모든 음식을 한 집에서 만든 것 같은데 이걸 보통 솜씨가 아닌데? 너희들이 만든 게 아니지?”

“아! 이것 말이죠? 박초혜집 식모 언니가 모두 만든 거예요. 미영이가 좋은 오빠 소개 시켜준다고 얼마나 뽕을 쳤던지 역시 미영이 말이 거짓이 아님을 조금 전에 확인 했어요.”

김봉자가 눈을 깔면서 말했다.

“아니, 부산에서 무려 네 시간 넘게 함께 왔는데 조금 전에 확인했다니, 그게 무슨 뜻인데?”

학생회장 박성곤이 머리를 갸우뚱거리며 말했다.

“나이 많은 오빠들이 체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숙녀들 앞에서 옷을 흘랑 벗고 자지니 좇이니 하고 저속한 말들을 스스럼없이 했잖아요. 우리들을 무시하는 행동밖에 달리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도 이우성오빠와 전광휘오빠는 틀리데요. 전광휘오빠는 선생님

아들이라 하더니 역시 용어도 그렇고 창피한 줄도 알고….”

학예부장 김병헌이 분위기가 어색해짐을 알고 불길을 진압하듯이 말했다.

“그래서 박초혜씨는 우리 광휘의 그것을 그렇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는가보네. 광휘야! 그것 한번 만져 보거라. 다 닳아버리고 없을게다. 히히히.”

다시 웃음이 터져 나왔다. 흥당무가 된 박초혜는 잡담엔 신경을 쓰지 않고 음식을 몇 군데 분배하는데 열중하고 있었다. 중앙에는 양주를 놓고 가장자리는 갖가지 음식을 차렸는데 그런 광경은 마치 백당나무 꽃 같이 보였다.

백당나무 꽃은 중앙에는 유성화가 피고 가장자리에는 무성화가 피는데 차려놓은 갖가지 음식이 꼭 그런 형태로 보였다. 그런 꽃 주위로 짝꿍들끼리 꽃의 떡잎처럼 둥글게 자리 잡고 앉았다. 크고 작은 양주는 생전 처음 보는 거라 양주 케이스를 차근차근 들여다보면서 에트랑제 회원들은 얼버무리고 있었다.

스카치위스키, 브랜디, 코냑, 죠니워커 블랙 등 가지각색이었다. 국산 소주나 맥주병같이 조악한 상표 대신 세련된 디자인과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영어와 불어로 쓰인 글들을 어림짐작으로 읽어 보고 있었다.

“대충 무슨 뜻인 줄은 알겠네.”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이 양주들은 누가 가져온거고?”

“미영이와 김태자가 반반씩 가져 왔어요.”

나는 그 말이 믿기질 않아 미영이에게 물었다.

“미영아! 아침에 집에 나올 때는 안 가져왔잖아?”

“오빠는 잘 몰라. 아버지가 귀국할 때 가져온 것을 한 병씩 훔쳐서 친구 집에 모아두었어. 뜻있는 날이나 놀러 갈 때 마시려고.”

미영이가 말을 마치자 김봉자가 말을 이었다.

“우리 친구들끼리 가끔 한잔하는데 김태자 아버지도 신발공장을 경영하면서 바이어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집에 양주를 많이 준비하거든요.”

이렇게 한참을 양주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로 올라도 그런 말에는 관심을 두지 않던 럭비주장 임대근은 양주병 뚜껑을 돌렸다.

“나는 양주를 가져온 유래는 관심 없고 술 맛이나 빨리 한번 맛보고 싶다.”

럭비주장 임대근은 먼저 한 잔을 마신 후 혼자 마신게 조금은 미안했던지 늘어놓은 코펠에다 8부 정도로 술을 따랐다. 사람 숫자가 많다보니 세 병을 부었을 때 한 잔씩 돌아갔다. 특히 유도부장 황수문과 럭비주장 임대근은 코펠에다 가득 부었다.

“어머! 양주 도수가 평균 사십 도가 넘는데 저렇게 마시면 안 되는데!”

미영이와 김태자가 염려스러운 눈빛으로 한목소리처럼 말했다.

“내싸마! 양주 묵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으니 걱정은 하지 말거라.”

학예부장 김병헌이 건배를 제의했다.

“에…; 잔을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회장님이요 전체 수석인 박성곤님이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규율부장 최대성이 표정을 세우며 말했다.

“그 말은 틀린 것 같다. 여기는 학교가 아니고 이런 자리가 만들

어진 것은 광휘 때문이니 오늘 주인공 광휘가 한마디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광휘야, 한마디 해봐라.”

나는 쑥스러워 하며 말했다.

“뭐 이게 대단한 공로라고 내보고 주인공이라 하십니까. 한마디 해라고 하니깐 하긴 하겠습니다. 에헴! 저야 뭐 한 게 있습니까. 아무튼 전원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 박수를 많이 받아야 될 사람은 미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말이 떨어지자 김봉자가 미영이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말했다.

“미영아, 맞다. 광휘오빠 말처럼 내가 우리 중매쟁이처럼 데려왔잖아. 수고했다. 한마디 해 보렴.”

미영이는 조금은 머쓱하고 떨렸던지 헛기침을 두 번 한 후 입을 열었다.

“중매쟁이라고 부르면 부끄럽고요. 그냥 우리 친구 데리고 온 것밖에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보다 오늘 음식을 많이 준비해 온 박초혜에게 감사의 박수를 한번 쳐주면 어떨까요?”

“와! 나보다 남을 칭찬할 줄 아는 칠공주 멋져요, 짹짹.”

“자, 이제 모두들 잔을 들고 건배 합시다.”

유도부장 황수문과 럭비주장 임대근은 강건한 체격을 반영하듯 양주를 막걸리처럼 연거푸 두세 잔을 벌컥벌컥 마셨다. 에트랑제 회원들도 절반 정도는 뒤따라 마시자 모두들 얼굴이 발그스레한 모습으로 변하면서 짹짹들끼리 정담을 모락모락 피워냈다.

학예부장 김병현은 취기가 슬슬 오르자 장난기 어린 표정을 띠며 분위기를 이끌었다.

“아까 전에 산에 오를 때 모범적인 짝꿍들에게는 분명히 선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에…, 오늘 부산에서 출발할 때부터 짝꿍과의 다정성과 차표 심부름을 비롯한 잔심부름 등 굶은일들을 군말 없이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주신 학생회장 박성곤과 그 짝꿍이 오늘의 모범 커플로 선정되었으니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지만 뭐래도 궁금한 것은 선물이 무엇일까에 쏠렸다.

“그런데 선물이 뭘까 궁금하시지요? 다름이 아니고 오늘 두 사람에게 예비결혼식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두들 깜짝 이벤트에 놀라워하면서 좋아했지만 해당 당사자인 학생회장 박성곤과 김태자는 당황해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김태자는 자신은 절대로 못한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학생회장 박성곤은 은근히 환영하는 표정으로 변해갔다. 그러나 짝꿍이 할 수 없다고 완강히 반대하자 학생회장은 학예부장 김병헌과 함께 설득에 나섰다. 재미삼아 하는 것이니 한번 해보자며 겨우 설득을 시켜서 평상심을 되찾게 했다. 그 외 사람들은 무조건 찬성이라며 연이어서 박수 소리를 보냈다.

학예부장 김병헌은 김태자가 배역을 완강히 거절하는 바람에 잠시 난감한 표정을 지었으나 이제는 캐스팅이 완료 되었다고 판단한 듯 진행을 계속했다.

“일단 캐스팅을 소개해 드리면, 드럼은 내가 맡고 전광휘는 기타를 쳐야하고 색소폰은 악대부장 이우성이 맡고 신랑 우인대표는 규율부장 최대성, 신부 우인 대표는 송혜림씨가 맡아 주시면 됩니다. 예식은 양주 여덟 명 마신 후에 거행 되겠습니다. 현재 일곱 명을 마

셨으니 삼십분 정도 지나서 거행 되겠습니다. 남녀 우인대표들은 인사말씀을 준비해주시고 생각이 영 안 나면 학생시인인 전광휘한테 말하면 즉각 그런 고민은 해결될 터이니 괜한 걱정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례선생님이 없잖아요?”

김태자가 얼굴이 볼그레해지며 물었다.

“나 원 참,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네. 칠공주들은 극장에 자주 가는 마니아라고 하던데 영화 보면서 일인 삼역도 모르는가 보네. 주례선생님이야 당연히 내가 해야 제. 내 위에 어른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잖아?”

나는 악대부장 이우성과 학예부장 김병헌을 악기가 배치된 곳으로 데리고 갔다.

“악기 테스트 하고 손 한번 맞춰 보자.”

“무슨 곡으로 할까?”

“결혼행진곡이 좋겠다. 그리고 신랑을 위한 노래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신부를 위한 노래 ‘You mean everything to me’ 어때?”

연주 연습을 두 번 한 후 우리들은 만족해하면서 말했다.

“참 좋은 말이다, 그자? 당신은 나의 모든 것.”

술을 거나하게 마셨다고 판단한 학예부장 김병헌이 양주 빈병을 들고 멘트를 넣기 시작했다.

“안내방송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신랑 학생회장 박성곤 군과 신부 김태자 양의 예비 결혼식이 곧 거행될 예정이오니, 앉아서 술 마시는 하객님들께서는 빨리 술잔을 비운 후 자귀나무 앞에 앉아주시고, 신랑신부는 저쪽 문배나무 그늘 아래에 가서 출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있던 에트랑제 회원과 칠공주들은 ‘우~우’ 하면서 질투와 야유 섞인 소리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예비신랑신부는 멧쩍어하며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렇다고 학예부장 김병현이 그냥 넘어 갈 리가 만무했다.

김병현은 다시 방송을 했다.

“앞으로 셋을 세는 동안에 안 일어나면 나무에 다리를 매다는 벌칙을 줄 테니 빨리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두우울.”

학생회장 박성곤과 김태자가 껌싸게 일어난 후 엉거주춤 하더니 학예부장 김병현이 지정한 문배나무 쪽으로 가다가 멈춰 섰다. 우리들은 일제히 소리쳤다.

“예비 결혼식도 결혼식이니 만큼 무조건 주례 선생님의 지시에 따르라!”

우리들이 명령하듯 말하자 두 사람은 피식 웃으며 문배나무 아래에 나란히 섰다. 이제는 음악 연주가 들어갈 시점이었다.

‘꿈속에 그려라 그리운 고향……’

드보르자크의 신세계 교향곡 제2악장 중 ‘꿈속의 고향’에 이어 바그너의 ‘결혼행진곡’이 울려 퍼졌다.

“에…,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신랑과 신부가 함께 입장 하겠습니까. 신랑신부 아주 보기 좋습니다.”

“다음은 주례사가 있겠습니다.”

일인 삼역을 맡은 학예부장은 사회 하라 연주하라 주례까지 하라 바꿨다.

“에…, 저는 신랑 박성곤 군의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을 했습니다. 신랑은 어릴 때부터 행실이 바르기보다 성품이 방정맞기 그지 없었고, 성적은 자나 깨나 양가집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운동회 때는 공책하나 따지 못하는 의문스럽고 미련한 너구리같은 놈이어서 내가 불쌍해서 공책을 하나 준적도 있었고 항상 콧물을 물고 다녀서 생각만 해도 짹짹한 제자였습니다. 오늘 주례를 서 달라고 애걸복걸해서 주례선생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주례를 서 줘 봤자 사례비는 고사하고 국물 한 방울 없는 매정한 놈이란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신부 김태자 양은 어떻게 저 머저리 같은 남자를 사랑했는지 아이큐가 높은 저로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차라리 미적분을 푸는 게 낫지 풀지 못할 숙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신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성혼선언문 낭독이며 혼인서약은 하지 말고 제게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저 얼마 전에 상처한 홀아버지거든요. 푸헤헤.”

학예부장 김병현은 두서없는 말로 횡설수설하며 주례사를 마쳤다.

“야! 저 주례 선생님 어디서 데려왔어? 제비족 할아버지 아니냐? 주례 선생님이 신부와 삼각관계를 만들겠다는 뜻인데!?! 진짜 나쁜 영감탱이! 완전 바람둥이에 진짜 초등학교 교장 출신 맞냐?”

분위기가 어수선 해지자 학예부장 김병현은 못 들은 척 무시하고 계속 진행했다.

“다음은 신랑 우인대표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규율부장 최대성이가 빈 양주병을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은 주먹을 얹게 잡으면서 헛기침을 두 번 한 후 말했다.

“로미오와 줄리엣, 베르테르와 룬데 같은 그런 불행한 사랑은 하

지 마시고, 초장에는 좀 고생하더라도 도망가지 않고 끝장을 보는
춘향과 이도령 같은 그런 사랑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랑
같은 자녀를 낳지 마시고 신랑 우인대표 닮은 그런 아들딸을 한 다
스 정도 낳으시길 바랍니다.”

주례 선생님이 해야 할 말을 우인대표가 말한 꼴이 되었다.

“신랑 우인대표가 주례선생님보다 훨씬 낫다. 그래도 자녀는 많
이 낳으라고 하니. 히히히.”

칠공주들이 몰려 나가서 주례를 맡은 학예부장 김병현에게 헛소
리 주례사를 했다며 꼬집고 난리가 났다. 그래서 엉겁결에 키가 크
고 수관 폭이 넓은 때죽나무 뒤쪽에 몸을 피했으나 결국 잡혀서 사
과 말을 한 후 다음 식순을 진행했다.

“다음은 신부 우인대표의 축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신부 우인대표로 나온 송혜림은 약간 긴장을 했던지 신랑 우인대
표가 건네준 빈병에다 대고 ‘엠엠’ 두 번 소리를 한 후 말을 했다.

“신부 우인대표가 무슨 염소 소리를 내고 있네. 히히히”

“신랑에게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술주정하지 마시고 바
람피우지 마시고 노름하지 마시고 월급 뺨땅치지 마시고 신랑 닮은
아이는 낳지 마시고 신부 닮은 딸만 나아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신부 우인대표 축사가 모두 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뿐이네.
마치 잔소리 많은 장모님 말씀하듯 하네. 이건 반칙이다.”

“뭘요? 신부 우인 대표가 틀린 말 한 겁니까?”

신랑 우인들과 신부 우인들은 서로를 향해 샷대질을 하고 야유를
퍼부었다.

학예부장 김병현이 다시 분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목청을 깔았다.

“좋은 삶든 억울하던 일단 혼인서약을 했으니 이젠 부부로 인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쩍니까. 양측에서 비난이 쏟아지니 신랑신부라도 합심해서 주위의 하객 따윈 아랑곳하지 않고 잘 살겠다는 증표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 증표로서 오분간 키스를 연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카! 맞다, 바로 그거야. 암, 그래야지. 빨리 해라.”

에트랑제 회원들과 칠공주들은 쾌재를 부렸다. 둘은 내심 잘못 걸렸다는 표정을 지으며 난감해 하다가 시선을 마주친 후 피식 웃었다.

둘은 사회자의 지시로 어색하게 손을 잡았지만 당황한 듯 어쩔 줄 몰라 하며 멧쩍게 웃고만 있었다.

“빨리 안하고 뭐합니까. 몽둥이로 맞을래요?”

에트랑제 회원과 칠공주들까지 더불어서 독촉이 시작되자 두 사람은 겨우 입술을 살짝 갖다 대었다.

“그건 무효다! 반칙이다. 다시해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두 사람을 철사 줄로 꿰뚫어 버리고 말거야. 미리 알아서 처신 하세요.”

계속 독촉이 빗발치자 둘은 몇 번의 망설임 속에 입술을 주뻗거렸지만 입술은 다가가지 못하고 금세 얼굴이 발개져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살폈다. 또 땅을 쳐다보기도 하다가 십여 분이 흐르고서야 두 사람은 겨우 입술을 부딪친 후 서둘러서 떼어졌다. 김태자는 민망한 듯 얼굴이 빨그땡땡해져 있었다.

“다음은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는 노래를 남자 측에서 전광휘가 부르겠습니다. 부를 노래는 영사운드의 ‘등불’이 되겠습니다.”

“그대 슬픈 밤에는 등불을 켜요.”

“노래가 끝난 전광휘씨는 박초혜씨와 키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네. 맞다. 참말이다.”

“우리는 예비 결혼식도 안했는데 무슨 키스를?”

“오늘 짝꿍 중에서 최고로 보기 좋고 싸우지 않은 잉꼬 짝꿍이라서 그렇습니다. 실시하세요.”

에트랑제 회원은 물론 칠공주들까지도 동조하는 박수소리를 치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박초혜는 부끄러워서 숲속으로 도망을 쳤으나 학예부장 김병헌의 손에 이끌려 나와서 가벼운 입맞춤을 했다.

“야! 사회자, 너는 뭘해? 사회를 매끄럽게 진행해야 될 것 아냐. 그리고 박초혜씨는 칠공주가 맞나요? 이상하네? 가짜 같다. 부끄러움도 너무 많고.”

사회를 맡은 학예부장 김병헌은 나머지 짝꿍들도 무슨 구실을 붙여서라도 다들 입맞춤을 하게 만든 후 학예부장 스스로는 응석을 부리는 시늉을 하면서 김봉자의 입술을 들먹이며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어서 키스를 하곤 했다.

“왜 나는 진즉 안 시켜줘? 나는 데리고 온 자식이냐. 왜 그냥 지나치려고 해요?”

학예부장 김병헌은 입술을 오무락거리면서 다음 진행을 했다.

“다음은 여자 우인대표들 중에서도 축하노래를 들어보아야 되겠죠? 누가 할 건가요?”

김병헌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미영이가 불쑥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왔다.

“필시스터즈 노래 ‘커피 한잔’을 부를게요.”

나는 마음속으로 ‘옹거리 하숙집에서 자주 저 노래를 전축을 틀어 놓고 노래와 춤을 추었는데, 오늘 직접 한번 들어볼 수 있겠구나’ 싶어서 미영이를 뺀히 쳐다보았다.

미영이는 나팔백바지를 팔랑거리며 ‘커피한잔’을 멋들어지게 불렀다.

에트랑제 회원들은 휘파람까지 불면서 좋아라했다.

“역시 소문대로네!”

우리는, 하동역까지 올 때는 줄곧 팝송을 불렀지만 이곳에서는 뽕짝을 불러보자고 했다.

남진의 ‘가슴 아프게’, 문주란의 ‘동숙이 노래’, 김상진의 ‘타향은 싫어 고향이 좋아’, 배호의 ‘파도’, 나훈아의 ‘가지마오’를 불렀는데, 에트랑제 회원들은 배호의 노래를 선호해서 많이 불렀고 칠공주들은 김추자와 펄시스터즈의 노래를 주로 불렀다.

이렇게 한참을 노래 부르다가 유도부장 황수문이 정적인 분위기에 싫증이 났는지 소리쳤다.

“야! 뭐니 뭐니 해도 요새는 고고시대 아이가. 고고에 맞춰 춤추게 팝송을 하자.”

모두들 고고를 추면서 신바람이 나서 분위기가 한참 고조되어가고 있을 무렵이었다. 우리가 노는 노래며 신나는 악기 소리를 엿들었는지 폭포수 옆쪽 언덕에서 사람 기척이 들리더니 옷을 남루하게 입은 우리 또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셋이서 우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들의 짧은 머리를 보니 학생 같기도 했지만 건들 걸음을 보니 불량기 많은 양아치같이 보이기도 했다. 만약 학생이면 아주 불량

한 그런 학생쯤으로 보였다.

그들은 호주머니에 손을 깊숙이 꽂아 넣고 고개를 옆으로 약간 기울린 자세로 우리 곁으로 다가오더니 녀살을 떨었다.

“어이! 죽여주네. 어이! 너희들 어디서 놀러왔노?”

“어이!? 너희들은 또 어디서 왔는데 반말을 하면서 시비 걸어? 너희들은 여기에 어울릴 자리가 아니니 저쪽으로 꺼져라.”

럭비주장 임대근이 앞을 나서며 말했지만 그들은 들은 체 만 체 했다.

“우리도 썩사리 끼어서 같이 놀자.”

그들은 우리가 음식을 먹던 자리에 덥석 주저앉았다.

“우와! 여기 목을 끼 천지네. 꼬부랑 글 써놓은 것을 보니 미국 놈들 술이고.”

우리들은 양아치들의 막된 행동을 어이없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유도부장 황수문이 양아치들 곁으로 다가가서 어깨를 툭툭 건드리며 굵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이! 너희들 일어나서 내하고 얘기 좀 하자.”

나는 분위기를 감지하고 학예부장 김병헌을 불러서 말했다.

“저놈들이 이곳 토박이 양아치들 같은데 같이 조금 놀게 한 후보 내자. 어때? 그리고 유도부장이 성질 내놓으면 저 애들 절단난다. 그러니 학예부장 네가 유도부장 데리고 가서 설득을 좀 시켜라.”

그렇게 말하는 가운데 이곳 하동이 고향인 규율부장 최대성이가 세 사람이 앉아 있는 돛자리로 다가갔다.

최대성은 먼저 손을 내밀면서 인사를 청했다.

“반갑네요, 이 동네 삽니까? 저도 하동 읍내가 고향입니다”

동향이라고 밝히면서 최대성이가 호의적으로 말하자 양아치들은 고분고분한 태도로 변했다.

“여기 먹을 것이 많이 있으니 잡수시고 이 양주도 한잔 드세요. 그리고 여기 악기에 맞춰서 노래도 한번 불러보시고요.”

최대성을 뒤따라간 나도 양아치들에게 음식을 당겨주며 우호적으로 말했다.

“아! 고맙습니다.”

양아치들은 밝게 웃으면서 대답했다. 양아치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 동안 우리들은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나는 노래를 하고 놀면서도 양아치들이 조금만 놀고 조용히 돌아가야 할 텐데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지만 행동거지를 보니 쉽게 그냥 물러날 것 같지는 않게 보였다. 만약 진드기처럼 붙어 버리면 싸움이 크게 날 터인데 하는 불길한 생각이 자꾸 들었다.

에트랑제 회원과 칠공주들은 팔자춤과 다이아몬드스텝, 개다리춤 등을 추며 신나게 놀기 시작했다. 이렇게 놀다 보니 에트랑제 회원들 쪽에는 세 사람이 악기를 다루니까 세 사람의 칠공주에게는 마주보며 춤을 출 상대가 없었다. 이런 상황을 눈치 챈 양아치들은 김봉자와 박초혜, 양경숙이 앞으로 가서 히죽거리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춤이라고 하기보다 꺾렁패들이 추는 막춤이었다. 부산에서는 저런 모습을 보지 못한 에트랑제 회원들은 물론 칠공주들도 우스워서 까르르 소리를 내며 춤을 멈추고 한쪽으로 물러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양아치들은 기분이 좋았던지 입이 함지박만 하게 벌어졌다.

“야! 우리들 오늘 꿈이나 생시냐 여학생들도 굉장히 미인이고 몸

도 잘 빠졌네. 씨필! 오늘이 내 생일보다 낫다.”

양아치들 중에 키가 크고 주걱턱을 가진 사내가 음악이 멈춘 상태에서 키득거리고 웃으면서 춤을 추더니 나를 부르는 손짓을 했다.

“학생들, 우리도 악기에 맞춰서 노래 한곡 부를 라요.”

“무슨 노래를 하려고 그러니까? 제목이 뭔데요?”

“와, 그 노래 안 있소? 흘러가는 물결위에 편지를 띄우고…”

양아치들이 흥얼거리는 소리를 들으니 어디서 들은 노래였다.

“해병대 군인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 말이지요?”

“맞아요. 띠빠빠룰라 때리고 부수고…”

양아치들은 조금 전에 양주를 마치 걸신들린 듯 눈 깜짝할 사이에 벌컥벌컥 들이킨 결과인지 금세 취기가 오른 듯 보였다. 몸을 비틀거리며 연주가 나오기도 전에 방금 흥얼거렸던 그 노래를 악을 바라바라크 지르면서 부르더니 갑자기 칠공주들을 안기도 하고 미니 스커트 입은 여학생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추태를 부렸다.

칠공주들은 징그러운 버러지를 보듯 소스라치며 놀라더니 모두 들 소나무 숲속으로 숨어버렸다.

우리들은 악기소리를 멈추고 양아치들에게 말했다.

“인제 노래 그만하고 다른 곳으로 가 주세요.”

“뭐? 우리보고 가 달라고? 이렇게 놀기 좋은데 우리가 미쳤나, 가계? 못 간다고 하면 어쩔끼고?”

그들이 시비할 태세의 언행을 지켜본 유도부장 황수문이 무거운 표정의 얼굴로 다가왔다.

“야, 너희들 내하고 얘기 좀 하자.”

양아치들은 호주머니에 손을 꽂아 넣고 건달걸음으로 유도부장

앞으로 다가오더니 얼굴을 유도부장의 면상으로 바짝 들이밀고 턱을 치켜세우면서 시비조로 말했다.

“그래, 왔다. 많이 봐라. 응!”

나는 유도부장 황수문의 성질을 아는지라 부랴부랴 달려갔다.

“수문아, 사고치지 마라. 더구나 여기는 객지다. 바닥에는 자갈과 바위투성이다. 집어던지면 큰일 난다. 절대 집어던지지 마라. 알겠제?”

나는 방금이라도 목줄을 비틀어 버릴 것 같은 유도부장의 눈빛을 보고 간신히 다독여 자귀나무 밑으로 데리고 갔다. 이런 상황을 보고 우리들이 겁이 나서 도망간다고 판단한 양아치들은 더욱 의기양양해하며 핏대를 올리면서 유도부장 황수문을 향해 손짓을 하며 말했다.

“어이 땅딸보! 어디 가노? 도망가는 기가? 인마! 불렀으면 말을 해야 될게 아니야. 이 새끼가요. 인제는 내가 불러봐야겠네. 어이! 땅딸한 새끼! 이리와! 어서!”

유도부장 황수문은 조금 떨어진 위치에서 양아치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던지 양아치들에게 조소를 보냈다. 그리고 소변을 보러 서어나무 밑으로 가고 있는 데 양아치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쳐다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등 뒤쪽에서 자그락거리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서 돌아보았더니 양아치 한 명이 오른손에 커다란 돌을 들고 유도부장을 향해 급히 달려오고 있었다.

“황수문 조심해! 뒤에 돌 들었어!”

나는 놀라워하며 큰소리로 외쳤다. 내가 지르는 소리를 들은 유도부장 황수문은 이미 감지하고 있었던 듯 재빠르게 몸을 살짝 피

하며 달려오는 양아치를 한팔 업어치기로 던져버렸다.

양아치는 외마디 비명소리와 함께 굵은 자갈위에 나뒹굴어졌다.

나는 소변보는 것도 잊은 채 뻗어 있는 건달한테로 뛰어갔다. 양아치는 머리에 피를 흥건하게 흘리고 있었다. 나는 에트랑제 회원들을 소리쳐 불렀다.

“빨리 이쪽으로 와봐라! 사람이 다쳤다!”

양아치들이 술이 취해서 싸움 대상이 못된다고 생각하고 한편을 향해 모여 있던 에트랑제 회원들도 갑작스런 사고에 모두 어리둥절해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달려 왔다. 나는 다시 한쪽에서 질겁하고 서있는 양아치 일행에게도 큰소리로 불렀다.

“그렇게 서있으면 어떡합니까. 빨리 와보세요.”

양아치들은 그때서야 이런 싸움에 많이 익숙한 듯 러닝셔츠를 벗어 찢어 가지고 피가 흘러나오고 있는 머리를 동여맸다.

그들도 유도부장 황수문이 사자같이 재빠른 동작으로 자기 동료들을 던져버린데 대해 크게 놀란 듯 시선을 슬슬 피했다.

“야, 이 양아치 새끼들아! 빨리 데리고 가라. 나한테 맞아 죽기 전에! 어서!”

유도부장 황수문이 큰소리로 말하자 드러누워 있던 양아치는 다행히 정신을 잃지 않아서 힘겹게라도 일으켜 세워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다. 양쪽에서 부축하던 양아치들은 그래도 자존심을 세우고 싶었던지 한마디씩 던져 놓고 걸어갔다.

“이 씨필놈들! 너희들이 우리를 건드렸어? 나중에 한번 보자.”

“그래, 양아치들아. 많이 봐라. 오늘 운 좋은 줄 알아라.”

에트랑제 회원들도 응대해준 후 모두 자리로 돌아왔고 소나무 뒤

에서 놀란 눈으로 지켜보던 칠공주들도 그때서야 숲에서 나왔다. 그리고 우리들은 유도부장 황수문의 등을 두드려주며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다.

“오늘 정말 큰일 날 뻔했다. 그 양아치가 일어나서 갔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하루 일수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기분을 풀어라.”

에트랑제 회원들이 그렇게 안도하며 말하는 까닭은 부산 다대포의 봄 소풍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몰운대 가는 비포장도로에서 다대포 양아치가 우리 반 유도 고단자에게 시비를 걸어가지고 화가 난 급우는 양아치를 큰 동작으로 집어 던져버렸는데 나동그라져 버린 양아치의 등뼈가 여러 군데 부러져 병신이 되었던 사건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그때 그 현장을 옆에서 목격한 나는, 유도는 반드시 매트 위에서 기술을 펼쳐야 하고 무도를 익혀야지 그 외의 장소에서 기술을 건다는 것은 치명적이 될 수 있다고 여겼다. 그런데 평소에 염려하고 있던 그런 일이 오늘 벌어진 것이다.

양아치들과 실랑이를 하느라 한 시간 넘게 시간을 허비하다보니 벌써 오후 네 시가 훌쩍 지나고 있었다. 우리가 놀 수 있는 시간도 그리 많지가 않았다. 하동역까지 가는 시간이 있으므로 어쩔 지금부터 짐을 꾸려야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침묵하고 있는 동안 김봉자가 시계를 보더니 목포에서 출발하는 열차가 하동역에서 저녁 일곱 시경에 있으니 미리 짐을 꾸려서 출발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조심스레 제의했다.

그러잖아도 그 양아치로 말미암아 분위기도 깨져버린 터였고 시

간도 넉넉지 않으니 미리 출발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계곡에 가서 세수를 한 후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들이 놀면서 어지럽게 흩어놓은 쓰레기들을 한 곳에 모은 후 각자가 들고 왔던 가방을 챙겼다. 올 때와는 달리 텅 빈 가방으로 짐은 가벼웠다.

쌍계사 앞 일주문을 지나는 동안에도 우리들의 분위기는 냉랭하기만 했다. 칠공주들은 조금 전의 상황을 아직까지 떨쳐버리지 못한 듯 긴장된 표정이 역력해 보였다.

나는 유도부장 황수문에게 다가가서 여학생들에게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를 하라고 일러주었다.

쌍계사에서 화계장터로 오는 십리벚꽃 길목에서 은어회와 도토리묵을 판다는 간판을 발견하고 우리 일행들은 그곳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막걸리에 도토리묵을 한 접시 하면서 오늘 있었던 모든 나쁜 기억들은 잊기로 하는 건배를 들고나서부터 칠공주들도 기분이 전환되었는지 다시 조잘대기 시작했다.

“자! 이제 막걸리도 마시고 도토리묵도 한 접시 했으니 출발합시다. 아쉽지만 은어회는 다음에 먹기로 하고…”

학생회장 박성곤은 회식을 마치면서 상급자가 직원들에게 말하듯 이르자 우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하동역으로 가는 버스에 총총히 올랐다.

불일폭포를 찾아갈 때와는 달리 되돌아오는 시간은 잠시 만에 오는 느낌을 받았다.

하동역 근처의 정류소에서 버스를 내려 역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때였다. 중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앳된 소년이 다가와서 말했다.

“보이소, 저쪽에서 어떤 형님들이 좀 보자 합니다.”

손으로 가리키는 방향을 보았더니 우리 또래 되는 교련복을 입은 세 명의 학생이 그쪽으로 오라고 손짓을 했다.

우리들은 그냥 모른척하고 지나치려다 돌아보니 우리를 꼭 만나서 얘기를 할 게 있다는 말과 함께 수화 동작까지 취했다.

에트랑제 회원들은 들고 있던 짐을 칠공주들에게 맡겨두고 천천히 소년들이 손짓하는 쪽으로 다가갔다.

“너희들이 우리를 보자고 했더니? 왜?”

에트랑제 회원들이 묻고 있는 동안 골목길에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리 또래를 비롯해서 이십대 후반 되는 나이의 청년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젊은이들이 스물다섯 명 정도 되었고 절반은 각목을 들고 나타났다.

우리들은 분위기가 심상찮음을 감지했다. 이놈들은 한 시간 전에 불일폭포에 나타났던 양아치들의 일행임이 분명하다는 직감이 들었다.

“이야! 오늘 진짜 큰 일이 터지게 생겼구나! 저놈들은 몇 명이 어울려 다니면서 사고치는 양아치가 아니고 조폭들이다.”

모두들 겁을 냈지만 유도부장 황수문과 럭비주장 임대근은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겁내지 말라고 우리를 다독였다. 그러나 가슴이 떨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잠시 침묵이 흐르는 동안에 조폭들 중앙의 위치에서 이십대 중반으로 보이면서 까만 피부에 깡마른 체구의 사내가 앞으로 나오면서 말했다.

“너희들이 우리 동생 머리를 깎았다며? 누가 집어던졌다며? 어떤

놈이 그랬노? 이 새끼들아, 여기가 어디라고 까불어. 그래 놓고 하
동을 뜨려고 했냐? 건방진 새끼들!”

금방이라도 무슨 큰 일이 벌어질 듯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나는 용기를 내서 그들 앞으로 걸어갔다.

앞쪽에 서 있는 두목처럼 보이는 그의 앞에 가까이 다가가서 얼
굴을 자세히 살펴보니 섬뜩했다. 오른쪽 눈에서 관자놀이까지 십
센티 길이의 칼자국이 선명했고 찢어진 눈매는 칼날처럼 매섭게 보
였다. 나는 그의 인상을 보고 덜컥 겁이 났으나 용기를 내서 오늘 사
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다쳤으면 치료비는 물론 용서
를 빌겠다고 공손하게 말했다.

그는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내 얼굴을 자세히 보면서 말했다.

“야! 너는 나이도 어리게 보이네. 어려보이는 걸 보니 형님들 따
라 놀러왔던 모양인데 너는 저쪽으로 비켜!”

사내는 주먹으로 내 머리를 툭툭 치며 밀쳐냈다. 그러나 나는 계
속 다가가서 간절하게 부탁했다. 그것은 곧 부산가는 열차가 올 때
가 되었고 이번 열차가 부산가는 마지막 열차이니 보내달라고 애원
하듯이 말했다. 그렇지만 그들에겐 소용없었다.

“이 새끼가 저리 가라고 해도 안가고 말이 많아! 어서 비켜!”

두목은 내 말 따위는 듣지 않겠다는 투로 내 가슴을 툭 치며 밀쳤다.

나의 이런 행동을 지켜보던 학예부장 김병헌이 무슨 생각을 했던
지 앞쪽으로 나와서 태권도 자세를 취하면서 말했다.

“내가 방금 숫자를 세어 보니까 스물다섯 명 정도 되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25대7이다. 너희들은 숫자가 많을 뿐이지 우리 일곱 명은
유도나 태권도 유단자들이다. 건드리면 너희들은 박살난다. 생각을

단단히 해봐라. 응?”

그 말을 듣고 있던 조폭들은 순간 움찔하며 놀라는 기색이었지만 숫자도 많은데다 절반이 각목까지 가졌다는 사실에 고무되어 있는 듯 크게 웃더니 언성을 높여 말했다.

“야, 이 씹새끼야! 어디서 공갈치고 있어! 인마이거 웃기는 놈이네. 하하하”

사실 내가 봐도 무술인 같이 보이는 사람은 유도부장 황수문과 럭비주장 임대근 두 사람 밖에 보이질 않는데 싸움판에서 빼가 자란 저들의 눈에는 오죽 잘 떨까 싶었다. 한참 상황을 지켜보고 말이 없던 유도부장 황수문이 드디어 무슨 결심을 한 표정으로 앞을 나섰다.

“야! 너희들 주먹들이냐? 아니면 양아치들이냐?”

“뭐라고? 새끼야! 우리가 양아치로 보이냐! 우리는 주먹들이다. 왜 물어? 새끼야!”

“좋다. 정말 너희들이 주먹들이라면 주먹답게 놀자.”

유도부장 황수문은 럭비주장 임대근을 가리키며 말했다

“옆에 있는 이 친구 말고는 싸움과는 동떨어진 공부만 하는 공부벌레들이다. 그라고 오늘 사건도 내 때문에 일어났으니 우리 친구들한테 손대지 말고 우리 둘과 결투하자. 그리고 조건이 있다. 오대일로 붙어서 우리들이 지면 너희들 하자고 하는 대로 하겠다. 대신 우리가 이기면 더 이상 이유를 달지 않고 보내줘야 한다. 어때?”

유도부장 황수문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던 두목이 말했다.

“옆에 있는 저 새끼도 오대일이가?”

럭비주장 임대근이 한 발짝 앞으로 발을 옮기면서 대답했다.

“그래. 나도 오대일로 하겠다.”

“야! 이 새끼들 봐라. 고교생이 제법인데! 네놈들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건방져?”

그렇게 말한 후 뒤에 있는 조폭 톨마니들을 향해 명했다.

“너희들 저 새끼 시부리는 소리 모두 들었제? 열 명 준비해라!”

두목이 지시를 하자 대오가 흩어지면서 다섯 명이 앞쪽으로 나왔다.

“시부리는 저 새끼 두 번 다시 간 큰 소리 못하게 다섯 명이 작살 내버려라! 만약 저 새끼한테 지면 너희들은 내게 골로 간다. 그러니 각오하고 싸워라, 알겠나?!”

두목은 호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말하고 나서 두 걸음 뒤로 물러섰다. 에트랑제 회원들은 황수문을 믿고 있었다. 교내 유도장에 가면 유단자들이 청띠, 홍띠를 맨 유도부원 서너 명과 겨루기시합을 자주하는데 게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한판승이었다. 특히 유도부장 황수문은 다섯 명 유단자도 순식간에 한판승을 끝내서 ‘괴물’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다. 우리들은 황수문을 믿고 팔짱을 낀 채 지켜보고 서 있었다.

“시작해!”

조폭 두목의 명령이 떨어졌다.

유도부장 황수문은 겨루기 자세로 들어갔다. 한 명의 조폭 톨마니가 선수를 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듯 급히 달려들었다. 황수문은 한팔 엮어치기로 날려버리고 다음은 허리채기로, 그 다음은 관자치기로 허리를 꺾으면서 왼손주먹으로 얼굴을 강타했다.

바닥은 금세 회오리바람이 먼지를 휩쓸듯 주위는 먼지로 뿌옇게 변했다. 네 번째는 꽤 큰 덩치로 힘깨나 있어 보이는 조폭이 달려 들

어오자 유도부장 황수문은 상대의 목을 조르기 자세로 조은 후 상대의 얼굴이 창백해지자 그대로 헤딩을 박아 버렸다. 조폭은 코피가 범벅이 되면서 뒤로 쓰러졌다. 그 순간 힘껏 달려오는 다섯 명 중의 마지막 남은 조폭을 달려오는 원심력을 이용해서 상대의 배에 발을 대고 뒤로 던져버리는 ‘누우면서 던지기’ 기술로 뒤로 던져버리자 조폭은 큰대자로 뻗으며 ‘악’하는 외마디 비명소리를 내며 하늘을 향해 드리눕고 말았다.

불과 십여 분 만에 상대 다섯 명을 제압해버리자 광경을 지켜보고 서 있던 조폭들은 몸을 움찔하면서 작은 목소리로 ‘우와 저 새끼 제법인데!’ 하는 소리가 무리들 속에서 들렸다. 칠공주들도 이런 광경이 믿기지 않은지 놀라워하면서 탄성을 질렀다.

“어머나! 황수문 오빠 너무 멋있다!”

“다음은 누가 붙을 끼고? 나가봐라! 야, 이 새끼들아 5대1로 박살이 나다니 쪽팔려서 못 보겠네. 개새끼들 이번에도 지면 심진강에 물귀신을 만들어 버릴 거야. 알아서 해!”

그러나 에트랑제 회원들은 이번에도 럭비주장 임대근을 유도부장처럼 신뢰를 하고 있었다. 럭비주장의 강인한 어깨는 황소와 버금간다고 알려져 있었다.

전국체전 3관왕에 최우수선수상을 받은 게 아무나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믿고 있었다.

“씹새끼들아! 뭐 보고 있어? 시작해!”

조폭 두목은 신경질적인 어투로 명령했다.

럭비주장 임대근은 어깨를 추스르며 목을 좌우로 흔들면서 말했다.

“누구든지 내게 걸려서 뼈 박살난 후 병신이 되었다고 평생 후회

하지마라!”

럭비주장 임대근은 조폭들이 멀뚱히 서있는 동안에 먼저 공격했다. 럭비시합 때 상대진영을 돌파할 때 상대의 몸동작을 흘으려 놓으면서 마치 제비가 급커브를 비켜갈 때처럼 몸을 휘면서 비호처럼 주먹과 발로 상대의 턱과 가슴, 복부와 허벅지를 마구잡이 차고 박아버렸다.

눈 깜짝할 사이에 세 명이 나뒹굴고 말았다. 코피를 쏟아내면서 가슴을 움켜쥐고 뻗어 있는 상황을 지켜보던 두목은 더 이상 대결은 소용없다고 느낀 듯 조폭 톨마니들에게 고함을 질렀다.

“야! 안 되겠다. 모두 나가서 조져버리라. 개새끼들 꼴통도 부셔버리고!”

조폭 두목의 말이 떨어지자 ‘우~’하는 소리와 함께 조폭들이 각 목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몰려왔다.

유도부장 황수문은 다급한 목소리로 럭비주장 임대근을 불렀다.

“대근아! 두목새끼 대가리를 조져버려!”

유도부장 황수문의 고함 소리를 듣고 럭비주장 임대근은 럭비시합 때 공을 잡고 있는 상대에게 공격하듯 조폭 두목의 허리에 강한 태클이 들어갔다.

“아악!”

조폭 두목은 전봇대에 처박히면서 비명을 질렀다. 조폭 두목을 쓰러트린 럭비주장 임대근은 주먹으로 미친 듯이 두목의 얼굴을 찍었다. 그래도 저항하는 두목의 얼굴을 헤딩으로 박아버리자 얼굴은 피범벅이 되고 말았다.

그런 순간 에트랑제 회원들 쪽으로 달려온 조폭들은 마구잡이 각

목을 휘두르고 주먹을 날리고 발로차고 해서 제대로 저항 한번 못한 채 나를 비롯한 에트랑제 회원들은 유혈이 낭자했다.

유도부장 황수문은 조폭들 중에 싸움을 특히 잘하는 한 놈을 업어치기를 해서 꺾은 후 목을 조르자 순식간에 실신하고 말았다. 그러자 건달들은 우르르 몰려와서 유도부장 황수문과 럭비주장 임대근에게 각목으로 타작하듯 내리쳤다.

유도부장 황수문에게 목이 졸려 실신한 조폭 한 명이 일어나지 못하고 죽은 듯 누워 있었다.

“도끼가 죽었다!”

조폭들 중 누군가가 큰소리로 외치자 우리들에게 마구잡이 폭력을 행사하던 조폭들은 놀라는 표정을 띠며 주먹질을 멈춰버렸다.

싸움이 중단된 상태였는데 학예부장 김병헌은 마치 도사견처럼 조폭 한 놈의 귀를 씹어 돌리고 있었다.

유도부장 황수문과 럭비주장 임대근도 각목 타작을 맞고 피를 철철 흘리며 땅바닥에 쓰러졌고, 조폭들은 실신해 있는 조폭의 등을 툭툭 쳐서 정신을 바로 차리게 한 후 일으켜 세우고 있었다.

조폭 두목은 에트랑제 회원들을 향해서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 말했다.

“우와! 씹새끼들! 뭐 저런 지독한 새끼들이 다 있어. 내 태어나 저렇게 비호같이 빠르고 멧집 좋고 주먹이 센 새끼들은 난생 처음 본다.”

하동장날이 파장 시간이라 장날에 나온 시골사람들은 한사람씩 몰려들었고 이런 엄청난 사건을 목격한 그들은 놀란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저놈의 깡패새끼들이 애들을 다 지기네. 어디서 저렇게 떼거리

로 몰려 오갔고 작대기까지 들고 저래! 누가 지서에 가서 신고 좀 해라, 응?! 지말! 큰일 났네!”

피를 흘리고 드러누운 에트랑제 회원들을 보고 탄식하는 시골 아낙네들의 염려소리가 귓전에 들려왔다.

칠공주들은 드러누워 있는 에트랑제 회원들을 붙잡고 이름을 부르면서 엉엉 소리 내어 울었다.

박초혜와 미영이도 나를 일으켜 세우며 울먹였다.

“오빠! 이일을 어째! 우짜노!”

미영이가 소리 내어 울고 있을 때 갑자기 조폭들 쪽에서 고탈소리가 들렸다.

“짜바리 온다! 튀자!”

시장통 쪽에서 땡그랑 땡그랑 자전거 요룽소리를 내며 머리가 희끗한 순경이 삐걱대는 자전거를 타고 드러누워 있는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순경은 하동장날 어느 주막에서 낫술을 마신듯 벌건 얼굴이었고 막걸리 냄새까지 폴폴 내고 있었다.

“참 귀찮게 하네. 장날에 선지국에 막걸리 한잔하면서 기분 좋게 술 마시고 있는데 기분 잡치게 애새끼들이 싸움한다고 연락이 와갖고 술도 다 못 먹고 나왔다 아이가.”

순경은 취기가 크게 오른 듯 몸을 비틀거리며 자전거를 세운 후 렉비주장 임대근의 종아리를 툭툭 차면서 말했다.

“야 인마들아! 벌건 대낮에 누구하고 싸워가지고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드러누워 있어? 얼른 일어나라!”

내 곁으로 다가온 순경은 엉거주춤한 자세로 쪼그리고 앉아서 말

했다.

“보자! 인마는 학생 같은데? 그라고 너희들은 여대생들이냐? 옷 입은 것 보니까 멋쟁이들이네.”

순경은 박초혜와 미영이를 빠끔히 쳐다보며 말했다.

“치정이가? 아니면 삼각관계가?”

순경이 하는 행동을 옆에서 지켜보던 아줌마들 중에 한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말했다.

“배 순경예! 빨리 조폭들을 잡으러 가던지 아니면 빨리 의원에라도 데리고 가던지 아니면 약방에 가서 약이라도 발라주어야지, 그렇게 다친 애들 얼굴만 쳐다보면 우야능고, 야? 어서요! 하기야 저렇게 술이 취해갔고 조폭을 검거할 수 있겠나? 도리어 조폭한테 얻어터지겠다. 쫓쫓쫓.”

아줌마들이 배 순경에게 면박을 주자 배 순경은 듣기 싫은 듯 못마땅한 표정으로 짜려보며 말했다.

“모르는 소리 하지마소! 이 새끼들을 지서에 데리고 가서 조사를 좀 해야 되겠소. 그래갖고 콩밥도 먹이뿌고.”

배 순경은 투명스럽게 쏘아붙인 후 에트랑제 회원들을 보고 모두 일어나서 자기 따라 지서에 가서 조사받자고 으박질렀다.

에트랑제 회원들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운 후 절뚝거리며 배 순경 뒤를 따라갔다. 나뿐만 아니라 에트랑제 회원들 대부분은 찢어진 옷 사이로 피가 묻어 나오고 있었다.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지서 문을 들어서자 한 명의 순경이 등반이 의자에 몸을 폭 파묻고 다리를 책상 위에 꼬아 올려놓은 채 코를 드르렁 골고 있었는데 그 순경도 낫술을 한 잔 했던지 지서 안은 막걸리 냄새가 진동했다.

“봐라! 봐라! 최 순경 일어나봐라.”

배 순경이 자신의 허리에 차고 있던 곤봉으로 책상을 몇 번 툭툭 치고 난 후에야 최 순경은 겨우 눈을 부스스 뜨며 일어났다. 눈을 뜬 최 순경은 눈곱이 덕지덕지 낀 눈으로 우리를 훑어보더니 뜬금없는 말을 했다.

“어? 이 새끼들 저번에 싸운 그놈들 아이가. 또 싸웠나? 이번에는 콩밥 먹여줄 테니 각오해라!”

그 말을 듣고 있던 배 순경은 기가 찬 표정으로 말했다.

“최 순경! 정신 좀 차려라. 세면장에 가서 세수도 하고 쫓쫓!”

아직도 잠에서 덜 깬 듯 보이는 최 순경의 잠꼬대 같은 소리에 배 순경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혀를 찼다.

뒤뚱거리며 일어나서 세수를 한 후 목덜미에 타월을 걸치고 들어오는 최 순경을 보면서 배 순경이 말했다.

“나는 오늘 아버지 제사라서 일찍 가야 하니까 최 순경이 알아서 조서 좀 받아라.”

그렇게 말한 후에 배 순경은 지서 문을 밀치고 나가 버렸다.

최 순경은 책상 서랍에서 을지조서 용지를 꺼내면서 으박지르듯이 말했다.

“인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싸움을 하노? 지금이 자유당 시절인 줄 아는 가베. 너저가 김두한이가 이정제가 시라소니가. 새끼들이 까불고 있어.”

최 순경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폭행죄는 형법 몇 조에 해당되며 집단폭행은 죄가 더 무거우며, 흥기를 든 자 그리고 밤에 집단으로 상대를 폭행하면 특수폭행으로 죄가 더 무겁다는 등 각목을 들

면 폭행죄가 가중처벌 된다는 등 장구하게 일장 연설을 하듯이 설명하고 있었다. 그런 말은 마치 주사로 들렸다. 그렇게 삼십 여분을 중얼거리던 후 상처가 경미한 악대부장 이우성을 가리키며 말했다.

“야! 네가 이쪽 애들을 때렸어?”

에트랑제 회원들과 긴 나무의자에 나란히 앉은 칠공주들은 어리둥절해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본 후 다함께 기가 찬 표정으로 대답했다.

“네?”

우리들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최 순경은 다시 혼잣말로 계속 중얼거리면서 말했다.

“야 인마! 네가 사람을 개 패듯이 뺐구나. 저 정도 상처면 진단 십주는 넘는다. 너 이번에 잘 걸렸다. 콩밥 한 번 제대로 먹어봐라 새끼야! 얼굴은 매끄럽게 생겨갖고 완전히 사고뭉치네.”

에트랑제 회원들과 칠공주들은 일제히 그게 아니라고 말했으나 최 순경은 듣는 듯 마는 듯 하면서 목소리가 큰 칠공주들을 향해 눈을 부라리며 버럭 고함을 질렀다.

“야, 이 가시나들아! 너희들 보고 묻는 게 아니니 조용들 해라!”

그렇게 동문서답을 하고 있을 쯤 약을 사러갔던 김봉자가 지시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에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는 약봉지를 여러 개 들고 있었다. 종이 봉지 속에는 머큐로크롬액, 요오드팅크, 안티피린, 붕대 등이 들어 있었다. 그것을 칠공주들에게 종류별로 나눠주었다.

최 순경은 눈을 비비다가 하품을 하면서 비스듬히 앉은 자세로 헝클어진 을지조서 용지를 가지런하게 정리한 후 책상 위에 올려놓

았다. 그리고 불펜을 잡으며 통명스럽게 말했다.

“네가 피해자 같이 보이는데, 많이 맞은 너부터 이리 와서 진술해 봐!”

유도부장 황수문은 풀 죽은 모습으로 최 순경 책상 앞쪽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음..., 주소부터 말해 보거라. 이름, 나이, 학생이면 학교이름, 보호자 성함과 직업은? 사고 경위를 말해봐라.”

최 순경은 아직 술이 들깸 상태였지만 직업상 오랫동안 조서를 받으면서 입에 붙어 있는 인적사항 순서를 잠꼬대 하듯이 줄줄이 이었다.

“가시나들도 이리로 와봐라! 너거들도 싸울 때 옆에서 지켜본 증인이어서 참고 조사 좀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남녀 각각 일곱 명을 차례대로 약식으로 물어 본 후 최 순경은 고개를 가우뚱거렸다.

“그런데, 참 이상하네? 전부다 맞은 사람들뿐이고 때렸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너희들이 나하고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야? 농담 따먹기 하는 것 아니야?!”

최 순경은 게슴츠레한 눈을 뜨면서 되물었다. 우리들은 한목소리로 짜증을 내면서 말했다.

“순경아저씨예! 우리를 때리고 도망간 사람들은 이 동네 조폭들 이라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까!”

“그렇다면 그 깡패들을 너희들이 데리고 와야 될게 아니냐?”

아직도 술이 덜 깸 듯이 보이는 최 순경하고는 더 이상 얘기해보 았자 허사라 생각하고 모두들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면서 화가 난

배짱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 우리들은 괜찮으니 집에 갑니다.”

“인마들아, 조사도 덜 했는데 어딜 나가? 거기 멈춰!”

“잡아 처넣든지 알아서 하세요.”

김봉자는 큰소리로 화를 버럭 내면서 마치 보호자처럼 에트랑제 회원들과 칠공주들의 등을 떠밀어서 지서 출입문 쪽으로 밀어냈다. 그때서야 최 순경은 어렵פות이 상황판단을 깨달았는지 눈까풀을 띄엄띄엄 들어 올리면서 말했다.

“때린 놈들 보이거든 지서로 데려와. 알겠지?”

최 순경의 주사를 뒷전에 두고 지서를 나오니 벌써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어쩐담. 열차는 놓쳤고 모두들 많이 다쳤으니 병원에라도 가야지.”

송혜림이 걱정스레 말하자 조금 전에 약을 구입해온 김봉자가 이동네는 의원밖에 없으며 더군다나 오늘은 일요일이라 병원문도 안 열고 갈려면 진주까지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말한 김봉자는 마치 전쟁터에서 간호장교가 장병들을 체크하듯이 종이와 볼펜을 들고 한사람씩 다친 상태를 적고 있었다.

“항수문 오빠와 임대근 오빠는 다친 부위가 눈에 드러나니 제외하고 광휘오빠는 어디가 많이 아파요?”

김봉자는 에트랑제 회원들 한사람씩 얼굴은 물론 등 뒤쪽까지 두루 살피며 말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경미하게 다쳤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곁에 있는 학예부장 김병현을 보고 많이 안 다쳤느냐고 물었다. 김병현은 자신은 조폭새끼 귀를 너무 물었더니 이빨이 조금 아픈 것뿐이라고 말한 후 툭툭 부은 얼굴로 히죽 웃었다.

“유도부장 황수문과 럭비주장 임대근이 제일 많이 다친 것 같은데. 친구야! 뼈 부러진 곳 없어?”

나는 두 사람을 살펴보면서 말했다.

“뼈는 부러진 곳이 없는 것 같다.”

두 사람은 거친 운동을 하면서 뼈 골절을 많이 겪어본 경험을 가져서 찰과상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했다.

그때 학생회장 박성곤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뭔가 귀중한 것을 발견했다는 듯이 말했다.

“저기 희미한 간판 불빛 보이지? 여인숙이라 적혀 있는 거?”

“맞아요. 여인숙이네요. 그렇지만…….”

칠공주들은 대답을 한 후 말끝을 흐렸다.

학생회장 박성곤은 일단 저기 들어가서 얼굴도 씻고 다친 부위에 약도 바르고 몸을 누이어 조금 휴식을 취한 후에 다음 일을 계획하자고 제의했다. 칠공주들은 안절부절 하면서도 다른 방법이 없음을 깨닫고 모두들 여인숙으로 가는 것에 동의했다.

삐거덕거리는 여인숙의 녹슨 철 대문을 열자 “누고?” 하면서 주인인 듯 보이는 여자가 엷드린 자세로 미닫이문을 열었다.

양정숙은 앞을 나서며 주인인 듯 뵈는 아줌마에게 다가가서 열네 명이 한꺼번에 잘 수 있는 큰방이 있느냐고 물었다. 여주인은 큰 방은 없고 세 사람 정도는 억지로 함께 잘 수 있는 방뿐이라고 말했다.

여주인은 문밖으로 나와서 우리 일행들을 돌아보며 쭉 살피다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요? 총각들이 많이 다쳤네. 얼른 이쪽 방으로 오쇼.”

여인숙 여주인이 상처를 본 후 종종걸음으로 앞장서서 안내한 곳

은 큼직한 방이었다.

“아줌마 방금 큰방이 없다고 했잖아요?”

양경숙은 조금 전에 큰방이 없다고 했던 여주인의 말이 서운했던 지 투명스럽게 말했다.

“우리 여인숙은 가능한 젊은 사람들을 혼숙 시키지 않는데 다친 총각들이라 방을 내주는 거니까 그렇게 아소.”

우리 일행들이 방으로 들어가자 방이 꽉 차버렸다. 열 명 정도 잘 수 있는 방이어서 양경숙은 다른 방을 더 알아보겠다며 밖으로 나가더니 두 명이 잘 수 있는 방을 하나 더 얻었다고 전해준 후 박초혜를 보면서 말했다.

“초혜야! 광휘오빠 부축해서 옆방으로 가거라.”

양경숙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미영이가 상기된 표정으로 벌떡 자리에 일어나면서 말했다.

“광휘오빠는 내가 간호해야 한다.”

나는 미영이의 행동에 조금은 당황해하면서 말했다.

“미영아, 너는 악대부장 이우성을 간호해 줘야지.”

그러나 미영이는 토라진 듯 썰쭉하니 못 들은 척 했다.

우리의 상황을 보고만 있던 칠공주들이 그건 안 된다며 만류했다. 박초혜 또한 내가 다쳤지만 오늘 처음 만난 나와 단둘이서 밤을 보낸다는 것이 아무래도 마음이 걸리는 듯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

여태껏 아무 말이 없던 김태자가 방법을 제안했다. 두 사람 밖에 잘 수없는 공간이라면 환자는 바로 누이고 초혜와 미영이는 머리 방향에서 벽을 기대서 앉고 초혜는 다리 쪽에서 벽을 기대고 앉으면 된다고 했다.

그렇다. 두 사람이 한 방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모두들 아주 예민

하게 받아들이면서 달리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방을 배치하고 있는데 여인숙 여주인이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문을 여니 그릇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그게 뭐냐고 물으니 된장이라고 말했고 그것을 뒤편에 쓰냐고 다시 물으니 머리 다친 곳에 발라주면 빨리 아문다고 말하며 방안으로 내밀었다.

그러나 칠공주들은 무서워서 못한다고 하니 여주인은 방으로 직접 들어와서 유도부장 황수문과 럭비주장 임대근의 머리에 감아 놓은 붕대를 풀고 된장을 바른 후 붕대를 다시 칭칭 감아 주었다.

“쯔쯔! 총각들 부모님들이 보면 얼마나 놀라겠어. 웬만하면 싸우지 말고 참아야 된다.”

여주인은 피에 묻은 형겅을 움켜쥐고 방을 나갔다.

김태자의 제안대로 나와 미영이 그리고 박초혜는 옆방으로 옮겼다. 미영이가 깎아주는 요에 조심스레 누우니 잠시 멈췄던 통증이 다시 온몸을 엄습해왔다. 아픔을 꼭 참고 누웠는데 할아버지 모습이 떠오르면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다.

‘광휘야! 남을 때린 놈은 다리를 오그려 자고, 맞은 놈은 다리를 펴고 잔다. 절대로 남을 때려서는 안 된다.’

할아버지가 평소에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귓가에 메아리쳐 오더니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면서 노기에 찬 목소리가 귓전에 맴돌고 있었다.

‘광휘야! 공부는 물론이고 복장과 언행을 항상 정갈하게 해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나는 꿈결에서 반항하고 있었다.

‘모범이 무슨 대습니까. 어릴 때부터 여태까지 남하고 한 번도 싸운 적 없고 항상 양보만 해왔는데 얻은 게 무엇입니까? 오늘 이 손

자, 이 아들 모습을 한번 보세요. 맞기만 했지 한 차례도 때려보지 못한 머저리입니다. 바보입니다. 이렇게 맞고만 있는 게 무슨 미덕입니까? 저도 앞으로는 언어맞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남이 한 차례 때리면 나도 한 차례 때려서 응징 할 겁니다. 이제 그 지긋지긋한 선생 아들이라는, 선생아들이여서 모범이 되어야한다는 황당한 논리는 집어 던질 겁니다. 과연 힘없는 정의가, 힘없는 평화가, 힘없는 사랑이,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나약함이 빛을 지켜준답니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건 약자의 변명이라고 말입니다.’

꿈속에서 이런 다짐을 하고 있는데 미영이가 헛소리하는 나를 깨운 후 바로 누이면서 어머니처럼 말했다.

“오빠, 무슨 땀을 이렇게 많이 흘려?”

미영이는 마른수건을 가지고 가볍게 얼굴의 땀을 짖어 내면서 말했다. 그런 후 얼굴에 뭔가를 대고 빙글빙글 굴리고 있었다.

나는 신음에 가까운 소리로 물었다.

“그게 뭐냐?”

“날계란 굴리고 있어. 피멍이 빠진다면 여인숙 아줌마가 시키더라.”

미영이가 시퍼렇게 멍든 부분을 계란으로 계속 굴리고 있을 때 바깥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다.

“주인아줌마! 방 있습니까? 방 두개 주세요요.”

중년의 목소리로 들리는 남자가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입이 풀린 목소리로 말했다.

남자 두 사람과 아가씨 한명이 여인숙을 들어오는 소리가 바로 문전에서 들렸다. 그들은 아직도 취흥이 가시지 않은 듯 딸꾹질을

하면서 박자도 맞지 않은 유행가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잠시 후 미닫이문이 열리고 샌들 끄는 소리와 함께 여주인의 목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이쪽 방으로 들어가고, 한 사람은 저쪽 방으로 들어가 소.”

남녀 두 사람이 들어온 방은 내가 누워 있는 옆방이었다. 합판으로 칸막이가 되어 있었는지라 아주 작은 소리도 한 방에서 듣는 듯 크게 들렸다.

“명자야! 오늘밤 우리 화끈한 밤을 한번 보내보자. 호호호.”

“아저씨, 저번에도 술값 외상하고 오늘도 외상하고 술값이 얼마 인 줄 압니까? 그리고 2차도 외상으로 하는 사람이 어데 있습니까?”

“알고 있어 가시내야! 이번 주 토요일 날에 노가다 십장이 가불해 준다고 약속되어 있으니 그때 다 갚아줄게. 그리고 세상에 외상이 안되는 게 어디 있어! 구시렁거리지 말고 옷이나 빨리 벗어라.”

“애고, 성질이 억수로 급하네예. 오늘밤엔 천천히 좀 부드럽게 해 보이소.”

“알았다. 가시내야!”

그들은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다시 말소리가 들렸다.

“애고! 아파서 못하겠심더. 빨리하고 내리 오이소. 어이쿠! 지켜 워. 사타구니가 모두 헐겠습니더. 젖꼭지가 따가워 죽겠어예. 좀 그만 훅으이소. 애기도 아니면서 자꾸 젖을 빨라고 합니까?”

한 시간 넘게 음행을 펼치던 그들이 갑자기 조용해지자 적막감마저 들었다. 우리 방에서는 모두 듣고 있었지만 행여 들리기라도 할까봐 숨소리까지 죽이고 있었다. 나쁜 행동을 하다가 들킬까봐 주

위를 살피는 아이처럼 모든 것을 경계하며 숨소리까지 죽였다. 간혹 나만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짹고 가는 신음소리만 냈을 뿐이었다. 그들도 숨소리를 죽인 듯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런 적막을 깨는 소리는 십여 분 쯤 뒤에 되살아났다.

“명자야! 이기 무슨 소리고 가만히 들어 보거라? 우리가 이 방에 들어올 때 옆방 문 앞에 남자 신발 하나 하고 여자 샌들 두 개 있는 것 너도 봤지? 옆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썬!”

“맞아요. 저도 들었어요. 또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요?”

“명자야, ‘꽁꽁 아야야’ 하는 남자 비명소리가 옆방에서 들리지? 저 소리가 벌써부터 낯겨든. 이대일로 떼 씹 하는가 보다.”

“떼 씹? 그게 무슨 뜻인데요?”

“가시내야! 그룹섹스라는 말도 모르나? 그건 그렇고 남자 하나를 복판에 눕혀놓고 가시나 둘이서 반쯤 죽이나보다. 그런데 가시나들이 중앙청을 물어 버리는지 아프다고 생난리고. 대충 부드럽게 해주지 씹도 할 줄 모르는가 보다. 그런데 이상하다? 씹을 하면서 지금 바지를 벗긴다니 좀 이상한 떼 씹을 하네. 저것들 변태들인가 보다. 그리고 가시내야, 너도 저 방의 가시나들 본 좀 받아라. 저 정도 빠구리는 해야 된다 아이가. 이 등신아! 그래도 너는 프로잖아!”

“아야야! 아저씨 왜 때리고 그래요. 내게 현금주고 팁만 팍팍 쥐보세요. 그러면 확실하게 서비스 해줄 텐데. 피!”

그들이 우리 방을 엿듣는 동안에 우리 방에서는, 외형적으로 나타난 환부만 머큐로크롬액을 발랐을 뿐 아직 가슴이며 허벅지의 상처는 약을 바르지 않은 상태였고 내가 허벅지도 아프다고 하니 미영이와 박초혜가 상처부위에 약을 바르자며 바지를 끙끙거리며 벗기고 있었고 상처 부위의 응고된 피가 바지에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나는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옆방의 여자는 다시 짜증스런 목소리를 냈다.

“아저씨, 이제 그만 내려오세요. 내일 새벽에 해요. 고만 잡시다.”

여자는 하품까지 했으나 남자는 한숨을 크게 내쉬 후 푸념 섞인 말투를 내뱉었다.

“나도 내일모레면 환갑이다 보니 이제 늙은 것 같다. 민물장어 곶을 좀 해먹어야 하는데 마누라도 도망가고 누가 해줄 사람도 없고…”

“소문 들으니 사모님 있다 하던데요, 아닙니까?”

“가시내야, 마누라 있으면 너하고 외박하겠나?”

“아저씨 민물장어 살 돈이나 있습니까? 외상술에 외상 씹하는 주제에. 연애도 잘 할 줄도 모르니까 사모님이 도망갔겠죠. 호호호.”

“가시나, 이게 남자의 자존심을 팍팍 죽이고 있어! 남자는 손가락들 힘만 있으면 성생활 할 수 있다는 말도 모르나. 몸 파는 년이 그것도 모르나.”

“아야! 아저씨 왜 자꾸 머리 쥐어 박습니까.”

명자라 불렀던 그녀가 비웃자 자존심이 크게 상했던지 남자는 명자의 머리를 계속 쥐어박는 듯 아프다는 소리를 질러댔고 남자는 엉뚱스레 우리 방으로 화살을 쏘았다.

“야 이 씨필놈들아! 이제 대충 고만하고 잠 좀 자자. 옆방에 있는 사람 좆 풀리게 자꾸 그러지 말고. 어여!”

남자가 합판 칸막이를 발로 몇 번이고 쿵쿵 쳤지만 나는 말할 힘도 없었고 미영이와 박초혜도 남녀 학생이 한방에 있다는 그자체가 흠이라고 생각했던지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하고 계속 숨소리를 죽이고 있었다.

옆방에서 그렇게 상스러운 말이 끊기고 남자의 코고는 소리가 들릴 쯤 화장실 쪽에서 ‘사람 살려!’하는 여자의 비명소리가 밤의 정적을 깼다.

“야 이 씨떨년아! 빠구리 한번 하자! 우와, 젓무덤도 크고 잘빠지고 방둥이도 탱글탱글하고! 죽여주겠는데!”

“사람 살려! 손 놓으세요. 왜 이러십니까!?”

갑자기 밖에서 실랑이 벌어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목소리를 들어보니 김태자였다. 옆방 칠공주들은 화장실에 간 김태자의 목소리임을 직감했던지 방문 열리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이어서 미영이와 박초혜도 문을 박차고 나가면서 소리쳤다.

“이 목소리는 태자 아이가!?”

칠공주들이 조금 전 비명소리가 들리던 곳에 합류한 듯 웅성거리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이런 미친 새끼야! 학생한테 이기 무슨 짓이고 술을 마시면 똑바로 마셔야지 똥구멍으로 처마셨나?”

여인숙 여주인이 비명소리를 듣고 먼저 달려간 듯 남자를 나무라는 소리가 찌렁찌렁 울러 퍼졌다. 그리고 잠시 후 툭툭거리는 소리가 세차게 들려왔다.

화가 치밀었던 칠공주들이 샌들을 들고 추행을 저질렀던 그 남자를 마구잡이로 때리는 소리였다. 그것은 오늘 낮에 에트랑제 회원들이 조폭들에게 당한 양값음을 그 남자에게 쏟아 붓는 것 같이 들렸다.

남자는 정신없이 두들겨 맞고 여인숙에서 당장 나가라는 여인숙 여주인의 다투음을 들었지만 통행금지 시간인데 나가라고 하면 갈 데가 없다며 통금이 해제되면 나가겠다고 버텼다. 여인숙 아줌마도

그런 점을 감안한 듯 목소리가 낮아졌다. 추행을 저지른 남자에게 용서할 테니 조용히 들어가서 잠자라고 당부했다. 철공주들은 지금부터 화장실에 갈 땐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가야겠다며 입을 모은 후 각자의 방으로 돌아갈 즈음에 자정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진통제가 온몸으로 퍼지는 나른한 느낌과 동시에 눈이 스르르 감졌다.

“주인 계십니까? 잠시 임검도 하고 이곳에서 여자 일곱 명한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가 와서 피의자를 잡으러 왔습니다.”

조금 전에 음탕한 짓거리를 했던 그 남자가 몰래 여인숙을 빠져나가 지서에 신고를 한 듯 했다.

순경과 방범대원들이 남자를 앞장세우고 여인숙에 들이닥쳤다.

“아지매, 어느 방입니까? 신발이 많은 저 방인가보네?”

여주인을 뒤에 대동한 후 여러 명이 투숙해서 자고 있는 큰방의 미닫이문을 여는 소리가 덜컥 났다.

“아지매, 불 한번 켜보소.”

여인숙 여주인이 방문 입구에 있는 스위치를 켜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스무 살도 안 되어 보이는 남녀를 한 방에 이리 혼숙을 시켜 놓았소. 그리고 남자들도 조금 전에 싸웠더라는 말이에요?”

신고를 했던 남자에게 묻는 듯 보였다.

“아닌데요. 남자들한테는 안 맞았어요.”

순경은 그 남자를 의심하듯 되물었다.

“가만 있자? 여자한테 맞았다고? 왜 맞았소?”

그 말을 듣고 있던 여인숙 여주인과 철공주들은 김태자를 순경 앞으로 내세우며 이구동성으로 일러 바쳤다.

“저 남자가 이 여학생한테 못된 짓을 해가지고 두들겨 맞았어요.”

“그렇다면 쌍방으로 피해를 보았다는 얘긴데 당신도 여기 여학생들과 지서로 갑시다. 그리고 일곱 명한테 두들겨 맞았다는데 그 사람들도 모두 여자인가요? 두 사람은 어디로 갔소? 달아난 거요?”

순경이 의심의 눈초리로 여주인에게 묻고 있을 때 방범대원이 방문 앞을 훑어보면서 보고하듯 말했다.

“옆방에 여자 신발이 두 개 있는데예.”

방범대원은 우리 쪽의 방문 앞으로 와서 노크했다. 미영이와 박초혜는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이미 다 듣고 있었는지라 문설주 뒤에 몸을 숨기고 서 있다가 문을 여는 방범대원들과 눈이 마주쳤다.

“아가씨들인 것 같네. 밖으로 좀 나와 보소.”

여인숙 여주인은 내심으로, 남녀 학생들을 혼숙시킨 것이 숙박업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었음이 마음에 걸린 듯 순경이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변명하듯 말했다.

“순경아저씨! 사실은 남녀학생이 혼숙을 하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여인숙 여주인이 혼숙 경위에 대한 자초지종 설명을 늘어놓았으나 순경은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일단 지서로 모두 가자고 했다. 그리고 남학생들은 많이 아픈 것 같으니 누워있게 하고 혹여 달아날지 모르니 도망가지 못하게 방범대원 두 명이 지켰다가 통금해제가 되면 즉시 지서로 데려오라고 지시를 남겼다. 그런 후에 순경은 이어서 소위 피의자와 피해자에 대한 죄목과 여주인에게는 숙박업을 어긴 죄목을 열거했다. 여인숙 여주인은 ‘미성년자 혼숙금지에 관한 법률위반죄’, 여학생들에게 ‘집단폭행죄’가 성립되며, 신고한 피해자는 강간미수죄에다가 아가씨 윗도리를 찢어놓고 유방을 거칠

게 만졌다는데 그것은 추행죄에 해당되며, 김태자가 피명든 목덜미 아래를 보여주자 상해죄 및 옷을 찢어 놓았으니 옷값도 변상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절주절 열거했다. 신고 한 남자는 괜히 신고를 해서 낭패가 되었다는 듯 긴 한숨 소리를 냈다.

순경은 형법개론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한 후 신고한 남자를 비롯해서 여인숙 여주인과 칠공주들을 모두 연행해 갔다.

여인숙에 남은 사람은 상처가 나서 누워 있는 에트랑제 회원들뿐이었다. 나는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면서도 눈은 자꾸 가물가물 감겼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통금해제를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고 뒤이어 여인숙 여주인과 칠공주들은 돌아왔지만 에트랑제 회원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조잘조잘 떠드는 소리를 듣고 눈을 부스스 뜨니 칠공주들은 지서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하느라 옥신각신 했는데 결론은 서로 쌍방으로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풀려 나왔다고 했다.

그런데 고소한 그 남자는 어젯밤 내가 누워있던 옆방의 남자와 친구사이였는데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부끄러운 듯 지서를 나와서 곧바로 집으로 가버렸다. 그는 지금 옆방에서 자고 있는 남자의 옆집에서 셋방을 얻어 살고 있는 듯 했다. 그가 집으로 먼저 들어가자 친구 부인은 어젯밤에 외박하고 집에 돌아오지 않은 남편소식을 꼬치꼬치 캐물은 후에 남편이 지금 여인숙에 자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함께 잔 사람이 혼자 먼저 돌아온 점을 수상히 여겨 부랴부랴 여인숙을 찾아 와서 발가벗은 채 명자를 껴안고 잠자고 있는 남편을 목격하는 것이다.

이른 아침 여인숙에는 또 한 번 북새통이 벌어졌다.

“야 이놈아! 걸핏하면 외박하고 젊은 가시나 품고 오입질하고 자 빠졌어! 이놈의 바람기는 육십 밑자리를 깔아도 변하지 않으니 그 놈의 잡놈 짓은 죽을 때까지 데리고 가겠네.”

그 여인은 명자의 머리채를 낚아챈 후 비수 같은 독기를 품어댔다.

“야 이년아! 젊은 년이 저거 아버지 같은 늙은 놈의 진을 다 빨아 쳐먹고! 이년! 돈도 몽땅 빼앗아 먹고! 이 야시 같은 년. 너 죽어봐라.”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해서 칸막이 합판 벽이 부서질 정도로 쿵쿵거렸다.

그런 후에 여인은 퍼질러 앉아 신세타령을 하면서 통곡했다.

“열아홉에 저놈한테 잘못 걸려 가지고 저 더러운 놈하고 살면서 한평생 쌀 걱정, 반찬 걱정, 애새끼 학비 걱정, 집세 걱정 안 해본 날 이 없었네. 흐흐.”

명자라고 불리던 그 술집 잡부가 여인이 통곡하는 틈을 타서 도망가는 듯 슬리퍼 끄는 소리가 급박하게 들린 후에도 그 여인은 한참동안 절규하듯 통곡했다.

그 여인의 통곡소리에 놀란 에트랑제 회원들은 일제히 일어났고 나도 방을 옮겨 합류했다. 칠공주들은 수건에 물을 적서 와서 에트랑제 회원들의 얼굴과 손을 닦아 주면서 말했다.

“하동역 앞에 싸울 때 우리를 지서로 데리고 간 배 순경 자전거가 저 구석진 방 앞에 세워져 있더라. 아버지 제사라고 집에 간다고 했는데 배 순경 신발하고 여자 구두가 나란히 있더라.”

“그렇다면 아버지 제사에 갔던 것이 아니겠네?”

칠공주들은 배 순경에 대해서 얘기를 주고받으며 키득거렸다.

나는 부산가는 첫 열차가 몇 시에 있는지 미영이에게 알아보았느냐고 물었더니 새벽에 지서에 갔다 오면서 여인숙 여주인한테 물으

니 아침 여섯시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에트랑제 회원들은 칠공주들에게 말했다. 몸이 성하지 못하므로 걸음걸이가 늦으니 빨리 짐을 챙겨서 출발을 서둘자고 했다.

하룻밤을 자고나니 얼굴은 더욱 퉁퉁 부어 있었다. 우리들은 얼굴이 부어 눈이 반쯤 감긴 가자미 같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웃기도 했는데 마치 두 얼굴을 가진 헐크 같았다. 여인숙 여주인에게 어제 밤 소란을 피워서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여인숙을 빠져나왔다.

어제 해거름 때 악몽 같은 일이 벌어진 현장 공터를 지나서 하동역에 도착했다.

역에 들어서자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듯 상쾌하고 맑은 여명이 희뿌옇게 밝아오고 있었다.

칠공주와의 첫 대면과 온갖 보라색 꿈을 펼쳤던 올 때와는 달리 마치 패잔병들의 귀향길 같이 우리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열차에 올랐다.

열차 안에는 아낙네들이 진주에서 판매한다며 큰 다라이에 고구마줄기, 누런 콩잎, 애호박을 비롯한 여러 과채류 등을 보자기에 사서 짐칸 위나 혹은 바닥에 놓아두기도 했다. 열차가 정차할 때마다 덜커덩하면서 대야가 움직이자 미끄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발로 힘을 주어서 고정시키기도 했다.

아낙네들은 상처 입을 우리들을 자꾸 쳐다보면서 자기들끼리 귓속말을 주고받다가 궁금증을 못 참고 물었다.

“총각들 어찌다가 그렇게 많이 다쳤능교?”

우리들은 말할 기운조차 없어 머리만 끄덕거리려 주었다.

돌아오는 세 시간 넘게 걸리는 열차는 몸을 지쳐버리게 만들었다. 약간만 움직여도 온 몸이 옥신거리면서 쑤시고 아파왔다. 무장무장

길게 느껴진 긴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면서 부산역에 도착했다. 우리 들은 칠공주들과 간단한 인사말을 주고받은 후 곧장 각자의 집으로 향하는 버스 정류소로 이동했다.

칠공주와는 아무런 기약도 없이 헤어졌고 학교 인근에서 하숙을 해서 나와 같은 방향인 학생회장 박성곤과 학예부장 김병현이 같은 버스를 탔다. 그리고 나는 미영이의 부축을 받으며 버스에 올랐다.

에트랑제 회원들끼리는 누구든지 내일 등교하는 사람은 반마다 찾아가서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여 결석했다고 담임선생님께 전해 주기로 약속했다.

미영이의 부축을 받으며 벌집에 쏘인 듯 보이는 통통 부은 얼굴로 절뚝거리며 하숙집에 들어서자 마루에 누워 부채질하던 미영이 어머니는 기겁을 해서 맨발로 달려왔다.

“학생아! 이게 어찌된 영문이고? 응? 누구하고 싸웠노? 미영이하고 같이 갔다가 싸웠나! 어디 가서 그랬노?”

미영이 어머니는 숨 쉴 새도 없이 끝없는 질문을 퍼부으면서 내 몸을 부축해서 마루에 눕혔다.

나는 민망해서 내 방으로 가려고 했으나 안 된다며 만류했다.

“가만히 누워있어라. 내가 베개하고 선풍기 가지고 올게. 그리고 주사는 맞고 약은 바른 거냐?”

미영이 어머니는 내가 입을 상처를 훑어본 후에 외제약이라면서 알약과 연고를 가져와서 먹게 하고 환부에 발라주기도 했다. 나는 안도하는 마음이 생기자 졸음이 쏟아졌다.

나에게 약을 발라주던 미영이 어머니는 내가 잠이 들었다는 것을 알고 미영이 팔목을 잡고 안방으로 데리고 가서 크게 따지는 소리가 들렸다.

“야! 이놈의 가시내야! 저 남학생하고 어디서 무슨 짓을 한기고! 너희 둘이 몸을 섞은 것은 아니지? 배란기는 언제고? 으잉?”

미영이 어머니는 미영이가 대답할 틈새도 주지 않고 따발총처럼 쏘아붙이며 따졌다. 한참 듣기만 하던 미영이는 신경질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마음대로 생각해라. 나도 어젯밤에 한잠도 못자서 잠이 와서 죽겠다.”

안방을 나온 미영이는 문을 쾅 닫은 후 자기 방으로 가버렸다.

방안에서는 미영이 어머니의 푸념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집구석에는 우야든지 애비가 있어야지. 애비가 없으면 자식새끼들이 제멋대로야. 어디 겁내는 구석이 있어야지. 이번에 영감쟁이가 배에서 내리면 앞으로는 절대로 배를 못 타게 해야지. 이놈의 생과부 짓거리도 넌더리가 나고…”

푸념을 쏟아내던 미영이 어머니의 긴 한숨소리는 마루까지 후끈거리게 했다.

2. 에트랑제와 칠공주

아름다운 사랑을 찾아서 가는 길은
많은 인내와 고통을 요구하지만
그 누구도 그 길이 힘들다고 말하지 않는다.

푹푹 찌는 무더위로 도시의 거리는 한산했다. 하숙집 앞 골목길도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이나 학생들 소리가 잠시 들린 후로는 하루 내내 조용했다. 어쩌다 들려오는 매미들도 나무줄기에 납작 엎드려서 무더위를 식히는지 울음소리를 멈췄다가 간간히 불어오는 바람 따라 울음소리를 흘려 보내고 있었다. 무더위를 즐기는 것은 배롱나무뿐인 듯 꽃을 가득 쏟아내고 있었다.

여름방학이지만 고3 학생들과는 여전히 무관했다. 학생들은 물론 선생님들도 모두 평상시처럼 출근을 하였는데 이를 삼일이 지나

도 에트랑제 회원들이 등교를 하지 않고 병가 중이라고 하니 급우들 중에서 에트랑제 회원들과 개인적으로 친한 학생을 파악해서 집으로 찾아가게 했다.

‘딩동딩동’

대문 밖에서 벨소리와 함께 인기척이 들렸다.

“집안에 누구 계십니까?”

대문 밖에서 낮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금세 누가 찾아왔다는 것을 알아챘다. 저 목소리는 김삼식인데 저놈이 찾아 왔다면 보나마나 담임 선생님이 보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다.

지난해 삼식이 학교 중퇴를 하겠다고 자퇴서를 냈을 때 담임 선생님이 나를 삼식이 집을 찾아가게 만든 것처럼 이번에는 나 때문에 삼식이를 보낸 것이라 짐작 되었다.

삼식이는 고향의 중학교를 함께 다녔었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우리 마을 뒤쪽이라서 반드시 우리 마을을 지나야 자기 집으로 갈 수 있었기에 매일 붙어 다녔고 중3때 같은 반을 한 후 부산으로 함께 유학을 왔다.

에트랑제 클럽이 결성되기 전에는 단짝처럼 붙어 다녔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바늘과 실’이라는 소문이 났을 정도였다.

내 방문을 열던 삼식이는 나를 보자마자 놀라서 기겁했다.

“야! 이기 어찌 된 일이고? 어데 가서 이리 많이 맞았노? 촌에는 알고 있나?”

삼식이는 근심어린 표정으로 내 몸을 이리저리 살피면서 염려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말도 마라! 하동 가서 초상 안 친 것만도 다행이다 아이가.”

삼식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다.

“학교에서 지금 난리가 났다. 너도 알다시피 지금이 어느 때고?”

나의 몸 상태를 계속 살펴보던 삼식이는 이런 상태로는 일주일 넘게 학교에 못나오겠고 병원에 가서 주사라도 한대 맞으라고 권했다. 나는 일주일 정도 누워있으면 나아질 테니 염려하지 말고 학교에 가서 담임선생님한테 심한 몸살로 학교에 등교하지 못한다고 적당히 말이나 잘 해달라고 부탁했다.

붓기가 빠지기까지는 일주일 정도 걸렸다. 아직까지 눈자위에는 열은 아이샤도우를 한 것 같이 연한 청색을 띠고 있었고 상처 딱지가 군데군데 붙어 있었지만 통증은 거의 없었다.

그것은 누워 있는 과정에서 미영이가 광복동에 가서 피멍든 곳에 좋은 약이라며 이것저것 연고를 가져와서 발라주었고, 미영이 어머니도 정성스레 한약을 달여서 마시게 한 게 빠른 회복을 도운 것이었다.

일주일간 결석을 하고 학교엘 갔다. 예견된 일이었지만 학교에서는 소문이 파다하게 번져 있었다.

나는 삼식이에게 하동 사건을 함구시켰지만 학예부장 김병헌은 에트랑제 회원들보다 사흘 전에 등교해서 하동에서 일어난 25대7의 대결을 무슨 무용담처럼 떠벌이고 다녔던 모양이었다.

아침 조례가 끝나고 나서 담임선생님이 나를 불렀다.

“소문은 다 들었다. 몸은 괜찮나? 내하고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학생주임 선생님한테 지금 바로 가봐라.”

나는 마음속으로 ‘도깨비’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학생주임 선생님을 생각하니 겁이 덜컥 났다. 나는 대책을 의논하기 위해서 에트

랑제 회원들의 교실을 하나하나 찾아 갔으나 에트랑제 회원들 모두
도 그런 지시를 받았으며 학생주임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 복도로
한사람씩 나오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몸이 회복되었느냐고 건강상태를 물은 후 아무
런 대화도 없이 학생주임실로 몰려갔다.

학생주임실로 들어서자 주임 선생님은 우리를 기다렸다는 듯 날
카로운 눈빛으로 쏘아보면서 말했다.

“학생회장은 오른쪽, 전광휘는 왼쪽, 나머지는 앞쪽에 앉아라.”

학생주임 선생님은 검은 표지가 있는 두터운 노트를 뒤적이더니
우리들에게 들이대면서 호통을 쳤다.

“이기 뭐 줄 아냐? 이건 말이야, 관공서끼리 긴급한 일이 발생했
을 때 서로 전화로 나누는데 그것을 기록한 전언통신문이라고 하는
거다. 쉽게 말해서 너희들이 하동 가서 사고 쳤을 때 하동지서에서
이런 사실을 학교에 통보를 보낸 것이다. 무슨 말인 줄 알겠나?”

“.....”

에트랑제 회원들은 머리를 떨어뜨린 채 학생주임 선생님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어리바리했던 하동지서 최 순경을 떠올렸다. 두
서없이 조서를 작성해도 연락할 것은 모두 취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학교에 일러바친 점에 괘씸한 마음까지 들었다. 그런 생각을 읽기
라도 한 듯 학생주임 선생님은 검은 노트를 들고 내 머리를 툭툭 치
며 고함쳤다.

“전광휘! 너는 지난해에도 학교를 발각 뒤집어 놓더니 또 올해도
사고를 치네. 너는 도대체 어찌된 놈이고! 학교 다니기 싫나?!”

학생주임 선생님의 말뜻은 숙희 누나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었는데, 숙희 누나 사건은 이랬다.

고1 때 나와 누나가 자취를 할 때 누나 친구 중에 부산에서 제일 큰 호텔사장의 무남독녀인 숙희라는 누나 친구가 있었는데 그 누나는 한살 어린 나를 사랑했었다.

그런데 한 해가 지난 후 누나가 고향에 있는 여고로 전학 가는 바람에 나는 하숙을 하게 되었다. 숙희 누나는 나와 연락이 두절되자 누나에게 나의 연락처를 물었으나 누나는 부잣집 외동딸과 사귀면 장남인 남동생을 숙희 누나 집에 빼앗긴다며 연락처를 끝끝내 가르쳐 주지 않았단다.

그러자 숙희 누나는 무작정 우리학교로 편지를 보내왔는데 뜬금 없이 애는 몇 명을 낳자 어디에서 살자는 등의 애절한 연서가 학교 서신 검열에 걸려서 학교전체가 발칵 뒤집어진 사건이었다.

“전광휘! 이번에도 네가 가시나들 모아 가지고 하동 갔다며?”

“.....,”

“인마! 학교는 뭇하게 다녀! 차라리 학교 집어 치우고 가시나 조 합장이나 하지. 너는 부산에 여고생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다며? 차라리 학교 집어 치우고 아예 연예계로 진출해라. 연예계는 졸업장이 필요 없다. 현재 네 여고생 팬만 해도 벌써 출세 한기다.”

학생주임 선생님은 빈정거리듯 한참동안 나에게 대한 말만 하더니 학생회장에게로 화살을 돌렸다.

“학생회장 꼴좋다. 이 일을 다른 학교에서 알면 우리 학교보고 뭐라 하겠어. 학생회장까지 끼여 있는 이번 사건을 두고 말이다! 찌쭈, 한심한 놈들...”

“...; 면목 없습니다.”

“학생회장만 남고 나머지는 다른 놈들은 오늘 중으로 사고경위서와 반성문을 진솔하게 써서 제출해라, 알겠지? 너희들에 대해서 무기정학 처분을 내릴 건지 유기정학 처분을 내릴 건지는 교직원 회의 후에 통보해줄 테니 모두들 그렇게 알고 있어라. 꼴 보기 싫으니 빨리 꺼져라!”

교실로 돌아오니 화학 선생님이 나를 찾는다고 해서 화학 실험실로 갔더니 선생님은 자상한 아버지처럼 내 몸을 두루 살피 보며 다행이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는데, 학교에서는 수학여행 갈 때 열차에서 선생님 무릎에 안겨갔다고 해서 그 후 화학 선생님 아들로 통했었다.

교실로 돌아오니 이번에는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던 생물 선생님이 찾는다고 했다. 생물 선생님은 아버지와 같은 과목이라 방학 때면 진주교대에서 생물 연수를 함께하면서 아버지와 형제처럼 지냈는데 나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신 분이셔서 내게 걱정을 하며 격려해 주셨다.

이번에는 상업 선생님이 찾는다고 했다. 상업 선생님은 고향마을에서 태어나 아버지와 초중고는 물론 대학까지 함께 다녔었고 우리 학교에 진학하게 된 동기도 아버지와 상업 선생님과 우정 때문이었다. 모교에서는 지방의 우수한 학생들을 모집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을 많이 시켜 일류교교로 만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학생을 많이 모집하는 선생님에게는 특별보너스도 많이 지급했다. 그런 연유로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왔으며 나와 함께 다닌 중학교 동창들도 열다섯 명이나 유학을 왔다. 그런 아버지와 의 관

계 때문에 나는 항상 조심스러웠는데 이번 사건을 아버지한테 소상하게 전화로 연락을 했다고 했다.

나는 상업 선생님을 만난 후 영 마음이 걸렸다. 아버지가 틀림없이 고향에서 호출할 터인데 걱정이 되었다.

학생주임 선생님이 무섭다고는 하나 사실 나는 아버지를 더 무서워했다. 아버지는 중학교에서 호랑이선생님으로 통했는데 착한 학생들에게는 순한 양처럼 부드러웠으나 불량한 학생들에게는 엄청나게 무서운 호랑이로 변하셨다. 자식들한테도 엄격하셨다.

아버지의 교육철학은 윤리와 삼강오륜을 근간으로 하는 철학을 바탕으로 교육을 했고 또 그런 잣대로서 훈육을 하셨다. 반면 어려운 제자가 있으면 사제를 털어서라도 도와주셨고 박봉에 시달리던 동료교사들에게 우리 밭을 빌려줘서 채소 같은 푸성귀는 자급자족을 하게끔 주말 농장을 제공하시기도 했다.

이번 하동 사건을 아버지가 아신다면 불호령이 떨어질 것은 뻔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오전 내내 선생님들에게 정신없이 불려 다니다보니 점심을 굶었음은 물론 수업시간표도 보질 못했는데 5교시에 국어과목이 들어 있었다.

국어 선생님은 고향이 우리 마을이었는데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면 교탁 쪽으로 불러낸 후 눈을 감게 하고 갑자기 불알을 꼭 잡은 후 한참동안 주물럭거리다가 불알을 툭 튕겨버렸는데, 학생들은 이것을 두고 ‘아야 찬가’ 또는 ‘종자개량’이라고 불렀다. 이 ‘아야 찬가’에 한번 걸리면 불알이 아파서 눈물이 찔끔 남은 물론이고 하체의 힘이 쪽 빠져 삼십분 동안은 잘 걷지 못할 정도로 아팠다.

국어 선생님은 특히 내가 지각이라도 한 날이면 출석부를 체크한 후 교탁 앞으로 불러서 ‘아야 찬가’를 거칠게 시행했다.

“고향에서 보리쌀 팔아 유학 보냈는데 뭐한다고 지각했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른 학생과는 달리 내 불알을 잡고 교실을 한 바퀴 돌아버리기가 일쑤였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아픈지 나도 모르게 눈물을 짙짙 흘렸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요행을 바라고 있었다. 국어 선생님이 며칠간 출장을 가셨다는 말도 들렸으니 우리 사건을 모를 수 있겠다 싶었다. 그런데 만약 이 사건을 안다면 얼마만한 ‘아야찬가’를 실시할까 하고 걱정하고 있었다.

차라리 회초리로 맞는 편이 훨씬 낫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매를 절대로 들지 않는 선생님인지라 이런 기대가 나 스스로도 얼마나 무모한 바람인지는 나는 잘 안다.

마침내 국어 선생님이 교실 문을 열고 들어 오셨다.

나는 일부러 선생님과 시선을 맞추지 않으려고 책을 보고 있었다. 선생님은 다른 날과 달리 금방 출석부를 닫아 버렸다.

‘…; 이상하다? 사건을 모르시나 보다. 그러면 그렇지 모르는 것이겠지.’

나는 내심으로 다행이라며 쾌재를 부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나만의 바람일 뿐이었다.

“이 학급에 누가 저번 주 일요일 날 하동으로 여학생들하고 핑까 핑까 하고 놀러 갔다며? 지금 때가 어떤 텐데 고3인줄 모르는가보네?” 하면서 서두를 끄집어내자 우리 반 급우들은 크게 동요하며 소리 내어 웃은 후에 나를 쳐다보았다.

국어 선생님은 근엄하면서도 장난기 섞인 눈웃음을 띠면서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창문 너머 부산 부두 쪽으로 던지시 바라보면서 말했다.

“전광휘! 앞으로 나와 봐. 너는 아직 종자개량이 덜된 모양이네. 종자개량이 잘 안 되는 품종은 아예 종자를 뽑아 버려야 된다. 알겠제?”

나는 불알을 잡힌 채 평소와는 달리 교실 두 바퀴를 끌려 다닌 후에야 내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다.

“아아아.”

아랫도리가 휘청했고 절룩거리면서 내 자리로 돌아왔다.

한편으로 학교에서는 에트랑제 회원들의 벌칙문제로 교직원들끼리 옥신각신했는데, 유기정학을 시켜야 된다는 강경파와 용서를 해줘야 한다는 온건파로 나뉘져 의견이 분분했다. 강경파는 교칙 위반 시는 누구를 막론하고 꼭 같은 처벌을 해야 하고 유사문제가 발생했을 때 동일한 잣대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온건파는 학생들이 남녀가 어우러져 문제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학생들도 많이 다쳤으므로 피해자라는 주장으로 맞섰다.

팽팽한 의견 대립으로 해답이 나오질 않자 투표를 해서 가부를 결정하자는 데까지 이르렀고 투표 결과는 용서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표를 분석해보니 나를 어여뻐 봐주셨던 선생님 일곱 분과 학생회 간부인 에트랑제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사랑 받았던 선생님과, 미우나 고우나 에트랑제 회원들이 소속된 해당 담임선생님들의 처벌 반대표도 한 몫을 해서 세 표 차이로 처벌 반대가 이긴 것이다.

최소한 화장실 청소라도 일주일가량 시키자는 것도 ‘학생회를 대표하는 학생 임원들이 저학년들이 보는 앞에서 밀대걸레를 들고 화장실 청소를 한다면 상급생 체면이 안서서 학생회를 움직이는데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어 깨끗하게 면죄부가 발부되고 말았는데, 미국인 영어회화 피어슨 여자선생님의 변론은 두고두고 회자되었다.

“에…, 한국 고교생들은 너무 불쌍해요. 방학도 없이 죽자 사자 공부만 시켜요. 미국에는 이렇게 교육시키지 않아요.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파악해서 그쪽으로 진학을 시켜요. 한국처럼 모든 과목을 잘해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것은 모든 학생이 과목마다 천재가 되라는 뜻이에요. 한 과목만 잘못해도 전체 평균점수가 내려가는 시험제도는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남녀학생들이 함께 여행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나는 과목 중에 특히 영어회화는 잘했던 편이었다. 피어슨 영어회화 선생님은 회화숙제를 매 주마다 내었는데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 교단에 올라가서 대화를 하는 방식이었다. 대부분 급우들은 일반 회화 책에서 발췌했지만 나는 보수동 헌책방에 가서 ‘이솝우화집’을 구입해 와서 내 옆자리 짝꿍과 대화체로 발표하면서 연기도 곁들여서 했다.

그렇게 발표하는 동안 이솝우화 내용이 크게 우스운 듯 피어슨 선생님은 목젓이 보이도록 웃으면서 우리들의 손을 매번 들어 주었다. 우리 교실은 우리들 때문에 회화시간이면 피어슨 선생님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더구나 나는 보통의 신장이어서 앞쪽에서 셋째 줄에 앉았지만 이
솜우화로 인해 피어슨 여선생님의 눈에 많이 띄었던 학생이었다.
피어슨 선생님은 교탁에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앉아서 담배를 즐
겨 피웠는데 회화를 하는 학생 중에 잘하는 팀에게는 핸드백 속에
가져왔던 초콜릿을 상품으로 주었다.

상으로 받은 초콜릿의 독특한 향에 길들여진 나와 짝꿍은 각자가
맡은 대목을 밤새 연습을 했고 그 덕분에 거의 매 주마다 초콜릿 상
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다보니 나는 피어슨 선생님으로부터 사
랑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 하동역 사건에 내가 개입 되어있다는 소
문을 듣고 위와 같은 변론을 했던 것이다.

그날 이후 피어슨 선생님이 복도로 지나칠 때면 학생들은 변론했
던 그 말씀이 좋아서 ‘남녀학생이 여행가는 것은 아주 아름답습니
다’ 하면서 흥내를 내고 다녔다.

한편으로 미영이 어머니는 나와 미영이가 하동을 함께 다녀온 후
나를 대하는 태도가 확연하게 달라져 있었다.

그 이면에는 다 큰 딸년이 남학생과 하룻밤을 외지에서 보낸 것
에 대해 두 사람이 깊은 관계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었다.

마치 훗날 사윗감 정도로 생각을 했던지 매일 아침이면 날계란에
참기름을 동동 띄워서 내 방에 가져오는가 하면, 다른 하숙생에게
는 어찌다 넣어주는 계란부침을 매일같이 도시락에 넣어주었고 밤
참이라며 호떡이나 빈대떡을 내 방에 슬그머니 넣어주기도 했다.

특히, 고향에서 어머니가 내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미영이 어머
니와 이것저것 많은 대화를 나눈 후부터는 더 많은 변화가 왔다. 하
숙생들에게는 체육복이나 교련복 정도의 빨래를 해주는 것이 통상

적이었는데 어머니가 다녀간 후 부턴 그런 세탁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빨아 주었다.

나만이 아는 장소에 쭈서 놓은 고장물 나는 속옷을 용케도 찾아내서 따로 삶은 듯 깨끗하게 빨아 빨랫줄에 걸쳐 놓았었다. 나는 내 치부가 들킨 듯 빨랫줄에 걸린 속옷을 얼른 내 방에 가져와서 책상 서랍에 넣곤 했다.

또 미영이도 내가 학교에 가고 없는 사이에 내 방에 들어와서 책꽂이를 말끔하게 정리해주기도 하고 방도 반들반들 닦아놓기도 했고 내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나는 왠지 부담스러워져서 미영이를 조용히 불러서 앞으로 내 방 청소는 스스로 할 테니 내 방에는 안 왔으면 좋겠다고 일러 주었다.

그런 가운데 미영이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하숙생들이 조용하게 제 방에 들어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통닭이며 싱싱한 과일을 작은 상에 차려 놓고 나를 부르기도 했는데, 그럴 때는 자신은 입에도 대질 않고 미영이와 대화를 나누게끔 자리를 살짝 비켜주고 밤늦게 귀가하기도 해서 눈치 빠른 하숙생들은 나를 하숙집 사위라고 놀려대기 시작했다. 어찌면 사위처럼 대했다고 보면 되었다.

그 한 예로 하숙집 반찬이 부실하던지 반찬이 맛이 없으면 하숙생들은 은근히 내게 말을 하며 미영이 어머니에게 말해라고 대변자로 내세웠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에 아버지 친구인 상업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나를 찾았다.

평소의 유머러스한 모습과는 달리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자기 곁에 앉으라며 의자를 열어주신 후에 말씀하셨다.

“광휘야! 너를 부른 건 다름이 아니고 소문을 들으니 너희 하숙집에서 너를 사위로 삼으려 한다며? 그런데 말이야, 앞으로 대학도 가야하고 군대도 가야하고 취업도 하려면 아직 새까맣는데 벌써 여자와 결혼이야기가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하고 통화를 했는데 너희 아버지가 하숙집을 옮기라 하더라. 오늘부터 하숙집 알아보고 이사하면 내게 연락해줘, 알겠지? 사랑이란 말이야 Out of sigh, Out of mind(눈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무슨 말인 줄 알겠제? 가능한 현재 살고 있는 하숙집보다 먼 곳에 구해라. 광휘야! 괴로워도 이겨내야 한다. 알겠제?”

상업 선생님은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후 나를 위로하듯 어깨를 툭 툭 쳤다. 나는 상업 선생님의 말씀이 많이 황당했지만 말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이 있듯이 내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취졌을 테고 누군가 퍼트린 소문을 듣고 상업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 생각하니 여러 가지 생각이 겹쳐졌다.

‘그렇구나! 남들이 보기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 그리고 지금 대접받는 게 하숙생 정도가 받을 평범한 대접은 아니잖 않은가.’

나는 학교를 다녀와서 곧바로 미영이를 찾았는데 미영이는 책상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근래에 미영이는 예전과는 달리 음악은 잘 안 듣고 세계문학 전집을 구입해서 주로 읽고 있었는데 오늘은 그 원서를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가 있는 듯 밑줄을 그은 후 사전을 뒤적이고 있었다.

미영이가 읽고 있는 원서를 엿보니 펄벅 여사의 ‘북경에서 온 편지’라는 책이었다. 나는 그런 미영이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서 미영이에게 칭찬하듯이 말했다.

“미영아, 나도 ‘북경에서 온 편지(Letter from peking)’와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Old man and sea)’를 원서로 읽어 보았는데 속어와 단어도 쉽고 해서 번역한 것보다 그 맛이 아주 구수했던 것 같았어. 영어 실력도 빨리 늘어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어를 빨리 배우는 방법의 일환으로 음탐한 책이나 야한 그림이 많이 들어 있는 플레이보이 같은 잡지를 구입해서 본다는 말도 들었어. 그것은 그런 책에는 야한 단어가 많이 나오고 그러다보니 다음 전개되는 내용이 궁금해져서 밤새 사전을 뒤적이다보면 자연스럽게 단어도 익히고 독해력도 향상된다고 들었어. 그리고 한자 공부가 안되면 ‘형법연습’이라는 책을 보니 많은 도움이 되더라.”

“오빠, 그런 야한 책은 어디 가면 살 수 있어?”

“국제시장 깡통시장에 가면 구입할 수 있어.”

“그런데 한자 공부를 천자문으로 공부하지 않고 ‘형법연습’ 책을 왜 보라는데?”

“음..., 한자 공부도 영어 공부처럼 재미로 공부하면 더 잘된다는 의미야. 형법연습에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다루면서 해당되는 법조항과 판결이 나오거든. 그런 사건 내용들을 읽으면 흥미롭고 한자를 섞어가면서 설명해 두었기에 모르는 것은 옥편을 뒤져야하므로 자연스럽게 한자 공부가 되지.”

“내일 오빠와 함께 보수동에 있는 서점에 가서 사면 안 될까? 책을 구입한 후에 신창동 먹자골목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사먹고.”

미영이는 의자를 돌려 앉으면서 내 손까지 꼭 잡았다.

내가 미영이를 찾은 것은 다른 얘기를 하기 위해서인데 저렇게 방긋거리는 모습을 보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내 방으로 돌아와 버렸다.

‘어떻게 미영이의 저런 눈빛 앞에서 하숙집을 옮긴다고 말하지?’ 하면서 내 방에서 서성거리고 있는데 미영이가 쫓르르 찾아왔다.

“오빠! 오늘 행동이 조금 이상해 보여.”

“뭐가 이상해?”

나는 그렇게 대꾸했으나 내 목소리는 약간 상기되어 있는 음성임을 스스로 감지하고 있었다.

“오빠, 그러지 말고 말해봐. 내가 다 들어 줄게.”

나는 미영이 얼굴이 저렇게 밝을 때 말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다름이 아니고 뒷산에 올라가서 낯히 할 말이 좀 있는데…”

“집에 지금 아무도 없는데 집에서 얘기하면 되지 뭐. 내가 먹을 것도 준비할게.”

미영이는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하니 무척 궁금했던지 단둘이 앉아서 듣고 싶어 하는 눈치였다.

“그게 아니고 뒷산에 올라가서 하동에서 못다 부른 노래도 들려주고 싶고 조용히 할 얘기도 있고 해서…”

“그렇구나. 오빠! 하동에 갔다 온지도 얼추 한 달이 되어가네. 추석도 얼마 안 남았고…”

미영이는 부엌에 들어가더니 마른 오징어와 참외를 바구니에 담아서 나오더니 나한테 잠시 가지고 서 있으라고 말했다.

잠시 후 청바지를 갈아입고 명랑하게 걸어 나오더니 내 팔짱을 껴다.

나는 기타를 메고 미영이와 함께 하숙집을 나와 골목길을 돌아

나오는데 미영이 어머니는 옆에 젊은 새댁과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미영이 어머니는 어떤 중요한 행사에 다녀오는 듯 화사한 한복 차림이었고 그 옆의 새댁은 양장을 하고 있었다.

“엄마, 이제 오세요?”

미영이가 명랑하게 말했다. 미영이 어머니는 골목길에서 우리들이 걸어오는 모습을 먼저 목격한 듯 미영이가 인사를 해도 대답은 커녕 시큰둥한 표정으로 나무랬다.

“벌건 대낮에 남학생과 팔짱을 끼고 다니면 어쩌누? 미영아, 내 따라 집으로 좀 와봐라!”

미영이를 보면서 눈을 흘기며 말했다.

나는 무엇 때문에 미영이 어머니가 평소와 달리 내게 아무 말이 없을까 궁금했고 미영이도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는지 어머니 뒤를 따라가질 않고 머쓱하게 서 있었다. 그런 미영이의 모습을 지켜 보면서 말했다.

“엄마 곁의 저 여자는 누고?”

“연탄가게 순자 아줌마인데 엄마와는 친동기간처럼 친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엄마와 외출을 함께 다녀.”

내게 그렇게 말한 후 미영이는 어머니의 오늘 일정을 떠올린 듯 B 여고에 다녀오는 길이라고 말했다. 나는 미영에게 진학문제 때문에 담임선생님과 상담하느라 갔느냐고 묻자 미영이는 하동역 사건으로 학교에서 칠공주 부모들을 소집했다고 말했다.

“그랬구나. 그러니 너희 어머니가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어.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집으로 오시지?”

나는 오후 늦게 오시는 점이 궁금해서 물었다.

미영이는 어머니가 틀림없이 담임선생님을 모시고 식사대접이며 봉투를 드렸을 거라고 말했다.

나는 함께 따라가기가 머쓱해서 구멍가게 앞에서 멈췄다.

“미영아, 나는 여기서 기다릴 테니 어머니 만나 뵙고 오렴.”

어머니 뒤를 달음박질치듯 쫓아갔던 미영이는 곧장 바로 나왔다. 나는 염려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이야? 금방 왔네?”

미영이는 대답은 하지 않고 깡충깡충 뛰어서 내 곁에 오더니 말했다.

“별 것도 아니야. 우리 엄마는 조그마한 일에도 예민하니 오빠는 걱정할 것 없어.”

나와 미영이는 뒷동산에 올라갔다. 미영이가 챙겨온 오징어며 과일 등을 깎아먹는 동안에 나는 마음속으로 고민을 했다. 내가 하숙집을 옮긴다고 하면 미영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요즘 미영이가 내게 하는 행동으로 보았을 때 호락하게 그냥 넘어가지 않을 텐데 하면서 말이 입 밖에 나오지 않았다.

“미영아, 내가 그동안 배웠던 노래인데 한 곡 불러볼까?”

내가 먼저 운을 뗐다.

“오빠, 무슨 노래를 배웠는데?”

미영이는 다소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물었다. 나는 미영이 더러 라디오에서 많이 들었을 노래라며 기타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불렀다.

All for the love of girl(어느 소녀에게 바친 사랑)을 들려 주었더

니 미영이는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오빠, 왜 그 노래를 불러? 그 노래는 초혜 생각하면서 부르는 거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나는 갑자기 미영이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당황했다.

“그런 게 아니고 곡이 너무 좋아서 불렀던 것뿐이야. 그리고 초혜 때문에 내가 많이 예민한데 하동에 단체로 놀러 한번 간 걸 갖고 뭘 그래?”

미영이 어깨를 토닥여 주자 미영이는 울음을 멈춘 후 마음속에 베풀고 베푼 말을 토로하듯 말했다.

“내가 아무도 없는 집에 오빠와 둘만이 있었던 것도 한 두 번이 아니었고 오빠 방에서 일부러 자는 척하고 있어도 아무런 관심도 없었잖아.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키스라도 하는 게 당연하다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더라. 그런 것만 봐도 오빠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이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야.”

미영이는 가슴이 부풀어 오를 정도로 숨을 몰아쉬 후 씩씩거리며 불만을 토해냈다.

나는 생각지도 않았던 미영이의 불평을 듣고 사뭇 당황해 했다.

“미영아, 난 누구도 사랑하지 않아. 지금 그럴 마음적인 여유도 없어. 현재 상황이 무척 답답하단 말이야.”

나는 미영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달래주면서 마음에 담고 있었던 말을 이어갔다.

“미영아, 오늘 산에 올라오자고 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며칠 지나면 추석이잖아. 추석 지나고 나면 하숙집을 옮기려고 하거든. 엄마한테 네가 대신 말 좀 전해줘.”

내 말에 소스라치듯 놀라워하던 미영이가 말했다.

“오빠! 그건 절대로 안 돼! 이사는 절대로 가면 안 돼. 만약 하숙비가 비싸서 그런다면 깎아주도록 얘기해 줄게. 아니 하숙비를 받지 말도록 해줄게.”

“그건 안 돼. 이사해야 돼. 부모님한테서 하숙집 옮기라고 연락이 왔어.”

미영이는 양팔을 감아 얼굴을 파묻고 있다가 내가 이사할 것을 마음으로 굳힌 사실을 인지하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애원을 넘어 절규에 가까울 정도로 매달렸다.

“안 돼! 그건 절대로 안 돼!”

미영이가 울먹이며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다음 얘기는 할 수 없었다.

“정녕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 볼게.”

얼굴표정이 굳어진 미영이를 겨우 설득하고 달래서 먼저 집으로 가라고 등을 떠밀었다.

미영이가 둔덕을 넘어가는 모습을 확인한 후 나는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세고비아 기타를 바위에 내리쳐 부숴버렸다. 내가 기타를 부셔버린 것은 하동을 다녀온 후로 기타가 싫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타가 싫어진 까닭은 강자의 논리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데 골몰했기 때문이다. 강자란 어떤 처신을 해야 하는 것일까 하는 논제를 놓고 내 나름대로 정립을 내리기도 했다. 진정한 강자는 약자에겐 힘을 쓰지 않아야하고, 상대가 싸우려는 의지나 저의가 없으면 절대로 힘을 보이거나 과시해서는 안 되며, 비굴한 승리는 치욕이라 생각해야 한다. 강자는 강자끼리 승부를 겨뤄야하고 그렇

게 해서 얻은 승리여야 진정한 승리라고 생각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 세상의 잘못된 치부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인간들은 육체적 경쟁이든 정신적 경쟁이든 모든 경쟁에서 승리를 위한 길이라면 정의로움 따위는 거추장스런 옷처럼 치부해버리고 내팽개쳐버리는 경향이 있다. 비굴하고 잔인할 정도로 술수와 배신을 해서라도 승리하려고 날뛰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에 반한 정당한 처신과 올곧은 행동을 외려 약자라고 치부해 버리곤 한다. 그러므로 인간세계에서 진정한 강자를 찾기란 쉽지 않다. 정의에 대해서 혼돈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을 직시하면서 내가 진정한 강자의 표본이 되고 싶었다. 진정한 강자의 모습이 어떠한 건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 표본과 표준을 그려놓으려 한다. 그런 표본의 위치에 서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서 그 정점에 우뚝 서려는 마음의 설계도 준비했다. 문무 중에서 그 어느 곳을 가더라도 그런 위치에 서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렇게 해서 진정한 승자가 되자고 맹세도 했다.

그런 진정한 승리를 찾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세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결론도 내렸다. 나무의 경우엔 자생지에 따라서 교목은 교목들끼리, 아교목은 아교목들끼리, 관목은 관목들끼리 주로 모여서 살며 그들끼리 경쟁을 한다고 생각했다. 나무들은 그렇게 경쟁을 하면서 성장하지만 선의의 경쟁을 할 뿐 결코 상대 나무를 짓밟거나 다른 나무를 데려와서 이기려 들지 않는다. 나무들은 정정당당히 승자를 낸다. 그러나 나무들은 승자가 되어도 승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리나무의 경우는 이웃한 나무와는 서로 뿌리를 감지 않고 피해줘서 다른 나무뿌리들이 뺏어 나갈 수 있게 배려심

을 가진 점은 우리 인간들이 배워야 할 점이라는 것도 주목했다. 그래서 나는 모든 나무들은 스스로가 승자라고 생각했다.

뒷산에서 내려온 나는 하숙집으로는 가지 않고 곧장 범내골 로터리에 있는 C무덕관을 찾아 갔다.

사실 우리 학교는 부산에서 유일하게 학교에 유도관이 있는 학교다. 전교 학생들은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수업과목으로 배정되어 유도를 익히고 있고 부산시내 경찰관들의 무술 수련관으로도 사용되고 있기도 했다.

그러나 유도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호신술로 배우는데 그쳤다. 나 또한 그런 부류였다. 축구시합에서 작전의 유형을 수비형과 공격형 축구로 구분하듯이 나를 포함해서 대부분 학생들은 수비형 유도인 셈이다.

지난번 하동 사건 때에도 상대를 넘기기는 했어도 주먹으로 때리지는 못했다. 그렇다. 이제부터 공격축구와 같은 공격유도를 배우는 것이다. 나는 학교 유도 시간외에 오후가 되면 C무덕관을 찾았다.

9월 한 달 동안을 어수선하게 시간을 보내고 나니 금세 신선한 바람이 불어 왔다. 그 많던 매미 울음소리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겨우 한두 마리 정도의 남은 매미들은 나무 우듬지에 앉아 마치 마지막 종영을 마친 극장에서 퇴장을 하지 않고 잠에 빠진 관객이 잠꼬대 하듯이 가끔씩 코골이 소리를 내고 있었다.

추석이 내일 모레로 다가왔다. 나는 서둘러 고향엘 갔다.

올해부터는 국가에서 야심차게 계획하고 있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차년도가 실시되는 해이기도 했다. 1차 경제개발 때부터 농

촌에서 젊은 층들이 도회지 공장으로 하나둘 떠나기 시작하더니 올해부터는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

공장에 가서 일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도 ‘보너스를 얼마 주고, 버스로 출퇴근 시켜주고, 기숙사가 있다, 예쁜 아가씨가 많다’ 이런 식으로 좋은 말만 늘어놓으면서 노무자들에게 공장에 대한 호기심을 부추긴 게 사실이다. 하루 2교대로 죽어라 일만 하는 일벌레로 변신이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처절한 생존 현장이 공장인데 말이다.

그렇게 농촌사람들이 하나둘씩 도회지 공장으로 떠나기 시작했다. 우리 집뿐만 아니라 토지를 많이 가진 대농가들은 일대 대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대농가들은 머슴을 서너 명씩 고용하고 있었고 전적으로 머슴들에게 농사와 잡다한 가사까지 의존하고 있었기에 머슴들이 도회지로 떠날까봐 불안해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이고 대세여서 막을 길이 없었다. 우리 집에도 큰 머슴 둘과 풀머슴 한 사람이 있었는데 풀머슴 정타돌은 부산의 공장으로 떠나 버렸다.

그들은 공장 일이 남의 집 머슴살이에 비해서 좋은 듯 보였다. 일년에 곡식 몇 섬 받는 세정보다야 훨씬 수입이 낮지만 현장일은 만만치 않았다. 잔업을 하지 않으면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살기에 딱 알맞았고 그렇게 받은 월급봉투 속에는 위 상사들의 감시의 눈매도 함께 담겨져 있었다. 그토록 공장일이 힘들지만 그래도 한 달에 두 번씩 노는 날에는 옷을 멋지게 차려 입고 놀러갈 수 있으니 공장이 농사일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이 보여서 너도나도 도회지로 가고자 갈망했다.

여자들은 섬유방직공장으로 갔고 남자들은 신발공장과 도금이 나 피혁공장으로 갔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주례동에서 구포까지 미나리 밭이었던 사상 일대의 들녘이 자고나면 공장이 들어서고 굴뚝이 치솟았다.

학장지역의 도금공장은 냄새가 코를 찢어서 지나치기가 괴로울 정도가 되었다. 사상공단은 신발공장의 천국으로 변해 갔다. 국제상사를 비롯해서 삼화고무, 대양고무, 동양고무 같은 큰 공장은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완제품을 만드는 공장이지만 외국 브랜드를 로컬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도 많았다. 그러다보니 하청공장이 자동적으로 많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 신발 갑피, 아웃솔, 인솔, 라벨, 신발 끈, 날염 공장 등 하청공장들은 꼬리를 물고 부산 전역에 장사진을 쳤다.

그러다보니 사상에서 돌을 던지면 신발공장에 다니지 않는 사람을 맞추는 게 주택복권 당첨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아버지, 어머니. 저 왔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초중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공장으로 떠난 아들딸들이 자기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담요와 가방을 끌고 명절날 고향으로 한 사람씩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어린 아들·딸들이 객지로 떠나 공장에서 주야로 시달려가며 번돈으로 고향의 부모형제들은 그나마 공부도 하고 새 옷을 입고 생활비도 얻어서 편히 살 수 있고 삶의 보람을 느꼈다. 그러나 손가락이 잘려서 온 자식과, 밤잠을 설쳐가며 야간 잔업을 하느라 얼굴이 퉁퉁 붓고 영양실조로 빈혈상태가 되어 돌아온 자식들을 맞으며 반가워서 울고 고마워서 울고 애처로워 울면서 명절 밤을 밝히고 있

었다.

우리 집 꼴머슴 정타돌이 사상 신발공장으로 떠나고 나니 어머니는 전답 일을 하시느라 엄청나게 힘들었다.

평소 일꾼들의 식사와 새참을 주로 하셨지만 일손이 부족한 터라 식사 준비와 더불어 논밭을 다니며 일을 하셨다. 나락 속에 자리 잡은 피를 뽑는 작업에서부터 분무기를 메고 고추밭에 농약을 살포하는 것까지 해야 하니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셨다. 그런 과정에서 농약과 물을 타는 비율을 잘못해서 병충해가 죽기는커녕 내성만 키워놓기 일쑤였고 어떤 경우는 병충해약을 뿌린다는 게 제초제를 잘못 뿌려 애써 가꿔온 채소류를 다 죽이기도 했다.

연휴 추석을 보내려면 여물을 준비해 두어야 했기에 나와 누이는 벧짚을 작두로 썬는 작업을 했다. 작두 일은 위험한 작업이라 내가 짚단을 넣어 주었는데 넣는 사람이야 별로 힘들지 않지만 누르는 작업은 허리를 굽히고 퍼기를 반복해야하므로 엄청 힘든 작업이었다. 그렇다고 손가락이 잘릴지도 모르는 짚단을 넣는 작업을 누이에게 맡길 수는 없었다. 그렇게 몇 시간을 작업하고 나면 떨어놓은 여물이 창고 가득 채워졌다. 그렇게 몇 시간을 여물을 썬는 작업을 했지만 누이는 씩씩하게 잘도 해냈다.

그런데 소들도 벧짚만 먹고 어떻게 체력을 유지해서 힘든 농사일을 할 수 있으랴. 그래서 고구마 줄기도 썰어 넣고 콩깍지도 넣고, 지계를 짊어지고 밭 언덕에 가서 싱그러운 바랭이풀도 한 짐 해와 넣어주어야 되는 것이다.

나는 추석 연휴가 아직 남아 있었지만 일찍 고향에서 돌아온 후에트랑제 회원들을 하숙집으로 데려와서 내 짐 꾸러미를 하나씩 묶

었다. 학생의 이삿짐이라 해봤자 이불과 베개, 책상과 걸상 그리고 약간의 옷이 전부였다.

에트랑제 회원들이 짐을 하나씩 들어도 이사는 충분했다. 우리는 그렇게 짐을 하나씩 들고 전포동 미영이 집에서 새로 정해놓은 학교 인근 문현동 하숙집으로 줄지어 갔다. 물론 미영에게는 이달 말에 이사한다고 거짓말을 해둔 상태였다.

미영이 가족들도 경남 함양에 있는 할아버지 댁에 추석을 쇠러 갔었고 하숙집 학생들은 아직 연휴가 남은지라 아무도 오질 않았다.

나는 두 장의 편지를 남겼는데 한 장은 미영이 어머니, 또 한 장은 미영이에게 쓴 것이었다.

미영이 어머니에겐 그동안 너무 과분하게 잘 해주셔서 고마웠으며 베풀어주신 호의를 어디에 가더라도 잊지 않겠다고 쓴 후, 말미에 미영이와는 아무런 깊은 관계가 없었으며 피를 나눈 오누이처럼 잘 지낸 것이 전부였음을 믿어 달라는 내용을 강조했다.

미영에게는 내년이 되면 고3이 되고 현재처럼 꾸준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 것이고, 오빠 같은 촌놈은 미래가 불투명하니 깨끗이 잊고 대학가서 촉망받는 멋진 남자를 만나라고 적었다. 추신에는 악대부장이 개천예술제에 출전해서 오보예로 대상을 받은 근황과 미래에 훌륭한 음악가 될 사람이니 잘해보라는 말도 적은 후 악대부장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붉은 글씨로 큼직하게 써 두었다.

3. 편백나무 숲길에서

편백나무가 내뿜는 피톤치드 향기 속에
사랑이 무르익기도 하고 그 향기를 제대로 말지 못하고
달아나는 연인도 있다.

국군의 날이 있는 시월에는 구덕공설운동장에서 고교생 학도호
국단 시범이 부산시내 남녀고교생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남학생은 사열과 총검술시범을 하고 여학생은 적십자가 새겨진
작은 비닐 가방을 메고 사열을 한 후 간호와 화생방훈련에 대한 것
을 보여주는 검열이었다. 교련복은 다른 남학교와 비슷한 얼룩무늬
였지만 우리 학교 학생들의 신발은 워커여서 여타 학교와는 달리
교련복차림에 잘 어울렸다. 워커는 교련훈련을 받기 위해서 별도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평소에 신고 다니는 교화였다. 오늘도 우리 학

교 브라스밴드는 구덕운동장에 참석한 다른 부산시내 고교 악대부를 압도하고 있었다.

악대부장 이우성의 지휘 아래 경쾌한 음악이 울려 퍼졌다.

‘장산곶 마루에 북소리 나더니.’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민요나 동요를 리듬이 빠르고 경쾌하게 연주하니 신이 절로 났다.

구덕운동장에는 부산시내의 모든 인문계, 실업계 남녀고교가 참여해서 줄을 서고 정열하기 시작했다. 우리 학교는 본부석 중앙의 위치에 섰고 좌측으로 세 개 학교 건너에 칠공주가 다니는 B여고가 자리를 잡고 서 있었다.

남학생들이 여고생들을 관심 깊게 살피듯 여학생들 역시 남학생들을 유심히 살폈는데, 칠공주가 다니는 B여고 여학생들이 우리 학교를 발견하더니, 옆줄 사이로 목을 빼내서 보기도 하고 어떤 여학생들은 폴짝폴짝 뛰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을 살피기도 했다. B여고생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까닭은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B여고에서도 인기 클럽인 칠공주 멤버들의 하동역 사건이 교내에 알려져서 학교가 발칵 뒤집혀서 그런 것 같았다.

열병 행사가 진행되었다. 제일 우측에 있는 학교부터 본부석 앞으로 엄숙하면서도 씩씩하게 행진하기 시작했다. 브라스밴드만 경쾌한 행진곡을 연주하느라 제자리에서 있을 뿐, 여느 중요한 연중 행사 때와 같이 조용하고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다음은 우리 학교의 분열 차례였다. 학도호국단장인 총학생회장 박성곤이 구령을 크게 외쳤다.

“대대 앞으로 갔!”

대열 중간 사이사이에서는 발을 맞추기 위해 작은 소리로 구령소리
리는 내는 학생도 있었다.

“왼 발, 오른 발, 팔을 크게 흔들고.”

“우로 봐!”

학도호국단장 박성곤의 우렁찬 구령이 떨어지자 갑자기 여학생
들의 환호와 요란한 웃음소리가 운동장을 가득 메웠다.

“에트랑제 오빠들 파이팅! K고교 파이팅!!”

본부석에서는 의외의 함성에 놀랐고 귀빈들은 웅성거리며 서로
의 얼굴을 쳐다보았고 각 학교 교련 선생님들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특히 우리 학교 교련 선생님은 크게 당황해하며 허둥졌
다. 사열할 때는 참관인이나 내빈들이야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질러
도 상관없지만 운동장에 모인 학생들은 절대로 박수를 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여학생들이 더 큰소리를 질러댔던 것이다. 스탠드에
앉은 내빈이나 시민들은 작은 박수로 격려를 하고 있었던 반면 오
히려 운동장에 도열한 여학생들이 더 시끄러운 소리로 함성을 지르
니 교련 선생님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라하며 귀빈들에게 무척 난감
한 표정을 지었다.

그렇다고 현장에서 직접 야단을 치거나 매를 들 수도 없어서 얼
굴색이 별짙게 달아올라 있었다. 웅성거림이 이어지자 방송을 통해
차분한 목소리로 주의를 줄 뿐이었다.

“운동장에 참여하신 학생 여러분은 소리를 절대로 내선 안 됩니
다. 오늘 놀러온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는 사열이 끝나고 원래 자리에 섰다. 이윽고 칠공주 학
교가 본부석 앞으로 들어섰다.

B여고의 학도호국단장의 구령이 울려 퍼졌는데 여학생의 가냘픈 목소리라 조금 생소하게 들렸다.

“우로 봐!”

B여고가 본부석을 지나 우리 학교 앞을 지나갈 때 조금 전에 본부석에서 방송으로 알린 주의사항 따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이번에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크게 함성을 질렀다.

“와! 칠공주 파이팅! B여고 파이팅!”

조금 전 여고생들이 외치는 소리와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의 굵고 큰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는데, 그때였다. 학예부장 김병헌이 망망대해에서 무인도를 발견한 듯 큰소리로 외쳤다.

“2학년 대대장이 김봉자다!”

에트랑제 회원들은 당연히 좋아서 함성을 질렀지만 영문도 모르는 우리 학교 학생들도 덩달아서 일제히 ‘와우!’ 하는 소리를 내며 박수를 쳤다. 심지어 휘파람을 부는 학생들도 여럿 있었다.

“김봉자 파이팅! 칠공주 파이팅!”

이렇게 큰 목소리로 파이팅을 외치자 지휘대 위에선 부산시내 교련 선생들의 회장격인 분이 본부석 아래에 운집해 있는 부산시내 교련 선생님을 모두 모이게 한 후에 무엇을 하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잠시 후 우리 학교의 대열로 내려온 우리 학교 교련 선생님은 앞쪽에 서서 눈을 부라리며 분노를 억누르듯 지휘봉으로 자신의 손을 연거푸 탁탁 치고 있었다.

행사를 마친 후 각 학교마다 훈련 상태에 대한 평점을 발표했는데 우리 학교와 B여고는 남녀학교를 통틀어서 각각 꼴찌의 점수를 받고 말았다.

다음날 학교에 등교하자마자 교련 선생님은 어제 구덕운동장에서 발생한 소란을 문제 삼아서 운동장에 집합을 명한 후에 모범이 되어야 할 3학년이 이상한 행동을 했다며 긴 훈시를 했다.

“제군들 잘 들어라! 학도호국단 시범은 장난삼아 여는 놀이 축제가 아니다. 유사시에 제군들은 여러분의 가족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 학도병의 신분으로 전선에 나가야 하며 그런 비상사태에 대비한 기초군사교육인 것이다. 알겠나! 그런 엄숙한 사열식 때 학교 망신은 물론 교육을 시킨 나를 부산시장님과 귀빈들 앞에서 개망신을 시켰다. 이것은 정신 교육이 잘못 되어서 그렇다. 각오해라!”

“앞드려뻥쳐! 실시!”

“쫓그려뛰기 백 회! 실시!”

학생들의 얼굴과 복장은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었고 걸음을 걷지 못할 정도로 기합을 받고서야 해산했다.

그렇게 한 시간 동안 벌을 받고 교실로 돌아오니 담임선생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선물을 주듯이 가을소풍 날짜가 잡혔다고 말했다. 모이는 장소는 성지곡수원지 정문이며 모일 모시에 집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하동역 사건 이후 저마다 학업이 바빠서 칠공주와 연락을 나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에트랑제 회원들끼리도 교내에서 만나기가 힘들 정도였다. 그래서 소풍가는 앞날 에트랑제 회원들이 복도에서 모여 내일 각 반마다 졸업앨범에 넣을 가을소풍 사진을 찍고 일찍 마친 사람은 공원 내의 원숭이 사육장 앞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우리가 소풍가는 그 날은 금요일인지라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부

산시내 초·중·고 여러 학교에서도 소풍을 온 관계로 성지곡수원지 정문 앞에는 여러 학교 학생들의 교복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었다.

그 교복들 중 안면이 있는 여고 교복과 배지가 눈에 띄었는데 칠공주가 다니는 B여고였다.

나와 학예부장 김병현은 너무 기뻐하면서 삼삼오오 모여 있는 B여고생들 쪽으로 걸어갔다. 학예부장이 B여고생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어리게 보이는데 몇학년 입니까?”

“저희들은 1학년입니다. 그런데 왜 물어요?”

“음..., 다름이 아니고 오늘 2학년들도 소풍 오는가요?”

“네, 전교생이 모두 왔어요.”

우리는 알았다며 고개를 끄덕여준 후 돌아와서 에트랑제 회원들을 찾았다.

규율부장 최대성은 성지곡수원지 정문 앞에서 전체 학생들을 통솔하느라 분주하게 다녔다. 간격 없이 집합을 한 후 출석 체크를 하면서 한 줄씩 서둘러 입장시켜 나갔다. 성지곡수원지 북편 지역의 평편한 곳에 자리를 잡은 전체 학생들은 능글맞게 사회를 보는 학예부장 김병현의 원맨쇼에 웃다가 탄성을 지르다가 입심에 또 놀라다가 그 분위기에 흠뻑 취하고 있었다. 그 즈음 악대부장 이우성의 오보에 독주가 소개 되었고 오보에의 음조는 숲속의 요정을 불러내듯 감미로움을 더해 주어서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각 학급의 대표들이 나와서 장기자랑을 마치면서 점심 식사로 가져간 김밥을 먹고 있는데 B여고생 두 명이 우리학교 학생에게 다가와서 무슨 대화를 나누더니 쪽지를 건네주었다.

“광휘야! B여고생이 너보고 전해달라고 하네?”

칠공주들 쪽에서 보낸 편지였다.

“오빠들, 그동안 안녕? 오늘 소풍행사가 끝나면 저수지가 있는 다리 위에서 기다리고 있겠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먼저 소풍행사를 마친 측이 기다리기로 해요. 칠공주 대표 김봉자 올림.”

칠공주들도 우리 학교가 소풍을 온 사실을 알고 쪽지를 보낸 것이다. 나는 쪽지를 읽으면서 잠시 하동역 사건을 회상했다. 하동역 사건이 있는 후 학교에 등교했을 때를 생각하며 정말 잘 참았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다친 후 며칠 만에 학교에 등교했을 때 전교학생들은 학교 간부 선배들이 폭행당한 점에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유도부는 유도부대로 럭비부는 럭비부대로 유도부장과 럭비주장이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점에서 엄청 분개했었고 하동을 쳐들어가서 응징을 해야 한다고 들끓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생회장 박성곤이 나서서 다독이기를, 깡패들이 꼭 하동사람이라는 증거도 없기 때문에 찾을 수도 없다고 설득했다. 그래도 분을 삭이지 못한 전교생들은 하동 전역을 이 잡듯 뒤지면 찾을 수 있을 거라며 전교생이 하동을 가는 열차를 타자고 떠들썩하는 바람에 며칠간 진땀을 뺐었다.

설득하지 않고 가만 두면 쳐들어갈 충분한 소지를 우리 학교 학생들은 가지고 있었다. 지난해 D고교와 럭비시합 때 심판의 편파판정으로 우리 학교가 패하자 전교생이 운동장에 뛰어들어 폭동에 가까운 사태가 벌어진 사건이 있었다.

심판은 젖 먹든 힘까지 다해서 시합장 밖으로 도망을 쳤고 그런 심판을 찾는다고 경기장 일대를 우리 학교 학생들이 몽둥이를 들고

난동까지 부렸다. 이 사건은 저녁 뉴스시간에 보도되기도 했다.

“이번에 정말로 후배들을 잘 설득했어.”

에트랑제 회원들끼리 입을 모으고 있을 때 오늘 소풍행사를 마친다는 안내방송을 체육 선생님이 핸드마이크를 들고 안내했다.

우리들은 성지곡수원지 다리를 향해 종종걸음으로 달려갔다. 키 큰 편백나무 숲을 지나갈 즈음 다리 위에는 하얀 교복칼라가 선명한 여고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가던 걸음을 멈추고 자세히 살펴보니 칠공주들이 먼저 와서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친구들아! 저기 봐! 칠공주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네. 보이제?”

에트랑제 회원들은 손으로 햇빛을 가리면서 쳐다보더니 맞음을 확인한 후 각자 하동에서의 짝꿍 이름을 외치기 시작했다.

“초혜야! 말순아! 태자야! 뽕자야!”

다리 양쪽 끝에서 마주보며 에트랑제 회원들은 팔을 휘저으며 슬로우 모션으로 걸어가면서 익살을 떨었다.

“춘향아! 이도령오빠가 이제 돌아왔어. 히히히”

에트랑제 회원들은 각자의 짝꿍의 손을 잡거나 뽕치듯 포옹을 하면서 녀살을 떨었고 칠공주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좋아라했다.

나도 박초혜의 손을 꼭 잡으며 그동안 많이 보고 싶었다고 말하면서 미영이의 근황까지 물었다.

“미영이가 안보이네요?”

박초혜는 미영이가 아파서 먼저 집에 갔다고 말했다. 나는 염려가 되어서 다급하게 물었다.

“얼마나 아팠으면 그냥 갔어요?”

내가 미영이에 대해 안쓰러워하는 마음으로 물었으나 박초혜는 고개를 가우뚱할 뿐 자세히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짜깁이 나타나지 않은 악대부장 이우성은 머쓱하게 서 있다가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곁으로 다가와서 물었다.

“미영씨가 많이 아픈가요? 우리들과 만난다는 것을 알고 갔나요?”

악대부장 이우성은 염려 섞인 목소리로 다잡아 물었다.

“미영이는 감기몸살 증상이 있다며 먼저 집으로 갔어요.”

우리들은 다리 옆의 편백나무 숲속으로 자리를 옮겼다. 에트랑제 회원들은 야외전축을 틀어놓고 하동역에서 못다한 춤을 마음껏 춰 보자며 바짓가랑이를 걷어붙였다.

“고고춤으로 시작해서 다이아몬드스텝으로! 돌격 앞으로!”

우리는 Cherry pink mambo, Sky blue heaven 같은 신나는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기 시작했다. 칠공주들도 춤에 흠뻑 빠져 있을 때 나는 박초혜를 데리고 바위에 걸터앉아 아직도 미영이가 마음이 걸려서 재차 물었다.

“미영이가 정말 아파서 못 왔나요?”

“크게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함께 오기 싫어하면서 왠지 피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는 마음속으로 미영이 집에서 이사 나올 때 자신을 만나지 않고 떠난 것에 대한 반감일까 하는 느낌도 들었다.

“미영이가 자기 집에서 떠난 것이 몹시 서운했던 모양이네요. 미영이 어머니가 내게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미안해서 편지만 남기고 살짝 이사해버렸지요.”

“예? 이사했어요? 언제요?”

박초혜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당황하듯 물었다.

“미영이가 말 안하던가요? 추석 지나고 나서 곧장 이사했다고…”

“그렇다면 광휘오빠는 내가 보낸 편지 못 받았겠네요?”

“무슨 편지 말인가요?”

“하동 갔다 온 후 미영이 편으로 학교에서 열 통, 우편으로 스무 통 넘게 보냈는데 못 받았나요?”

박초혜는 당황한 듯 잔잔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또한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초혜가 나에게 그렇게 많은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에 놀라면서 편지 한 통도 못 받았다고 고개를 저었다.

“세상에 그 애가 그럴 수 있을까? 나는 저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박초혜는 흥분을 가누지 못한 채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미영이가 이런 사실이 들통도 나게 생겼고 죄책감에서 못 나타났구나 하는 생각을 하다가 박초혜와 미영이가 크게 다툰 것이 염려되어 말을 바꾸었다.

“아참! 내 정신 좀 봐! 그리고 보니 몇 번 전해 받은 기억이 나군요. 그리고 내 책상 위에 오른 편지도 보았어요. 그런데 바쁘다보니 읽어보질 못했어요. 미안해요.”

박초혜는 나의 그런 언행을 못 미더워하는 눈치를 보였다.

“광휘오빠가 만약 편지를 받았다면 왜 답장을 안했어요? 그러니까 안 받은 것이 맞아요.”

“음…, 내가 답장을 보내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사하느라 겨를이

없어서…”

“제가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한 가지만 말해보세요?”

나는 자꾸만 궁지에 몰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 후 내가 말이 없자 박초혜는 더 이상 말할 필요를 못 느낀 듯 추궁을 하다가 멈추고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하동 다녀온 후 미영에게 광휘오빠에 대한 소식을 물으면 전혀 대꾸도 하지 않고 몇 마디 시큰둥하게 대답만 하면서 자리를 피했어요.”

“그건 내가 이사를 해서 나에 대한 소식을 알 수 없으니 그렇겠죠.”

나는 초혜의 말을 들으면서 두 사람의 우정에 금이 갈까봐 내심으로 걱정만 하고 있었다.

초혜는 마음속으로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는 표정을 짓더니 말했다.

“광휘오빠의 하숙집에는 전화 없어요?”

“있긴 한데 주인아줌마가 어찌나 구두쇠인지 전화다이얼에 작은 열쇠를 잠가두고 외출을 해서… 어찌다 고향에 전화를 급히 사용할 때는 한 통화에 얼마씩 전화요금을 지불하고 사용하는데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서 고향 말고는 전화하기 곤란해요.”

“그렇다면 일단 우리 집 전화번호를 적어 줄 테니 잘 지니고 다니다가 연락 주세요. 자주 해주면 좋겠지만…”

“알겠어요. 보고 싶을 때 우체국이나 전화국에 가든지 아니면 전화 부스에서 할게요.”

초혜가 적어준 전화번호를 학생증 수첩 뒤에 꽂아 넣은 후 에트랑제 회원들과 칠공주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는 장소로 갔을 때 수원지 나무에 설치해둔 앰프에서 안내방송이 들렸다.

“잠시 후면 수원지가 문을 닫을 시간입니다. 입장객 여러분들은 모두들 정문으로 나오셔서 나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지곡 수원지를 애용해주신 관람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땡땡땡”

“잘 가, 칠공주! 다음에 또 봐.”

아쉽지만 전화번호 하나 남기고 기약 없이 서로 손을 흔들었다.

소풍을 다녀온 후 용돈이 바닥이 났다.

호주머니에 동전이 딸랑거리니 도시가 한없이 싫어졌다. 시골에서야 집밖에 나와도 서리를 하면 배고픔쯤이야 즉각 해결되지만 도회지는 그렇지 못했다. 동전뿐이니 고향집이 더욱 그리웠다. 시내를 다니다가 급히 용변을 보고 싶어도 돈을 지불하고 이용해야 하는 도시의 공중화장실이 싫었다. 도시하천이나 어수룩한 뒷골목을 찾아서 소변을 봐야하는 도시가 한없이 싫어졌다. 더구나 성장기에 있는 고교생의 배는 넣어도 끝이 없는 무진장 크고 길게 늘어나는 고방 같은 곳인데 고방은 비워지는 경우가 많아 정신마저 산만했다. 먹고 싶은 것은 많이 떠지만 돈이 없으니 침만 삼키고 다닐 수밖에 없는 도시. 찢빵 집에서 솔뚜껑을 열면 하얀 수증기가 뭉개 피어 오르는 것만 봐도 먹고 싶다는 듯 꼬르륵 소리를 내며 반응하는 배가 외려 뭉살스러웠다.

에트랑제 회원들은 하나의 원칙을 정해 놓고 있었는데 시골에 다녀온 사람은 그 주중에 회원들에게 찢빵을 한턱 반드시 내야 한다. 학교 밑에 있는 찢빵가게를 가끔씩 이용하는데 일곱 명이 먹으려면 소쿠리에 큰 무더기처럼 담아 와야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찢빵 파티도 못하고 있다. 모두들 공부한다고 고향 가

는 사람이 없으니 찐빵파티 한 것이 까마득하게 느껴졌다.

배가 고플 때일수록 고향이 더 그립게 느껴졌다.

나는 하숙집을 나와서 범일동역으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범일동역은 출입구 경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허술한 역이어서 공짜 열차를 타는 학생들로 항상 붐볐다.

경전선 열차로 통학하는 학생들이야 한 달씩 통학패스를 사용하지만 나처럼 고향에 띄엄띄엄 가는 학생들은 모두 이곳에 모여 범일역의 역무원들이 단속하는 상황들을 살핀 후 가져온 열차 요금을 거둬서 근처의 찐빵집이나 크로켓, 꿀빵 가게에서 배부터 먼저 채웠다.

오늘도 예외가 아니어서 고향마을에 사는 강희찬을 만나 범일동역 근처의 빵집에 가서 사탕이 발린 크로켓을 맛있게 먹은 후 담을 훌쩍 뛰어 넘었다. 그런 후 우리들처럼 고향 가는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어울려 일반 승객들이 기다리는 승강장에 눈치를 보고 서 있었다.

이런 우리들의 방법을 철도청 직원들이 바보가 아닌 바에야 어찌 모르겠는가. 열차 승무원은 무임승차한 사람을 잡아내기 위해서 기관실 앞쪽에서 이 잡듯이 살살이 훑어오면서 표에다가 가위로 딸깍하고 확인하는 구멍자국을 남기고 체크해 왔는데 어찌다 갑작스럽게 마주치면 손가락을 가리키며 말한다.

“저쪽 다음 칸에 우리 아버지가 내 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순간을 모면하기도 하고 어떨 땐 승강 계단에 서서 양쪽 승강계단에 발을 걸친 후 승무원이 객차 칸을 지나가면 비호 같이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던지 그것조차 여의치 않으면 화장

실에 숨어 있으면 되었다.

“꽁꽁.”

“안에 누구 있습니까? 무슨 똥을 이리 오래 싸고 있어요? 항문 빠지겠다. 빨리 나오소!”

열차 승무원이 재촉해도 똥 싸는 사람은 대개가 무임승차한 승객인지라 꽁꽁 소리만 낼 뿐 기척도 하지 않고 앉아 있다가 공모자가 문에 대고 일러주면 그때서야 배시시 웃으면서 밖으로 나왔다.

“이제 밖으로 나와라. 안 잡히려고 똥냄새 나는데 갇혀 있느라고 고생 많았다. 하하하.”

그렇게 열차 승무원과 숨바꼭질을 하다보면 한 시간 반 걸리는 고향의 역은 금세 도착했다.

가을 들녘은 밤이 되었는데도 달빛에 비쳐서 누렇게 익은 벼이삭들이 선선하게 불어오는 가을바람에 황금물결을 일렁이고 있었다.

그리고 깊어가는 가을을 애달프게 서러워하듯 귀뚜리들은 어금니를 깨물고 ‘꿀꿀꿀’ 하면서 가을을 당기고 있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 왔습니다.”

제일 먼저 사랑채에 거처하시는 조부모님께 인사를 올렸다.

“응, 막차타고 왔나? 공부하느라 욱봤다. 밥 안 먹었제?”

조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어머니는 벌써 위채 안방에서 목소리를 엿듣고 마루에 나타났고 작은방에서 놀던 여동생들과 남동생이 와르르 대청마루에 몰려나왔다.

당연히 밥을 먹지 않고 왔을 것이라 생각하신 어머니는 부엌에서 밥을 챙기고 있었다.

“오빠야 왔나?”

여동생은 아무 먹을 것도 사가지고 오지 않는 오빠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

대청마루에 앉은 아버지는 나에게 대한 정보를 훤히 꿰뚫고 있는 지라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앉아 계셨지만 할아버지는 손자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컸었던지 대뜸 말씀하셨다.

“너희 큰아버지가 하는 말이 광휘는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성격도 좋고 리더십도 뛰어나니 육군사관학교에 꼭 보내서 우리 문중에서도 장군을 하나 만들어보자고 하더라. 장군 나오면 좋지. 허허허.”

밀양시 하남읍에서 열리는 파시조 모임에 다녀오신 할아버지께서도 합천에서 종친으로 참석한 J 대령의 늙름한 모습을 보고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하셨다.

할아버지는 내 곁에 다가와서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학교 때처럼 공부하면 될 터인데 하셨다. 그런 후 가족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셨다.

“우리 손자는 틀림없이 좋은 대학에 들어 갈 수 있으니 걱정마라.”

나는 밥을 먹으면서 아버지를 곁눈으로 슬그머니 훑쳐보면서 마음속으로 말했다.

‘할아버지, 저는 부산 가서 농땡이가 되었어요. 대학은 고사하고 예비고사라도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제 속 안에 들어가 있으니 아버지께 말씀 들으신 후 너무 실망일랑 하지 마세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봉으로 담은 밥 위에 배추김치를 척척 찢어서 얹어주는 어머니와 할머니를 번갈아 보면서 후딱 먹어치우고 여동생들이 기다리고 있는 작은방으로 갔다.

동생들이 나를 목을 빼고 기다리는 이유는 시골에서 자라 도회지

라곤 가 본적이 없었던 관계로 도회지의 이모저모의 소식을 듣고 싶어서였다. 시골에서 도회지에 대한 정보를 조금이라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채널은 나와 흑백텔레비전이였다. 텔레비전 또한 아버지의 제약으로 자주 볼 수 없었다.

백 가구 정도 살고 있는 우리 마을에서 텔레비전이 있는 집은 우리 집 뿐이었는데 당시에 인기 있는 ‘여로’라는 프로 때문에 우리 집은 작은 극장을 방불케 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 주위를 어슬렁거리다가 텔레비전이 켜졌다 싶으면 우르르 몰려와서 ‘여로’ 같은 연속극뿐만 아니라 텔레비전을 켜는 순간부터 애국가가 나올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고 관람을 했는데, 이런 마을 사람들을 위해 아버지는 아예 대청마루에다가 텔레비전을 옮기고 마당에는 명석까지 깔아 주어서 많은 사람이 시청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셨다.

겨울이 다가오자 마당에 앉으면 추운지라 안방으로 텔레비전을 옮겨오면 마을 사람들도 다 함께 방안으로 몰려오기 마련이어서 우리 부모님은 큰 곤혹을 치렀다.

아버지는 밤늦게 학교에서 과외수업하고 귀가하시면 편하게 쉬어야 하지만 그럴 수 없었고, 어머니 또한 농사일로 피곤하지만 아랫목 쪽으로 몰려드는 마을 사람들 때문에 다리조차 펼 수 없는 지경이었다.

그렇다고 쫓아내지도 못하고 팔시할 수 없는 게 시골 인심이 아닌가. 부모님들은 한쪽 벽에 기대어 졸고 계시기가 일쑤였다.

더구나 제일 큰 고역은 겨울이 되면 농촌사람들은 아예 발조차 씻지 않음은 물론 양말을 일주일 넘게 신으니 방은 구린내와 비릿

한 냄새가 진동을 했다. 그렇다고 그런 걸 지적하면 행여 빠질까봐 말도 못하고 콧구멍만 누르고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 눈치를 피해 째짤이 텔레비전을 보고 그 내용을 토대로 대화를 푸느라고 동생들은 밤을 설치기 일쑤였고, 아버지는 생물 선생님답게 위생관념이 철저해서 영하의 기온에도 이불과 담요를 모두 걷어서 빨랫줄에 걸친 후 작대기로 툭툭 털고 일광욕을 매일같이 시켰다.

선잠에서 깨어난 동생들은 활짝 문을 열어젖힌 방 안에서 오들오들 떠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텔레비전 외엔 도회지 소식을 몰라 궁금한 것이 많았던 누이들은 내가 말문을 열기만을 기다리고 내 입을 쳐다보고 있었다.

“에헴! 부산가면 영도다리라고 엄청나게 큰 다리가 있는데 말이야. 그제, 하루에 두 번씩 히득 들어 올리거든. 그런 후에 그 밑으로 배들이 ‘통통통’ 소리를 내면서 지나간다. 참 신기하다.”

“오빠야, 다리가 히득 어떻게 들리는데? 참 희한하다.”

“또 있다. 용두산에 올라가보면 꽃들을 억수로 심어놓고 그 위로 시계바늘이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시간을 알려준다 아이가.”

“우와! 시계바늘이 꽃 위로 다니면서 시간을 가리켜 준다꼬? 참 말로 신기하네?”

“그 뿐인 줄 아나. 해운대에 가면 극동호텔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매우 높거든.”

“얼마나 높은데?”

“4층이다 아이가. 해운대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다.”

“우와! 그렇게 높은 건물도 있나!?”

“호텔 앞에 놀러가서 친구들이랑 사진도 찍었다 아이가. 히히히.”

“우와! 우리 오빠야, 부산으로 학교 잘 갔네.”

누이들과 얘기를 나누다보니 금세 자정을 훌쩍 넘겨서 배가 고팠다. 자정을 넘기면 매번 묻던 막내 누이가 오늘도 어김없이 빵 얘기를 꺼냈다.

“오빠야! 부산에는 호떡이라는 빵이 있다며? 그 빵 속에는 시켜면 꿀로 만들어서 진짜 맛있다고 하던데? 그게 빵인지 떡인지 궁금하다.”

“몰라. 빵인지 떡인지. 나는 한 번도 먹어보질 않아서.”

나는 동생들의 물음에 시큰둥하게 대답을 했다. 나는 동생들의 입에서 먹는 얘기만 나오면 먹고 싶다고 침을 삼킬까봐 무조건 통명스럽게 대답을 한 후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렸다.

“공부하기도 바쁜데 그거 먹어 볼 시간이 어데 있노. 당연히 안 먹어 봤다.”

사실이지 부모님이 용돈을 주면 제일 많이 사 먹은 게 호떡이었다. 그러나 동생들에겐 말할 수 없어서 시침을 툭 잡아뗐다. 부전역 맞은편 이성극장의 하천 옆에는 호떡 포장마차가 열 개 정도 줄지어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전포동에 자취방이 있었던 1학년 때는 교통부에서 시외버스를 내린 후 차비를 아껴서 호떡 하나라도 더 사 먹기 위해서 2킬로미터쯤 되는 길을 걸어서 갔다.

밤이 깊도록 호떡, 크로켓, 찌빵 이야기까지 나오자 배에선 자꾸 꼬르륵 소리를 냈다.

“집에 뭐 먹을 것 없나?”

“오빠, 고구마하고 호박 삶은 거 있는데 갖고 올게.”

새벽 수탉이 깃 치는 소리를 낼 때 형제누이들은 배가 텅글텅글
해져서 잠이 들었다.

수탉은 아침을 열고 우리 남매들은 잠을 청했던 것이다.

고향에 가면 나는 사랑채에 계신 조부모님 방에서 잤는데 할아버
지는 기억력이 엄청 좋아서 젊은 시절 얘기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
게 들려주셨다. 그리고 옛날 얘기를 끄집어내시면 밤새는 줄 몰랐
다. 내가 그렇게 잠을 설쳐가며 들었던 것은 할아버지의 얘기 방식
이 구연동화처럼 했기 때문이다.

아버지도 부전자전인지 할아버지처럼 소년시절 추억을 말씀하
시고 나도 기억력이 대단한 편이라 결국 우리 직계혈통은 이야기만
큼은 삼대의 부전자전인 셈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정리하고 있으니 문 밖에서 할아버지를
찾는 목소리가 들렸다.

“당숙어르신 계십니까?”

낮게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문을 여니 제종숙부셨다. 제종숙부는
강송현의 바로 위 매형이다.

제종숙부는 시골 우리 집에서 2킬로미터 남짓 되는 봉하마을에
살고 계시는데 그곳은 전체 가구래야 고작 스무 가구 정도 되는 한
적한 시골의 마을이다. 스무 가구 중에 우리 친족들이 열 가구가 살
고 있었다. 그리고 제종숙부님은 강송현의 생가 뒷집에 살면서 강
송현의 누나와 연애를 해서 결혼했다.

우리 친족들은 특별한 혈육애를 가졌다. 그것은 사십 년대 후반
에 열병이 번져 많은 사람이 죽었고 우리 친족들도 많이 죽은 후 발
휘한 우애 때문이다.

어린 아이들을 남겨두고 할아버지 형제 네 명이 돌아가셨는데 그런 조카들을 할아버지가 중심이 되어 키우고 공부시키고 결혼까지 시켜 살림을 내주기까지 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면소재지 관내서 혈육애가 강한 집안으로 소문이 났다.

특히, 할아버지 칠형제 중 제일 막내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시골에 두고 기생집이나 유곽 같은 곳에서 장구를 쳐주고 다닌 한량이었다. 그런 막내를 고향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할아버지 형제들은 집을 지어주고 땅을 주고 소를 주고 살림을 만들어 주었는데 재산을 만들어주면 팔아먹는 게 다반사였다. 그러나 형제들은 막내 동생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논을 주고 소를 사주었다.

그랬던 막내 할아버지가 마음을 고쳐먹고 고향에 상주하면서 조카나 손자들에게 장구를 가르쳐줘서 우리 당숙부들은 물론 고모와 제종형제들 중에 장구를 못 다루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심지어 고모들도 장구잡이로서 인기가 대단했는데 모내기가 시작되기 전의 봄이면 봉하마을 뒷산인 자암산에서 회취를 하는데 장구잡이들은 모두 우리 친족들이었다.

얼마나 재미있게 잘 논다고 소문이 났던지 근동사람들은 저 문중에 장가가면 소원이 없겠다고 했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우리 마을도 백 가구 정도 되는데 우리 친족들이래야 열 가구 정도 밖에 안 되는데도 잔치가 있는 날이면 온 마을이 잔치분위기로 들떴다. 우리 친족들이 노는 흥겨운 노랫가락 소리에 함께 흥취해서였다. 그렇게 장구잡이가 많고 노래를 잘하는 우리 친족들인지라 봉하마을 친족 집에서 잔치가 열리면 우리들은 한밤중에라도 장구를 메고 떼를 지어 산을 넘어 봉하마을에 갔었다. 봉하마을을 목전에 둔 좌측 산모

룽이의 높다란 바위에선 우리들의 발자국 소리를 미리 엿듣고 있었던 듯 부영이가 ‘뽕뽕’ 소리를 내며 환영해 주었다. 봉하마을에 간 날은 마을이 떠나갈듯 신명나는 굿판이 며칠간 계속 이어졌다.

그렇게 정겨움이 묻어나는 봉하마을에서 살고 있는 제종숙부가 이른 아침에 할아버지를 찾아오신 것이다.

“당숙어른! 얼마 전에 밀양 종친회에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행여 명덕이 형님 소식 들었습니까?”

“그래, 명덕이 그 조카도 왔더라. 그런데 왜 물어?”

“지금 어느 지방법원에 계신다 합디까?”

“부산지방법원에 부장판사라고 하던데. 왜? 무슨 일이 있나. 왜 자꾸 캐물어?”

“…….”

잠시 대화가 끊어지더니 할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했던지 다시 제종숙부에게 물었다.

“너희 바로 아래 처남이 읍내중학교에서 공부를 아주 잘 한다며? 그리고 조카 네가 김해 읍내에 세탁소하면서 처남을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 공부를 시킨다며?”

“고등학교 졸업하고 잠시 취직했다가 사법고시 공부해서 합격했습니다.”

“그래?! 사법고시 공부 어렵다고 하던데 사법시험에 합격했다고? 참으로 축하할 일이네.”

“봉하마을 뒷산에서 원두막 같은 움막을 지어서 죽자 사자 공부했습니다.”

“그렇다면 판사 발령은 났어?”

“아닙니다. 함께 사법연수원에서 교육받은 동기들은 대부분 발령이 났다고 하는데 우리 처남은 발령이 나질 않네요. 그래서….”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야?”

“당숙부님이 명덕이 형님한테 찾아 가서서 발령이 나도록 힘 좀 써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가 직접 찾아가서 부탁하면 되지?”

“저는 종친회에 한 번도 가지 않아서요. 명덕이 형님이 판사라는 말만 들었지 만난 적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할아버지는 다음날 이른 아침 한복을 곱게 차려 입으시고 갖까지 갖추신 후 한림정역에서 첫차를 타고 부산을 향했다. 나는 고향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시 도회지로 돌아오려니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아서 어둠살이가 내릴 즈음에 고향에서 출발하는 막차버스를 타고 부산에 가기로 했다.

어머니는, 하숙집 반찬이 내 입맛에 맞지 않다고 말씀드렸더니 내가 제일 좋아하는 누런 콩잎 절인 반찬을 작은 단지에 담아주셨고 그 속에다 멸치 젓갈에 넣어 절여 놓은 풋고추를 함께 넣어서 보자기로 묶어 주셨다.

“이것만하면 밑반찬으로 몇 달 정도는 먹을 수 있겠제?”

어머니는 보자기 매듭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말씀하셨다. 버스정류장까지 배웅해주는 누이들과 손을 흔들며 버스에 몸을 실었다. 비포장 길을 달리니 금세 머리가 어지럽고 멀미가 났다. 열차를 탈 걸 괜히 버스를 탔다고 마음속으로 후회를 하면서 버스 창문을 열었다.

부산 주례를 지나 교통부와 서면이 갈라지는 분기점은 도로가 급

한 내리막길인데도 버스기사는 속력을 낮추기는커녕 외려 내리막 길을 즐기듯 속력을 냈다. 그 바람에, 구포까지 오는 도중에는 학생들이 빼곡하게 서있어 밀려가지 않던 콩잎 절인 반찬단지가 띄엄띄엄 서있는 학생들 틈 사이를 굴러서 운전기사 옆에 있는 엔진 박스에 꽂 부딪히더니 쟁그랑 소리를 내면서 박살이 났다.

버스 문 곁에 서 있던 버스 안내양은 코를 움켜쥐면서 코맹맹이 소리로 짜증을 냈다.

“여기 콩 이파리와 고추 단지 누구 겁니까? 아이고, 고약한 젓갈 냄새! 휴!!”

안내양은 버럭 고함을 질러 대면서 콩잎반찬 주인은 버스 안을 청소해주고 가라고 신경질을 계속 내고 있었지만, 주인이라고 나서 봤자 핀잔만 들을 뿐 내겐 아무 득도 되질 않고 버스 안에 쏟아진 반찬은 먹지도 못하게 되었으니 내 것이라고 할 이유가 없어서 시침을 툭 따고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마음 한편에선 내일부터 또다시 입맛에 맞지 않고 맛있는 하숙집 반찬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과 함께 어머니의 정성이 버려진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반찬 걱정을 할 겨를도 없이 월요일 아침은 다른 날보다 더 빨리 밝아 왔고 하루는 길게 느껴졌다.

월말이 가까워지니 다음 달 잡지가 나왔다. 학생들이 즐겨보는 잡지라야 뻘했다.

남학생들은 ‘진학’이라는 잡지고 여학생들이 즐겨보는 잡지는 ‘여학생’이라는 잡지였는데 학예부장 김병헌이 여학생 잡지를 들고 뒤쫓아 오는 학우들을 피해 급히 달려오며 나를 불렀다.

“광휘야, 거기 서 있어 봐라.”

“왜 그래? 저학년처럼 복도에서 뛰어다니고.”

숨을 몰아쉬며 내 앞에 멈춘 후 학예부장이 여학생 잡지책을 건네주었다.

“여학생 잡지 표지모델에 박초혜가 나왔어!”

나는 금세 알아보았다. 그것은 박초혜의 얼굴 특징 중에는 윗입술 위에 녹두 콩 크기의 까만 점이 하나있기 때문이다.

나는 마음속으로 ‘초혜는 그리 할일이 없나. 잡지 표지에 얼굴이 나 팔리고.’하면서 학예부장 김병헌에게 관심이 없다며 잡지책을 돌려준 후 운동장으로 나가 버렸다.

학교 뒷동산에 올라가니 만추의 코스모스는 만삭의 몸으로 결실을 하나씩 내려놓고 있었다. 어둠이 스며드는데도 3학년 교실에선 삼년간의 농사를 점검하느라 교실마다 불빛이 대낮처럼 흰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것은 곧 다가오는 예비고사 시험과 본고사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였다. 커트라인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예 대학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는 절대평가인 것이다.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단두대의 시퍼런 칼날 같이 느껴지기도 했다.

선선한 가을이었지만 고3 학생들은 심한 스트레스에 끔끔 앓으며 비지땀을 쏟아내고 있었다. 외형은 멀쩡해보여도 내면은 심한 정신병을 앓고 있는 환자같이 보이기도 했다.

오늘은 토요일 오후라 평일보다는 일찍 수업을 마치고 해가 누엣 누엣 저물어가는 햇살을 바라보면서 교문을 나서고 있는데, 양복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청년이 앞서가는 학생들에게 무어라고 묻더니 그 학생들은 뒤쪽을 향해 손짓을 하며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 청년은 복잡하게 엉켜서 내려오는 학생들 틈새를 요리조리 비켜서 내 쪽으로 다가오더니 내 얼굴을 빤히 드러다 보고 명찰을 확인한 후 환하게 웃으면서 반가운 척 말을 건넸다.

“학생이 전광휘군요.”

“누구신데요?”

내가 되물었다. 삼 년간 학교를 다니면서 아는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학교를 찾아 온 적이 없었는데 더구나 말쑥한 양복을 입은 사람이 찾아오니 더욱 그랬다.

“B여고 박초혜를 아시죠?”

“예!?! 박초혜를 압니다만…”

나는 별척 겁이 나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행여 박초혜의 약혼자가 아닐까하는 생각부터 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필시 무슨 일이 터졌나보다 싶어 겁이 덜컥 나면서 무엇 때문에 박초혜의 이름을 들먹이며 나를 찾는지 궁금했지만 내가 먼저 물어 볼 수도 없었다.

그 청년은 나의 팔을 이끌면서 진입로 한편으로 데려갔다. 무더기로 쏟아져 내려오는 학우들은 나를 힐끗 쳐다보며 눈을 크게 뜨고 붕어목소리로 누구냐고 묻기도 했다. 나는 궁금증을 더는 못 참고 청년에게 물었다.

“그런데 박초혜와는 어떤 사이인가요?”

“놀라지 마세요. 저는 초혜집의 자가용 기사입니다.”

그 청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다음 말을 이어갔다.

“놀라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초혜 학생이 많이 아파요. 특별한 병명도 없이 끽끔 앓고 누워 있어요.”

“많이 아프면 대학병원에 데려가야지 왜 저를 찾아 오셨습니까?”

“네, 물론 대학병원에 가서 얻은 진단결과입니다. 병명이 안 나오요.”

“저보고 어찌랍니까?”

“초혜가 어젯밤에 엄마한테 모처럼 말을 했는데 광휘학생이 보고 싶어서 그렇대요.”

“네 !?”

“초혜 아버지가 원장님인데 원장님도 광휘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매우 궁금해 하고 한번 보고 싶어 합니다.”

“원장님? 학원 하시나요?”

“초혜가 말하지 않던가요? 아버지가 한의원 원장이라고.”

“그렇군요. 아무튼 저는 가기가 좀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가기 싫습니다.”

내 말에 운전기사는 통사정하듯 매달렸다.

“부탁입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서 다녀가세요.”

나는 초혜가 원인 모를 병으로 아프다고 하는 점이 궁금하기도 하고 운전기사의 간절한 부탁을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의 뒤를 따라 갔다. 큰길 가로 나오니 새까만 세단형 승용차가 한 대 서 있었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승용차를 한 번도 타 본적이 없어서 승용차를 뚫어지게 살펴본 후 차에 탔다.

영화 속에서 보았던 세단형 승용차는 프랑스 영화 장 폴 벨몽드, 알랭 들롱 같은 배우들이 갱 영화에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쫓고 쫓기는 영화 속의 차가 고작이었다. 그런 영화 속에 나오는 승용차와 흡사해 보이는 차를 타니 영 실감이 나질 않았다. 외려 입석버스보다

더 불편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차 속에서 무엇보다 초혜에 대한 궁금증이 자꾸 들었다. 초혜가 많이 아프다는데 약은 먹지 않고 엄마한테 나를 데려오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으름장까지 놓았다는 말을 듣고 웃음까지 흘렸다.

“초혜집이 어딘가요?”

“서대신동입니다”

“나중에 문현동에 있는 하숙집으로 돌아오려면 버스를 두 번 갈아타야 되겠군요.”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바래다 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운전기사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부산역을 통과하고 영주터널을 빠져나왔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개인 자가용까지 있는걸 보니 엄청난 부자인가보다 싶어 초혜집 가족 상황에 대해 물었다.

운전기사는 자신이 아는 범위까지 말해 줄 테니 일체 비밀을 지켜달라고 다짐을 받은 후 말했다.

초혜의 형제는 자매간뿐인데 여중생 동생 박서혜가 있고 그 외에 봉순이라는 식모가 있다고 말했다.

“한의원을 하면 돈 잘 번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렇게 잘되나요? 식모도 있다니…”

“부산에서 제일 유명한 한의원이지요. 물론 수입도 많고 그렇지만 수입은 오히려 초혜 어머니가 더 좋습니다.”

“예? 한의원보다 더 많이 돈 번다는 말이죠?”

초혜 어머니는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원양어선이 잡아온 고기를

통째로 몽땅 사서 부산은 물론 전국의 각 지방 도매상에게 파는 대상인이라고 했다.

그런 말을 주고받는 가운데 어느덧 도착했는지 한옥 집 앞에 차를 세웠고 담벼락 위에는 함석에 흰 페인트를 도색한 간판에 ‘박한의원’이라는 큰 간판이 세워져 있었다. 나는 차에서 내려 앞장선 운전기사 뒤를 엉거주춤 뒤따라 계단을 올랐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한약탕제 냄새가 집 전체에 가득했다. 집은 미음자 형태의 정방형 한옥이었다.

안방이 있는 위채, 진료실이라고 적힌 아래채, 나머지 양쪽 옆 건물 중 오른쪽은 약재 보관창고였고 왼쪽은 한약을 달이는 탕제실로 구성되어 있었다.

부엌에서 나온 식모와 운전기사는 알 듯 말 듯 한 시선으로 대화를 나누더니 식모는 나더러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여학생 신발이 가지런히 놓인 위채의 작은방을 가리켰다. 저 여성이 언젠가 초혜로부터 들었던 봉순이라는 식모임을 짐작했다.

등을 떠미는 기사에게 부모님에게 인사를 먼저 드리는 게 예의가 아니냐고 물었더니 초혜 아버지는 지금 환자 진료중이고 초혜 어머니는 오늘 학생이 올 것을 대비해서 자갈치시장에 가서 맛있는 생선을 직접 골라 온다고 했으며 자신이 모시러 가야한다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아가씨! 기사님이 전광휘 학생을 데려왔네요.”

식모 봉순이는 내 명찰을 힐끗 쳐다보며 문 밖에서 그렇게 말한 후 방문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나를 방안으로 떠밀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벽 쪽으로 돌아 누워있던 초혜가 몸을 바로

누이더니 간절하게 보고 싶었다는 표정으로 몸을 일으켜 세웠다.

나는 가까이 가서 손을 잡으며 많이 아프냐고 말하며 이마에 손을 얹었다. 초혜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힘껏 잡더니 와락 껴안았다.

“오빠! 너무 보고 싶었어요. 꼭 안아 주세요.”

우린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한참동안 안고 있었다. 쿵쿵 거리는 심장의 박동소리만 온방을 가득 메우고 있었을 뿐이었다.

“아가씨, 방에 들어가도 돼요? 인삼을 가져왔어요.”

방문 밖에서 봉순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하동에 놀러갔을 때 요리 준비를 했다던 그 식모가 바로 저 식모라는 생각도 했다.

나는 내 목을 감고 있던 초혜의 팔을 풀려고 했으나 초혜는 더욱 강하게 껴안으면서 식모 봉순이 더러 가져온 음식은 문 밖에 놔두고 가라고 말했다.

잠시 후 초혜는 몸을 끽끔거리며 문 쪽으로 기어갈 태세여서 내가 만류하며 일어섰다.

“밖에 무언가 놔두고 간 모양인데 내가 가져올게요.”

방문 앞에 놓인 작은 소반에는 인삼뿌리를 납작납작하게 썰어서 담은 쟁반과 꿀이 담긴 작은 종지가 올려 있었다.

나는 지리과목 수업 때 배웠던 금산 인삼의 사진을 떠올리면서 신기한 눈으로 인삼을 쳐다보았다. 인삼을 먹으면 무병장수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초혜 더러 환자이니 많이 먹으라고 말하자 손님으로 방문한 내게 차려진 다과와 같은 것이라며 포크로 인삼을 찌은 후 꿀을 약간 발라서 내 입에 넣어 주었다.

인삼을 다과처럼 먹는다면 보약을 후식으로 먹는다는 생각이 들

어 놀라워했다. 그래도 초혜가 아픈걸 보면 만병통치약은 아닌가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대문 밖에서 봉순이를 부르는 중년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초혜 어머니였다.

초혜 어머니는 운전기사와 함께 양손에 짐을 가득 들고 들어왔고 마루를 닦던 봉순이는 하던 일을 멈추고 뛰쳐나가 초혜 어머니가 들고 있던 짐을 받아 들고 부엌으로 종종걸음을 치며 들어갔다.

나는 초혜에게 어머니한테 인사를 드리려 나가야겠다며 말했더니 초혜는 팔을 당기며 부엌에서 음식을 차리고 어머니가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나올 때 인사를 드리라고 했다. 또 아버지한테는 진료를 마치고 위체에 올라와서 부르면 그때 나가서 인사드리면 된다고 말했다.

대청마루에서는 음식 차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초장에 식초를 조금 더 넣으라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그럴 즈음 아래채에서 ‘어흠’ 하는 굵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위체 쪽으로 다가오는 걸음소리가 들렸다. 걸음소리가 더 가깝게 들리는 동안 식모 봉순이는 부엌에서 뭔가를 빠트린 듯 들락거리는 소리도 요란해지면서 무릎걸음으로 방문 앞에 와서 말했다.

“아가씨, 아버지도 올라 오셨어요. 아픈데 밖으로 나올 수 있겠어요?”

나는 초혜에게 아프면 누워 있으라고 말한 후 문을 열고 나왔더니 초혜도 끄끙거리며 뒤따라 기어서 나왔다.

대청마루로 나온 나는 초혜 부모님께 목례를 올린 후 큰 원형의 음식상 앞에 앉아 있는 초혜 부모님께 넙죽 큰절을 올렸다.

“어르신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초혜 친구 전광휘입니다.”

“그냥 서서 인사만 해도 되는데 큰절까지. 허허허. 자네가 광휘 학생이구먼. 집에 와줘서 고맙고 반갑네. 어서 이쪽으로 와서 앉게.”

초혜 부모님들은 내가 큰절을 올리는 것을 보고 잠시 놀라는 표정을 짓더니 이내 미소를 머금으며 앞쪽에 앉으라고 말했다.

방석에 꿇어앉은 채 초혜 부모님의 말씀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런 말이 없자 어머니 곁에 앉은 초혜가 아버지를 보면서 민망한 듯 말을 꺼냈다.

“아버지, 한 말씀하세요.”

“응…, 나는 광휘 학생을 보면서 예전 생각이 떠올랐네.”

운을 떴 후 나더러 편한 자세로 앉으라고 말했다.

“또 그 얘기 떠올렸군요. 그만 두세요. 학생이 음식 많이 자시게. 배가 많이 고팠을 텐데…”

초혜 어머니는 나더러 얘기는 음식을 먹고 나서 듣기로 하고 얼른 많이 먹으라며 회 접시를 내 쪽으로 옮겨 주었다.

“오빠, 이거 맛있어요. 먹어 보세요.”

초혜가 전복 접시를 내 앞으로 당겨 놓으면서 말했다.

“애고, 우리 공주님이 광휘 학생이 오니 생기가 펄펄 나네. 허허허.”

초혜 아버지가 너털웃음을 지으며 초혜를 보면서 말했다.

나는 처음으로 먹어보는 여러 종류의 횡감을 한 가지씩 맛보는데도 밥 한 그릇을 후딱 비워 버렸다.

‘그렇구나. 이렇게 많은 종류의 회를 접하니 하동 가는 열차 속에서 바다고기 이름 말하기 게임 때 고기이름이 척척 절로 나왔구나.’

낙동강 인근에서 자란 내가 보아온 붕어, 잉어, 가물치, 메기, 준

치, 미꾸라지, 피라미 등 한정된 종류의 민물고기와는 달리 오늘 상에 차려진 고기는 종류만도 스무 가지가 넘게 보였다.

무궁무진한 바다의 세계. 그 속에서 노니는 바다고기가 한두 가지 종류일까 싶었다. 그 종류는 야생초와 나무 종류만큼 많을 것 같았다.

초혜 아버지는 간단하게 먼저 식사를 마친 후 커피를 마시면서 말했다.

“자네 성씨가 온전 전(全)씨인가, 밭전(田)씨인가?”

“온전 전입니다.”

“허허허. 온전 전씨라! 나는 자네의 성씨를 한자로 만나면 겁부터 덜컥 나더군.”

나는 의아해하며 “겁이 난다고요?” 하면서 여쭘다.

초혜 아버지는 이어서 말했다.

“보게나. 숲씨의 한자를 뜯어보면 ‘임금이 들어있다’는 뜻이 아닌가?”

그때서야 나는 한자를 떠올리면서 생각을 해보았더니 들입 변에 임금 왕이니 임금이 들어 있다는 뜻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사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야사 얘기를 하면서 고려시대 때 전 씨는 왕씨로서 왕족이었다가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하면서 고려의 성골계급인 왕 씨를 핍박하자 왕(王)씨가 전(全)씨, 옥(玉)씨, 주(主)씨 등으로 변했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리고 나의 할아버지는 이런 성씨와는 결혼을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곤 했었는데 초혜의 아버지가 말하자 그동안 들었던 성씨에 관한 온갖 얘기가 떠올랐다.

초혜 아버지는 이어서 “자네도 많이 놀라는군. 우리나라 성씨 중에 임금 왕이 들어가 있는 성이 전 씨, 주 씨, 옥 씨도 있지만 임금 왕자가 온전하게 획 속에 들어 있는 성씨는 전(全)씨가 유일하지. 그런데 우리 딸이 그렇게 보고 싶다고 하는 사람의 성씨가 전 씨라는 말을 듣고 내가 더 보고 싶었다네.”

초혜 아버지는 나와 초혜 그리고 초혜 어머니를 두루 살펴보며 말한 후 내게 다시 물었다.

“자네는 우리 밀양박씨에 대해 아는 게 있는가?”

“아는 것은 없지만 제 친구 중에서 밀양박씨가 몇 있는데 족보 책을 보니 그 분량이 엄청나서 성씨 탄생이 오래된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음. 우리 밀양박씨는 박혁거세 후손들이네 무엇보다 우리 성은 중국에서 유일하게 없는 순수 우리나라 성씨라 할 수 있네.”

“네..., 우리나라에만 박 씨가 있군요?”

“참! 내가 말을 잘못했네. 내가 알기로는 자네 성씨 전 씨와 우리 박 씨 두 개의 성씨만 중국에 없다고 들었네.”

“자네는 본관이 어디며 시조할아버지는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는가?”

“네, 저는 경산 전 씨이며 시조할아버지는 전字섭字 할아버지입니다. 전섭 할아버지는 원래 고구려 시조인 고주몽의 호위무사였지요. 그러다가 고주몽의 아들 온조에게 백제를 건국케 했는데 그때 고주몽이 하사한 성씨가 우리 성이 되었답니다. 시조할아버지는 온조를 따라 백제의 개국을 도우셔서 개국공신 여덟 명에 봉안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키자 조상들은 바

다 건너 일본으로 도망을 가기도하고 남은 조상들은 유민으로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전이갑 형제 장군은 왕건을 만나 고려개국을 앞두고 결의의 형제를 맺고 대구 팔공산 전투에서 후백제 견훤 장군과 전투를 벌이던 중 고립이 되자 왕건을 피신시키고 전이갑, 전의갑 형제장군은 장렬하게 전사했는데, 저는 전이갑 장군의 방계자손이며 그 전투 이후 전 씨가 ‘충의의 명가’라고 불리어졌습니다. 중시조는 감무공 할아버집니다. 저희 전 씨는 백제시대엔 진골계급으로 지배계층의 위치에서 벼슬을 많이 하였으나 백제가 멸망하고 신라가 지배하면서 벼슬의 길이 막혔다가 고려시대에 와서 상장군과 대장군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씨는 삼국중에 고구려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세사 인물로는 녹두장군 전봉준이 대표적이며 전 씨는 모두 한 자손입니다”

나는 사랑채에서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얘기를 주저리주저리 늘어놓았고 초혜 아버지는 고교생이 조상의 흔적을 막힘없이 말하는 점에 놀랍다며 감탄을 연발했다.

“어쩌면 그렇게도 많이 아는가! 어른들이 조상들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시켰군. 정말 놀라워! 우리 딸들은 조상에 대해 얼마나 알까?”

대견스럽다는 듯 머리를 끄덕이더니 초혜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적어도 뿌리 교육은 받아야지. 초혜 너도 문중이 반듯한 집에 놀러가서 어르신이 물으면 우리 성씨에 대해서 말할 줄 알아야한다. 알겠지?”

초혜와 초혜 어머니를 번갈아 보면서 말한 후 내 곁으로 다가와서 손을 내밀었다.

“자네 팔뚝 한번 보세.”

초혜 아버지는 내 손목을 잡고 눈을 지그시 감으며 진맥을 짚었다.

이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초혜 어머니와 초혜 그리고 봉순이는 눈웃음을 치며 웃고 있었다.

“저 양반 오늘 왜 저리지? 하하하.”

“건강하구먼! 피가 펄떡펄떡 뛰고 있어. 강골이야, 강골!”

초혜 아버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고 있을 때 한의원 보조일을 맡고 있는 중년남자가 마당에 서서 초혜 아버지에게 환자가 벌써부터 진료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보고했다.

초혜 아버지는 옷매무새를 추스르며 말했다.

“자네 앞으로 우리 집에 자주 오게. 자네하고 대화하면 재미있는 얘기가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네. 얘기를 풀어내는 입담도 구수하고 말이야. 허허허.”

초혜 아버지가 진료실로 내려간 후 괜한 말을 했나 싶었다. 나는 멧쩍어 하면서 이제 하숙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자리에 일어서자 초혜가 손목을 잡으며 말했다.

“오빠, 오늘만 조금 늦게 가면 안 되나요?”

초혜는 응석에 가까운 부탁을 했다.

나는 오래 있을 수는 없고 한 시간만 더 있다가 가겠다고 말했더니 초혜는 내 팔을 이끌고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갔다.

방에 들어선 초혜는 무슨 생각을 했던지 말했다.

“오빠, 앞으로 저한테 말씀 놓으세요. 그게 저가 편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나는 초혜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말을 놓는데 익숙하질 않아서 반말을 잘 못한다고 했더니 다른 사람에겐 몰라도 자기한테는 말을 놓고 편하게 대해달라고 했다. 나는 그렇게 하겠

다고 고개를 끄덕여주었다.

나는 초혜와 함께 있는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나는 물론 에트랑제 회원들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는 초혜집을 보면서 마치 꿈을 꾸는 듯 했고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초혜가 가까이 둘 수 없는 사람으로 느껴졌다.

“오빠, 무엇을 그렇게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스스럼없이 말 씀해 보세요. 속으로만 감추지 말고.”

나는 멋쩍게 웃으면서 조금 전에 먹다 남은 많은 양의 회를 생각 하며 껌연쩍어 하면서 말했다.

“음..., 다름이 아니고 초혜 부모님과 첫 대면이었고 조심스러워서 회 맛을 제대로 못 느꼈어. 그리고 회를 보니 자꾸 에트랑제 회원의 얼굴이 떠올라서 그래”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저랑 있으면서 에트랑제 회원이 생각 난다구요?”

“음, 그런 뜻이 아니고 사실 우리 하숙집 곁에 학생회장 박성근과 학예부장 김병헌이 살고 있거든. 그래서 많이 남은 음식을 친구들과 함께 먹고 싶어서...”

그때서야 초혜는 내가 하는 말의 뜻을 알아차리고는 까르르 크게 웃었다. 초혜의 웃음소리를 모처럼 들은 듯 대청마루에서 초혜 어머니도 덩달아 웃었다.

“초혜야! 무슨 일이 있기에 그렇게 웃니? 참 별일이네. 초혜가 웃다니. 호호호.”

초혜는 별일이 아니라고 말한 후 봉순이를 불렀다.

“봉순언니, 조금 전에 가지고 온 회 있지? 먹던 거 말고 깨끗한 걸

로 찬합에 좀 챙겨줘. 광휘오빠가 하숙집에 가서 공부하다가 배고프면 먹게.”

나는 봉순이가 축담을 오르내리면서 기사아저씨가 밖에서 출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초혜에게 앞으로 예비고사 칠 때까지는 만날 수 없으며 시험 치루고 크리스마스이브에 부산역 앞 소라 양과자점에서 오후 다섯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한 뒤 빨리 완쾌하기를 바란다고 말한 후 운전기사가 재촉할 때까지 다시 포옹했다.

마당에서는 찬합을 든 식모가 물끄러미 서서 내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서 있었다. 진료를 보고 있는 초혜 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리고 차를 타기 위해 계단을 내려오는데 초혜 어머니와 초혜가 대문 밖까지 나와서 배웅을 해주었다. 나를 태운 기사는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왔는데 거리의 차들은 전조등을 흰히 밝힌 채 빠르게 질주하고 있었다. 문현로터리에 있는 대성극장은 마지막 상영을 마친 듯 극장 안은 불이 꺼져 있었고 밖은 외등 몇 개만 켜져 있었다.

밤 열시가 넘어서인지 거리는 한산했다. 간혹 인근에 있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한두 명 지나가고 있었을 뿐이었다. 하숙집 근처에 왔을 때 운전기사가 봉투를 하나 건네주었다. 무어냐고 물었더니 초혜 아버지가 고교생들은 먹고 또 먹어도 자꾸 배가 고플 나이이므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먹으라고 돈을 주더라고 했다.

“고맙게 잘 쓰겠다고 전해 주세요.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하숙집 반경 이백미터거리 안에는 에트랑제 회원이 여러 명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학생회장 박성곤과 학예부장 김병현의 하숙집이 바로 내가 생활하는 하숙집 이웃에 있었다. 우암동 가는 고개

근처에 하숙하는 에트랑제 회원들은 부르지 말고 셋이서 나눠 먹어야겠다고 생각하고 학생회장의 하숙집으로 갔다.

“성곤아!”

내가 몇 번이고 학생회장을 불렀지만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었던지 대답이 없었고 온 동네 똥개들만 쾅쾅거리며 짖어 댔다.

불러도 대답이 없기에 작은 돌멩이로 유리창을 던지고서야 박성곤이 창문을 열었다.

“누구야?”

학생회장 박성곤은 가로등 아래에서 보자기를 들고 웃고 서 있는 나를 보더니 대뜸 말했다.

“너 시골에 다녀왔어?”

내가 고개를 저으면서 웃었다.

“그렇다면 어디 다녀오는데 이 시간에 우리 집에 왔어?”

먼저 대문부터 열어라 말한 후 조심조심 방안으로 들어가서 보자기를 내려놓았다.

“이게 뭔데?”

“보자기를 풀어보면 안다.”

찬합을 열어본 박성곤의 두 눈이 왕방울만큼 되어 나를 뵈히 쳐다보면서 말했다.

“이런 음식을 먹는다면 하동 갔을 때 음식 가져온 칠공주집 맞제? 오늘 학교에서 조금 늦게 내려 왔는데 누가 말하기를 어떤 새까만 양복 입은 남자가 너를 태우고 어데 갔는데, 중앙정보부 요원이 데려갔다는니 납치해갔다는 둥 그런 소문이 들리던데 이 음식을 보니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광휘야, 칠공주 중의 누구였제? 내 말이 맞

제?”

“하하하. 내가 무슨 운동권 학생도 아니고 재벌 아들도 아닌데 뭣하게 나를 납치 하겠어. 자식들 엉뚱하기는, 그런데 학예부장도 아직 안자겠지? 좀 불러서 함께 먹었으면 좋을 텐데…”

“잠시 있어봐. 옆방에 후배를 시켜서 데려오도록 할게”

박성곤이 방을 나가고 대문을 나가는 후배의 슬리퍼 소리가 나더니 마치 ‘총알 탄 사나이’ 처럼 학예부장 김병헌이 조르르 달려왔다.

맨발로 방문을 들어서던 학예부장 김병헌이 마치 슬레이트 지붕이 날라갈듯 큰소리로 말했다.

“우와! 인마! 이기 어떻게 된 기고? 아닌 밤중에 웬 잔치고? 하고 할 때 어떤 양복 입은 차림의 총각이 너를 태우고 가는 모습을 보았다 하던데 그 사람이 도대체 누고? 그 사람 집에 간 거 맞제? 네 일가 중에도 아주 큰 부자가 있나보네?”

김병헌도 박성곤이와 같은 말을 하면서 엄청나게 궁금했던지 자꾸 다잡아 물었다. 나는 학생회장과 시선을 마주하며 피식 웃었다. 학예부장 김병헌의 너스레를 듣고만 있던 학생회장 박성곤이 쏘아붙이듯 말했다.

“그게 뭐 중요해? 무엇보다 친구 따라 강남가고 친구 잘 두어서 우리도 잔치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냥 시식이나 하자. 하하하.”

옆에 앉은 후배는 조금 전에 학예부장 김병헌이 하던 말이 궁금했던지 장난기어린 표정을 지으면서 얼굴을 들이 대며 나의 두 눈을 쳐다보며 물었다.

“선배님, 저도 많이 궁금합니다. 헤헤헤.”

나는 후배의 이마에 꿀밤을 한 대 먹이면서 면박을 주었다.

“인마! 뭐가 궁금해! 쓸데없는 머리 굴리지 말고 먹기나 해라. 자식이. 하하하.”

꿀밤을 맞던 후배가 무슨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는 듯 무릎을 치며 말했다.

“아차! 이제야 생각이 납니다.”

“이놈이 실성을 했다.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는데?”

후배는 내 옆으로 바짝 다가왔더니 말했다.

“전 선배님! 미영이라는 여학생 아십니까?”

나는 갑자기 미영이 말을 끄집어내는 후배의 말에 놀라서 후배를 다그쳤다.

“미영이? 그 여학생을 네가 어떻게 아는데?”

내 말이 떨어지자 함께 음식을 먹던 친구들도 미영이를 모두 알고 있는지라 젓가락을 입에 물고 후배를 관심 깊게 바라보며 다음 얘기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후배는 자기 친구가 미영이 집에서 하숙을 한다고 서두를 꺼낸 후 “그 미영이라는 여학생 때문에” 하고는 말을 끊어버렸다.

나는 아무 대꾸 없이 듣고 있었지만 학예부장 김병헌은 다음 얘기에 궁금증이 발동한 듯 다그쳤다.

“그래서 네 친구하고 어떻게 되었다는 거야 뭐야 말해봐?”

“.....”

후배가 말이 없자 김병헌은 다잡듯이 말했다.

“인마! 머슴아가 말을 꺼냈으면 끝까지 얘기를 해야지 똑 끊어 버려? 더구나 선배들 앞에서 버릇없이.”

“그라픈 말씀드릴끼예. 사실은 우리 친구하고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집에 하숙하면서 미영이가 같은 동급 학년인데다 또 부산시내 고교백일장에 함께 참가해서 미영이가 시 부문에 입상을 했대요. 시가 너무 좋고 얼굴도 예쁘게 생겨서 미영이에게 프리포즈를 했는데 도무지 씨알이 안 먹혀서 하숙집 학생들을 대상으로 탐문을 해보니 전 선배님 말을 하더라고 했고 소문에 전 선배님이 차버렸다 하더군요. 그 소문이 사실입니까? 헤헤헤.”

후배의 말을 듣고 있던 나는 어이가 없어서 숨을 크게 내쉬며 말했다.

“야 이놈아! 그래서 유언비어가 무서운 거야. 내가 차기는 왜 차. 나는 축구선수도 아니고 럭비선수도 아냐. 내일 네 친구 만나거든 똑바로 얘기해줘라. 전 선배는 고3학년이고 해서 연애할 시간이 없어서 눈길을 주지 않았던 거지 결코 찬 게 아니라고 말이야. 알았제?!”

나는 재차 후배에게 다짐을 주었다.

“그 놈들이 생사람을 잡고 있네.”

“선배님, 소문이 거짓이었군요. 잘 알겠습니다. 헤헤.”

우리들은 어이없어하며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웃었다.

회와 튀김, 절편 등 한보따리를 가져갔으나 세 사람은 간단없이 먹어 치웠고 금세 빈 그릇만 남았다.

나는 하숙집으로 돌아오면서 미영이집을 떠나올 때를 생각했다.

하동에 다녀온 후로 세계문학전집이며 한국단편문학전집, 바이런과 푸시킨 시집을 열심히 읽던 미영이 얼굴이 떠오르면서 그 열매가 탄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4. 공상법

대학 진학을 하지 못하면 정말 인생이 막장일까?

담임선생님은 아침 조례를 하면서 느닷없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에..., 앞으로 말이야. 제군들이 공상법의 길로 진학을 해야 미래가 있단 말이야.”

담임선생님이 아주 진중하게 서두를 끄집어냈지만 도대체 무슨 똥판지같은 말씀인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공상법? 대입 예비고사를 목전에 두고 무슨 사이버종교 같은 느낌을 주는 공상법이란 말인가. 무엇을 어떻게 공상을 하란 말인가. 평소 담임선생님은 은유법을 즐겨 사용했다. 오늘 조례에서도 무언가 시사를 하고 싶은 의도일거라며 다음 얘기가 무엇일까 급우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머리를 갸우뚱거리고 있었는데, 마침내 본론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말이야. 공대·상대·법대를 가야 미래가 보장된다는 뜻이야. 우리 반에 공상법에 갈 학생이 몇 명이나 될까하고 요즘 매일 공상을 한단 말이야. 고3 담임들끼리도 공상법의 체면에 모두 걸려있는데 우리 반에는 많아야 다섯 명 정도 될까?”

담임선생님은 그 정도에서 여운을 남기고 말끝을 흘렸다. 급우들은 궁금해서 조심스레 질문했다.

“선생님, 공상법에 해당하는 학생이 누구인가요? 말씀해주세요?”

“그건 지금 말해줄 수 없어.”

담임선생님이 꼬리를 감추자 급우들은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누구인지 알고 싶어 했다. 그러나 담임선생님은 끝까지 말을 흐리고 말았다.

입시가 내일 모레로 다가오자 학생들의 부류도 세 가지로 나뉘어졌는데, 본고사까지 준비하는 투사스타일과 ‘될 대로 돼라. 꼭 대학을 가야하나’ 하는 ‘케 세라 세라’식 자포자기 스타일의 양 진영으로 나뉘어졌다. 나머지 부류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되 안 되면 전문학교라도 가서 편입을 하겠다는 부류였다.

그러다보니 공부하는 투사 스타일은 교탁 앞쪽으로 모였고, ‘케 세라 세라’ 자포자기 스타일은 교실 뒤쪽으로 몰려 ‘꿀단지’나 ‘플레이보이’ 같은 퇴폐잡지 속에 나오는 야한 얘기를 나누던지 혹은 사진들을 오려서 안 호주머니에 넣어 다니면서 희희낙락거렸다. 또 그 틈새를 노린 어떤 급우는 광복동 국제시장이나 서면 대아호텔

뒤쪽 구제품 골목에서 야한 책을 가져와 곱절 장사를 하기도 했는데 그런 책을 가져온 급우를 에워싸고 교실 뒤쪽에서는 음담패설을 하는 소리가 종종 들렸다.

“이야! 미국가시나 젓통 한번 엄청 크네. 어이쿠! 요년의 가시나 꿀통 한번 봐라. 팍팍 쑤셔 넣고 싶네. 킬킬킬.”

이런 소리가 교실 뒤쪽에서 들리면 모두들 우르르 몰려갔고 어떤 급우는 섹스 체위 동작을 취해서 웃음바다가 되기도 했다.

또 어떤 급우들은 꼴단지나 도색잡지의 야한 사진을 보거나 진한 서화를 보고는 더 이상 못 참겠다며 화장실에 가서 자위행위를 하기도 했고 그런 사실을 자랑하듯 떠벌리고 다니기도 했다.

사실 고교생들에게 자위행위는 예사로운 행동으로 여겨졌다. 일례로 생물시간에 정자에 관한 실험 수업이 과학실에서 열릴 때 ‘누가 자기 정자 구경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정액을 가져와라.’ 하고 생물선생님이 운을 떼지만 학생들 중에 누구도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자 나중에는 은근히 겁을 주기도 했다.

“에…, 요즘 고교생들이 말이야. 완월동이나 부전역 근처 300번지 같은 통치골목에 많이 드나든다는 교외지도 선생님의 얘기가 들리던데, 그곳의 창녀들은 대부분 매독이나 임질 혹은 요도염 같은 성병 보균자들이다. 그런 창녀들과 섹스를 한 사람들은 거의 다 성병에 걸렸다고 보아야 된다. 성병은 약물치료를 해도 백퍼센트 완치가 되질 않고 잠복해 있어서, 결혼해서 마누라한테도 전염시키고 자식에게도 유전을 시키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 것은 자기가 미리 알고 처리해야 되겠지? 그리고 올해 미국에서 개발한 약품이 특효약이라 주사 한방이면 성병을 깨끗하게 씻은 듯이 다 낫게 하지. 미

국에 있는 친구가 내게 특별히 보내온 것을 집에 보관하고 있어.”

이쯤 말을 하면 창녀촌에 한번이라도 가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너도나도 화장실에 달려가서 자위행위를 한 후 정액을 손바닥에 담아 왔다. 그런 후에 서로 먼저 자신의 정자를 확인하느라 현미경에 가져갔고 그런 과정에서 서로 몸이 부딪혀 손바닥에서 쏟아지기도 했다. 창녀촌을 기웃거렸던 학생들은 자신의 정자상태를 관찰하느라 현미경 앞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또 화장실에서 정액을 손바닥에 한 움큼을 가져오다가 복도에서 다른 학생과 부딪혀 쏟아버리는 일도 허다해서 과학실은 물론 복도에도 느끼한 냄새가 진동했다.

그런 현상을 반영이라도 하듯 화장실 벽에는 새로운 낙서가 등장해서 마치 암기과목처럼 외우고 다녔다.

“죽어가는 내 새끼야! 아버지 잘못 만난 탓이로다. 부디 용서해라. 킬킬킬.”

선생님은 특효약이 발견되었다고 했으나 약국에서는 땡이라고 했다. 학생들 중 성병 보균자들은 병원에 가서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어도 보호자를 데리고 가야 하니 그럴 수도 없는 현실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물선생님의 특효약에 귀를 쫓긋 세웠다.

생물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정액을 가져오라 한 후 멸정한 정액도 그런 증세가 있다는 등, 정자 색깔이 이상하다는 등, 정자가 병든 것 같다는 등, 그런 관계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장애아를 낳는 다며 한시라도 빨리 약을 먹어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겁주듯이 말했고 해당학생은 얼굴이 파래졌다. 그런 표정을 짓는 학생은 대부분 불량학생이고 반에서 깡패처럼 행동을 하는 학생들인데도 생

물선생님 앞에서는 아주 순한 양으로 변했고 선생님은 불량학생에게 그런 방법으로 기를 꺾어서 말을 잘 듣게 만드는데 활용했다.

“선생님! 그 특효약 제게 좀 파세요.”

아무리 품행이 거친 학생이라도 생물선생님 앞에서는 코맹맹이 소리를 내며 애교를 부렸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교실 뒤쪽에서는 아직도 생물선생님이 특효약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어떻게 하면 잘 보일 수 있을까를 연구하느라 불량학생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생물선생님은 마치 경찰서 강력계 형사가 조폭들의 동태는 물론 폭력전과자를 꿰뚫어 보고 있듯이 불량학생들의 성병 종류를 꿰뚫고 있는 듯이 보여 한없이 두려운 존재로 자리매김 되어졌다.

그런 불량학생 중에서 국제시장이나 서면 뒷골목에서 음란잡지를 구입한 후 판매해서 째깍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던 급우는 공부와는 전혀 다른 판 세상에서 살고 있었는데 극장 주변의 양아치들이 하는 짓거리를 많이 했다. 상대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치켜세우고 폼을 내면서 공갈치는 폼은 영락없이 양아치였는데 그 퐁퐁은 우연찮게 예비고사 시험장에서 진수가 발휘되어 부산시내 예비고사 성적의 대이변을 연출하고 말았다.

수험장에 갈 때 교복을 입고 가므로 옆에 앉은 학생이 어느 학교 학생인지를 쉽게 알 수 있었는데 마침 그 양아치 급우 옆에는 부산의 명문고 학생이 앉았다. 그 명문고는 해마다 서울대학교에 백오십 명씩 진학시키는 학교였다. 명문고에 돋보기안경을 끼고 있는 학생은 심중팔구 공부벌레라고 보면 무난했는데 그 학생도 그랬다.

나와 한 교실에 배치된 양아치 급우는 그런 학생의 옆에 앉은 것

이다. 양아치 급우는 명문고생임을 포착한 후 그 학생이 화장실에 갈 때 뒤따라갔다.

시험지는 A형, B형으로 구분되어 자기 옆 사람은 자기와 다른 유형의 시험지가 주어지고 대각선은 같은 시험지였다. 양아치급우는 화장실에서 대각선에 앉은 명문고생에게 양아치 폼을 내면서 험하게 인상을 써가며 공갈을 쳤다.

“너, 문제 빨리 풀고 내 앞쪽으로 답안지를 내밀어라. 안 내밀면 시험 마치고 나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릴지 모른다. 내가 하는 말 무슨 뜻인 줄 알겠지?!”

나는 시험을 치면서 두 사람의 행동을 가끔씩 보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겁을 잔뜩 먹은 명문고생은 답안지를 작성해서 옆으로 내밀어 주었다.

예비고사 발표가 있던 날 우리학교는 불량학생들을 중심으로 킬 킬거리며 축하의 박수소리가 났었고 반면 선생님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양아치 급우 때문이었는데 예비고사 성적이 부산에서 3위라고 부산시교육위원회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이다.

“교장선생님! K고교에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전국 교육위원회별로 서울대학교에 몇 명을 합격시켰느냐, 그중에서 서울법대에 몇 명 합격시켰느냐에 따라 우수 교육위원회로 등수가 정해집니다. 우리 부산시교육위원회를 빛내기 위해서라도, 아니 귀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서울법대에 원서를 당연히 응시해서 합격자를 내야겠지요?”

전화를 받은 교장선생님은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우리 학교에

그 정도로 공부를 잘하는 무명의 학생이 있었다란 말인가 하면서 우리 담임선생님을 불렀는데, 문제의 학생에 대해 설명을 전해들은 교장선생님은 큰 실망과 함께 크게 허탈해 했다. 전체 교직원들도 허탈해 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담임선생님도 얼마나 기가 차고 난감했는지 교실에 들어와서 힘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예비고사라도 붙어야 미달되는 학과라도 진학할 수 있다고 명문고생이 옆자리에 앉으면 커닝을 잘 해보라고 했지, 명문고 학생 답안지를 꼭 같이 그대로 베끼라고 했나! 커닝을 너무 잘해서 이렇게 골치 아프게 만들어! 공부 못하는 게 눈만 좋아가지고 시리! 그 좋은 눈깔로 공부 좀 하지. 아이고, 머리아!”

그렇다고 학교 측에서 부산시교육위원회에 3등한 학생이 커닝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일단은 서울법대에 응시 원서를 낸 후 교통사고가 나서 시험에 응시를 못했다고 교육위원회에 통보했다. 시험 당일 날 양아치 급우는 광복동 극장가에서 평소처럼 음란잡지를 들고 영화를 보러오는 남자 곁으로 다가가서 속삭이듯 말하고 있었다.

“죽여주는 그림 책 있는데 한 권 사 보이소. 헤헤헤.”

명문고를 빼고는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예비고사에 낙방했는데, 담임선생님은 양아치 학생이 우여곡절 끝에 예비고사에 합격했으니 미달학과에라도 응시를 시키려고 양아치 제자를 찾아서 광복동 극장가를 샅샅이 뒤졌다. 담임선생님의 권고로 양아치 급우는 부산 A대학교에 원서를 제출한 후 입학전형 창구마다 껌을 한 통씩 돌리고 미달이라는 정보를 얻기 위해 꼬박 며칠을 아침부터 창구

접수가 끝날 때까지 동분서주했다. 마침내 미달학과에 입학을 했었고 급우들은 ‘눈치작전의 원조’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다.

나는 크리스마スイ브를 맞아 박초혜와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있는 부산역 앞 소라양과자점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탔다. 크리스마スイ브날은 일 년 중에 통행금지가 해제된 유일한 날이어서 거리로 나온 부산시민들은 물론이고 학생들도 크게 들떠 있었다. 나는 보름 전에 박초혜와 미리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른 약속을 모두 거절한 상태였다.

또 에트랑제 회원들과 칠공주들은 오늘 저녁에 만나자는 약속이 되어 있는 날이었고 밤샘을 하자는 계획까지 세워둔 상태였다. 그 약속은 학예부장 김병현과 칠공주의 김봉자가 서로 연락이 되어서 해운대 동백섬 근처에 살고 있는 학예부장 김병현의 누나 집에서 파티를 열게 일정이 잡혀 있었다.

나는 보름 전 초혜집에 다녀오던 날 학생회장 박성곤과 학예부장 김병현에게 이브날 저녁은 박초혜와 따로 만나기로 되어 있으니 나와 박초혜는 빼고 파티를 열 것을 미리 말해 두었다.

또한 박초혜도 칠공주들에게 다른 중요한 가족 모임이 있어서 못 나온다고 미리 말을 해뒀다. 물론 나와 만나는 것은 일체 비밀로 부쳐놓은 상태였다.

나와 초혜가 빠져도 남녀 여섯 명씩의 만남이니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도록 바라는 마음이었다. 더 이상 미안하게 생각하거나 부담감 같은 것은 없이 부산역 앞 소라양과자점을 향했다.

해마다 이브날이 그러했듯이 올해도 그랬다. 3부두 방향에서 불

어오는 찬바람은 범바람처럼 매서우면서 호랑이 울음소리까지 났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겨울 날씨답지 않은 포근한 날씨였는데 연인들의 만남을 마치 시기라도 하듯 거리는 곳곳에 빙판을 만들어 놓았고 찬바람은 골목마다 밀물처럼 쏟아내면서 뺨을 때렸다.

소라양과자점 문을 열자 초혜는 벌써 의자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구석자리에 자리를 잡은 초혜는 차명한 털외투와 보라색 털모자를 쓰고 롱부츠까지 갖춘 멋진 모습으로 손을 흔들었다. 나는 한 달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성숙하고 세련된 모습의 초혜를 보고 놀라워했다. 초혜가 내게로 다가오더니 퐁퐁 언 내 두 손을 털장갑을 낀 손으로 꼭 잡으면서 말했다.

“오빠, 바깥 날씨가 많이 춥죠?”

“아니, 조금….”

“오빠의 코가 빨개졌는데요. 그럴 줄 알았어요. 입고 있는 목티가 얇아서 상당히 춥겠어요.”

박초혜는 그렇게 말한 후 옆 의자에 놓아둔 쇼핑 가방을 탁자 위에 올려놓더니 옷가지를 끄집어냈다. 그것은 은색 털실로 만든 윗도리, 밤 모자, 목도리, 양말, 장갑 등이었다. 내가 탁자 위에 놓인 것들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데 초혜가 털 윗도리를 들고 내 곁으로 다가와서 가슴 넓이에 맞춰 보면서 말했다.

“광휘오빠가 우리 집에 왔다간 후 가슴 넓이를 상상으로 떠올려서 만들었는데 맞을지 모르겠어요.”

초혜는 내 어깨 넓이에 윗도리를 가져간 후 폭을 맞춰 보면서 어린애처럼 좋아라했다.

“오빠 몸에 꼭 맞네요!”

오늘 가져온 여러 종류의 뜨개질한 물건은 내가 초혜집에 갔던 그날 밤부터 틈만 나면 코바늘로 손수 땀다고 했다.

“서빙아가씨, 좀 봐요. 우리 맛있는 양과자 여러 종류로 좀 골라 주시구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장소 없을까요?”

서빙 하던 아가씨는 나를 내실 쪽으로 안내해 주었고 초혜가 뜨개질로 만든 털옷을 갈아입어보니 맞춤형같이 꼭 맞았다. 나는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춰본 후 홀 안으로 나왔다. 초혜는 은색 털모자와 은색 윗도리로 갈아입은 나를 보더니 꼭 비둘기 같다고 생긋이 웃었다. 우리는 손을 잡고 소라양과점을 빠져 나왔다.

거리에는 캐럴송과 러브스토리 주제곡 ‘Snow frolic’ 음악이 경쾌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우리들은 마냥 좋아하며 부산진역 방향으로 걷고 있었다.

“초혜야! 조왕재라는 고교선배가 김해에 살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날 나더러 애인이 있으면 함께 오라고 하던데, 갈래?”

내 말을 듣고 있던 초혜는 잠시 쑥스런 표정을 짓더니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우리는 버스를 타지 말고 얘기 하면서 걷다가 힘들면 버스를 타기로 하고, 손을 꼭 잡고 교통부 쪽으로 걸었다.

신암을 지날 때쯤 하늘에서는 쌍라군이 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하늘에서도 우리를 축복해 주듯이 하얀 솜 같은 눈송이를 뿌려주고 있었다.

초혜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킁킁거렸다. 나는 의아해서 무엇 때문에 혼자서 웃느냐고 말했다.

“저번에 오빠가 우리 집에 와서 집으로 돌아갈 때 친구들과 함께

먹고 싶다며 음식을 싸달라고 했을 때 참 신기했어요. 더구나 학생이 그런 생각을 가진 점에 우리 어머니도 의외라며 많이 웃었어요. 호호호.”

나는 잔칫날과 초겨울쯤 지내는 시사 때에, 잔치음식이나 혹은 제물로 올린 음식을 종류별로 봉지에 담아서 참석한 사람이나 참석하지 못한 연세 많은 노인이 계신 분한테 그날 준비한 음식을 알려주기 위해 보내는 음식봉지에 대해 말해주었더니 초혜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신기해하며 캐물었다.

“잔칫날의 음식은 이해가 되지만 시사는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되네요. 제사를 명절도 아닌, 그것도 집에서 모시질 않고 산에서 지내다니? 그것도 초겨울쯤에 지낸다는 말인가요? 우리 집은 그런 제사 없는데요?”

초혜는 의아해 하며 말끝을 흐렸다.

나 또한 초혜집 같은 그런 집도 있구나 싶어서 궁금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렇다면 5대조 이상의 할아버지 산소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군요?”

“나는 그런 거 잘 몰라요. 교회를 다녀서.”

“뭐, 교회? 그럼 초혜집은 크리스천이라는 말인가?”

초혜는 그렇다고 대답한 후 어머니는 신앙심이 강해서 교회 권사 직분을 얻었고 교회 일을 열심히 보고 있으며 자신은 어머니 정도의 신앙심은 없고 어찌다 교회에 한 번씩 간다고 했다.

“권사의 직책? 그런 직책도 있는가보네?”

“성도들 중에서 신앙심이 신실하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집사들 중에서 성도들이 추천을 하고 선거를 통해 직책이 주어지지요.”

내가 의외로 많이 놀라는 표정을 짓자 박초혜가 반문했다.

“오빠는 크리스천이 아닌가요?”

“나는 크리스천이 아냐. 그렇다고 불자라고 말하기도 그래. 조부 모님은 고향 인근에 있는 사찰을 지을 때 많은 시주를 하셨어. 매달 초하루가 되면 할머니와 어머니는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가진 후 부처님께 불공을 드리고 있어. 가끔씩 할아버지도 따라 가지지만 아버지는 사찰에 가시는 것을 한 번도 보질 못했어.”

“아버지는 왜 안가시나요?”

“아버지는 중·고교 때 기독교재단의 학교를 다니셨는데 기독교에 매료되긴 했지만 할아버지에게 엄청나게 꾸중을 들은 후 더 이상 성경책을 읽지 않았다고 하셨어.”

“왜 할아버지가 꾸중을 하셨나요?”

“내가 잘은 모르지만 크리스천들은 하나님만을 유일한 창조주로 무조건 믿고 의지하므로 조상에 대한 숭배는 하지 말라고 하는가 봐. 우리 할아버지가 아버지보고 교회를 못 다니게 한 것도 조상을 모르면 상놈이라는 뜻인데, 교회에서 제사까지 지내지 말라고 하니 그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고 여기셨던 것 같았어. 아버지는 그 후로 교회를 다니시진 않았지만 목사들 설교를 들어보면 성경책에는 좋은 말도 참 많더라고 하셨어. 나는 교회를 다녀보질 않아 잘 모르겠지만…”

“오빠는 교회에 한 번도 가보질 않았단 말인가요?”

“아니, 일 년에 두서너 번 교회에 가본 적은 있어.”

초혜는 내가 크리스천도 아니면서 교회에 두세 번 갔다고 말하자 의외란 듯 내 얼굴을 뺨히 쳐다본 후 팔짱을 꼭 껴다.

“오빠가 교회를 가보았던 말이죠?”

“응, 초등학교 다닐 때 크리스마스가 있는 12월에 어쩌다 교회 다니는 친구 따라 교회에 가면 빵이나 과자, 과일을 줘서 그것 얻어먹는 재미로 갔었지. 고교 때는 학교에 나오지 않는 급우를 찾아 집에 갔더니 그 친구는 성당에 다니는 가톨릭 신자였어. 그리고 부흥회 한다고 하기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가보았는데, 광적인 목소리로 찬송가를 부르는 사람들과 큰소리로 우는 사람들도 있어서 너무 신기했었어.”

이런 종교적인 이야기를 주고 받다보니 벌써 네 시간 가량을 함께 걸어서 국도를 벗어나는 길목까지 왔다. 조 선배의 집은 은하사 아래쪽의 어방동에 있으므로 이제부터는 비포장 길이 나왔다.

은하사가 있는 신어산은 계곡이 꽤 깊은 터라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은 마치 범람한 물이 하구로 내려오듯이 밀려와서 칼바람을 만들어 냈다. 그런 가운데에도 계곡의 중앙부위에는 물소리가 졸졸졸 소리를 내고 있었다. 얇은 도랑에는 고드름과 그 위로는 조금씩 내린 백설이 소복하게 쌓여 초선대로 이어지는 계곡을 하얗게 덮고 있었다.

띄엄띄엄 들녘에 세워진 비닐하우스는 무거워진 눈을 힘겹게 버텨내고 있었다.

“조 선배님! 광휘 왔어요.”

사립문 앞에서 큰소리로 외쳤더니 내 목소리를 알아들은 조 선배가 문을 외락 열었다.

“이야! 진짜 네가 왔네. 농담처럼 오라고 말을 했지만 약속은 틀림없이 지키는 너라 오겠지 하는 예상은 했다. 어디 시간 한번 보자. 열한 시가 넘었네. 저 아가씨가 네 애인이니?”

초혜를 가리키며 말하자 초혜는 민망한 듯 사립문 뒤로 몸을 숨겼다.

“초혜야, 들어와서 우리 학교 선배님께 인사드려라. 부산에서 하숙을 함께한 적도 있어.”

조 선배가 문을 열어 놓고 춤다며 어서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자 초혜도 사립문 안으로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박초혜입니다. 광휘오빠한테 오면서 말씀 들었어요.”

“조 선배님, 여학생 데리고 왔다고 어르신들이 뭐라 말씀하지 않을까요?”

나는 염려 섞인 말을 하며 조 선배의 눈치를 살폈다.

“야! 내가 누구냐! 왕년에 K고교 수석학생 아니냐! 나한테 찾아오는 사람들도 모두 공부벌레로 여기니 신경 쓰지 마. 알겠지?”

조 선배는 턱살을 떨며 말했다.

사실 그랬다. 조 선배는 고교 재학시절 삼년간 전체 수석 학생이었다. 학교에서는 S대 법대를 확실하게 진학할 수 있는 유일한 학생으로 믿고 있었다. 학교에서 얼마나 조 선배에게 공을 들였나하면, 3학년에 승급할 때 학교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학교는 다니질 않고 서울 대성학원에서 공부를 시켰을 정도였으니 가히 짐작이 되고도 남았다.

그러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서울 J대학교 전체수석으로 합격

해서 대학 4년간 회비무료에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조 선배님,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려야겠지요?”

나는 아직도 방에 들어가지 않고 마루 앞에 서서 말했다.

“이놈아! 지금 시간이 몇 시고? 연세가 많으신 분은 초저녁잠이 많고 새벽잠이 없지. 지금 한참 잠이 깊이 들어 있을 시간이야. 그러니 방으로 얼른 들어가자.”

방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배지를 단 여대생이 벽 쪽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조 선배는 그 여성과 우리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세 사람, 서로서로 인사 하세요. 광휘야! 이 누나는 내가 서울 가서 난생 처음으로 여자를 하나 낚았지. 경상도 촌놈이 서울 아가씨 하나 낚는다는 것이 그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더라. 참말로 장난이 아니네. 차라리 영어사전 한 권 외우는 게 쉽지. 하하하.”

조 선배는 킬킬거리며 웃더니 여대생에게 나에게 대한 소개를 했다.

“보소! 내가 제일 아끼는 후배요. 서울에서 내가 얘기 많이 하지요? 절에서 함께 공부도 했고.”

“반갑습니다. 서울에서 말씀 많이 들었어요.”

여대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울 말씨로 인사를 하면서 상냥하게 웃었다.

조 선배는 다시 나와 초혜를 번갈아 보면서 말했다.

“광휘야! 너는 저 여학생 어떻게 알았어? 야! 보기 드문 세련된 미인인데! 부산에도 저런 아가씨가 있었나보네. 앞으로 잘 교재해서 결혼까지 골인해라. 하하하.”

나와 조 선배는 그동안의 근황을 서로 나누고 있는데 조 선배 누

나가 한 시간 전에 삶아 놓은 닭고기를 다시 데워 왔다면서 상을 들고 문을 두드렸다.

“누님,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오늘같이 추운 밤에 우리들 땀에 잠도 못 주무시고 바깥 솔에 닭 삼는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같이 얘기도 하면서 함께 먹읍시다.”

나는 미안한 마음에 함께 자리를 하고 싶어서 말했다.

“니 왔구나. 동생이 온다고 하기에 닭을 준비했어. 너희들 눈치 등쌀에 닭고기가 내 모가지에 넘어 가겠나. 너희들이나 많이 먹고 재미있는 시간 보내라. 나는 너희들이 한정 없이 부럽다. 내 나이스 물일곱살 동안 애인 하나 없고 크리스마스가 돼도 찾는 사람도 없는 내 꼴이 서글프다! 나는 그만 자리 가련다.”

“누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가 책임지고 매형 될 만한 사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헤헤.”

조 선배 누나가 위채로 올라가는 소리가 들릴 즈음 조 선배는 책상 뒤쪽에 감춰둔 대병소주를 끄집어냈다. 소주병을 쳐다보고 있던 조 선배 애인은 대병소주를 처음 보는 듯 머리를 갸우뚱하면서 조심스레 물었다.

“그게 뭐예요?”

“보면 모르겠소? 술이요. 하하하.”

“뭘 저런 술도 있어요?”

“우리 촌놈들은 이런 술을 마셔야 술도 취하고 호주머니 사정도 도 도움이 되거든요.”

조 선배는 그라스에 소주를 절반씩 부었다. 그런 후 모두 잔을 들게 했다.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이브이고 내 사랑하는 후배도 왔고, 또 서울과 부산에서 예쁜 아가씨들도 왔으니 이 밤이 사라질 때까지 잊지 못하는 밤이 될 것은 물론 두 커플이 오랫동안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 것을 약속합니다. 건배!”

잔을 힘차게 부딪치며 건배를 외쳤다. 그때 조 선배 애인은 소주를 목구멍에 삼키면서 조 선배를 보면서 피식 웃었다.

조 선배가 “왜 웃어요?” 하고 묻자 조 선배 애인은 갑자기 웃음을 참지 못하겠다는 듯 입을 틀어막으며 말했다.

“참 이상해요. 서울에서는 표준말을 사용하더니 추풍령 고개를 넘고부터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하는 게 너무 우스워서 참느라고 애를 먹었는데, 후배를 만나니 더 많은 사투리를 써서 이제 말뚝조차 이해를 못하겠어요. 호호호.”

“아하! 그랬나요? 사실 내가 서울에 살면서 서울 말씨 사용한다고 용을 너무 많이 쓰다가 입이 비뚤어져 버렸소. 내 입 한번 들여다보소, 맞지요? 하하하.”

선배가 윗입술을 오른쪽으로 옮기면서 코맹맹이 소리를 하자 닭고기를 먹고 있던 우리들은 조 선배의 표정을 보고 웃음을 참지 못하고 그만 닭고기가 입 밖으로 튀어나오고 말았다. 나는 걸레로 방을 닦고 손수건으로 입을 닦으면서 말했다.

“그런데 조 선배님. 저 누나가 달고 있는 배지가 어느 학교인가요?”

“음..., E여대 배지다.”

“와! 말로만 들었던 그 유명한 배꽃여대 말입니까!?”

내가 놀란 눈으로 말하자 경상도 억센 발음이 우습다며 선배 애

인은 깔깔거리고 웃었다.

“와? 이놈아! 나는 E여대생하고 연애하면 안 된다 하더냐?”

사실 나는 방문을 열면서 크게 놀랬었다. 공부밖에 몰랐던 조 선배가 여자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조 선배와 나는 미영이집에서 석 달간 하숙을 한 방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나는 조 선배가 잠자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나는 밤 한시 정도 되면 공부를 멈추고 잠자리에 들었던 반면 선배는 그 이후에 잠자리에 들었고, 아침 여섯시에 깨어나면 조 선배는 벌써 일어나서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부 귀신 같이 보였다.

그리고 동아출판사에서 발행한 영어에센스 사전 한 권을 다 외웠을 정도였다. 가끔 나보고 사전에 있는 단어를 말해보라고 해서 단어를 말하면 틀림없이 알아 맞혔다. 내가 선배를 골탕 먹이기 위해 이상한 고유명사를 끄집어내면 “광휘가 선배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것은 ‘꼬맹’이다.” 하면서 웃었다. 꼬맹이란? 고유명사의 약자로서 ‘고명’을 경상도 발음으로 ‘꼬맹’이라고 불렀다.

조 선배 애인은 처음에는 소주 맛이 이상하다는 듯 조심스레 소주잔을 기우리다가 몇 잔을 마셔보더니 술맛이 괜찮다며 연거푸 들이켰고, 초해도 녀살을 떨며 사양하다가 조 선배가 자꾸 권하자 얼굴이 볼그스레해졌다.

“참! 광휘야, 너는 진학을 어느 방향으로 잡았니?”

조 선배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입술을 비뚤어지게 만들어 익살스레 말투를 이어오다가 얼굴을 펴서 걱정스레 물었다.

“조 선배님! 도대체 내가 가고 싶은 대학 설정이 잘 안되네요. 학

교에서는 공상법(工商法) 대학만을 강조하고 있고 내 실력도 미지수이고…. 하지만 공대는 기계과, 전기과, 화공과, 토목과, 건축과 같은 딱딱하기만 한 과 같고, 상대는 회계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무역학과 같은 모두 숫자의 개념으로 가득찬 과 같고, 법대는 법학과, 정치외교학과 같이 무시무시한 것만 나열된 과들이 모여 있어 싫고 내 적성에는 맞는 과가 안보이네요.”

내 얘기를 듣고 있던 조 선배는 고뇌에 찬 표정으로 한쪽 손을 턱에 괴이고 있다가 눈을 치켜 올리면서 말했다.

“그렇다면 광휘 니가 염두에 둔 학과가 있을 꺼 아이가?”

“조 선배님! 대학에도 미꾸라지과, 잉어과, 가물치과, 우렁이과, 대칭이과 등 민물고기에 관련된 과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하하.”

나는 다소 무거워진 분위기를 내려놓고 싶어서 말했다.

“야 인마! 그걸 말이라고 하나! 그건 대학에서 학문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놀러 다니겠다는 것 아냐! 하하하.”

나는 낙동강 지류의 늪이 많은 곳에서 자라서 저수지나 연근 밭에서 낚시나 통발로 민물고기를 잡는 것을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보고 배웠었다. 연중 계절에 관계없이 시간만 나면 아침 먹고 낚시대를 들고 나가 오전 열한시 정도가 되면 양동이 절반 정도의 민물고기를 잡아왔다. 점심때 온 가족이 다 먹을 수 있는 양의 물고기를 잡아오곤 했던 것이다. 아예 내가 낚시대를 들고 나가는 날이면 점심때 우리 집은 필수적으로 붕어 매운탕을 만들어 먹었다. 그리고 어느 곳에 가면 우렁이나 대칭이가 많이 있다는 것을 손금 보듯 빨리 알고 있었다.

이런저런 고기 잡는 얘기를 주저리 늘어놓자 듣고 있던 조 선배는 무슨 생각이 떠올린 듯 힘주어 말했다.

“광휘야! 2년 전 여름방학 때 봉화사에 공부하러 가기 전에 너희 아버지 학교에 잠시 들렀던 적이 있는데 너는 기억하나? 그때 춘부장께서 생물실에서 개구리를 표본하고 있었는데 청둥오리, 토끼, 독수리, 닭, 비둘기 꿩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동물들을 춘부장께서 박제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많이 놀랐어! 네가 방금 봉어니 가물치니 그런 것을 운운하는 걸 보니 너도 춘부장처럼 생물이 적성에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보니 부전자전같이 느껴지네. 너도 대학을 생물학과에 가는 게 어떨까?”

“안 그래도 아버지와 상담을 했는데 생물학과를 졸업 해봤자 기껏 학교 선생님 밖에 못하니 공과대학에 가서 훗날 공장 사장이 되는 길이 낫다고 합디다.”

“거참! 학교 선생님이 어때서 그러니? 선생하면 방학도 있고 빨간색 날짜는 다 놓고 얼마나 좋아!?”

“조 선배는 잘 모르지만 선생님들 봉급이 억수로 작습니다. 우리 칠남매가 학교 다닐 수 있는 것도 벼농사를 많이 지어서 다닐 수 있었어요. 아버지 봉급은 우리들 용돈으로 지출하고 나면 남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광휘야! 너는 제주도 많잖아. 학교 후배들 반공웅변대회 나간다고 하면 네가 원고도 써주고, 그림도 잘 그리고. 참! 네가 영 그렇다면 말이다. 국문과에 진학해서 시인이나 소설가가 되는 게 어떨겠어? 내가 왜 진즉 그 생각을 못했을까?”

조 선배는 대학에 합격한 후 한 때 하숙을 했던 미영이 집에 다녀

온 바가 있다고 말하면서 내가 섹터나 기타 잡지사에 기고한 것에 대한 소소한 얘기를 미영이 어머니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하면서 말했다.

“에이, 선배님! 이것저것 조금씩 할 줄 아는 사람치고 반푼수 아닌 사람 없어요. 사실 저도 한 가지 푼 부러지게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조금 할 줄 아는 것은 흉내 수준 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진학 이야기가 오랫동안 계속되자 초혜와 선배의 애인은 재미가 없었던지 하품을 하고 있었다.

선배는 아직까지 내 진학문제가 마음에 걸렸던지 술잔을 자주 비우면서 말했다.

“광휘야! 너무 진학에 신경 쓰지 말거라. 춘부장계선 고2 때 결혼을 해서 너희 누나를 낳고 너를 대학 1년 때 낳고 대학 3학년 때는 네 큰 누이를 낳고 했다면서? 춘부장계선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아이도 셋을 낳았잖아. 너도 영 골치 아프면 장가부터 먼저 가라. 아이 낳으면서 공부하면 되지 뭐. 여기 신부도 스탠바이 되어 있는데 뭐가 걱정이고, 그자? 하하하.”

조 선배가 하는 말을 반쯤 취한 상태에서 듣고 있던 조 선배 애인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잠이 오는 눈으로 깔깔깔 웃었고, 초혜도 얼굴이 빨개지면서 입을 틀어막으면서 하품하다가 나와 눈이 마주치면 발가락으로 나의 발바닥을 까닥까닥 문질렀다.

나는 방금 전에 조 선배가 말한 국문학과에 귀가 솔깃해졌다. 국문과를 졸업하면 영·수 과목과 더불어 빅3 과목이니 교사들 중에서도 채용비율이 제일 많아 취직의 문이 넓어서 좋을 것 같았다. 또 얘기하듯 재미있게 수업을 해서 좋고, 내가 읽고 느낀 문학지에 대

한 것을 학생들에게 들려 주기도하고, 교사를 하면 시간이 많아서 책을 마음껏 읽고 글도 쓸 수 있을 것 같았다. 국문학과는 정말 괜찮은 학과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 선배 집에서 거의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새벽닭이 깃을 치는 소리를 듣고서야 초혜와 나는 조 선배 집을 나왔다. 조 선배는 아침 밥을 먹은 후 은하사에 올라가서 눈싸움도 하면서 놀다 가라고 붙잡았으나 초혜는 부모님이 기다릴 줄 모른다며 대문을 먼저 나섰다.

은하사 계곡에서 내려오는 새벽 칼바람은 골목길을 날카롭게 헤집으며 귀와 코를 문질렀다. 우리 두 사람은 금세 코와 귀가 토끼 눈처럼 빨개졌다.

“어젯밤보다 더 추운 것 같아요.”

초혜는 내 몸 쪽으로 바짝 달라붙으면서 말했다.

밤새 내린 눈은 얼음 빙판을 만들어 놓기도 해서 우리는 손을 잡고 빙판 위를 미끄러지며 즐거운 마음으로 버스정류장과의 거리를 좁혀 나갔다.

초선대에서 부산으로 가는 시외버스에 올랐다. 버스에는 어젯밤 크리스마스이브를 만끽하고 돌아오는 듯 보이는 남녀들이 띄엄띄엄 앉아 있기도 하고, 또 우리 또래로 보이는 남녀 커플은 머리를 서로 포개서 자고 있었는데 머리 모양은 봉두난발이 되어 있었다. 차속은 승객이 내뿜은 술 냄새로 가득했다. 초혜도 나와 같은 느낌을 받은 듯 느끼한 술 냄새에 손으로 코를 부채질했다.

이른 아침이라 승객이 별로 없는지라 버스는 정류소마다 정차하지 않고 건너뛰면서 달려 금세 미끄러지듯 개금을 훌쩍 뛰어넘었다.

“초혜야! 나는 서면에서 버스를 갈아타야 하니까 내려야 하고, 너

는 이 버스가 충무동까지 가니까 그곳에서 환승하면 되겠어.”

박초혜와 나는 손을 꼭 잡으며 무언의 눈인사를 나누면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편지는 그 이후에 하기로 했다. 보고 싶을 때마다 일기장에 편지를 써서 나중에 전해 주겠다는 말과 대학시험 친후 꼭 집으로 전화 해달라는 초혜의 말을 귀에 담고 서면에서 내렸다. 초혜가 탄 버스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며 지켜본 후 하숙집이 있는 문현동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광안리나 해운대 가시는 손님 빨리 타세요! 오라이!”

버스 승강대에 오르자 안내양은 나의 왼팔을 자신의 오른팔로 꼭 낀 후 안쪽으로 힘껏 끌어 당겼다. 버스 앞쪽의 유리창으로 광안리 방향에서 떠오른 태양이 눈부셨다. 도시 빌딩 사이로 날카롭게 쏟아지는 햇살은 어젯밤의 일들은 모두 잊고 공부에 매진하라며 얼굴을 찌러댔다.

문현로터리 정류장에서 내린 나는 호주머니에 손을 깊숙하게 꽂고 터벅터벅 하숙집을 향해 걸어갔다. 소방도로에서 골목길로 접어들 때, 학생회장 박성곤과 하숙을 함께하는 후배 녀석이 양말도 신지 않은 채 슬리퍼를 질질 끌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만화책을 옆구리에 낀 채 근처 구멍가게에서 산 것 같이 보이는 개비 담배를 들고 오다가 나와 마주치자 조심스럽게 추리닝 호주머니에 넣으며 무슨 큰 뉴스라도 있듯이 달려오며 말했다.

“선배님, 어젯밤에 어디 갔었나요? 학생회장 박 선배님이 자정이 넘어서 학예부장 김 선배님과 술이 곤드레가 되어서 비틀거리며 집에 와서 광휘 그놈 땀에 고교 마지막 크리스마스이브를 다 망쳤다고 하면서 화가 잔뜩 났습시다.”

나는 속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구나 싶어서 다그치듯 물었다.

“지금 학생회장 어디 있어?”

“하숙집에서 김병헌 선배님과 함께 주무시고 계신데 함께 가시렵니까?”

후배를 앞장세우고 학생회장 박성곤의 하숙집 방문을 여니 술 냄새가 방안을 진동시키고 있었고, 먹다 남은 쥐포와 술병이 나뒹굴고 있었다.

나는 술이 취한 박성곤을 깨우는 것보다 일어났을 때 얘기를 듣는 편이 낫겠다 싶어서 후배에게 학생회장이 깨어나면 우리 하숙집으로 보내달라는 말을 남긴 후 방문을 닫았다.

그때 숙취가 해소되면서 내 목소리를 인지한 듯 박성곤이 방문을 열면서 큰 목소리로 나를 불러 세웠다.

“광휘야! 너는 어제 어찌 되었어? 인마! 너 때문에 분위기를 망쳐 놓았어!”

아직도 기분이 언짢은 표정으로 말하는 박성곤의 말을 듣고 의아해 하며 답했다.

“내가 너하고 김병헌에게 초혜집에 다녀왔을 때 미리 말했잖아. 크리스마스이브날은 초혜와 데이트 약속이 있어서 못 간다고 미리 말했는데 왜 내 때문이라고 말하노?”

“그래, 병헌이가 그 말은 하더라마는 미영이 가시나가 너만 찾으니 하는 말 아이가?”

나는 엎드려있는 박성곤에게 차근차근하게 말해보라고 몸을 일으켜 세웠으나 어제 마신 술이 아직 덜 깬 듯 베개를 벽에 세운 후 기대었다. 박성곤은 숙취가 가득했지만 내 얼굴을 보자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는데 내용은 이러했다.

에트랑제 회원과 칠공주들이 해운대에 있는 극동호텔 앞에서 만난 후 김병현의 누나 집에 갔다. 병현은 누나에게 칠공주들한테 많은 신세를 졌다며 얼마나 허풍을 떨었던지 누나는 보답이라도 할 양으로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 놓은 후 추억에 남는 이브날 밤을 보내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비켜 주었다. 남녀 숫자가 꼭 같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이우성이 급한 일이 있다며 참석을 하지 않아서 미영이만 짝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미영이가 참석한 심중에는 나를 만나기 위함인데 나뿐만 아니라 이우성까지 참석하지 않자 외톨이가 되었다. 그런 마음에 술을 벌컥벌컥 마셨고 종내는 술이 취해 횡설수설하면서 욕설도 하고 구토까지 해서 방바닥이 엉망진창이 되었다.

인내심이 많은 편인 박성곤이 더는 참지 못하고 미영이의 뺨을 한 대 때렸고, 그 때까지 목구멍까지 설움에 겨워있던 미영이의 울음보를 건드린 결과가 되어 집이 떠나갈듯 울어서 그 울음소리를 들은 이웃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무슨 일인가하고 들이 닥쳤는데 현장을 보고는 호되게 야단을 맞았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머슴아 가시나가 모여서 뭐하는 짓들이고!”

에트랑제 회원과 칠공주들은 된통 꾸중을 듣고 모두들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다는 판단아래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던 고교시절 마지막 기분 나쁜 크리스마스이브 날이었다. 얘기는 계속 이어졌다.

“박성곤 그 놈은 지가 마치 미영이 부모라도 되는 줄 착각했다. 미영이 뺨을 때리고! 나쁜 자식!”

칠공주들은 박성곤에게 눈을 흘긴 후 해운대 바닷가로 가버렸고

에트랑제 회원들은 해운대 백사장 곁의 포장마차에 둘러 앉아 잡친 기분을 흥합 국물에 풀었다.

난장판이 되었던 사연을 들은 나는 화가 나서 말했다.

“얘기 들어보니 성곤이 네가 잘못했네. 미영이를 응석으로 받아 주고 조금 더 참아야지. 네가 미영이보다 나이도 네 살이나 많잖아. 큰 오빠뻘인데, 거참!”

“그래, 광휘 너는 초혜 만나러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우성이 그 새끼가 사단을 내버려서 미영이 가시나가 저만 낙동강 오리 새끼 되었다고 찢찢 짜고 술주정도 했다 아이가. 처음에는 응석으로 받아주었는데 술주정이 너무 심해서 내가 뺨을 한 대 때려 버렸어. 그랬더니 가시나 그게 큰소리로 울면서 초혜한테 광휘오빠 빼앗겼다고 행패를 부리고 생난리를 피웠어.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이웃 주민들이 들이닥쳐 개망신도 당하고. 예고, 창피해서. 이젠 해운대쪽에는 못가겠어!”

박성곤은 아직도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나도 어이없어 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성곤이 너도 알다시피 내가 미영이와 애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연애편지 주고받은 사이도 아니고 저번에 하동 갈 때 함께 간 것뿐인데, 내가 저한테 한 번도 사랑을 표현한 적이 없었는데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우성이 그 놈은 왜 안 나왔던?”

화살을 우성이 쪽으로 돌렸더니 박성곤은 우성이를 두둔하듯 말했다.

“우성이 그놈은 D여고 성악 공부하는 가시나하고 애인사이야. 그 가시나하고 광복동 르네상스음악실에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한

다 하더라.”

“우성이가 그런 말을 미리 말해 주었으면 다른 친구를 하나 데려 가야지, 도대체 성곤이 네 놈은 앞뒤가 꼭 막혀갖고 하나 밖에 모르네. 어이쿠! 짱구야! 생각해봐라. 미영이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 거기다가 네가 손대기까지 했으니 이일을 어떻게 수습하려고 해? 제발 못된 손버릇은 이번 일을 계기로 고쳐라. 알겠지?”

나는 미영이가 울고불고 했다는 말을 들은 후 기분이 언짢아서 성곤에게 서당의 훈장처럼 훈계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동안 눈을 떠서 내 말을 신중하게 엿듣고 있던 김병헌은 잘못되었다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옆방의 후배에게 고함치듯 불렀다.

“장식이! 담배 있으면 하나 갖고 와라.”

후배는 얼른 문을 열고 비틀어진 담배 하나를 호주머니에서 꺼내어 양손으로 공손하게 내밀었다.

내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난 것은 미영이가 하동을 다녀온 후 생활 태도가 확연하게 달라졌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 전만 해도 날라리처럼 밤에 쓰다녔지만 그 이후로는 집에서 차분하게 책을 읽고 어머니를 도우려는 자세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미영이 이웃 연탄 가게 춘자 아줌마를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리고 미영이 어머니가 아직까지도 나를 아들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들었다. 그래서 미영이와 연인관계를 맺지 못하더라도 미영이가 즐거워하고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나는 이쯤 말한 후 하숙집으로 돌아왔다. 옷을 갈아입고 양치질을 하고 있는데 박성곤의 옆방에서 하숙하는 후배 장식이가 슬리퍼를 딸각딸각 끄는 소리를 내며 뛰어왔다.

“ 뭐가 그리 바빠서 그렇게 뛰어다녀?”

“ 전 선배님! 박 선배님이 오늘 어데 가지 말고 꼭 집에 계시라고 합니다. 저녁 여섯시에 약속이 있다고 하면서요.”

“ 왜 무슨 일 있어? 무슨 약속?”

“ 박 선배님이 어제 뺨 때린 미영이라는 여학생한테 만나서 사과 한답니다. 그리고 참! 미영이라는 학생이 전 선배님에게 마지막으로 꼭 한번 만났으면 한답니다. 뭣을 전해줄 것도 있다고 합니다.”

“ 마지막으로 꼭 만나고 싶다고? 뭣 전해줄 건데? 내가 미영에게 연애편지를 보낸 것도 아닌데?”

나는 마지막이라는 말이 거슬렸다. 마지막으로 뭣을 전해주고 태종대 자살바위나 영도다리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겠다는 뜻인가 하는 온갖 불길한 생각이 다 들었다.

며칠 전 우리 고향에서는 제종오누이간에 사랑에 빠졌는데, 딸의 부모가 주위사람들로부터 망신당할 일이라며 아예 밖에 못나가게 방에 가둬놓자 어떻게 해서 탈출한 후 뒷산 소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은 사건이 있었다. 또 우리 앞마을에서는 남의 집 머슴 사는 총각과 여고생이 사랑에 빠졌는데, 그 또한 여고생 부모들이 동네 창피하다며 딸을 기둥에 매달아 놓고 몽둥이로 때렸고 그 여고생 또한 낙동강에 투신자살한 사건도 있었다. 그래선지 미영이가 말했다는 마지막이라는 표현은 자살과 상통하는 말이라고 여겨졌다.

나는 지난밤을 술을 마시면서 꼬박 새워 몸이 엄청 피곤하여 잠시나마 눈을 부치려고 이부자리에 누웠으나 잠이 오질 않았다. 몸을 뒤척이다가 일어나서 박성곤 하숙집으로 향했다. 하숙집을 들어서자 박성곤은 마당의 수돗가에 쪼그리고 앉아 머리를 감고 있었다.

“성곤아! 미영이가 너하고 나하고만 나오라 하더냐?”

“잘은 모르지만 에트랑제 회원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말하려고 하던데 에트랑제 회원들이 오려할지 잘 모르겠다. 내야 뭐 보고 싶다고 오라마라 할까마는 내가 일단 뺨을 때린 잘못 때문에 가서 사과는 해야지.”

박성곤은 머리에 비누 거품을 가득 덮은 채 몸을 일으켜 세우면서 말했다.

“만나는 장소는 어딘데?”

“서면 로터리에 있는 오스카양과자점이라 카더라. 가시나들 만나도 꼭 비싼 고급 양과자점에서 만나자 카는 지 모르겠다. 찐빵집이나 만두집에 가면 돈도 적게 드는데… 오스카양과자점은 최고급 양과자점인데 친구들 모이면 전부 호주머니를 탈탈 털다고 해도 빵값이 나올지 모르겠다.”

박성곤은 하숙집 마당에서 타월로 머리를 닦으면서 푸념하듯 말했다.

“야 이 친구야! 그래서 너는 융통성이 없다 안 카나. 만일을 대비해서 돈을 준비해갔고 가야지, 돈 없이 가서 빵집에 붙들려 잡힐 일 있어? 유도부장 황수문과 럭비주장 임대근 같은 친구들이 오면 뒷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돼지처럼 빵부터 먹고 볼 텐데, 그땐 어찌려고? 어이쿠! 참말로 너는 대책이 없다. 잠시 기다려 봐라. 우리 하숙집 아줌마한테 돈 좀 빌려 볼게.”

“광휘야! 잠시 기다리라. 우리 하숙집 아줌마한테 돈 빌려 볼게. 내가 원인을 제공했으니…”

약속 시간이 얼마 남지를 않아 돈을 빌려주겠다던 박성곤의 하숙

집 아줌마의 대답도 듣지 않고 들은 하숙집을 뛰쳐나와 버스정류장엘 갔다. 겨우 시간을 맞춰 오스카양과자점에 도착했더니 박초혜만 빠졌을 뿐 나머지 칠공주는 모두 참석해서 자리를 잡고 있었다. 에트랑제 회원들 쪽에서는 황수문과 임대근이 벌써 자리를 잡고 앉아서 양과자를 큰 소쿠리에 담아 와서 먹고 있었다.

역시나 내 예상이 빗나가지 않았던 점을 확인한 후 박성곤과 시선을 맞추며 어이없어 했다. 박성곤은 두 사람을 보며 힐책했다.

“야 인마! 우리가 오기 전에 벌써 빵부터 먼저 먹으면 어찌누? 그리고 오늘은 중요한 대화를 나누는 자리지 빵으로 배불리는 자리가 아니잖아!”

미영이는 나와 시선이 마주치자 새초롬한 표정을 짓더니 시선을 창밖으로 돌리면서 곁눈으로 학생회장 박성곤을 쬐려보면서 말했다.

“왜요? 내가 먹으라 했어요. 먹는 게 잘 못되었나요?”

미영이는 어젯밤의 양금이 가시지 않은 듯 학생회장에게 날카롭게 쏘아 붙였다. 나는 미영이 앞의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미영아, 오랜만이네. 몸이 많이 수축해진 것 같네.”

미영이는 팔짱을 가슴에 끼고 내 말에 들은 체 만 체 하면서 콧방귀까지 낀 후 유리창 너머 서면 로터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광휘오빠는 내같은 가시나한테 관심이라도 있남. 흥!”

미영이는 턱을 치켜세운 후 양과자점 카운터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내가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고 우유를 한 컵 마신 후 미영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를 조심스레 지켜보고 있을 때 박성곤이 어제 일로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듯 먼저 운을 뗐다.

“미영씨, 어제 정말 미안했어요. 용서하세요. 사과드립니다.”

박성곤은 자수라도 하듯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미영이는 나이가 네 살이나 많은 박성곤이 미안하다며 고개를 푹 숙이면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니 기분이 다소 풀렸던지 얼굴이 조금 밝아져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가만히 듣고만 있던 칠공주들이 한꺼번에 따발총 쏘듯이 몰아 붙였다.

“미안하다면 다예요? 그 못된 손버릇은 어디서 배웠어요? 여자를 때리는 것은 미개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명색이 학생회장이라는 사람이 못된 손버릇을 가지고 있으니 그 학교 알고도 남네요. 알만해! 흥!”

칠공주들은 이런 집단 공격을 하기 위해서 함께 연습이라도 한 듯 한목소리를 냈다. 그 말을 들은 우리들은 수궁을 하면서도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대꾸는 하지 않고 포크로 빵을 찍어 먹고 있었다. 그러다가 에트랑제 회원들이 ‘그건 맞는 말이다’ 하면서 칠공주들에게 동조하고 고개까지 끄덕여주자 김봉자는 사과를 받았다고 생각했던지 마치 생활상담선생님처럼 말했다.

“미영아! 이쯤 사과 받았으면 된 거지? 네가 이해하고 용서해라, 응? 알겠지? 그런데 미영아, 오늘 광휘오빠를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한 이유가 뭐니? 어젯밤 참석하지 않은 문제는 재거론 하지 말고 할 말만 딱 했으면 좋겠다.”

그러자 미영이는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표정을 짓더니 입술을 앙 다물고 가방을 뒤적였다.

에트랑제 회원들은 물론 칠공주들도 무엇을 끄집어내려나 하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데 미영이가 예쁘게 포장된 작은 박스를 가방에서 꺼내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김봉자는 포장된 박스

가 무척 궁금했던지 미영이와 포장 박스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미영아. 이게 뭐니? 내가 먼저 뜯어봐도 되나?”

김봉자가 궁금해서 말했으나 미영이는 포장 박스를 잡으며 나를 응시했다.

“광휘오빠가 직접 뜯어봐.”

나와 김봉자, 둘만 궁금한 게 아니라 칠공주와 에트랑제 회원들도 모두 궁금한 듯 아무런 말도 없이 작은 상자를 쳐다보고 있었다. 저 조그마한 박스 속에 뭐가 들어 있기에 미영이 표정이 저렇게 굳어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자 나도 얼른 포장지를 뜯지 못하고 바라보고만 있는데 황수문이 답답한 듯 자신의 가슴을 툭툭 치며 말했다.

“아이고! 성질 급한 놈은 명 떨어지겠다. 광휘야! 확 잡아 뜯어봐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포장을 천천히 벗기자 그 속에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금반지가 들어 있었다.

에트랑제 회원뿐만 아니라 칠공주들도 예상치 못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나오자 화들짝 놀라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나뿐만 아니라 에트랑제 회원들도 다이아몬드반지를 처음 본 듯 반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고 칠공주들은 미영이가 하는 행동을 궁금해하며 허둥대고 있었다.

김봉자가 침묵하고 있는 분위기를 허물면서 미영이의 진심을 전달이라도 하려는 듯 조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영아! 이 다이아몬드반지를 광휘오빠한테 선물한다는 뜻이야? 그러냐? 그런 뜻이지?” 하면서 미영이의 의중을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 거듭 물었다.

미영이는 머뭇거리더니 눈시울을 붉히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맞아! 광휘오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마음속의 첫 사랑이므로 선물로 주고 싶어서 준비한 거야.”

에트랑제 회원들과 칠공주들이 또다시 오랫동안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자 황수문이 낮두리하듯 말했다.

“광휘야! 무슨 말 한번 해 보거라.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가타부타 말을 한번 해 보거라, 응?”

나는 멍하니 아무런 생각도 없이 얘기만 듣고 있었다. 이럴 때는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어떤 말을 해야 미영이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상처를 덜 입힐 수 있을까 고심하고 있다가 더는 말을 미룰 수 없어 내 마음을 털어 놓았다.

“나는 미영이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냥 좋아하는 동생으로만 생각한 것뿐이다. 그러므로 이 반지는 받을 수가 없어. 이 반지를 소중한게 간직했다가 훗날에 정말 미영이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주면 좋겠다.”

내가 힘주어 말하고 말을 맺자 ‘이건 광휘를 위해 준비 한 거니까 받아야 된다. 미영이 말처럼 자신이 사랑한다면 짝사랑이라도 선물을 할 수 있다’는 의견과, 내 말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이거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과 나누는 것이 선물로서의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에트랑제 회원과 칠공주가 옥신각신 논쟁이 벌어졌다.

‘광휘오빠 말이 맞다. 틀리다’라는 논제로 에트랑제 회원과 칠공주 간에 끝없는 설전이 이어지자 미영이가 버럭 화를 내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빵 값은 내가 주고 먼저 간다.”

미영이는 계산대 방향으로 달려가듯이 가서 빵 값을 계산한 후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탁자 위에 놓인 다이아몬드반지는 주인을 잃은 채 놓여져 있었다. 그럴 즈음 임대근이 내 귀에다 대고 귓속말로 말했다.

“광휘야! 일단 다이아몬드반지를 챙겨 가지고 가서 전당포에 잡혀 맛있는 거 사먹자. 히히히.”

임대근이 익살을 떨며 농처럼 말했지만 나는 그런 행위는 미영이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나는 다이아몬드반지를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포장을 하면서 김봉자에게 말했다.

“미영이의 곱디고운 마음만 받아가고 이 반지는 돌려주겠다.”

그런 내 진심을 미영이에게 꼭 전해달라는 말을 남긴 후 칠공주들과 에트랑제 회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5. 피라칸타에 걸린 풍선

sound of music 음악이 흐르는 뒷골목에서
번쩍이는 잭나이프는 도회지 불빛에 묻혔다.

고3 학생들이 긴장하는 밤이다. ‘sound of music’ 음악이 흐르는 부산의 밤거리와 뒷골목에서 번쩍이는 잭나이프마저 불빛에 묻혔다.

본고사 시험을 치기 위해 국립 D대학교 어문학관 방향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아침부터 날씨가 예사롭지 않았다. 진눈개비가 바람에 휘날리면서 머리칼은 헝클어지고 바람을 피해 건물 벽면을 따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수험장에 도착했다. 수험번호를 체크하면서 수험장에 들어갔는데 벌써 수험장에는 많은 학생들이 앉아서 시험 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작은 메모지에 요점을 정리해서 보고 있는 학생과 이해가 되길

얇은 듯 붉은색 볼펜으로 신경질적으로 원을 마구잡이 그으면서 참고서를 뒤적이는 학생들이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수험번호를 찾아 자리를 잡고 앉아서 옆 사람들을 힐끗 쳐다보았는데 전후좌우의 여학생들의 배지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것은 소위 부산과 경남지역에서 명문여고라고 알려진 학교의 여고생들을 총집합해 놓은 느낌이 들었다.

예비고사를 치를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본고사 역시 여고생들의 외형만 봐도 공부 잘하는 이미지는 어림짐작으로도 알 수 있었다. 남녀 공통점이 검정색 혹은 브라운색 뿔테에 돋보기로 보이는 안경알에 하얀 선이 원으로 그어져 있는 안경을 끼고 있는 게 특징이었다.

그리고 여학생들의 두 가지 공통적 체형을 볼 수 있었는데 하나는 신경과민으로 밥을 제대로 먹질 않아 골골이 말라 마른 명태처럼 야윈 체형과, 밥이나 각종 음식을 섭취한 후 운동이나 산책을 하지 않고 곧장 책상에 앉아서 결국 엉덩이가 걸상 밖으로 비집고 나온 비만형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비만형은 허리선이 없고 가슴에서 히프까지 일직선 체형들로 대개 명문 여고생들의 공통점이었다.

즉, 공부를 많이 하는 책벌레 여학생들의 엉덩이 모양은 네모꼴형이고 그렇지 않은 여학생들의 엉덩이 모양은 위스키그라스형이라고 여겨졌다. 오늘 수험장에 시험을 보러온 여학생들은 네모꼴형 여학생들로 꽉 채워져 있었다. 마치 엉덩이를 평편한 의자에 본드로 붙여놓은 듯 사각형으로 보였다.

남학생은 열손가락에 들 정도로 응시자가 적었고 나머지는 모두 여학생들이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저 가시나들이 국문과에 와서 문학인이 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미래의 국어교사는 여자들로 메워질 것인가. 원래 문학인들은 미인은 용납하지 않고 못난이에 풍모들에게만 개통 문학과 개통철학의 문을 열어 놓는가.’라고 생각하며 만만찮은 경쟁력에 한숨을 푹 쉬었다.

나는 이왕 응시했으니 최선을 다해보자고 문제를 풀어 보았으나 자신이 없었다. 시험장을 나온 내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영문학과와 국문학과는 여학생들이 제일 선호하는 학과라는 사실을 시험을 마친 후 알았고 그 소굴에 내가 앉아서 시험을 보았다는 사실이 끔찍했다.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시험을 치룬 후 그래도 결과를 기다리고 계실 부모를 생각해서 고향엘 갔다. 아버지가 시험을 잘 보았느냐고 물었지만 나는 명쾌한 답을 드리지 못하고 마당을 서성거리고 있었다.

나는 하동을 다녀온 후 틈만 나면 무덕관에서 유도를 하느라 비지땀을 흘렸고 이미 유단자가 되어 있었다.

체육 선생님은 유도부 학생들과 더불어 체육대학에 추천을 했었고 합격대상 명단에 내 이름도 올라 있었다.

나는 저녁밥을 먹는 등 마는 등 하고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기로 했다.

“아버지, 전기 국문학과는 자신이 없고 서울 Y대 체육과에 가면 안 될까요?”라는 말이 입 언저리에서 맴돌다가 뒤꽂무니를 빼듯 얼버무리듯 기어드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다. 아버지는 밥숟가락을 내려놓으면서 상기된 얼굴 표정으로 되물었다.

“니 방금 뭐라 켜노!?”

“유도를 특기로 하는 체육과에 갔으면 해서요” 라며 목구멍으로 들 어가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더니 아버지의 고함소리가 터져 나왔다.

“인마! 체대는 깡패들이 가는 곳이지 공부하는 학생들이 누가 응 시하더노? 우리 학교 선생 아들들은 SKY대학에 간다는데 니는 거 기가 학교라고 갈라 카나? 그것도 공대, 상대, 법대도 아니고 깡패 들이 다니는 체대를, 니가 중학교 때 만큼만 공부했어도 어느 대학 교든지 갈 수 있었을 텐데. 중학교 제자들 중에서 너 정도 성적으로 고교진학을 하면 어느 대학 정도는 갈수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는 데 네 놈은 부산 가서 농땡이만 부러가지고! 지금 뭐라가고 있노? 면사무소 앞 너와 동창인 중국집 아들도 너와 실력이 같았는데 이 번에 D대학 공대에 갔잖아!”

아버지의 진노는 끝이 없었다.

아버지 또한 고교 담임선생님처럼 공상법을 말씀하고 계셨다. 결 국 내년 한 해 재수를 해서 아버지가 바라는 대학에 가겠노라고 진 정시킨 후에야 잠잠해졌다. 고향에서 너무도 길고 긴 밤을 보낸 다 음날 고향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명한 두 선배가 아버지를 찾아왔다.

두 선배들은 몇 년의 차이로 S대 선·후배사이였다. J선배는 법대 생이었고 K선배는 상대생이었는데, 두 사람 모두 민청학련에 연루 되어 제적생이 되었고 현재 수배 중이었다. 두 선배가 우리 집을 찾 아온 것은 아버지가 남다른 민주주의에 대한 투철한 열망과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4·19혁명 때 이승만 독재정권에 분연히 맞서 싸우다가 서울 원각사 앞에서 독재 정권의 하수인인 경찰이 쏜 총탄으로 사

촌동생 절명한 후부터 당신은 물론 우리 친족들은 독재정권이라고 하면 치를 떨었다. 이승만 독재정권은 종신대통령을 꿈꾸면서 부정 선거를 일삼았고 민주주의를 외치는 수백 명의 대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야수의 얼굴로 무자비하게 총을 난사했던 것이다. 그것은 내가 초등학교 일학년 때 일어났던 국난으로서 우리 집안은 엄청난 충격과 함께 슬픔에 잠겼었다.

전무영 열사님은 할아버지 바로 아래 동생인 작은 할아버지의 일남삼녀 중 외동아들로 태어났다. 우수한 성적으로 고교를 졸업하고 유능한 언론이 되기 위해서 신문방송학과에 진학했던 장래가 촉망된 학생이었다. 그런 아들을 둔 작은 할아버지 맥은 어느 하나 부러울 게 없었으며 장래에 훌륭한 언론인 되어서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이 되길 바랐다. 열사님은 가족뿐만 아니라 친족과 모교에서도 기대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삼월에 대학에 입학한 후 한 달이 지난 사월에, 두견화가 진하게 피던 사월에, 이승만 정권이 감추고 있었던 야수의 이빨에 심장이 찢겨 싸늘한 시신이 되어 고향 선산으로 돌아온 것이다.

피를 토하면서 학우에게 남긴 ‘내 죽거든 고향 선산에 묻어 달라’는 유지에 따라 서울에서 군용열차에 실려서 내려와 진해공설운동장에서 영결식이 거행되었다. 열사님의 아버지께서는 “또 다른 아들이 있어도 민주주의를 위해 재물로 바치겠다.”고 연설을 하셔서 이를 듣고 있었던 진해 시민들을 숙연케 했다.

외아들을 잃은 슬픔을 딛고 강한 의지가 담긴 고별사를 듣고 진해시민은 눈물을 적셨다. 영결식을 마친 시신은 고향 선산으로 돌아왔다. 선산 주위는 면민들의 애도의 물결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훗날 서울 수유리 4·19혁명 국립묘지가 조성되면서 그곳엔 가묘도 만들어졌다.

고향에서는 이곳이 민주성지로 알려져 4·19혁명 기념일에는 고인을 위한 추모행사가 열렸는데 지역 초·중학교 학생들의 참여하에 거행되었다. 고귀한 희생을 흠모했던 사람들은 이곳을 지나칠 때마다 꽃 한 송이를 헌화했다. 수배를 받고 있는 두 선배는 열사의 묘역을 보면서 민주주의를 위해 투사가 될 것을 다짐했다고 한다. 두 선배는 아버지에게 결연한 의지를 보이며 말했다.

“선생님! 박정희 독재정권이 국가재건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군사독재로 일관하며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통치를 꿈꾸고 있습니다. 군인출신들이 정권을 잡고 언론탄압은 물론이요 국가 주요부서들도 전부 장악 했습니다. 주요 각 부처에는 낙하산식 인사정책을 펼쳐 정부를 움직이는 삼부는 물론이고 지방행정관청까지 군복 일색입니다. 그들은 정부산하 곳곳에 잠입해서 반정부인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탄압을 혹독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이미 중앙정보부와 경찰의 감시 하에 학원사찰이 이뤄져 대학 본연의 자유토론은 상실한지 오래되었고 군부독재의 통제 아래 꼼짝없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권탄압은 물론이고 정부와 손을 잡은 기업은 정경유착으로 부정한 축재를 일삼고 근로자들은 노동착취를 당해 엄청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습니다. 야당 정치인들마저 여당과 야합을 해서 낮에는 야당, 밤에는 여당으로 카멜레온처럼 모습을 바꾸면서 공화당의 꼭두각시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학생들이라도 4·19혁명 정신을 계승해서 분연히 일어나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상여에 얹혀있는 시체와 진배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나 같은 불행한 군인은 더 이상 없어야 된다고 하면서 쿠데타 한 것을 후회하듯 말하더니, 권력의 단맛을 알고 나서 평생 동안 권좌에 머물고 싶은 거겠지.”

아버지와 나누는 대화는 끝이 없었고 아버지는 두 선배를 격려했다.

“우리 지역에 자네들 같은 민주투사들이 있다는 것은 자랑이네. 부디 몸조심하여 큰 뜻을 이루기 바라네. 지하에 있는 내 동생도 오늘 우리가 나누는 대화를 듣고 얼마나 좋아할지 모르겠네.”

아버지의 격려에 용기를 얻은 두 선배는 샘물 한 컵씩을 별컥벌컥 마신 후 바빠 자리에서 일어섰다.

열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민주투사라는 이름을 남겼지만 열사의 직계가족은 물론 우리 친족들까지 집단 우울증에 빠지고 말았다. 그런 현상은 계속되었다.

“광휘야! 너도 서울 쪽의 대학에 진학해서 우리들과 함께 독재정권과 투쟁하자. 서울로 꼭 진학해라.”

그 말을 남기고 두 선배는 마을 골목길로 황급히 사라졌다.

나를 제외한 에트랑제 회원들은 각자가 희망하는 대학에 모두 진학을 했다. 단지 전체 수석 박성곤은 S법대를 진학하지 못하고 지방대 전체 수석을 했다.

나는 재수를 하기 위해 부산역 앞에 있는 재수학원 종합반에 등록을 해서 다니며 학원수업을 마치면 곧장 무덕관으로 가서 유도를 했다. 이곳 무덕관은 부산 유도선수의 산실이었고 유도 승급심사는 물론 경찰관들의 호신교육도 이곳에서 이뤄졌다.

무덕관에 가면 먼저 몸을 푸는 체조를 했다. 유도의 자세는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옷깃을 잡고 왼손으로 상대방의 우측 팔소매를 쥐

고 당기므로 손아귀의 근력을 키우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매일같이 주먹 쥐고 퍼기를 수천 번을 했다. 주먹이 쥐어지지 않을 정도의 연습을 하고 팔을 흔들어서 손 근육을 풀어준 후 몸을 부드럽게 해주는 전방낙법, 후방낙법, 측방낙법, 그리고 일곱 명을 엮드리게 해놓고 달려가서 구르는 회전낙법을 하느라 땀을 몇 사발씩 매일 흘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에 서울지역에 유학을 갔던 김병헌과 황수문 이 벌써 여름방학을 했다며 무덕관으로 나를 찾아왔다.

나는 기본 몸 풀기가 끝나고 나서 D대학 체육과에 재학 중인 임동필이라는 전국체전 고교챔피언 출신 유도선수과 한판 겨루기를 하고 있었다. 체급 구분은 미들급, 라이트급, 헤비급 등으로 구분했는데, 나는 미들급이고 임동필은 몸무게가 백이십 킬로그램 이상 되는 무제한급이었다. 훗날 체급 구분은 몇 kg급 이하니 하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원래 급수별로 겨루기를 시키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곳의 사범은 무작위로 희망자를 뽑아 겨루기를 자주 시켰는데 대부분 관원들은 자기의 체급과 많이 차이가 나면 겁이 나서 겨루기 할 엄두도 내질 못했다.

그런데 나는 나보다 사십 킬로그램 이상 몸무게가 더나가는 임동필에게 도전장을 자주 냈었다. 그것은 체구가 큰 사람은 생김새가 야무지지 않고 퍼석하게 보여 잘하면 상대를 꼬나 박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큰 오산이었다. 상대는 거대한 산 처럼 크게 보였고 꿈쩍도 하지 않는 거목 같았다. 나는 진드기처럼 붙어서 임동필을 괴롭혔다. 어쩌다 임동필을 한번 넘겨버렸을 때는

관원들은 자신이 이긴 것처럼 좋아했고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 종종 겨루기를 자원했다. 이런 나를 두고 관원들은 ‘진드기’ 내지 ‘거머리’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사실 나는 거머리와는 전혀 별개인 소년이었는데 하동역 사건 이후로 악бар리로 변한 것이다.

초반에는 임동필의 특기인 허벅지차기 한방에 꺼꾸러져 나갔지만 자주 맞붙다보니 상대의 기술을 알고 방어기술로 대응했다. 그리고 귀속말로 ‘야 빨리 한번 넘겨봐라, 뭐하노? 니 어젯밤에 자위 행위 했제?’ 하면서 약을 올리면 임동필은 이성을 잃고 서둘러서 기술을 걸었다.

그런 방식의 순간 내가 건 기술에 상대도 어쩔 수 없이 넘어지곤 했다. 나는 그런 재미로 심심하면 한판 붙자고 했고 사범은 재미있다며 두 사람을 매트 중앙으로 자주 불러내었다. 오늘도 임동필과 나는 진검승부를 펼치고 있었는데 무덕관을 찾아온 김병헌과 황수문이 무덕관 뒷문 쪽에 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다.

“광휘야! 실력이 대단해졌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근성이 무섭다.”

겨루기를 마친 후 빗물처럼 흘러내리는 이마의 땀을 훔쳐내면서 임동필과 나는 친구들이 서 있는 쪽으로 다가갔다. 황수문도 이곳 무덕관 출신이고 임동필을 잘 아는지라 악수를 나눈 후 포옹을 했다.

“이야! 불독(황수문의 별명), 니 서울 가더니만 얼굴이 흰해졌네. 확실히 서울 물은 틀린 것 같다. 옷도 제법 세련되어졌고 구두도 반질반질하고. 이야! 이 배지가 우리나라에서 유도로 유명한 그 학교 배지네. 이 배지를 달아야 태극마크를 달 수 있다는데, 나도 그 학교 가고 싶었지만 고교 유도감독과 지금 내가 다니는 대학 감독하고 친구 사이라 빼도 박도 못하고 D대학에 다니다 아이가”

임동필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황수문을 보고 부러운 듯 말했다.

“자식아, 부산에도 국가대표선수들이 있어야 우리나라 유도가 골고루 발전하는 거 아이가. 그것도 그렇지만 광휘도 서울에 함께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거 아버지 땀에 못 왔다 아이가. 광휘가 마음 상하겠다. 그런 얘기는 고만하고 오랜만에 만났으니 통닭이나 한 마리 뜯으러 가자.”

황수문은 임동필의 가슴을 툭 치면서 말했다.

나와 임동필은 샤워하고 오겠다고 말한 후 세면장으로 갔다.

우리들은 고교를 졸업한 후 처음으로 만났기에 할 얘기도 많았다. 서울에서 내려온 친구들은 무교동 낙지골목 얘기며 충무로, 을지로 등 서울의 명물과 유명장소에 대한 얘기가 끝이 없었다. 임동필과 나는 처음에는 관심 있게 듣다가 김병헌과 황수문이 시간이 더할수록 말소리가 서울 말씨로 변하자 우리는 식상해서 한 목소리로 핀잔을 주었다.

“촌놈들 서울 가서 출세했다. 그라고 인마들아! 서울간지 몇 달 되었다꼬 서울말 하노? 새끼들 웃긴데이. 어긋지기말 그만해라. 하하하.”

조금은 머쓱해진 김병헌이 화제를 다른 방향으로 돌렸다

“아참! 이곳으로 올 때 포스터를 보았는데 오늘부터 부산시민회관에서 록페스티벌을 한다고 적혀있더라.”

“록페스티벌? 거기 뭐하는 기고?”

임동필이 궁금했던지 웃으면서 물었다.

“그래서 너저를 보고 촌놈이라 칸다 아이가. 그동안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흘러간 옛 노래나 뽕짝가수들의 노래는 젊은 세대

에선 한물갔다 아이가. 요즘 서울에서는 통기타음악이 새로운 음악 장르로 떠올라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대학가 주변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 가히 폭발적이라 할 정도야. 포스터를 대충 보았는데 그 애들이 부산에 왔는 갑더라.”

“야!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 알제? 부산시민회관이 조방 앞에 있으니 교통부에서 몇 발 안 된다 아이가. 일단 통닭 한 마리 뜯어 먹고 한번 가보자, 알겠제? 동의하제?”

통닭집에 들어간 우리들은 자기 앞에 놓인 통닭 한 마리씩을 게 눈 감추듯 먹고 나서 부산시민회관으로 무리지어 갔다.

이장희, 송창식, 양희은, 김수철, 어니언스, 한대수 등의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는 감탄을 연발했다.

이제까지 우리들의 귀에 못이 박혀 있었던 트롯풍과는 전혀 다른 노래들을 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다. 그 중에 이장희의 ‘그건 너’, 송창식의 ‘왜 불러’, 김수철의 ‘젊은 그대’ 이런 노래를 들으니 군사독재에 잃어버렸던 새로운 젊은 영혼이 깨어나는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야, 바로 저거다!”

“이장희 말마따나 모두들 잠든 고요한 이 밤에 어이해서 잠 못 이루겠노. 시필, 낮에 시내에 나갔다가 단속경찰에 장발머리 걸려 머리 다 깎여뺐는데, 시필, 잠이 오겠나! 송창식이 말마따나 왜 부르느냐 말이야. 술자리에서 박정희 욕했다고 경찰에 잡혀가서, 국가원수 모독했다꼬 짜바리한테 얻어 터져서 기분 나빠 술 마셨고, 술이 취해가는 사람을 좇 빨라꼬 또 뒤에서 부르노? 시필, 옛 같은 세상이다.”

우리들은 현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분노에 쌓인 감정을 토해 내면서 한마디씩 했다.

록페스티벌 공연 동안 우리들은 아예 혼이 빠져버렸는데 특히 작은 체구의 김수철이 휘어진 창 모자를 쓰고 기타를 치면서 전자 오르간 위를 폴짝폴짝 뛰어오르며 연주할 때는 ‘저게 사람이냐. 귀신이냐’ 하면서 감탄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관람객들도 모두 탄성을 질러댔다.

공연이 끝난 후에도 객석의 사람들은 새로운 풍의 문화를 접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넋을 잃고 웅성거리면서 자리를 뜰 줄 몰랐다.

한참동안 자리를 뜨지 않고 앉아 있던 관람객들이 하나 둘씩 좌석에서 일어서고 있을 때 한쪽 무리 속의 교복 입은 여학생들이 아직도 왁자지껄하게 떠들고 있었다.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그쪽을 바라보게 되었다. 시민회관 높은 천장에서 하나둘 꼬마등불이 켜지고 객석의 사람 모습이 어렴풋하게 모습이 나타났을 때 김병현이 누군가를 찾았다는 듯이 소리쳤다.

“야! 저쪽 여학생들 좀 봐? 저 킬킬한 목소리로 떠들고 있는 가시나 저거 김봉자 아이냐?”

“설마? 그 애들은 지금 고3인데 학교에서 공부해야지 여기 왔을 리가 있냐?”

“야, 내 눈은 못 속인다. 내가 한번 불러 볼게. 김봉자!”

김병현은 짝꿍이었던 김봉자를 보면서 크게 반가웠던지 입이 합지박만하게 커지면서 약간은 흥분된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고, 떠들고 있던 여학생들은 잡담을 멈춘 후 우리 쪽으로 시선을 집중했다.

“누구신데예? 내 이름을 부르고.”

“야들아, 자세히 봐라! 저기에 박초혜, 양경숙, 김태자도 보이네.”

칠공주들과 헤어진 지 불과 반년 정도 밖에 안 되었지만 칠공주들은, 김병헌과 황수문의 외모가 가까머리에서 장발이 되었고 나도 장발은 아니었으나 머리를 길렀으니 못 알아보는 듯했다.

옆에 있던 임동필은 영문을 몰라하면서 말했다.

“너거 아는 가시나들이가? 참 발도 넓다. 이런 곳에서 아는 가시나들을 다 만나고. 하하하. 참 대단하다.”

아직도 우리를 알아보지 못해서 고개를 가우뚱거리고 서있는 칠공주들 곁으로 우리가 먼저 다가갔다. 우리들은 지난 겨울 미영이 사건 이후 반년 만에 처음 만난 것이다.

“에트랑제 오빠들 아입니꺼?”

칠공주들은 놀라워하는 표정으로 반가워했지만 초혜는 양경숙이 뒤로 몸을 살짝 숨겼다.

초혜와 나는 편지로 안부를 계속 나누고 있었는데 초혜는 나를 보자 도둑질을 하다가 들킨 사람처럼 몹시 민망스러워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김병헌은 칠공주들을 보면서 핀잔을 주듯 말을 걸었다.

“이야! 너거들 많이 컸네. 그런데 너거 고3 학생들이 공부는 안하고 여기 뭐 할라꼬 왔노?”

“우리예, 지난해 오빠들한테 배웠다 아입니꺼. 오빠들도 작년에 고3인데 하동 놀러가고 그래도 잘만 대학교 가테예. 우리도 오빠들처럼 공부에 목숨 바치지 않고 재미있게 공부할라꼬예. 호호호.”

“그래, 아무튼 만나서 반갑고 한테 시민회관 안에서 이려고 있을

게 아니고 어디 뭐 좀 먹으러 가자.”

“오빠들 머리 기르니 멋지네예. 뽀뽀머리때보다 인상도 부드러워 보이고.”

“그래 보이냐? 서울에 가서 비싼 돈 주고 공부하는데, 암, 그래 보여야지. 히히히.”

“그런데 오빠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만났다 카른 목을 꺼 밖에 생각 안하네예. 먹는데 무슨 원수진 사람들처럼 그렇게 밝히네예. 그러지 말고 내가 삼성극장 영화초대권을 몇 장 가지고 있거던예.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인데 봤습니까?”

우리들의 표정을 살피면서 김봉자가 책가방 속에서 표를 끄집어냈다. 칠공주들과 정답게 대화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소외감을 느꼈던지 임동필은 집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우리들은 남녀비율도 같으니 가지 말고 함께 영화를 보자고 팔을 당겼지만 아버지 기일이 라고 하기에 더 이상 잡지 않고 보내주었다.

나와 초혜는 공부의 진도에 대한 것을 나누며 뒤따라서 나란히 걸었고, 김병헌은 지난해 하동역 추억을 떠올린 듯 큰 목소리로 ‘겉겉’ 소리까지 내면서 극장 방향으로 앞서서 걸어갔다.

삼성극장 앞에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줄이 골목길까지 꼬리를 물고 서 있었다.

우리들은 앞쪽에 줄을 서고 뒤쪽에 칠공주들을 서게 했다. 앞쪽에 선 사람부터 극장에 입장을 하는 동안 극장 포스터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데, 고교생으로 보이는 행동이 아주 불량스러운 남자 세 명이 껌으로 풍선을 만들기도 하고 천박스럽게 씹으면서 칠공주들 곁으로 다가서더니 한쪽 다리를 살래살래 흔들면서 칠공주들에

게 눈을 쫓은 후 머리에서 발끝까지 훑어보면서 말했다.

“우와! 가시나들 까리하게 생겼네. 고마 직이네.”

우리들은 그들의 행동거지를 보고 웃음을 참지 못하고 크게 웃으면서 비웃어 주었다.

“하하하. 참 놀고 있네. 거지같은 새끼들!”

“광복동에는 저런 거지들이 잘 없는데 변두리 극장에 오니 양아치들이 웃기고 있네예. 호호호”

김봉자도 어이없어 하며 특 내뺨듯이 말했고 나머지 칠공주들도 양아치들을 힐끗 쳐다보면서 덩달아 함께 비웃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들의 차례가 되어 표를 제출한 후 줄을 지어서 극장 안으로 들어갔다.

극장 안에 자리를 잡자 곧바로 애국가가 울려 퍼졌고 외국영화 예고편이 상영될 때 김병현이 소변이 마렵다고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에 갔던 김병현은 본 영화가 한창 진행될 때까지도 지정된 좌석으로 돌아오질 않았다.

우리들은 화장실에 갔다가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몰래 집으로 갔나 보다하고 있는데 한참 만에 돌아왔다. 우리들은 김병현이가 늦게 돌아온 점이 궁금해서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니 화장실에 가서 똥 주워 먹고 왔나? 와 이리 늦게 왔노?”

“조금 전 극장 입구에서 이상한 말을 하던 그 놈들을 화장실에서 만났는데 칠공주들을 자기들한테 넘기라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무시했더니 그 놈들이 오늘 영화 못 본다며 길을 막아서 간신히 빠져 나왔다 아이가! 이곳에서 노는 양아치 같더라.”

김병현은 아직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듯 씩씩거리며 말했다.

그 말을 전해들은 우리들도 어이없어하며 한목소리로 김병헌의 말에 동조했다.

“그 놈들이 참으로 미친놈들이구나. 사람이 물건도 아닌데 자기들한테 넘기라고? 그 놈들 정신이상자들 아니냐. 그것도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참 희한한 놈들이다.”

우리들이 주위를 둘러보면서 웃고 있을 때 김병헌이 손가락으로 극장 문 쪽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저쪽에 앉은 저놈들이다.”

“학생복장도 아니고 상의는 교련복, 하의는 고장물이 질질 나는 백색 나팔바지에 머리는 길고. 도대체 저 새끼들은 뭐하는 놈들이고?”

우리들은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도대체 감이 잡히질 않아서 웃었다. 칠공주들도 별 거지같은 놈들이 시비를 다 건다면서 덩달아 웃었다.

영화가 끝나고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날 때 나는 초혜 곁으로 다가가서 극장을 나가면 빨리 집에 가서 오늘 놀았던 것만큼 공부를 보충해야 된다고 다짐을 받고 친구들 쪽으로 돌아왔다.

우리 일행들이 이층에서 아래 계단으로 내려오는데 조금 전에 화장실에서 헛소리를 했다던 그 놈들도 뒤쪽에서 호주머니에 손을 쫓고 뒤따라오고 있었다. 그리고 1층 출입구 근처에 다가오자 우리 뒤쪽의 그놈들처럼 비슷하게 웃을 차려입은 또 다른 무리들이 출입구 쪽에서 누군가를 찾고 있는 듯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뒤쪽에서 큰소리로 외쳤다.

“앞에 가는 저 새끼들이다!”

그 소리를 들은 앞쪽의 무리들이 모두 우리들을 향해 시선을 집중시켰다.

극장 출입구 쪽에 서 있는 놈들 대부분은 며칠간 머리를 감지 않은 듯 헝클어진 거지 모습이었고 제 나름대로 멋을 낸다고 입은 옷매무새 꼴은 촌스럽기 그지없었다. 상의는 넓은 칼라의 꽃무늬 셔츠차림과 소매가 없는 빨간색 러닝셔츠를 각각으로 입고 있었다.

나는 황수문에게 걱정하듯 말했다.

“오늘 아무래도 한판 싸움이 크게 날 것 같아. 각오를 단단히 해야겠어. 그리고 극장에 들어올 때 만났던 놈들은 몇 명이 동네를 쏘다니며 못된 짓을 하는 양아치인 줄 알았는데 저 앞쪽에 많은 무리들을 보니 아마 범일동의 조폭들이겠어.”

“광휘야, 괜찮다. 여기는 부산 아이가. 지난해 하동역과는 문제가 틀린다.”

황수문은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나는 다시 초혜에게 다가가서 우리들은 신경 쓰지 말고 우리와 조폭들이 몸싸움이 시작되면 칠공주들은 재빨리 버스정류장으로 달려가서 집으로 가라고 단단히 일러주었다.

극장 출입문을 나오자 열댓 명의 조폭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우리들을 에워싸기 시작했다. 우리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섰는데 조폭들 중에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놈이 먼저 말했다.

“아까 전에 가시나들을 우리 동생들이 달라고 했는데 너거들이 안 넘겼다면?”

우리들은 참으로 황당한 물음에 어이가 없어하며 대꾸했다.

“야, 이 자식들아! 그 여학생들이 무슨 물건인가. 너저들한테 보내. 그리고 그 여학생들은 우리하고 애인들인데 애인을 너저 같은 양아치들한테 보내는 얼간이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노? 말 같은 소리해라, 자식들아!”

“뭐? 양아치? 이 자식들이 똥질려고 환장을 했네.”

깡마르고 키가 큰 조폭이 험한 인상을 지으며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며 말했다.

“그래, 자식들아! 양아치가 아니고서야 남의 애인한테 침을 흘리겠나.”

험악한 설전이 오고가면서 밀고 밀리는 몸싸움이 극장 앞의 도로에서 벌어졌다. 그럴 즈음에 삼십 미터 정도 근처에서 경찰관 두 명이 이런 상황을 어찌 알았는지 호각소리를 내며 달려왔다. 알고 보니 칠공주들이 파출소에 가서 신고를 했던 모양이었다. 우리 곁으로 다가온 경찰들은 무슨 연유로 실랑이를 벌이는지 물어보자 조폭들은 슬그머니 흩어져 버렸다.

우리들은 아무 일도 아니고 잠시 오해가 있어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더니 경찰은 다친 곳이 있으면 파출소로 가자고 했다. 경찰을 돌려보낸 후 나는 초혜 곁으로 다가가서 왜 내가 시키는 대로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파출소에 갔더니며 나무랐다. 초혜는 집으로 가려다가 걱정이 되어서 그냥 못가겠더라고 했다. 나는 다시 초혜의 손을 꼭 잡으며 일단 파출소에 가서 경찰의 보호를 받은 후 여기 우리들이 안 보이거든 빨리 집으로 가라고 재차 단단히 일렀다.

경찰과 칠공주들이 사라진 후 잠시 골목길에 몸을 숨겼던 조폭들이 하이에나 떼처럼 하나둘씩 다시 나타났다. 그런 광경은 마치 기

온이 높아질 때 바다 속에 나타나는 해파리 떼같이 보이기도 했다.

“야! 너거들이 사내 같으면 한번 뛰자.”

조폭들이 제의하듯 말했다.

“야! 이 겁 많은 양아치들아, 너거들이 사내들이라 할 수 있나. 추잡스럽게 열다섯 명이 세 명과 싸우겠다는 게 머슴아가? 인마!”

“이 새끼들이 또 양아치라 카네!”

“그렇다. 너희들은 혼자서 당당하게 싸울 줄 아는 깡패가 아니고 겁쟁이들처럼 몰려다니는 양아치들이야.”

우리는 하동역에 비해서 조폭들 숫자가 적다고 여기면서 전혀 주눅 들지 않고 맞섰더니 조폭들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나 또한 그동안 열심히 무술을 익혀서 전혀 떨림이 없었다.

“그라믄 좋다. 한번 뛰자!”

우리들은 싸울 태세를 갖추었으나 조폭들은 경찰들을 의식하듯 파출소 방향을 쳐다보면서 삼성극장 맞은편 골목길 쪽으로 우리를 유인하며 횡단보도를 건넜다.

그런 후 약간 경사가 있는 골목으로 우리 세 명을 몰아넣었다. 조폭 열다섯 명은 입구 쪽 큰길이 있는 골목길을 에워싸기 시작했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황수문의 앞쪽에 서고 김병헌을 뒤에 서게 한 후 말했다.

“야! 이 겁 많은 양아치 새끼들아! 한번 덤벼봐라. 싸움을 할 때 당당히 일대일로는 싸우지 못하고 들개들처럼 떼를 지어서 달라붙는 너거들은 하나도 두렵지 않다.”

“광휘 니 말이 맞다. 이 새끼들은 똥개 새끼들이다. 광휘야, 내가 앞에 설게.”

황수문도 덩달아서 조폭들에게 야유 섞인 말을 하자 흥분한 조폭 한 명이 우리 쪽으로 뛰어들었다.

황수문은 달려오는 조폭을 업어치기로 블록담장 쪽으로 던져버린 후 손을 탁탁 털며 말했다.

“다음은 누구고?”

조폭들은 순간적으로 당한 자기 동료들을 보고 깜짝 놀라워하다가 뒤쪽에 선 조폭이 앞으로 달려왔다. 이번에는 내가 업어치기로 던져버렸는데 넘어지지 않으려고 옷을 잡는 바람에 나는 조폭의 몸통 위에 올라타고 말았다.

뒤쪽에 있던 또 다른 조폭이 나서며 황수문 앞으로 다가가자 황수문은 상대의 겨드랑이에 오른손을 넣고 왼손은 상대의 손을 당기며 허리띠기로 힘껏 뿌리듯 던져버렸다.

조폭은 남의 집 철 대문에 머리를 박고 ‘악’하며 쓰러졌다. 그 다음에 덤비는 조폭은 업어치기로 시멘트 바닥에 사정없이 던져 버렸더니 머리가 깨지고 피가 철철 흘렀다. 황수문과 나는 배구시합 때 상대편에서 날아온 공을 번갈아 토스를 받듯이 조폭들을 해치웠다.

네 명의 조폭들을 집어 던진 황수문이 손을 털면서 조폭들의 앞으로 나서면서 덤벼려면 계속 덤벼보라고 말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하동역에서는 각목을 쥐고 있었지만 오늘은 그런 게 없으니 마음껏 한번 싸워보자고 마음을 굳게 먹고 있었다.

“다음은 또 누구?”

황수문이 겨루기 자세로 말하자 조폭 한 명이 엉거주춤한 자세로 걸어왔다. 이번에는 황수문이 먼저 비호같이 달려가서 손으로 조폭의 어깨를 딛고 머리로 헤딩을 박아버리니 코피를 쏟아내며 뒤로

나자빠졌다.

생각 외로 강한 상대를 만났다고 생각한 조폭들은 일제히 잭나이프를 뽑아들었다. 시퍼런 칼날이 가로등 불빛에 섬광처럼 빛을 발했다. 앞으로 다가오던 조폭은 겨루기 자세로 서있는 내 손을 뿌리듯이 내리쳤다. 순간 잭나이프가 팔을 스치는 느낌을 받았다. 오른손 팔뚝과 검지에서 피가 줄줄 흘렀다. 황수문도 ‘욱’ 하는 소리를 내면서 옆구리를 움켜쥐었다.

“수문아, 칼이다. 조심해!”

황수문도 이미 칼에 배를 찢린 상태였다. 나는 위급함을 느끼고 김병헌에게 외쳤다.

“병헌아! 저기 있는 사이다병 가져 온나. 오늘 이 양아치 새끼들 다 찢러 죽여 버려야겠다.”

우리 세 명은 사이다병을 담장에다가 내리친 후 예리해진 유리병으로 조폭들 앞으로 다가갔다.

“개새끼들 니 죽고 나 죽는다. 오늘 돌아갈 생각 하지마라. 어느 놈부터 난자질 해 주꼬?”

조폭들은 크게 당황하며 몸을 뒤로 움찔했다. 셋 정도는 가볍게 제압하리라고 예상했는데 예기치 않은 상황을 보고 크게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해 보였다. 그런 긴장된 순간이 흐르고 있을 때 싸움 도중에 내 가방을 훔쳐간 톨마니 조폭이 큰소리로 외쳤다.

“형님! 이 근처 C무덕관 애들 같습니더! 빨리 토깍시더!”

우리들이 싸우고 있을 때 내 가방을 훔쳐간 나이가 비교적 어려 보이는 놈이 가방 속에 돈이라도 될 물건이 있나 싶어 열어보니 내 유도복과 검은 띠에 새겨진 무덕관 이름과 내 이름을 보고 크게 놀

라서 외쳤던 소리였다.

조폭들은 크게 술렁이더니 순식간에 달아나기 시작했다. 나는 황수문이 허리를 감싸고 있는 것을 보고 옷을 벗어보라고 했다. 피가 쏟아지면서 창자가 희멀쩡게 비쳤다.

나는 러닝셔츠를 찢어서 황수문의 허리를 감아 주고 러닝셔츠의 일부분을 찢어서 조폭이 휘두른 잣에 찢어진 검지와 팔뚝을 칭칭 감은 후 교통부 인근에 있는 외과병원으로 황수문을 부축해서 데려갔다. 그곳에서 황수문은 사십 바늘을, 나는 열여덟 바늘을 꿰맸다.

그렇게 수술을 했어도 오늘밤 조폭들과 싸운 것은 하동역과는 달리 억울함은 없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하동역과는 달리 개 맞듯이 일방적으로 맞지 않았고 정정당당하게 싸웠기 때문이었다.

나는 싸우는 과정에서 칼에 맞은 상처만 생각했는데 병원 문을 나서니 온 전신이 아팠다. 황수문은 병원에 입원을 하고 나는 병원을 빠져 나왔다. 하숙집으로 돌아온 나는 상처부위가 굵지 않게 병원에서 받은 과산화수소를 바르고 항생제도 복용했다.

그리고 일주일 지나고 다시 병원을 찾아가서 기운 실밥을 뽑아내고 근처에 있는 무덕관을 찾아갔다.

아직도 몸이 정상이 아니어서 운동은 할 수가 없었다. 몸을 풀기 위해 여러 가지 체조를 하고 있는데 무덕관에 함께 다니는 고교 후배가 내 곁으로 다가 와서 말했다.

“선배님! 박초혜라는 선배님 애인 있지예? 선배님이 무덕관에 결석해서 안 오던 날부터 매일 무덕관에 찾아와서 근심이 가득 찬 표정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저가 선배님 하숙집을 찾아가보라고 했

더니 하숙집을 모른다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연락처 알면 전화 꼭 좀 해주이소.”

후배는 걱정스런 표정으로 재촉하듯 말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날 삼성극장에서 헤어진 후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일주일 넘게 무덕관에 나오지 않을까 궁금했을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몸 전체에서 통증이 느껴져서 더 이상 무덕관에 있을 수가 없었다. 사범에게 몸이 많이 아프다는 말을 남기고 무덕관 문을 열고 나오자 무덕관 정문 쪽으로 걸어오던 초혜가 먼발치에서 나를 먼저 알아보고 급히 달려왔다.

그리고 약간 절면서 걸어가는 내 모습을 보더니 놀라는 표정으로 말했다.

“오빠, 그날 크게 싸운 거 맞죠? 많이 다친 거 맞죠? 아직 얼굴에 흔적이 남아 있네요!”

초혜는 내 얼굴부터 먼저 살핀 후 흉터가 생긴 오른손을 보면서 크게 놀라워했다.

“아니? 오빠 이걸 찢어져서 기운 흔적이잖아요!”

초혜는 놀란 표정으로 또 다른 신체부위에 상처가 있는지 살피느라 내 몸을 꼼꼼히 살폈다.

“오빠! 몸이 많이 골병든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침을 맞도록 해요, 응?”

초혜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파닥파닥 뛰었다. 그러나 나는 마음속으로 이런 몰골로 어떻게 초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으랴하는 마음이 들어 머리를 가로 저었다.

“초혜야! 내가 운동하다 다친 것도 아니고 싸워서 다쳤는데 어떻

게 너희 아버지한테 찾아 가겠노. 갈 수 없어. 나보고 싸움꾼이라고 얼마나 실망하실까. 그러니 갈 수 없어.”

나는 절대로 갈 수 없다고 손사래를 쳤으나 초혜는 아버지가 한 의사이기 때문에 많은 부류의 환자가 찾아오는데, 게 중에는 싸워서 골병든 환자도 더러 온다면서 이런 건 아무런 흉이 될 수 없다며 자기 집으로 가자며 팔을 잡고 매달렸다.

나는 오늘밤만 자고 그래도 더 아프면 초혜의 뜻에 따르겠다고 다독여주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하숙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초혜집에 가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다. 그러기 위해서 촌음을 다 튀어서 빨리 회복하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하고 유도할 때 상대선수와 심하게 부딪혔을 때 주로 바르는 요오드팅크와 과산화수소를 혼합액을 온몸에 발랐다.

그런 결과로 피부는 서서히 아물었지만 뺨속이 문제였다. 속 골병이 든 듯 자꾸 통증이 와서 학원은 물론 무덕관에도 가지 못하고 방에 드러눕고 말았다.

한편으로 초혜는 다음날도 내가 걱정이 된 듯 무덕관을 찾아왔고 무덕관의 고교 후배들과 대화 도중에 그날 벌어진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던 듯 했다.

그것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고 말았다. 모교 유도부에서는 지난해 하동역 사건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터라 올해 또 유도부 선배들이 당했다는 점에서 크게 분노했다. 그것도 학교와 일 킬로미터 반경의 범일동에서 벌어진 것을 알고 크게 흥분하면서 동요했다.

그것도 유도부 수장인 황수문이 지난해에 이어 연거푸 두 번씩이나 당했다는 것은 모교 유도부를 짓밟았다고 여겼다. 그러므로 도

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후배들은 분노했다. 무덕관은 무덕관대로 우리 관내에서 유단자 관원이 조폭한테 당한 점에 엄청난 치욕을 느끼고 있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조폭들을 찾아내어 응징해서 무덕관의 자존심을 세우고 무덕관 주위에 아예 조폭들이 얼씬도 못하게 해야 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또 인근에 있는 당수도장 사범도 무덕관에 놀러 왔다가 조폭들 소탕하는데 자기들도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선배님 계십니까?”

고교 유도대표 세 명과 무덕관 대표 세 명이 무덕관의 관원일지에 적힌 내 주소지를 들고 복덕방을 통해 물어물어 내가 살고 있는 하숙집을 찾아와서 문밖에 벗어 놓은 내 신발을 보고 내가 있음을 인지하면서 불렀다.

나는 아직도 통증이 가시지 않은 갈비뼈 부분에 요오드팅크를 바르고 있는 중이었다. 내 이름을 부르면서 미닫이문을 스프르 열다가 이런 내 모습을 목격한 후 후다닥 들어와서 흥분된 어조로 말했다.

“선배님, 왜 진즉 말씀 안 했습니까? 조폭 새끼들 진짜 가만히 안 둘 겁니더!”

누워있는 내 모습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다짜고짜로 말하던 후배와 관원들이 방으로 들어와서 내 곁에 나란히 앉았다. 놈들은 체격이 워낙 크지라 세 명만 남고 나머지는 밖으로 나간 후 관원이 차분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형님이 이런 일이 있는 줄 모르고 며칠씩 결석을 하니 사범님이 광휘는 앞으로 유도를 그만 두려나 하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왜

진즉 이런 상황을 얘기 안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어찌 우리가 형제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관원들이 말을 이으면서 원성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래 미안하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좋은 일도 아니고 일이 크게 번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번 일은 형님 혼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건을 일으켜서 무덕관의 명성에 먹칠을 했다고 관장님이 쫓아내도 저희들은 할 깁니다.”

“관장님도 알고 계시나?”

“관장님은 모르고 사범님을 알고 있어예. 사범님은 우리에게 관장님께는 비밀로 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일인데 확대해선 안 돼!”

“학교에서는 유도부원들끼리 결행을 다짐했습니다.”

곁에서 듣고 있던 고교 후배도 덧붙였다. 후배와 관원들의 결연한 의지를 보면서 나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다.

그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마음을 진정시킨 듯 차분하게 내게 물었다.

“그놈들 중 한 사람 정도는 얼굴을 기억하고 있지예?”

관원이 다그쳐 묻기에 싸운 시간도 밤 열시 이후였고 어두운 골목길에서 싸운 관계로 얼굴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했으나, 오른쪽 입술에 칼자국이 선명했던 조폭과 또 한명의 조폭은 체구가 작으면서 눈자위 부근에 큼직한 점이 있었던 얼굴을 떠올렸다.

그렇게 인상착의에 대해서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 김병헌은 내 건강이 회복되었는지 잭나이프에 그어져 기운 실밥은 뽑았는지 궁금했던 듯 하숙집을 찾아왔다. 문밖에서는 고교 선후배끼리 나누는

인사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려왔다.

“아이고!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S예술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해서 영화배우 하실건가요? 아니면 연극배우 하실건가요?”

학교행사 때마다 인기 만점이었던 김병헌을 후배들이 알아본 듯 시끌벅적했다.

체격이 큰 유도부원들이 찾아온 것을 보고 예기치 않는 상황을 눈치 챈 김병헌이 방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잠시 나와 나눌 얘기가 있다며 자리를 비켜달라고 양해를 구한 후 내 곁으로 바짝 다가와서 말했다.

“광휘야! 밖에 후배들과 너거 무덕관 애들이 찾아온 걸 보니 사건 전모를 알고 엄청 화가 난 모양인데 어떻게 수습하려고 하노?”

“안 그래도 그 문제를 가지고 방금 전까지 얘기를 나누는 중인데, 괜히 사건만 확대시키는 것 같아서 조폭들 응징 문제에 반대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 이럴 때 황수문이라도 있으면 상의해 볼 텐데. 다친 몸으로 서울에 올라간 걸 보니 무슨 중요한 학교행사가 있나 본데. 참 답답하네.”

내 말을 듣고 있던 김병헌은 무슨 중요한 결심을 한 듯이 말했다.

“광휘야! 무엇이던지 참는 것만 능사가 아니야. 우리가 먼저 시비를 걸거나 피해를 입힌 것도 아닌데 우리에게 떼거리로 몰려와서 골목길로 몰아넣고 잭나이프를 휘두르고 폭력을 행사했어. 이걸 그냥 두면 제2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으니 약자를 보호해주는 차원에서라도 이번 기회에 버르장머리를 고쳐주는 것도 조폭 조직에 경종을 울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번 하동역 사건 때는 부산에서 거리가 떨어져 참고 있었지만 이번은 달라. 이곳은

부산이고 학교에서 일 킬로미터 이내이고 이런 조폭들이 우리 모교 학생들에게 돈도 갈취한다는 소문도 들었어. 또 자기들 조직 확대를 위해서 후배 중에서 만화방이나 당구장에 출입하는 학생 중에 이미 그 조직에 가입한 후배도 몇 있다고 소문 들었어. 그래서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방금 후배들이 말하는 그 방법에 동의한다.”

나는 김병현의 긴 설명을 듣고 나서 가슴 깊은 곳에서 김병현의 의견을 따르는 정의의 목탁소리가 조금씩 들려왔다.

‘불의를 보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비겁한 짓이다. 그것은 겁쟁이가 선택하는 길이다.’

나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었다.

김병현은 방문을 열더니 조금 전에 방에 있었던 두 명의 대표를 다시 방으로 들어오게 했다.

그런 후 김병현은 노트에다가 그날 만났던 조폭들의 인상을 몽타주로 그리기 시작했다.

“한 놈은 오른쪽 눈 밑에 커다란 점이 있고, 한 놈은 입술에 세로로 그어진 칼자국이 있고, 한 놈은 팔뚝에 쌍도끼 문신이 있었고, 한 놈은 팔뚝에 장미꽃을 문신했었어.”

김병현이 군 지휘관처럼 가장자리에 앉아서 구체적으로 조폭 소탕계획을 세우면서 작전을 세워갔다.

내일 각자 점심을 먹고 한시 반까지 삼성극장 앞에 모이기로 했다. 참여인원은 모교에서 유단자 삼십 명, 무덕관에서 유단자 삼십 명이 나오되 그 놈들이 칼을 소지하고 있으니 모교 유도관에 있는 곡괭이자루와 야구방망이를 챙겨 올 것 등을 의논한 후 돌아갔다.

나는 그들을 보내고 나서 마음이 편하질 않아 거의 뜬눈으로 밤을 보냈는데, 김병현도 어제 한숨도 잠을 자지 못했다며 눈자위가 별절게 되어서 이튿날 하숙집으로 다시 찾아왔다.

“병현아! 오늘 만약 후배들이 많이 다치면 어떡하지? 사건이 사회에 알려져서 모교 은사님들도 알고 전교생들이 알면 우리들은 부끄러운 제자와 선배로 남지 않을까?”

“글쎄 말이다. 그런 점이 염려되어서 나도 밤새 오늘 일이 걱정이 되었어.”

김병현과 나는 오랜 숙의 끝에 일단 주사위가 던져졌으니 뒷일은 접어두고 나가자고 했지만 개운치 않았다.

오늘은 토요일이고 토요일은 극장에 오는 사람들도 많은데 덩치 큰 장정 수십 명이 몽둥이를 들고 몰려다니면 엄청나게 큰 사건으로 비춰져서 누가 경찰에 신고나 하지 않을까 염려도 되었다. 그렇다고 약속을 취소할 수도 없지 않은가.

김병현과 나는 약속시간보다 삼십분 빨리 삼성극장 앞으로 갔다. 그리고 상영하고 있는 영화 내용 중 주요장면을 흑백사진으로 소개해놓은 게시판이 기웃거리다가 게시판 근처에 있는 구두닦이들의 자리를 목격했다.

사건이 터진 날 조폭들과 구두닦이들이 대화를 나누었던 기억이 나서 구두통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나 구두닦이들이 구두수거를 하러 갔는지 자리가 비어 있었다. 구두약이며 걸레조각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었고 구두통만 덩그러리게 자리 잡고 있었다.

구두닦이들한테 물어 보면 이곳 조폭들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텐데 하는 마음으로 김병현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동안, 부산진시

장 쪽에서 모교 후배들 삼십여 명이, 교통부 방향에서는 무덕관 관원들이 삼십여 명, 그리고 인근 당수도장에서 합류한 듯 낯선 청년들 스무 명 정도가 우리가 서 있는 쪽으로 무거운 표정을 짓고 몰려왔다. 무덕관이나 당수도장 관원들과는 달리 모교 후배들은 야구방망이와 곡괭이자루를 어깨에 걸치고 걸어 왔다.

“선배님, 어제 하숙집에서 여기 구두닦이한테 물어보면 놈들의 행방을 알 수 있다고 했지예. 그런데 이놈들이 아무도 없네예. 벌써 눈치 채고 토끼뽀 거 아입니까?”

후배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극장 안에서 구두를 수거해서 들고 나오는 구두닦이들을 보았다. 그들은 양손에 구두를 들고 두 놈이 한 건 했다는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생글생글 웃으면서 걸어오고 있었다.

김병헌은 구두닦이를 알아보고 큰 목소리로 외쳤다.

“야! 저 놈! 눈 밑에 점 있는 놈 잡아라!”

예기치 않은 상황에 놀란 점박이 구두닦이는 들고 있던 구두를 내팽개치고 달아났다. 그러나 재빠른 후배 두 명이 쫓아가서 한 명은 멱살을, 또 한명은 허리춤을 잡은 채 끌고 우리 쪽으로 데리고 왔다.

“선배님, 이 새끼들 맞습니까?”

후배는 숨을 헐떡이며 내게 물었다.

점박이는 나를 쳐다보더니 시선을 깐 후 벌벌 떨면서 말했다.

“저는 때린 적 없어예.”

나는 그날 입은 상처 흔적을 보여주면서 다그쳤다.

“야 이 새끼, 너 내 알겠제?”

“저는 형님들 따라서 한 것 뿐입니다. 살려 주이소.”

점박이는 일반인들보다 체구가 엄청나게 큰 청년들을 보고 온통 겁을 먹고 수전증 환자처럼 손을 덜덜 떨면서 계속 용서를 빌었다.

그때 C무덕관원이 앞으로 나서며 구두담이의 멱살을 잡고 말했다.

“니가 오늘 살고 싶으면 바른대로 말해라. 오늘 우리 C무덕관은 조폭들을 소탕하러 K고교와 당수도장이 합작했다. 그날 칼 휘두른 놈들 지금 어디 있노? 아지트가 어데고? 빨리 말해!”

조폭들 하부조직의 톨마니로 보이는 점박이는 우리들로부터 엄청나게 겁을 집어 먹었지만 그렇다고 아지트를 선불리 가르쳐주면 자기 조직원들의 후환이 두려웠던지 말을 더듬거리기만 했다.

“이 새끼! 모가지 울대를 끊어줄까?”

몸집이 거구인 모교 유도부원이 한 손으로 점박이 목을 닭 모가지 울대를 쥐듯 꼭 쥐고 후 들어 올렸다. 점박이는 달랑 들린 채 돼지 목 따는 소리를 지르면서 살려달라는 듯 손을 짹짹 빌다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으면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지 손가락을 남동쪽 방향을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쪽 좌천동 금성고교 아래쪽에 가면 넓은 공터가 있는데 그곳 고목나무 아래 평상에 가면 술 먹고 놀고 있을 겁니다.”

우리들은 점박이를 앞장 세워서 오백 미터 정도 거리에 있는 공터로 몰려갔다.

느티나무 고목 아래 평상에는 조폭 네 명이 드러누워 있었고, 한 명은 앉아서 주간잡지책을 뒤적이고 있었다.

모교 유도부원이 점박이를 보며 말했다.

“저 새끼들 맞나?”

점박이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렇다고 대답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들은 조폭들이 달아날지 모르니 원을 만들어서 포위한 후 체포하자고 했다.

잡지책을 뒤적이던 조폭들은 점박이가 잡혀서 올라오고 야구방망이와 곡괭이 자루를 어깨에 멘 청년 수십 명이 몰려오자 떨리는 목소리로 자고 있던 동료들을 깨웠다. 술김에 일어난 조폭들은 몸둘 바를 몰라 하며 네모진 평상 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허둥댔다.

“에이 씨필! 저 새끼들 뭐꼬?”

“어이 조폭 새끼들! 우리 안면 있제? 며칠 전 삼성극장 골목길 일을 잇은 건 아니겠제?”

나와 김병현이 일행들보다 몇 발자 앞서 나가며 말했더니 조폭들은 금세 눈치를 채고 놀라는 기색으로 주위를 훑어보았다. 그리고 원을 그려서 포위하고 있는 청년들과 뺨뺨머리 고교생들의 체격이 하나같이 떡 벌어진 점을 보면서 크게 놀란 듯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야! 치고 빠져 나가서 빨리 애들 델꼬 온나!”

그들 중에 조금 연장자로 보이는 조폭이 찢어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물러설 공간이 없다고 판단한 듯 모교 유도부들 쪽으로 선수를 쳤다.

그들은 술 취한 상태로 비실거리며 덤벼들었고 모교 유도부원들은 한 명씩 조폭들을 상대해서 업어치기로 던져버렸는데 크고 작은 바위들로 울퉁불퉁한 노면 위에 꼬꾸라지면서 비명을 질러댔다. 그 중에 도망치던 한 명은 당수도장에서 온 청년의 옆 발차기에 턱을 맞고 꼬꾸라졌다. 다리를 절룩거리려는 놈과 허리를 세우지 못한 놈들을 끌고 와서 평상아래 무릎을 꿇게 했는데 그때 죽은 체 누워있

던 한 놈이 갑자기 일어나서 죽자 사자 달아났다.

“그날 우리를 골목길에 몰아넣었던 다른 놈들은 또 어디 있어? 세 명은 여기 남고 한 명은 가서 그날 함께 행동한 놈들을 한 시간 이내에 모두 데리고 온나! 알겠제?”

김병헌은 야구방망이로 조폭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다.

“너거들 오늘 통닭 몇 마리 먹었노?”

김병헌은 평상 주위에 흩어진 닭 뼈다귀를 보면서 말했다

“다섯 마리 먹었소.”

“네놈들은 뭐해서 돈 벌기에 우리는 한 달에 한번 먹기도 힘들고 또 먹을 때는 한 마리 가지고 세 명이 나눠 먹는데 한 번에 다섯 마리씩 먹노? 그런 돈은 어디서 나왔노? 닭 목뼈를 보니 다섯 마리도 더 되어 보이는데?”

김병헌이가 닭 뼈를 야구 방망이로 뒤적이며 묻고 있었으나 조폭들의 수입원은 뻔하다. 조폭들이 주로 하는 짓거리는 극장이나 목 좋은 자리에서 구두닭이로 번 돈과 부두 하역인부들에게 갈취한 돈, 노점상 자리세, 일본이나 동남아 지역에서 오는 어선이나 상선을 대상으로 밀수거래, 술집 영업권 및 접대부 기동서방으로 머물면서 여자가 몸 팔아 번 돈 갈취, 기타 극장가 압표상 등의 못된 짓을 골라서 하는 조직임은 이미 세상에 알려진 사실이다.

한 시간이 흐르고 해거름이 질 무렵 우리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몰려오는 웅성거리는 소리들이 범일동 방향의 골목마다 들리더니 삼십여 명의 조폭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무덕관원들에게 몽둥이를 든 사람이든 아니든 지형이 낮은 쪽에 위치하는 것이 유리하니 아래쪽으로 흩어지라고 일렀다. 왜냐

면 유도는 상대의 힘을 유인해서 쓰러뜨려야 하기 때문에 아래쪽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그것을 전혀 눈치를 차리지 못한 조폭들은 자기 조직원들이 무릎을 꿇고 있는 약간 높은 위치의 중앙으로 우르르 몰려왔다.

“조폭 새끼들을 많이도 델꼬 왔네. 이 새끼들이 범일동 조폭들 모 두가?”

C무덕관 사범이 팔짱을 낀 자세로 말했다.

“야 이 새끼들아! 너저들은 여기가 뭇자리가 되는 줄 알아라. 여기가 어데라꼬 겁대가리 없이 우리 구역에 나타났노. 조금 있으면 서면에서 많이 올끼다. 너저들은 죽었다! 각오해라, 개새끼들아!”

무리 앞으로 불쑥 걸어 나온 스포츠형 머리를 짧게 한 조폭이 눈을 부라리며 말했다.

“조폭새끼들! 너희들은 오늘 이후 범일동에서 발붙일 곳이 없다고 각오해라. 야들아, 지금부터 조폭들을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조저 뿌라.”

당수도장 사범이 한발 앞서며 말하자 관원들이 좌측에서 뛰어 들었고 무덕관원은 우측에서, 고교 후배들은 아래쪽에서 포위망을 좁혀오면서 난투극이 벌어졌다.

조폭들 중에서도 제법 이소룡의 흉내를 내듯 펄펄 나는 놈도 몇 있었으나 체격이 좋은 후배들은 주먹을 맞으면서도 멧집으로 버티다가 허리를 꺾은 후 집어 던져버렸다.

삼십 명 정도의 조폭들을 제압하는 것도 한 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곳곳에서 비명이 들리고 끝까지 저항하는 놈들을 당수도장 관원들이 이단 옆차기로 마무리하기까지 조폭들은 깡다구로 버티

고 있었다.

그때 팽나무 고목 뒤쪽에서 양복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청년 일곱 명이 한 사람을 보디가드 하듯이 에워싸고 걸어오고 있었다.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두들겨 맞은 조폭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띠고 있었다. 우리들에게 박살이 났던 조폭들은 무릎을 꿇고 포로처럼 앉아 있었는데 일곱 명의 조폭들은 이곳 조폭들을 쳐다보면서 눈살을 찌푸렸다.

“야! 저 새끼들은 또 누구?”

유도 사범이 우리들에게 얻어맞은 후 생포된 조폭에게 물었다

“부산역부터 범일동과 서면 지역을 총괄하는 조직의 부두목입니다.”

“그라든 저 새끼도 조져버려야 되는 거네. 일제히 공격 자세를 취해라! 부두목이라 카는 거 보니까 지 나름대로 주먹이 세다는 뜻인데 지가 세 봐야 얼마나 셀 끼고. 오늘 아예 허리 불구자를 만들어 뿌자!”

“광휘야! 저 조폭 부두목이 범일동에서 활개를 친다면 우리 학교 학생들을 자신의 조직에 흡수시킨 나쁜 놈이잖아. 이번 기회에 저 놈을 단단히 혼을 내서 못된 버릇을 고쳐 놓아야겠어.”

김병현이 내게 말한 후 유도부원을 이끌고 있는 후배 유도부장 곁으로 갔다.

부두목이라는 조폭은 조폭 톨마니들을 마치 순찰하듯이 살핀 후 싸울 의사는 전혀 없어 보이는 자세로 우리들 앞으로 다가와서 허리를 직각으로 숙이며 정중하게 사과했다.

“얘기는 들었소. 먼저 번에 우리 애들이 정말 큰 실수를 한 것 같

으니 한번만 용서해 주었으면 좋겠소. 그라고 며칠 전에 우리 애들한테 다친 분들에게 치료비로 얼마 되지 않지만 받아주시면 고맙겠소.”

부두목이 양복바지에 왼손을 넣은 채 오른손을 옆으로 내밀자 뒤쪽에 대동한 조폭이 양복 속에서 흰 봉투를 꺼낸 후 유도 사범에게 건넸다.

나와 김병헌은 한목소리로 말했다.

“치료비는 필요 없소. 앞으로 범일동 지역에서 우리 무덕관원은 물론 고교생들을 절대로 괴롭히지 말 것과 공부하는 학생들을 조폭들 무리 속에 넣지 말 것을 약속해주면 이것으로 화해된 걸로 하겠소.”

그런 일은 앞으로 절대 없게 하겠다는 조폭 부두목의 말을 믿기로 하고 우리들은 철수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조폭 소탕 작전은 끝이 났다. 싸우는 과정에서 우리 쪽에서도 작은 부상들이 있었지만 조폭들에 비하면 새발의 피였다. 조폭들을 남겨두고 우리들은 언덕을 내려왔는데 등 뒤쪽에서는 조폭 부두목이 풀마니들에게 뺨을 때리는 소리와 함께 큰소리가 찌렁 찌렁 울러 퍼졌다.

“야! 이 씹새끼들아! 내가 항상 뭐라꼬 시키더노. 고교생들은 조심해라꼬 안카더나! 고교생들은 뿔따구가 나면 물불을 안 가린다 말이다! 그라고 싸울 때는 항상 근처 무덕관이나 당수도장에 다니는 애들인지 눈여겨 보라꼬 안 카더나. 이 병신 새끼들아! 내 나이가 마흔이 넘었는데 나이 어린 저런 애들한테 허리 숙여 사과하게 만들고 굴복케 하다니! 인마! 너거들이 오늘 병신이 될라꼬 환장 한기

다. 에이 개새끼들! 그렇게 조심해라 했는데!”

부두목은 분을 삭이지 못하는 듯 무릎을 꿇고 있는 툇마니들에게 발로 차고 뺨을 후려쳤다.

우리들은 처음 만날 때 모였던 삼성극장 앞으로 돌아와서 오늘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학교와 무덕관에 일체 비밀로 하기로 하고 후배들은 학교로, 관원들은 무덕관으로 제각각으로 흩어졌다. 나는 김병헌과 인근의 빵집에 가서 배를 채우고 하숙집으로 돌아왔다.

하숙집의 방으로 들어오니 긴장이 풀린 듯 몸이 축 쳐졌다. 나는 요를 깔고 누워서 오늘 일어났던 일들을 되짚어 보았는데 생각할수록 엄청난 사고를 저질렀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태어나서 남을 구타해 본 적이 없었는데 조폭들이지만 구타를 하고 크게 상처를 입혔다는 사실에 마음이 편하질 않았고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였다. 이러다간 나도 깡패가 되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들었다.

‘매 맞은 놈은 다리를 펴서 자고, 남을 때린 놈은 다리를 오그리고 잔다’라고 하셨던 할아버지 말씀이 다시 떠올랐다.

그랬다. 그날부터 나는 몸을 오그려 새우잠을 잤다.

6. 박하사탕

사랑은 아름다운 것도 슬픈 것도 아니다.

조폭 소탕작전을 마친 후 C무덕관에 매일 갔으나 몸은 여전히 정상
상이 아니었다. 자꾸 온몸에서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상체를 뒤틀
어보면 허리 부분에서 우두둑 소리가 나면서 신체 곳곳이 아팠다.
나는 정말 온몸이 반 골병이 든 걸까 싶어 이런 건강 상태에 대해서
무덕관 관장님과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여름 보충수업을 마친 초혜
가 해거름께 찾아왔다.

“내가 우리 아빠한테 오빠 일을 말씀드렸어요. 운동을 하면서 많
이 다쳤다고 했더니 골병든 몸은 침으로 다스려야 된대요. 그러면
서 오빠를 꼭 데려오라고 했어요.”

초혜는 무덕관 앞쪽에 있는 느티나무 아래에서 팔짱을 꼭 끼며

집으로 가자고 졸랐다.

나는 초혜 더러 왜 쓸데없이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했느냐고 투덜거렸다. 그리고 내가 침을 맞으면 다른 한의원에 가서 맞지 초혜 아버지에게 맞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오빠가 나의 진심을 그렇게도 몰라주니 속이 상해서 못 살겠어요.”

초혜는 시큰둥한 표정을 지은 후 무덕관 밖으로 나가버렸다. 나는 초혜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무덕관 안으로 돌아왔다.

한 시간 정도 지났을 쯤 관원이 내게 와서 관장님이 나를 찾ند다고 했다. 관장님의 사무실에 문을 노크했더니 관장님은 전국체전 부산지역 유도대표선발 대진표를 살펴보고 계시다가 내가 들어서자 소파에 앉으라고 권했다.

“광휘야! 방금 전에 박초혜라는 여학생이 보림극장 앞의 공중전화라며 전화가 왔는데 자기 집으로 꼭 좀 보내달라고 통사정 하더라. 자네가 몸이 안 좋으면서 그곳으로 안 갈려는 이유를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어. 다른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하면 되지만 침 맞는 것 외에 한약을 장기 복용해야 회복이 된다는데 그렇게 되면 치료비도 만만찮고, 여하튼 잘 생각해서 처신하길 바란다. 그리고 그 여학생이 저 길 건너 양과자점에서 자넌 기다리고 있겠다고 했다. 안 오면 밤을 새우겠다고 말하면서 기다린다고 하더라. 그리고 빨리 몸이 완쾌돼서 금년 전국체전 부산 유도대표 선발전에 출전도 해야 되지 않겠나?”

관장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초혜가 했던 말도 관장님의 말씀도 모두 옳은 말이라는 걸 깨달았다. 내가 지금 집에서 치료한다는 것은 고작 약을 바르는 것 밖에 없으니 속 골병든 게 나를 리가 만무하

다 싶었고 한약 값이 엄청 비싸다는 것을 들으니 더욱 그랬다.

나는 무덕관을 나와서 초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양과자점 쪽으로 터벅터벅 걸어갔다.

양과자점 문을 여니 초혜는 기다리다 지친 듯 의자에서 졸고 있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눈을 뜨면서 나를 쳐다보더니 뿔로통해져 입을 삐죽거리고 있었다. 나는 머리를 긁적이며 미안하다고 운을 떼면서 초혜의 손을 잡았다. 초혜는 다소 기분이 풀린 표정으로 의자에 앉는 나에게 말했다.

“오빠. 우리 집에 가는 것, 마음으로 결정했어요?”

내가 고개를 끄덕여 보였더니 초혜는 얼굴을 활짝 펴고 웃으며 큰소리로 말했다.

“와! 신난다. 만세! 오빠, 빨리 빵 좀 먹고 집으로 가요. 아니 그냥 봉지에 담아 집에 가서 먹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점원을 불러서 양과자를 봉투에 담아 달라고 했다. 그리고 나는 우유만 별걱 마신 후 의자에서 일어났다.

양과자점을 나오면서 초혜는 내 팔짱을 끼며 명랑하게 말했다.

“지금부터는 내가 오빠의 전속 간호사가 되어줄게요.”

초혜는 양과자점 앞의 승강장에서 버스에 오르는 나를 부축하면서 의자에 앉혔다.

도심의 거리는 폭염으로 말미암아 열기를 내뿜으며 숨가쁘게 헐떡거리고 있었다. 버스는 좌천동 일신병원 앞은 멈추질 않고 부산역으로 곧장 가서 그곳 정류장에 섰다. 나는 얼떨결에 부산역 광장을 쳐다보고 있었다.

부산역 광장은 일 년 전의 모습과 꼭 같은 풍경이 연출되고 있었

다. 캠핑을 떠나는 학생들이 기타를 메고 삼삼오오 모여서 웃고 있는 모습이 곳곳에 어우러져 있었다.

그런 모습을 몰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초혜도 그때의 추억을 떠올린 듯 내 곁으로 다가와서 귀에다 대고 말했다.

“오빠,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고 있어요?”

초혜가 갑작스레 속삭이듯 물어서 나는 무슨 뜻인지 몰라서 되물었다.

“글쎄? 무슨 날일까?”

초혜는 내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말했다.

“어이쿠! 오빠는 둔해요. 남자는 원래 모두 그런 거예요? 오빠만 그런가? 오늘이 오빠와 부산역에서 처음 만난 날이잖아요.”

초혜는 처음 만난 그날의 추억을 회상하는 듯 눈을 지그시 감고 말했다. 그런 후 내 손을 꼭 쥐면서 말했다.

“오빠! 미영이가 건넨 반지 안 받은 거 정말 잘 했어요. 학교에서 봉자한테 얘기 들었는데 오빠의 진심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고 오빠의 마음이 어느 방향인 줄 알았으니 친구들이 저보고 오빠한테 잘 해주라고 말했어요. 오빠, 정말 고마워요.”

나는 초혜가 속삭이듯 말하는 얘기를 들은 후 미영이와 변함없는 우정을 당부하면서 칠공주들 속에서 소외감을 받지 않게 잘 해주라고 당부도 했다.

버스에서 내려 초혜집으로 향하는 길에 점방에 들렀다. 오늘은 초혜집에 치료 받으러 가는 길이므로 빈손으로 갈려니 웬지 낮간지러워서 박하사탕 한 봉지를 샀다.

초혜집으로 가는 후문 길목에서 호랑가시나무로 길게 만들어진

생울타리를 만났다. 호랑가시나무는 연록빛의 작은 열매를 무더기로 만들어 놓고 햇살에 열매를 익히고 있었다. 생울타리가 끝나는 지점에 작은 목재대문이 나타났다.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서니 넓은 마당이 펼쳐졌다. 대청마루를 물결레질 하고 있던 식모 봉순이가 나를 알아보고 방긋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와 눈인사를 나누는 동안 초혜는 아래채 한의원 진료실로 들어가더니 작은 뒷문을 열면서 나를 불렀다.

“오빠! 아빠께서 이쪽 방으로 들어오래요.”

진료실은 큰 마루 형인데 일본식 다다미로 되어 있었고 대여섯 명의 환자들이 누워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초혜 아버지는 반기며 말했다.

“자네 왔는가. 저쪽 작은 방에 가서 좀 누워 있게. 이쪽 한 사람만 더 진료를 보고 가겠네.”

작은방으로 들어간 나는 초혜가 베개를 내려주며 누우라고 했으나 초혜 아버지가 오기 전에 누워 있을 수 없다며 벽을 기대고 앉아 기다렸다. 잠시 후 한의원 보조원을 대동하고 나타난 초혜 아버지는 마치 필통 같은 작은 구리빛 통을 들고 와서 내 앞에 내려놓았다.

“자네 누워 있지 않고 왜 앉아 있는가?” 하면서 반듯하게 누우라고 말했다.

초혜 아버지는 눈을 지그시 감은 후 나의 오른 손목에다 손가락 두 개를 가지런히 놓으면서 진맥을 잡기 시작했다.

“혈이 곳곳에 막혀 있군. 이렇게 혈이 막혔는데 어떻게 하루하루를 지냈는가?”

초혜 아버지는 혀를 끌끌 차면서 구리빛 통속의 침을 보조원으로

부터 하나씩 전달 받은 뒤 얼굴부터 손가락, 어깨, 발가락, 발등, 무릎까지 삼십 개가 넘는 침을 놓기 시작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은 몸의 앞쪽을 치료하고 일주일 후부터는 몸 뒤쪽에 쑥뜸을 놓을 것이야. 하숙집이 전포동이면 멀어서 불편하니 집에 가지 말고 우리 집에서 먹고 자면서 치료 받도록 하게.”

나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듣고만 있었는데 아버지가 침을 놓고 진료실을 빠져나가자 초혜는 기다렸다는 듯이 내 귀에다 대고 말했다.

“오빠! 너무 잘 되었어요. 올 때 내가 말했죠? 내가 간호사가 되어 준다고. 마침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시니 더 잘 되었어요.”

나는 주위의 이목이 있으므로 나에게 대해선 신경 쓰지 말고 불 일을 보라고 초혜에게 말했으나 그런 문제는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한다며 외려 내게 신경 쓰지 말라고 누나처럼 말했다.

한 시간쯤 지났을 무렵 보조원이 방으로 들어오더니 꽂아둔 침을 하나씩 뽑고 있을 때 문밖에서 초혜를 부르는 식모 봉순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가씨, 과외수업 선생님이 왔어요.”

나는 초혜가 받고 있는 과외수업이 여러 가지로 궁금했다.

과외수업을 몇 시간이나 하며 무슨 과목을 하고 과목당 한 달에 얼마 주는 지 궁금해서 이것저것을 물었다.

“영어와 수학을 과외수업 받는데 수업비는 과목당 일만 원 주고 각 한 시간씩 해요.”

초혜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으나 비싼 개인과외 수업비를 듣고 나는 놀라고 말았다. 내가 현재 한달 하숙비를 사천 원 주고 있는데 개인과외 수업료를 한 달에 이만 원을 준다는 말에 크게 놀랐다.

“개인과외비가 그렇게 비싸니?”

“그 정도는 쥐야 하는데요!”

내가 놀라서 묻는 말에 초혜는 오히려 나를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가우똥거렸다.

나는 초혜 더러 빨리 공부하러 가라고 등을 떠밀면서 나는 진료를 마쳤으니 잠시 후에 하숙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내 말을 듣고 있던 초혜는 팔짝 뛰면서 침 맞기 전에 아버지가 했던 말을 상기시키면서 여기서 이주일간 침 맞으라고 어른처럼 차분하게 말했다.

그렇게 말한 후 과외수업 중에 만약 오빠가 하숙집으로 가버리면 아예 자기는 수업을 빼먹고 뒤쫓아 가겠다고 가지 말 것을 다짐 받은 후에야 방을 나갔다.

나 혼자 덩그렇게 방 가장자리에 앉아 있다가 작은 작두로 약제를 정밀하게 썰고 있는 보조원 쪽으로 다가갔다. 보조원이 약을 썬 뒤편에는 약상자들이 책꽂이처럼 진열되어 있었다. 통마다 적혀 있는 이름을 마음속으로 읽어보았는데 실용한자와는 전혀 다른 생소한 한자들이었다.

그것은 식물의 이름으로 거의 고유명사인지라 낯설었다. 단지 하나같이 초두 변을 달고 있음을 알았다. 이런 식물이름을 보면서 사람의 모든 병은 자연 속에서 자라는 식물로부터 그 치유방법을 찾는다는 것을 느꼈다.

봉순은 내가 머물고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오면서 작은 소쿠리에 무언가를 들고 왔다.

“심심하실 텐데 이것을 꼭꼭 씹어 보세요.”

식모가 내려놓은 것은 건삼을 과자처럼 빻은 것이었다. 내가 씹

쓰레한 맛을 내는 건삼을 씹고 있는 동안 한의원의 영업시간도 마칠 시간이었던지 초혜 아버지는 위채로 올라가고 보조원도 퇴근 준비를 서둘렀다.

진료를 보는 아래채엔 나 홀로 덩그렇게 남게 되었고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혼자 잠을 자려니 공허해서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았다. 그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많은 형제들과 부대끼면서 자랐고 여러 명의 형제자매와 좁은 공간에서 놀기를 좋아했으므로 혼자 있거나 자는 데는 익숙하지 않아서였다.

이제라도 살짝 문을 열고 하숙집으로 가버릴까 생각을 했다. 여기서 어떻게 혼자서 밤을 지새울 수 있을까 싶어서 창밖에 펼쳐진 대신동의 야경을 쳐다본 후 벽을 기대고 비스듬히 누웠다. 구덕운동장에서는 고교야구 경기가 한참 열전을 더하고 있는 듯했다. 대낮처럼 환히 밝힌 야간조명등 아래서 단체로 몰려와 목이 터져라 응원하는 고교생들의 일사불란한 응원가와 함성이 어둠을 가르며 밤하늘에 찌렁찌렁 울려 퍼졌다.

초혜가 과외수업을 마쳤는지 아래채로 급히 내려오는 신발 소리가 ‘따각따각’ 들리더니 문을 살짝 열고 웃으면서 들어왔다.

“오늘처럼 과외수업이 지루하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어요.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빨리 마쳤으면 하고 시계만 보았어요. 지금 탕제실에서 봉순이 언니가 한약을 달이고 있는 중이에요. 치료는 물론이고 몸이 많이 허약해졌기 때문에 보약도 따로 달이고 있어요. 그러니 집에 갈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마세요, 오빠. 아셨죠?”

초혜는 의사처럼 내 이마에 손을 얹고 들으라는 듯 혼잣말로 일

렸다.

그리고 오늘이 오빠와 만난 지 일 년이 되는 날이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운전기사한테 집으로 올 때 광복동에 가서 케이크를 하나 사고 저번에 오빠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삶은 문어를 너무 잘 먹어서 돌문어와 광어 한 마리도 회로 떠서 가져오라고 부탁해 놓았으며 오늘 두 사람만의 멋진 파티를 열자고 했다.

초혜는 운전기사가 오는 동안에 동아대학교 뒷산으로 잠시 산보를 다녀오자고 말한 후 방문을 열면서 문고리를 잡은 채 식모를 불렀다.

“봉순이 언니, 김 기사 아저씨가 케이크 가져오면 아랫방에 상을 차려서 준비해줘요.”

초혜와 나는 집을 나섰다. 그리고 블록담장이 높이 쌓아진 골목 길을 걸어가면서 감탄하고 있었다.

‘부산의 부자들은 대신동에 다 모여 있다고 하더니 역시 다르구나!’

부산여중 앞이며 맞은편 계성여상 쪽의 가정집들이 전부 현대식 양옥집이었다. 집집마다 고급수종으로 분류되는 가이즈카향나무와 선주목, 금목서와 은목서, 금송과 육송들이 조경수로 심겨져 있었다. 그런 나무들은 정원사가 나무를 예쁘게 손질을 한 듯 정돈된 미가 돋보여서 화가들의 그림 소재감으로 보였다. 그리고 한집 건너 승용차의 차고가 있는 것을 볼 때 부자동네라는 소문이 헛소문이 아님을 실감하고 있었다.

나는 왠지 이방인처럼 소외감도 들었다. 그동안 내가 부산에서 만난 전포동이나 문현동, 우암동, 범천동, 당감동은 대부분 판자동네였고 집의 구조가 대부분 방 하나 부엌 하나 식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 집들은 대개가 집을 살 때 남의 돈을 빌려서 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전세방이나 셋방을 여러 칸 만들어 방세를 늘여 빚을 갚기 위한 목적으로 보였고 실제로 그랬다. 내가 하숙하는 집도 그런 집이었다. 반면에 대신동 집들은 부자들의 가옥으로 대부분 한 세대가 사는 독채들이 주류를 이뤄 생활정도가 여유로워 보였다.

또 인구밀도가 높은 조밀한 동네는 항상 소란스러웠던 반면 인구 밀도가 높지 않고 널찍하게 보이는 이 동네는 항상 고요하면서 적막하기까지 했다. 간혹 승용차의 클랙슨소리와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을 뿐이었다. 나는 조밀한 달동네였던 그런 집들에 익숙했기 때문에 대신동 집들을 보면서 도시의 빈부에 대한 사고가 고착화 되었다.

산보를 하고 돌아와서 케이크가 차려진 상 앞에 초혜와 마주 앉았다.

“오늘은 오빠와 내가 만난 지 일 년이 되는 뜻 깊은 날입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오빠와 함께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런 사랑을 가꿔가기를 약속합니다.”

초혜가 촛불을 켜고 기도하며 말했다. 나도 답례하듯 말을 이어갔다.

“소중한 사람을 만나게 해준 월하노인께 그 끈을 영원토록 이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곁에서 항상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케이크 위의 촛불을 마주 불고 샴페인을 터뜨렸다. 그런 후 달콤한 첫 키스도 나누었다.

회를 차린 음식을 식모가 들고 왔을 때 초혜는 오늘 과외수업을

하면서 영어가 어려웠던지 내게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오빠! 영어에서 숙어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럼, 당연히 중요하지. 단어 하나의 뜻이 전치사와 합쳐지면 전혀 다른 뜻을 나타내니 엄청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 우리 학교 선생님도 영어에서 숙어사전 한 권만 모두 외우면 영어공부는 절반을 한 거와 진배없다고 했어.”

초혜는 그렇게 말하는 내가 못 미더웠던지 웃으면서 말했다.

“오빠는 유도만 잘 하잖아요?”

나는 농담 섞인 말투로 초혜에게 되물었다.

“국어는 주로 어떤 종류의 문제가 많이 출제 될까?”

내가 뜻밖에 국어과목에 대한 것을 들먹이면서 어떤 문제가 시험에 자주 나올까를 묻자 초혜는 도리어 나보고 장난기 섞인 어조로 물었다.

“오빠가 말해주면 더블키스 해줄게요. 호호호.”

“정말? 음, 내가 알기로는 국어는 현대시에 대한 비교분석과 문예사조에 대한 건 꼭 나올 거고, 고전은 사모곡과 제망매가, 찬기과랑가가 나올 확률이 높고, 수학은 미적분은 기본이고 부정사, 인수분해 순으로 나올 테지. 사회는 삼권분립과 아담스미스의 경제이론과 맬더스의 인구론, 철학자 데카르트도 꼭 나올 걸. 생물은 미생물에 관한 것과 멘델의 유전법칙,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과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에 관한 것이 나올 거야. 국사는 조선, 고려, 근대사와 선사시대 순서로 나올 걸. 물리는 관성의 법칙과 베르누이 법칙은 반드시 나올 거고 화학은 원소기호를 중심으로 양이온과 음이온의 연결고리에 관한 것이 나올 걸. 영어는 전치사 넣기는 우선이고 관

계대명사나 부사 같은 구문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독해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 할 걸. 제2외국어는 독일어나 불어보다 일어가 제일 쉬울 걸.”

내가 전체과목을 나열하듯이 줄줄이 이어가면서 말하자 초혜는 나를 멍하니 쳐다보며 놀라는 눈빛으로 말했다.

“오빠는 대입 시험에 대해 전부 꿰뚫고 있네요.”

나는 웃으면서 답했다.

“인문계 고3이면 전년도 기출 문제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다 아는 상황이니 놀라지마. 하하하.”

나는 헤벌레 벌어져 있는 초혜의 입을 검지로 문질러 버렸다.

“그런데 초혜야, 왜 이 문제는 해마다 빠지지 않고 시험에 나올까?”

“그게 어떤 문젠데요?”

“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철학자 데카르트가 했던 말을 왜 격년으로 시험문제에 출제하는지 궁금해. 그 문제를 통해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깨우쳐주고 싶은 건지 의도가 숨겨진 듯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학교에서도 자주 이 문제를 출제하는데 꼭 정답을 맞히지 못하는 학생이 있단 말이야. 생각이 없는 학생인지 존재의 의미를 모르는 건지 알 턱이 없지만 학교에선 그런 급우들을 연구 대상이라 부르거든.”

내 말을 듣고 있던 초혜는 자기도 연구 대상의 사람에 해당된다며 까르르 웃었다. 그리고 과외수업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영어참고서는 성문종합영어냐, 수학은 수학1 혹은 수학의 정석이냐고 물으며 적어도 네 번 이상은 독파해야 될 거라고 말했더니 나보고 죽

집계 도사냐고 깔깔거렸다.

“그런데 말이야, 예비고사나 본고사 모두다 국·영·수 세과목의 비중은 같은데 왜 국어는 개인과외에서 제외시키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

“참! 그러네요! 이상해요.”

초혜도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는 듯 고개를 가우똥했다.

“그렇지? 그렇다고 국어가 생각만치 성적을 쉽게 올릴 수 있는 과목도 아닌데 우리나라 말이라고 쉽다고 얕보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대화는 끝이 없이 이어졌고 밤은 깊어만 갔다. 그때 마당에서 우리들의 얘기를 엿듣고 있는 듯 초혜 아버지의 헛기침 소리가 간간히 들려오곤 했다.

“초혜야, 이젠 그런 이야기 내일 하기로 하고 윗방으로 올라가서 잠을 자뉘야 내일 아침 일찍 학교 가는데 지장이 없지 않겠니?”

초혜는 가기 싫어했지만 나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라고 재촉했더니 꼭 한번만 껴안아 달라고 내게 매달렸다. 나는 가볍게 입맞춤을 해주었다.

초혜가 자기 방으로 올라간 후 나는 두 시간 전에 마신 탕약이 혈관 구석구석으로 스며드는 느낌이 들었고 눈꺼풀도 슬슬 내려앉았다. 온몸에 땀이 비 오듯 쏟아지면서 이부자리는 흠뻑 젖었다. 자다가 이불을 발로 찼다가 다시 한기가 들어 이불을 끌어당기기도 했다.

박새가 쥐틀에 걸린 꿈을 꾸고 있을 때 대신동 산복도로 쪽에서 들려오는 수탁이 깃을 치는 소리와 함께 우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났다. 나는 오늘도 이곳에 머물면서 침을 맞고 약을 복용하고 해야 할 텐데 침을 맞고 난 후 온종일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를

걱정하고 있었다. 더구나 초해도 학교엘 가버릴 텐데 무엇을 하면서 무료한 시간을 보낼 것인가 하고 궁리를 하고 있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창가에 앉아 있는데 등교하기 위해 가방을 들고 나온 초해가 내 방문을 살포시 열면서 말했다.

“오빠! 오늘 심심할 때 이 책을 읽어봐요. 수업 마치면 총알같이 달려올게요.”

초해는 검정색 표지의 책 한 권을 내밀어 주고 종종걸음으로 대문을 빠져 나갔다. 그 책은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었다.

나는 마당에 있는 펌프에 마중물을 넣어 물을 퍼 올린 후 세수를 하고 건재약초를 쌓아 둔 창고를 기웃거렸다. 그때 식모가 내 곁으로 다가오더니 아침밥 준비가 다 되었으니 대청마루로 올라오라고 했다. 대청마루에는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던 초해 아버지가 손짓을 했다.

“자네는 이쪽으로 오게. 지난번에 보니 해산물을 아주 좋아하더군.”

초해 아버지는 생선구이를 내 밥그릇 앞으로 가져다주면서 말을 이어갔다.

“요즘 사람들은 한 해 한 해 달라. 먹고 살기가 나아지니까 뱃속에 좋다는 등 음식에 민감한데 나는 몸에 안 좋은 음식은 없다고 생각한다. 뱃든지 음식을 가리지 않고 잘 먹으면 그게 바로 보약이라고 생각하지.”

초해 아버지는 덧붙여서 나더러 가리는 음식이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나는 시골출신이고 식성이 좋아서 못 먹는 음식이 없는데 개

고기를 몰래 먹다가 불심이 강한 할머니한테 들켜서 크게 혼이 나고부터 개고기만 먹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내 말을 듣던 초혜 아버지가 머리를 가우뚱하면서 말했다.

“저참! 크리스천은 교회에서 개고기 파티를 즐긴다는데 참 모를 일이네. 불교에선 먹지 말라 하고 교회에선 드러내놓고 파티를 여니 말이다.”

옆에서 듣고 있던 초혜 어머니가 말을 거들었다.

“개고기도 음식인데 먹으면 어때서요.”

초혜 어머니는 그렇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더니 초혜 아버지를 보며 말했다.

“당신은 오늘 광휘 총각의 치료는 언제 할 건가요?”

“당신이 왜 그걸 물어요?”

“온종일 집에 있으면 갑갑하잖아요. 그래서 공동어시장에 함께 가서 여러 종류의 고기도 구경하고 자갈치에서 영도 대평동 가는 통통배도 타구요. 그렇게 바람을 쐬어 주었으면 싶어서요.”

듣고 있던 초혜 아버지가 나를 보면서 말했다.

“자네 생각은 어떤가?”

“저는 좋습니다만...”

나는 진료를 받던 방으로 돌아와서 외출준비를 했다. 외출준비래야 추리닝을 벗고 기지바지를 바꿨고 입고 티셔츠를 갈아입은 게 전부였지만, 그래도 초혜 어머니의 근무지에 가면서 꼬질꼬질하게 보여서는 안 되겠다 싶어 거울 앞에서 손가락을 오므려가며 머리 손질도 했다.

문을 나서니 초혜 어머니는 화사한 색상의 양장을 입고 양산을

쓴 채 마당을 서성이며 내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대문 앞에는 운전기사가 닭털로 만든 먼지떨이로 승용차를 닦고 있었는데 그런 모습은 마치 때밀이가 벌거벗은 사람의 몸을 문지르는 것처럼 보였다.

“광휘 총각은 앞좌석에 앉아요.”

초혜 어머니는 뒷문을 열면서 말했다.

좌우 백미러를 살피던 운전기사는 조심스레 핸들을 돌려가며 미끄러지듯 나아가서 부민동 지방법원 앞을 지나쳤다.

“김 기사, 추석도 보름 정도 남았고 하니 나중에 집으로 돌아올 때 오늘 입항하는 고깃배에서 명절에 쓸 고기들을 좀 많이 신고 와야 해요. 잡어는 말고 돔이나 조기 같은 어종 말이에요. 그리고 어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도 대목일 때 한 몫 잡도록 값싸게 경매를 보게 해서 돈 벌게 해줘야 단골 고객들이 늘어날 거고 상인들 관리를 잘해야 진정한 장사꾼이지요. 제사 지낼 때 자반으로 사용되는 전어는 수요가 그런대로 많지만 가격이 워낙 싸서 돈이 안 되지요. 또 내가 행여 까먹을 수도 있으니 밀양 큰집에 제수용품으로 보낼 고기들도 미리 간을 해서 보내야 말려서 추석 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미리 준비합시다. 김 기사,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운전기사는 해마다 하는 일이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대답했다.

충무동 로터리를 지나 우회전 신호가 떨어진 후 곧장 도착한 곳이 바로 공동어시장이었다. 시장 안으로 들어가니 상자에 담긴 고기들이 긴 행렬을 이루고 있었다. 앞쪽에 모여 선 중매인들이 중얼거리는 소리에 따라 한 손에 숨겨둔 손가락을 오므렸다 펴기를 반복하면서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고 지명을 받으면 고기들은 어디론

가 이동을 했다. 갈치, 오징어, 고등어 경매가 끝나고 대구와 조기 같은 고기들이 컨베이어를 타고 내려오면 기다리고 있던 인부들은 고기를 삼으로 박스에 퍼 담았다. 한 상자씩 담겨진 고기는 갈고리 같은 걸로 끌어당겨 차레를 세운 후 경매장 안으로 들어왔다. 초혜 어머니는 싹쓸이하듯 양산으로 왼손을 가린 후 경매인에게 손가락을 살짝 보여 주었다.

초혜 어머니의 장사하는 방법은, 잠시 차 안에서 들은 것으로 추리를 해보니 반드시 싱싱한 고기를 고르되 약간 비싼 가격으로 경매를 보아서 중간 상인들에게 값싸게 많이 파는 방식이었다. 즉 선도가 있는 고기를 박리다매로 파니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빨리 팔렸다. 초혜 어머니는 시장원리를 잘 알고 있는 듯 해서 경매를 보던 다른 중매인들이 혀를 내둘렀다.

이렇게 많은 고기를 경매 받은 후 지방 중도매상에게 되팔아버리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초혜 어머니가 고용한 사람들이 따로 있었고, 그렇게 중도매상이나 지방 소매상인들에게 판 경우는 돈을 자루에다 넣어서 집으로 가져온다고 했다.

일찍 경매를 마친 후 초혜 어머니의 사무실로 뒤따라 올라갔는데 지나치며 힐끗 쳐다봤던 작은 사무실 안에는 서너 사람들이 모여 앉아 군용모포를 깔아 놓고 화투를 치고 있었다.

운전기사와 나는 사무실 아가씨가 건네주는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바로 자갈치로 향했다. 자갈치시장에서 영도다리로 가는 선착장에는 바다 너머 대평동으로 가는 사람들이 통통배를 타기 위해서 줄지어 서 있었고 초혜 어머니와 나도 뒤에 섰다. 해안에 걸어둔 로프를 풀자 통통배는 서서히 움직였다.

“광휘 총각, 회덮밥 먹어 본 적 있나요?”

포말을 그리면서 바다를 가르느 통통배 선미 쪽에서 있는 내게 다가온 초혜 어머니가 물었다.

“회는 초장에 찍어 먹지 밥 위에다가 올려 덧붙여 먹기도 하나요?”

“대평동에 가면 내 친구가 횃집을 하는데 그곳에서 점심을 먹어요.”

보트처럼 생긴 배는 마치 배가 바다에 폭 파묻혀 가는 듯 했는데 파도가 칠 때마다 배 안으로 바닷물이 툭툭 튀겨 왔다.

금세 대평동 선착장에 도착했다. 선착장 근처에는 소년들이 바다 낚시를 즐기고 있었다.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소년들이 낚싯대를 놓자마자 꼬시래기를 연거푸 잡아 올렸다. 그리고 바다 건너 자갈치로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우리를 마중 나오듯 기다리고 있었다.

“이쪽으로 따라와요.”

종종걸음으로 앞서가는 초혜 어머니를 따라 삼천포횃집이라는 고덕체 글씨의 간판이 걸려있는 곳으로 들어가니 오십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횃집을 나오며 반겼다.

“이기 누고?! 조 여사 아이가! 니가 우짤 일이고?”

“니가 보고 싶어서 왔다 아이가. 내가 저쪽에서 고기 장사를 하고 있지만 이곳에 한번 건너온다는 기 그렇게 잘 안 되더라. 그래, 횃집 장사 잘 되나?”

“그래, 사는 기 다 그렇지 뭐. 서방님은 한의원 잘하고 있제? 초혜는 지금 몇 살이고?”

“여고 3학년이다 아이가.”

“니 닳아서 공부 잘 하제?”

“뭐 내가 무슨 공부를 잘했다고 그라노?”

“뭐라카노. 니는 그래도 진주사범학교 갔다 아이가. 우리 학교에서 남학생도 아무도 못 갔는데 니만 갔다 아이가.”

“고마 됐심더.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이렇게 밖에 세워 놓을 끼가. 여기 손님들도 있는데.”

“기사는 알지만, 저 총각은 누고?”

“나중에 말해줄게. 어느 방으로 들어갈까?”

앞치마에 젖은 손을 닦던 횃집 여주인은 운전기사와 나를 바다가 보이는 방으로 안내한 후 할 말이 많은 듯 주방과 홀을 들락거리면서 끝없는 대화를 나눴다.

“회덮밥 세 개 해줘.”

“야! 손님을 모시고 와서 회덮밥이 뭐야. 회 한 접시 해라.”

“빨리 먹고 가야해.”

“돈 달라 소리 안 할 테니 줄뎌 한 접시 만들께.”

횃집 여주인은 주방장에게 회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후 초혜 어머니와 의자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런 후 소주병을 들고 와서 술잔에 따랐다.

“가시나 니는 미인인데다 돈 잘 버는 서방까지 만나 복이 터졌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공동어시장에 대상인하면서 돈을 끌고 있으니 너무 부럽다.”

“애는 가시나가 뭐꼬? 우리 나이가 오십 중반을 넘었는데. 하하하.”

“나는, 너와 전포동에 있는 고향친구한테는 가시나라고 부르고 싶더라. 전포동에 있는 그 친구도 미인인데다 배 타는 선장을 만나 팔자가 트였지.”

“그 선장은 무슨 배 타노? 나도 선장을 많이 알고 있는데.”

“요즘은 외항어선 탄다 카던데. 지금 남편은 두 번째 남편이다 아 이가.”

“그게 무슨 말인데?”

“첫 남편은 첫사랑을 못 잊어 매일 술 퍼마시다가 간디스토마에 간경화까지 걸려서 죽었고, 그래도 얼굴이 반반해서 선장 만나 재 혼했다 아이가. 그런데 가시나 그거는 그냥 편하게 살면 되었지 공 상스럽게 학생들 하숙을 시킨다나 뭐 한다나. 죽을 때 돈을 관에다 넣어서 가려는지 모르지만, 참 답답해.”

“그 친구 고향이 하동이라 카는 것 같은데?”

“그래. 하동의 어느 촌 동네지. 그 집 가시나를 저번에 한번 보았는데 키가 늘씬한 게 저거 엄마를 빼닮았더라. 너저 가시나도 니처럼 키가 훗칠한 미인이가?”

“미인? 초혜 가시나도 꼴값 떴다고 저거 학교 일곱 명이 뭐 칠공 주니 뭐니 하면서 까분다 아이가.”

“뭐? 칠공주? 전포동 그 집 가시나도 칠공주라 카던데 너저 딸은 어느 학교 다니노?”

“B여고 다닌다. 그건 와 묻노?”

“그래? 그 집 딸도 B여고라 카는 것 같은데?”

“이름이 뭐라 카더노?”

“성씨는 모르겠고 미영이라 카더라.”

“우리 딸한테 한번 들어 본 것 같은데. 우리 딸이 저거 아버지가 선장이고 어찌고 했던 말이 생각나네.”

“나도 과부지만 그 여편네도 생과부나 마찬가지로 아이. 저처럼 돈만 있으면 뭐하노. 밤마다 남자 밝히는 여자가 남편이 없으니. 그래서 몇 달 전에 내하고 고고장에 가서 남자를 하나 꼬디겼는데 내가 만난 놈은 영도 뱃놈 중에서도 건달이었고 미영이 엄마가 만난 놈은 제비족같이 보였어.”

“니가 만난 건달은 지금도 만나나? 일도 안하고 그냥 놀고 있나?”

“나는 사귀는 것도 아니고 헤어진 것도 아이다. 지가 연애하고 싶으면 찾아와서 뭇이 급한지 순식간에 연애 한번하고 돈 뜯어간다 아이가. 그 자식은 내가 좋아서 오는 게 아니고 돈이 목적이다.”

“그렇다면 왜 만나노? 미영이 엄마도 제비족 같은 놈하고 계속 만나나?”

“글쎄? 미영이 엄마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고 나는 그 놈하고 계속 사귀다. 그래도 남자 맛이랄도 보고 싶어서 내칠 수도 없고 해서 곁에 붙여 놓는데 요즘은 노름에 미쳐서 얼굴도 보기 힘들다 아이가. 우짜다가 찾아오면 아랫도리가 골아 가지고 힘도 없어. 몇 년 전에 바지선 로프 감다가 허리를 다쳐서 금으로 허리에 심을 박아 놓은 후부턴 허리 다칠까 싶어 어찌나 연애하는 것도 조심스러운지 몰라. 이젠 건강하고 힘센 남자하고 연애 한 번 해보았으면 소원이 없겠다. 호호호.”

초혜 엄마와 횃집 여주인의 얘기는 끝이 없었다. 나와 운전기사는 회덮밥은 물론 줄돔 한 접시까지 다 먹어 치우고 텀으로 나온 땅콩을 까먹으면서 초혜 어머니가 부를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횃집

여주인은 궁금한 게 많은 듯 말을 계속 이었다.

“니 아까전에 방안에 있는 총각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대답이 없노?”

“뭘라케야 되겠노. 우리 초혜가 데려온 남자인데…”

“그렇다면 딸의 애인이라는 말 아이가. 말을 와 그렇게 어렵게 하노. 그런데 우째서 같이 왔노?”

“어디서 싸움을 하다가 많이 골병이 들어가지고 우리 집에서 치료하고 있다 아이가.”

“싸움을 했다고? 총각이 순하게 생겼던데 싸움꾼이란 말이가?”

“잘은 몰라도 우리 가시나 때문에 싸웠다 카던데, 자세히 물어 보지는 않았어.”

“나는 싸움하는 놈들을 제일 싫어하는데 너저 딸 때문에 싸웠다면 기사도를 발휘했다는 뜻이네. 참 멋있다, 그자?!”

초혜 엄마는 끝도 없는 대화가 지겨운 듯 하품을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서는 소리가 들렸고 운전기사를 불렀다.

두 시간 가량을 보내고 삼천포횃집을 나와서 우리가 영도에 올 때 내린 선착장으로 걸어갔다.

올 때와는 달리 해거름이 되니 영도로 들어오는 사람은 북새통을 이루었으나 나가는 사람은 몇 사람 없었다.

공동어시장까지 걸어가서 차를 타고 초혜집으로 돌아왔다. 초혜는 학교를 다녀와서 내가 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아픈 환자를 데리고 어디로 다녔어요? 고기 비린내 나는 곳이 뭐가 좋다고 함께 갔어요?”

초혜가 질책 섞인 말투로 짜증을 내고 있을 때 운전기사가 차

트렁크에서 마대자루 세 개를 들고 와서 대청마루에 놓고 나갔다. 그 속에는 지폐들로 가득했는데 오늘 경매 받은 고기를 중상인들에게 팔았던 돈으로 3일에 한 번꼴로 돈 선별작업을 한다고 했다.

“엄마! 오늘은 돈 선별작업 하지 않을 거예요! 오빠 침 맞는 아래 채에 함께 갈 테니 그리 아세요.”

초혜의 통명스런 말을 듣던 어머니는 눈을 부라리면서 식모를 힐끗 쳐다보며 초혜를 꼬집었다. 그것은 운전기사나 식모한테 돈만큼은 못 맡긴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었다.

그러나 초혜는 이렇게 돈을 선별하는 작업에 질린 듯 보였다. 나는 초혜에게 나도 거들어 줄 테니 잠시 선별작업을 하고 가자고 말했다.

이런 말들이 오고 갈 때 방안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여동생 서혜가 눈을 부비면서 대청마루로 나왔다.

서혜는 아직도 잠이 들꺼 듯 손으로 입을 막은 채 하품을 길게 한 후 무표정한 얼굴로 돈 자루를 획 뿌리듯 부어 버렸다. 나는 마대자루로 부어 놓은 돈을 보면서 할 말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것은 돈과 함께 물씬 풍긴 생선 냄새 때문이었다.

또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돈을 한꺼번에 직접 보기는 처음이어서 눈이 휘둥그레졌고 오히려 돈같이 보이지 않았다. 마음속으로 초혜가 그동안 나와 만나면서 단 한 푼이라도 돈을 못 쓰게 했던 이유를 알 듯했다. 양과자점이든 극장이든 돈 문제만큼은 항상 초연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우리 같은 촌놈들은 항상 돈이 궁핍해서 돈에 허덕였다. 돈만 생기면 찌뽕, 고르게, 꿀뽕 같은 허접한 빵을 사먹는데 다 써 버리고

돈의 종류도 기억이 안 날 정도인데 우리들하고는 정말 다른 차원에서 살고 있구나 싶었다.

천 원짜리, 오천 원짜리, 만 원짜리를 각각 선별하면서 생각했다. 초혜집에서는 어머니도 이렇게 많은 돈을 벌고 아버지는 한의원 해서 돈 벌고 그 돈을 모두 어디에 사용할까 궁금증이 꼬리를 물었다.

돈 선별작업이 거의 마무리 되어갈 무렵 운전기사는 자갈치에서 가져온 고기에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낸 후 왕소금을 철철 뿌렸다. 그리고 초혜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밀양에 실어다 줘야 한다며 자리를 떴고, 식모 봉순이는 저녁준비를 해야 한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서해도 손 씻으러 세면장으로 내려가자 초혜는 무릎 아래 정돈하던 돈 뭉치를 슬쩍 꼬집어내서 반을 나눈 후 내 양쪽 윗 호주머니에 각각 돈을 절반을 접어서 넣어 주었다. 내가 깜짝 놀라며 돈을 꼬집어내자 초혜는 내 손을 꼬집으며 말했다.

“오빠, 우리 두 사람 데이트 비용하게 넣어 두세요.”

그 광경을 부엌문을 나서다가 식모가 본 후 배시시 웃었다. 초혜는 절대 비밀이라며 손가락을 입술로 가져가서 세웠다.

아래채에서 초혜 아버지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자네 침 맞을 시간이네. 빨리 내려오게. 오늘은 속 뜸질도 해야겠어.”

그런 말을 듣고 있던 초혜는 아래채의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아버지, 저녁 잡숫고 치료하면 안 될까요?”

“아니야. 오늘 치료해야할 시간이 너무 늦었어. 치료는 생체의 리듬과 간격에 맞춰야지 들쭉날쭉하면 안 돼.”

초혜 아버지는 초혜의 말을 일축했다.

나는 세면장에 가서 세수를 한 후 진료실로 들어갔다.

“침은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맞아야 효과를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조바심 내지 말고 평상심을 가지고 치료를 받으도록 하게.”

초혜 아버지는 내 가슴팍 주위를 눌러보면서 아직도 아픈 부분이 있으면 말해 보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내가 아픈 부분 이곳저곳을 손가락으로 짚어주자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이면서 침을 놓기 시작했다. 따끔따끔한 쑥뜸질을 놓는 동안 진료실에는 쑥 냄새가 가득했다.

저녁밥을 먹으러 대청마루로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초혜와 서혜는 더는 못 기다리겠다는 듯 조바심을 내면서 내가 누워있는 진료실로 내려 왔다.

“오빠, 배 많이 아프죠? 식사부터 해야겠는데 밥 말고 다른 것 먹고 싶은 것 없어요?”

나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듣고만 있었다.

“그냥 밥상을 차려서 올까요? 아님 서혜를 시켜서 오빠가 좋아하는 빵 사가지고 오라 할까요? 뭇이던지 말만 해줘요. 응?”

초혜의 말을 듣고 있던 나는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말투로 내뱉고 말았다.

“밥은 먹기 싫고 집 근처에 통닭 파는 곳 없을까?”

“우리 집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시장 통이 있고 그곳에 가면 통닭을 팔아요.”

초혜는 서혜에게 눈짓을 보내면서 통닭을 튀겨 오라고 했다.

서혜가 방문을 열고 나간 사이에 봉순이가 작은 상에다 밥을 차려서 들고 왔다.

“봉순이 언니, 우리는 통닭 먹기로 했는데…”

초혜가 밥이 반갑지 않은 듯 말했다.

“한약 복용할 때는 닭고기며 돼지고기는 먹으면 약효가 없다던데…”

봉순이가 초혜 아버지한테 들은 듯 말했다.

“음, 그렇기는 하지만…”

초혜가 말을 얼버무리자 봉순이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통닭은 식사를 하고나서 먹으라는 말을 하면서 밥상을 내려놓고 갔다.

시장에서 통닭을 튀겨온 서혜가 땀을 뻘뻘 흘리며 방에 들어왔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서혜가 의미심장하게 말문을 열었다.

“오빠, 그런데요?”

초혜와 나는 갑자기 무엇인가 질문을 하려는 서혜를 바라보며 우리끼리 서로 시선을 마주친 후 초혜가 입을 열었다.

“왜? 무슨 할 말이라도 있니?”

“어젯밤에 있죠. 만남 1주년 기념하는 거 다 보았어요. 호호호.”

“말해 봐, 뜬말이지 말고. 뭘 다 보았다는 거야. 그 시간에 모두들 다 잤는데…, 아버지만 빼고.”

서혜는 입을 막으며 까르르 웃으면서 우리 두 사람이 무얼 했는지 방에서 비친 그림자로 다 보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 두 사람이 키스하는 것도 훑쳐보았다는 거 아냐?”

초혜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얼굴을 붉히며 서로를 보고 멧쩍어 하면서 웃었다.

“나도 언니처럼 애인이 생기면 그렇게 할 건데 뭐. 언니는 왜 그렇게 얼굴이 빨개져? 도둑이 물건을 훔치다 들킨 것처럼. 호호호.”

서혜는 태연하게 아무렇지 않은 척 다른 방향으로 대화를 옮겼다. 그러나 초혜는 마음 한편에 큰 비밀이라도 들킨 양 얼굴이 볼그레 해져서 변명하듯 말했다.

“나는 여고1년 때 너처럼 남의 방문 앞을 도둑고양이처럼 기웃거리면서 훔쳐보고 그러질 않았어. 앞으로 우리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땐 근처에 얼씬 거리지마. 알았지?”

서혜는 미안한 듯 몸을 배배 꼬면서 내게 말했다.

“그런데 오빠한테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나는 뭐가 묻고 싶은지 말해 보라고 했다.

“어제 방문 밖에서 엿들었는데 생물과목에서 미생물에 관한 것 말이죠,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중에서 어느 것이 큰가요?”

서혜가 질문을 하자 초혜는 묻는 질문보다 서혜가 아예 우리가 나눈 대화며 기타 여러 가지 행동을 모두 훔쳐보았고 들켰다는 사실이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는 듯 사뭇 놀라워하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렇지만 나는 개의치 않고 서혜가 묻는 말에 답했다.

“음, 그거야 박테리아가 크지. 미생물 중에서 제일 큰 게 원생동물이고 그 다음이 박테리아, 리케차, 바이러스 순이지. 나무도 크기를 기준으로 분류를 하면 제일 큰 나무가 교목이고 그 다음이 소교목(아교목), 관목 순서이고 제일 줄기가 작고 땅바닥을 기어 다니는 식물을 만경목이라고 부르는데, 미생물도 그렇게 식물을 분류하듯 크기에 따라서 분류를 하지.”

서혜는 의외의 대답에 크게 놀란 듯 손뼉까지 쳤다.

“와! 오빠는 생물 선생님 아들이라고 하더니 생물과 식물에도 해박하시네요.”

겉에서 지켜보던 초해도 덩달아서 박수를 치면서 나를 치켜세웠다.

“오빠는 초등학교 때 동화책을, 중학교 땐 한국단편문학전집을, 고교 때는 세계단편문학전집을 두루 섭렵했다더라. 서해 너는 그렇게 책을 많이 보았어? 턱도 없지?”

초해가 그렇게 말하는 까닭은 내가 모르는 어떤 설전이 있었던 듯 했는데 서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초해가 말해 주었다. 유도를 하니 먹통이라고 서해가 놀린 적이 있었던단다.

나도 덩달아 신이 나서 묻지도 않았는데 자랑도 하고 싶어서 서해가 다시 마주 앉자 멘델의 유전법칙에 대해서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멘델이 검은색 수컷 토끼와 흰색 암컷 토끼를 교배 시켜서 실험한 결과 검은색 토끼가 다섯 마리, 회색 토끼가 세 마리, 흰색 토끼가 한 마리 나왔다. 그리고 빨간색 나팔꽃과 흰색 나팔꽃을 교배하니 빨간색 나팔꽃이 다섯 개 나오고 분홍색 나팔꽃이 세 개 나오고 흰색 나팔꽃이 한 개가 나왔다. 그런데 근래에는 미국의 어느 사회학자가 연구한 논문에서는 강패혈통을 가진 남자와 평범한 일반인 여자와 결혼을 해서 낳은 아이를 관찰해보았는데 구십 퍼센트 이상이 괴팍한 성격을 가진 아이가 되었고 그럴 확률도 엄청 높다더라.”

나는 멘델의 유전법칙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다가 사족을 부쳤다.

“멘델의 유전법칙을 근거로 해서 사람에게 적용해보면 생물 선생 아들과 한의사 딸이 결혼을 하면 생물학자가 다섯 명, 식물학자

또는 약사가 나올 확률이 세 명, 한의사가 나올 확률이 한 명이겠지? 하하하. 농담이다.”

나는 어찌다 말이 여기까지 나오고 말았다.

내 말에 귀를 세우면서 듣고 있던 서혜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오빠, 그런 실험을 하려면 우리 언니가 아이를 아홉 명 낳아야 된다는 얘긴데? 그렇다면 우리 가족은 토끼 가족이 되겠네. 와우! 호호호.”

서혜의 말이 떨어지자 문밖 마당에서 초혜 아버지가 크게 웃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들은 웃음소리에 당황해서 얼른 미닫이문을 열었더니, 초혜 아버지는 어젯밤처럼 오늘밤도 우리가 나누고 있는 얘기를 엿들었고 서혜가 아이를 아홉 명 낳아야 된다고 한 말에 더 이상 웃음을 참지 못했던 모양이다. 우리들은 서로를 쳐다보면서 멧쩍게 웃었다.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하면서 초혜 아버지가 초혜 어머니를 보면서 말했다

“여보, 저번에 내가 뭐라 그랬어요. 광휘 총각이 무슨 얘기든지 너무 재미있게 말하는 재주를 가졌다고 말했지요. 그래서 내 곁에서 친구가 되어 달랬던 말 기억하나요?”

“.....”

“오늘부터 당장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생활하면 어떻겠소. 요즘 광휘 총각이 우리 집에 오고 나서 우리 집이 사람 사는 맛이 나는 것 같소. 조용조용한 딸만 둘뿐이다 보니 이 대궐 같은 집이 기운이 사그라지는 것 같았는데 요즘 집에 기운이 막 솟아오르는 느낌이 들어요.”

초혜 아버지가 약간은 들뜬 표정으로 말하자 가만히 듣고 있던 초혜 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거참! 당신도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그렇게 남자가 좋으면 지금이라도 젊은 여자 하나 얻어서 아들 하나 만들어 보시구려.”

초혜 어머니가 빈정거리는 어투로 말하자 의중을 파악한 초혜 아버지는 급히 불길을 진화하듯 말했다.

“음, 내가 볼 때 우리나라도 머잖아서 아들딸이 구별 없고 사위도 꼭 같은 자식으로 여겨질 날이 다가올게 분명하니 너무 의식하지 마시구려.”

서먹한 분위기가 이어질 즈음 나는 자리에 일어나서 아래채로 내려왔다. 초혜집에서 열흘 넘게 치료를 받고나니 몸이 가뿐해졌음을 느꼈다. 이젠 다시 내 생활을 찾아서 하숙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눈을 뜬 나는 하숙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머리맡에 수북하게 쌓인 여러 가지 물건들을 챙겼다. 처음 초혜집에 왔을 때 달랑 맨몸으로 왔는데 십여 일을 생활하는 동안, 초혜가 국제시장에서 나에게 어울릴 거라며 구입해온 밤색바지와 푸른 물결이 가로로 그어진 셔츠, 초혜 어머니가 미화당백화점에서 구입했다는 점퍼며 바바리코트도 있었고 숫자가 늘어난 속내의, 그리고 서혜는 언니와 내가 영원히 변치말기를 바란다며 내 방에 가져다 놓은 백 마리 종이학도 있었다. 또 정성들여 달여 준 석 달분 보약탕약제와 심심하면 먹으라고 챙겨준 건삼과 계피, 관절염에 특효라는 생강나무를 잘게 자른 것도 포함되어서 자그마치 작은 가방 세 개 분량이었다.

환자 치료를 마치고 나온 초혜 아버지가 소매를 걷으면서 말했다.

“자네, 오늘 꼭 집에 가야 하는가? 오늘 토요일인데 나도 오전만 진료를 할 참이네. 지금 하숙집에 가서 특별하게 할 일이라도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 가족들과 함께 태종대에 가서 유람선을 타고 오륙도에 다녀오는 게 어떨겠나?”

나는 알게 모르게 이 집에서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매김 된 느낌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내가 치료를 받으면서 진료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다른 환자들에게 어디가 아파서 왔느냐고 묻기라도 하면 환자들은 이 집에 아들이 있는 줄 몰랐으며 초혜 아버지에게 묻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초혜 아버지는 서울서 공부한다고 집에 없어서 그렇다며 농담으로 답해 주었는데 환자들 중에는 나를 정말로 아들인 줄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다.

누구라도 초혜 아버지가 나한테 대하는 자상한 태도를 보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으리라 느껴졌다.

점심때 쯤 초혜와 서혜가 학교수업을 마치고 나란히 대문을 들어섰다.

얼마나 바빠 왔던지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초혜는 나를 보더니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오빠가 행여 집에 갔을까 싶어 종례도 하지 않고 달려왔다고 말했다.

봉순이가 차려주는 점심 국수를 큰 대접을 가져오게 해서 고추장 두 스푼과 설탕까지 듬뿍 넣어서 비벼 먹었다. 초혜 아버지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국수를 먹는 내 모습을 보면서 어이가 없었던지, 눈이 휘둥그레져서 한참을 보더니 급히 먹으면 체할 수 있으니 물을 곁들이라고 결명자차를 유리컵에다 부어서 건네주었다.

“광휘 총각, 국수 먹고 잠시만 기다리게. 공동어시장에서 기사가

을 시간이 되었네.”

초혜 아버지는 내게 그렇게 말한 후에 초혜와 서혜에게 함께 외출할 준비를 하라고 일러 주었다.

신이 난 초혜는 물론 서혜도 말만 듣던 태종대며 오륙도를 구경할 수 있게 되었다며 자기들 방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느라 분주했다.

“언니는 나팔바지 입어. 나는 미니스커트 입을게.” 하는 말이 들리더니 유람선 위에 오르면 바람이 많이 불고하니 바지 차림이 좋겠다며, 초혜는 스카이블루 색상의 블라우스에 흰색 나팔바지를 입고 서혜는 몸에 착 달라붙는 빨강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방에서 나왔다.

벽에 걸린 괘종시계가 크게 울릴 쯤 기사가 도착한 듯 대문 앞에서 클랙슨소리가 두 번 울렸다. 우리들은 봉순이가 준비해준 과일과 오징어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마당을 걸어 나왔는데 누가 보더라도 한 집의 오누이처럼 보였을 그런 모습이었다.

초혜 어머니는 작은딸을 배려한 것인지 몰라도 다른 볼일이 있다며 집에서 나오질 않았다. 차는 운전기사를 포함해서 5인용 승용차이기 때문이다. 나는 차를 기다리는 동안에 승차인원은 네 명밖에 못타는데 어찌나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초혜 아버지는 앞쪽에 타고 우리들은 뒷좌석에 앉기로 했다. 나더러 가운데 앉아야 된다고 제일 안쪽에 서혜가 먼저 자리를 잡았다.

우리가 탄 차는 미끄러지듯 보수동을 지나 광복동으로, 그리고 영도다리를 달렸다. 영도다리 아래에는 작은 통통배들이 하얀 물보라를 날리며 바쁘게 이동하고 있었다.

멀리 제3부두 부산항 앞에는 선박들이 이따금씩 긴 무적을 올리고 있었고 와치섬 뒤편에서는 극장 무대 뒤편에서 배우들이 등장하듯이 대형 선박들이 하나씩 나타나기도 했다.

영도경찰서를 지나서 제2송도 방향으로 질주할 때 멀리 송도 앞 바다에는 케이블카가 태양에 반사되어 간혹 광선을 표출하기도 했고 감천항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연기도 하늘을 향해 폴폴 올라가고 있었다. 그리고 다대포를 잇는 긴 해안선을 따라 군데군데 작은 배들이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하는 모습도 보였다.

제2송도에서 해양대학을 돌아가는 길은 마치 구릉처럼 푹 꺼졌다가 다시 해안을 끼고 도는 길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 길로 들어간 차들은 냉동 창고 뒤편에 숨었다 나타나기를 반복하다가 오르락 내리락 달려갔다.

태종대 가는 길은 시골 풍경과 같아서 띄엄띄엄 집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집들이 시골집 모양 같았다. 밭을 가는 소들도 쟁기질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는 듯 소나무 아래에서 고구마 줄기와 건초를 자근자근 씹고 있었다. 초가을 기운을 예감한 듯 버즘나무의 묵은 잎들이 연노랑색으로 변하고 있었다. 잎들은 줄기와 헤어질 수밖에 없는 숙명의 시간이 머지않았다고 아쉬워하며 처량하게 손을 흔들고 있었다.

이윽고 태종대 선착장에 도착했다. 배에 설치된 마이크에서는 흘러간 옛 노래가 찌렁찌렁 울려 퍼지고 있었다.

선착장 곁의 자갈밭에는 외지에서 놀러온 중년 남녀들이 술을 거나하게 마신듯 장구소리에 맞춰 합창을 하면서 어깨동무를 하고 빙글빙글 도는 모습도 보였다. 한편에는 유람선 스피커에서 나오는

노래 소리를 큰 소리로 따라 부르는 사람들은 철썩이는 파도소리에 한데 어우러져 음의 높낮이가 파쇄대기도 했다.

이들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무리는 선착장 자갈밭에서 능숙한 솜씨로 장구를 두드리는 모습이었다. 문득 고향 친족들이 잔치 때 마당에서 장구 장단에 밤을 새우면서 걸판지게 놀던 장면이 떠올랐다. 자암산에서 봄 회취하던 풍경이 그들에게서 자꾸만 투영되었다.

승선하라는 안내 방송을 듣고 우리 일행은 모두 배를 탔다. 배는 출발한다는 방송을 하더니 힘찬 스크루의 발진소리와 함께 앵커를 들어 올렸다.

초혜는 나와 함께 선수 쪽 난간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고 서혜는 아버지 팔짱을 끼고 유람선 선미 쪽에서 있었다. 물길을 가르면서 잠시 정지하더니 뒤쪽 스크루가 세차게 물거품을 내며 방향을 선회시켰다.

배는 태종대 자살바위 쪽으로 방향을 잡더니 선장은 속력을 줄이고 음악 소리마저 끊고 나서 마이크로 안내 방송을 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이는 태종대는 조선3대 왕인 태종이 이곳을 행차했다가 태종대 풍광에 반해 며칠 간 머물렀다 갔으며 그 이후로 태종대라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저기 오른 쪽에 바위가 울퉁불퉁 돌출하듯 솟은 곳은 자살바위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사연으로 투신자살을 해서 부쳐진 이름입니다.”

선장은 자살바위에 대해서 말을 계속하고 하고 싶은 듯 장구한 설명을 늘어놓았다. 그런 게 초혜는 귀에 거슬렸든 듯 내 귀에다 대고 속삭이듯 말했다.

“뭘 좋은 지명도 아닌데 자살바위의 이야기를 저렇게 길게 늘어 놓는 담. 지금 저 바위를 보는 사람들에게 마치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살이라도 해라고 부추기는 것 같아요. 오빠, 내말이 틀려요?”

“그렇기도 하네. 다른 할 말이 그렇게 없을까? 하하하.”

나도 맞장구치듯 말했지만 내가 생각해도 특별하게 말할 소재도 없어 보였다. 차라리 바다를 소재로 한 시라도 한 수 읊조렸으면 더 멋져 보였을 텐데 하고 말하자 초혜는 태종대에 대한 시가 있느냐고 물었다.

“교과서에 본 듯한데, 시가 아니고 시조를 본 기억이 나지만 굳이 태종대에 대한 시 말고라도 바다에 대한 시가 얼마나 많아. 참! 그건 그렇고. 초혜한테 물어 본다는 게 자꾸 까먹네. 올해 어느 대학을 갈려고 하노?”

“엄마는 예전에 초등학교 교편을 잡았는데, 초등학교는 여러 과목을 가르쳐야하니깐 교직 생활을 오래해도 전문적인 지식이 남지 않아서 교육대학은 좋지 않은 것 같다고 사범대를 가라고 했어요. 저도 무슨 과목이든 가르칠 수 있는 중·고교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사범대학이나 일반대학을 가더라도 교직과목을 이수해야 되네요. 우선 목표는 국립대학교 사범대학이고 실력이 부족하다 싶으면 사립대학교 사범대학에 진학하려고 해요.”

나는 초혜 어머니가 초등학교 교사였다는 말을 듣고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다. 왜 여성들이 선망하는 교직을 그만두고 어산물 사업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조심스레 물었다.

“초혜야, 어머니가 왜 교편생활을 접었어?”

내 말을 듣던 초혜는 긴 한숨을 쉬면서 생각에 잠겼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무슨 말 못할 사연이 틀림없이 있나보다 하고 말하기 곤란하면 안 해도 된다고 말을 돌렸다.

“초혜야, 그건 그렇고 며칠 전 어머니 따라 공동어시장에 간 날 알고 있지?”

“네, 회덮밥 운운하면서 통통배 타고 영도 구경 시켜준다던 날 말이죠?”

“그런데 말이야. 어머니가 회를 사준다고 찾아간 집이 삼천포횃집이었고 여주인은 어머니하고 친구라고 하던데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는 소리를 엿들었어. 그 여주인은 미영이 엄마와 고향이 같다고 했어. 그리고 미영이 엄마의 과거까지 소상하게 다 알 정도로 아주 친한 친구였나 보더라. 최근까지 함께 고고장에도 갔었대. 부산도 참 좁지?”

“그래요? 그런데 엄마는 내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모르고 지내는 것도 좋을 듯 싶었지만 행여 알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었던 것뿐이야.”

초혜와 둘만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선미 쪽에서 초혜 아버지가 우리 쪽으로 걸어오면서 말했다.

“자네, 저 앞에 보이는 섬 있지? 저 섬 이름을 아는가?”

“처음 보는 섬인데요?”

“저 섬이 바로 오륙도라는 섬이야.”

“멀리서 가끔씩 보았던 섬이군요. 배를 타고 오니 방향감각이 없습니다.”

부산 동구지역에선 어느 곳에서나 눈에 잘 띄는 오륙도지만 멀리

서 보면 아주 작은 섬 같아 보였는데 배를 타고 근처로 오니 엄청난 바위섬이었다. 가까이 다가와서 보니 멀리에서 본 느낌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왜 저 섬을 오륙도라고 부르는 줄 아는가?”

초혜 아버지는 손으로 가리키며 내게 물었다.

“국어 선생님한테 설명을 들긴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밀물 때는 섬이 다섯 개고 썰물 때는 작은 암초가 하나 더 드러나서 섬이 여섯 개로 된다고 오륙도라네.”

오륙도 근처로 뱃머리를 돌리니 암초 사이에 낚시꾼들이 벼랑에 매달리 듯 서서 릴낚시대를 힘차게 바다에 던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우리가 탄 유람선이 근처로 다가가자 손을 흔들어 보이곤 했다.

나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곳에 와서 낚시를 하는지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는지 궁금해서 초혜 아버지에게 물었다.

초혜 아버지는 “저 낚시꾼들은 저쪽 맞은편 용호동 나환자촌 부두에서 탄 작은 배가 등대 아래에 내려주던지 아니면 낚시꾼들이 원하는 장소라면 바위 벼랑 근처에까지 가서 내려주기도 한다네.” 하고 말해 주었다.

유람선 마이크에서는 방금 우리들이 나눈 말처럼 간조와 만조에 따라 오륙도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안내방송을 하고 있었다.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자 일본 대마도 방향에서 커다란 상선 한 척이 부산항의 입항을 서두르듯 다가오고 있었는데 배가 유달리 커 보였다. 배는 입항을 알리듯 뱃고동 소리를 길게 내질렀다. 배 아래의 주황색 바탕이 수면 위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더욱 큰 배로 보였다. 나는 통상적으로 배는 선체가 중앙 정도로 바다 속에 들어가

야 하는데 이상하다고 물었더니 짐을 실은 배는 주황색 선이 보이질 않지만 짐을 싣지 않은 배는 주황색 바탕이 덩그러니 수면 위로 올라온다고 했다. 그렇다면 저 배는 빈 배로 와서 부산항에 컨테이너 화물을 실으려나보다 싶었다.

우리가 탄 유람선은 태종대 선착장 방향을 향해 질주했다. 출발할 때보다 배가 무척 빨리 달리는 것 같았다. 그것은 마치 오랜 시간 바다 위에서 고기를 잡던 배가 만선을 해서 가족이 기다리는 곳으로 귀향하는 것 같았다.

“관광객 여러분, 오늘 즐거운 여행이었습니까? 앞으로도 저희 유람선을 많이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돌아가시는 걸음이 유쾌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가세요.”

우리들은 유람선에서 내려 김기사와 만나기로 한 장소를 향해 걸어갔다. 우리가 유람선을 타는 동안 김기사는 개인 불일을 보고 약속 장소로 달려오고 있었는데 얼마나 급히 달려왔던지 승용차 뚱뚱니 쪽은 먼지가 뿌옇게 날렸다.

“원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운전기사는 미리 대기하지 않고 늦게 온 점이 민망한 듯 서둘러 먼저 말했지만 초혜 아버지는 뒤따라온 먼지를 피하느라 뒷걸음질을 쳤다.

“어디로 갈지는 잠시 생각해보고.”

초혜 아버지는 기사에게 말한 후 고개를 뒤로 돌려서 내게 물었다.

“자네 꼼장어 먹어 보았는가?”

“시골에서 민물장어는 많이 먹어 보았는데 꼼장어는 먹어보지

못했어요. 어떻게 생겼나요?”

“꼼장어는 바다 속의 지렁이와 같다네. 뽕 속에 기어 다니지.”

“그렇다면 미꾸라지처럼 생겼겠군요?”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지. 자세한 것은 꼼장어를 직접 먹으면서 설명 해줄게.”

해거름인지라 자갈치시장은 어물을 사러 온 사람들과 횃집을 찾아온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영도가 바라다 보이는 해변에는 파라솔이 줄을 지은 포장마차들이 즐비해 있었고, 그곳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와 함께 소주잔을 기울이며 정답게 담소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앉아 있었다.

“우리도 저기 포장마차에 앉도록 하지. 꼼장어는 포장마차에서 먹어야 제 맛이 나거든. 근사한 횃집에서 먹으면 제 맛이 나질 않아.”

초혜와 서혜는 이곳에 몇 번 온 듯 스스럼없이 자리에 덩석 앉았지만 나는 처음 보는 꼼장어가 신기해서 아줌마들이 요리하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민물장어는 배를 갈라서 그 위에 양념을 해서 먹는데 반해 꼼장어는 꿈틀거리는 꼼장어를 석쇠에 올려 잠시 익힌 후에 손가락 두 마디 크기로 동강내서 양파와 당근, 풋고추 등 야채를 넣고 고추장 같은 양념을 넣고 버무린 후 다시 연탄불에 구운 후 접시에 담아서 나왔다.

“한번 먹어보게. 안 먹어 보았다면 별미일 걸세.”

초혜 아버지는 익은 꼼장어를 젓가락으로 하나 집어서 내 앞으로 옮겨주었다.

“그렇군요. 민물장어와는 전혀 맛이 다르군요. 민물장어는 뼈가

여문데 꼼장어는 물렁뼈 같아요.”

“꼼장어의 학명은 떡장어인데 이 고기의 특징은 다른 물고기에 달라붙어 살과 내장을 파먹는 기생어류로 알려져 있어. 민물에 사는 거머리처럼 고약한 물고기인데 맛은 좋지.”

“와! 다른 물고기의 몸통을 파먹고 살군요!”

“고기마다 식생이 다르니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자네 술 마실 줄 아는가?”

“한두 번 마신 적 있어요.”

“그렇다면 소주 한 잔 하자고! 다른 생선회도 그러하지만 꼼장어는 고추장과 버무려도 비린내가 나니까 소주를 한 잔 하면 좋아. 그리고 소주는 잔으로 부으면 여덟 잔이 나오니 자네와 나는 세 잔씩 마시고 초혜와 서혜는 한 잔씩 맛만 보고. 아참! 김 기사는 사이다 한잔해.”

“김 기사님도 술을 한 잔 드리죠?”

나는 피부색이 시커먼 김 기사가 술을 즐기는 사람 같아보여서 말했다.

“하하하. 자네 말처럼 김 기사가 술을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 일 마치고 나서 나와 가끔씩 술도 한잔하고 말이야. 그런데 김 기사는 원래부터 아예 술을 못 마셔.”

초혜 아버지는 잔에다 술을 따른 후 모두에게 잔을 들라면서 건배를 청했다.

“광휘는 앞으로 우리 집으로 자주 오게, 미안해하지 말고. 나는 항상 환영이네. 그리고 자네가 뜻하는바 성취하기를 바라네.”

“와! 우리 아빠 최고!”

초혜는 엄지손가락을 세웠고 우리는 박수를 쳐서 화답했다.

초혜집에서 돌아온 나는 몸이 가뿐해져서 C무덕관에서 예전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전국체전 부산시 미들급 대표로 발탁되는 행운까지 얻었다. 그렇게 된 원인 중에는 항상 나보다 몸무게가 오십 킬로그램 더 나가던 임동필과 연습을 한 때문인지 비슷한 급수의 선수와 상대하기는 아주 수월하였다.

초혜집에서 먹은 보약과 집으로 가져온 한약도 보약 성분이 강했던 지 쓸모없는 땀의 양도 훨씬 줄어들고 빈혈증세도 말끔히 없어졌다.

추석 연휴가 내일 모레로 다가왔을 무렵 초혜가 손에 작은 박스를 하나 들고 C무덕관으로 찾아왔다.

“오빠, 추석 때 밀양 할아버지 댁에 제사 모시러 갈 건데 제사 지낸 후 오빠 집에 한번 찾아가면 안 될까요? 오빠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요.”

“나는 당연히 좋지만 어떻게 찾아오는 방법이라도 아니?”

“밀양역에서 부산가는 열차를 타고 삼랑진에서 환승해서 마산 방면으로 가는 완행열차를 타면 되죠?”

“아니, 벌써 다 알고 있네?”

“최송자에게 물어서 찾아가는 방법을 다 알아 놓았어요.”

나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끼고 기다리겠다는 말만 했다.

초혜는 들고 온 박스를 내밀었다. 박스 속에는 명절에 국 끓일 때 사용하라며 말린 황태와 마른 오징어가 들어 있었다. 그런 후 코트 안쪽에 손을 넣어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내더니 노란 봉투를 내밀었다.

“그건 뭐데?”

더 이상 묻지 말고 명절 때 요긴하게 쓰라며 내 호주머니에 찢려 준 후 명절 때 만나자는 말을 남기고 버스에 올랐다.

초혜는 버스 뒤쪽에 서서 내 모습이 가물가물해질 때까지 손을 흔들며 보였다.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오자 부산지역 신발 공장들이 휴가를 며칠 앞당긴 듯 서면지역에는 직장에 다니는 젊은이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특히 서면 로터리에서 부전역 사이는 부전시장에 장보러 온 사람들로 발 디딜 틈도 없이 복잡했다.

나도 고향을 가기 위해서 아침을 먹은 후 교통부 쪽으로 걸어갔다. 그동안 학생이어서 항상 빈손으로 텔레텔레 고향을 갔었는데 초혜가 준 박스를 들고 가니 기분이 참 묘했다. 고향집을 가면서 무언가를 가지고 간다는 것이 이런 기분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시외버스가 서는 교통부에 도착하니 버스를 타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왁자지껄 했는데 그들은 고향의 부모와 친지들께 주려는 선물을 가득 들고 있었다. 그 중에 방직공장에 다니는 아가씨들은 담요를 들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부모형제를 만난다는 기대로 흥분된 모습이 역력했다. 공장에 다니는 옛된 아가씨들은 끼리끼리 모여서 수다를 떨고 있었다. 대화를 엿들어보니 갑피가 어떻고 몰딩이 어떻고 아웃솔이 어떻고 하는 등 공장에서 일어난 에피소드와, 반장이나 공장장에 대한 불만도 틀어 놓기도 했고 공부에 대한 얘기도 주고받았다. 그런 후 명절 지나서 국제상사로, 삼화고무로, 대양고무로 직장을 옮긴다는 얘기까지 떠벌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들이 나누는 대화를 한 쪽 귀로 들으면서 은근슬쩍 얼굴을 결눈질해서 보았는데 모두들 화장은 했으나 화장품이 묻은 얼

굴이 촉촉하지 않고 퉁퉁 부은 얼굴이었다.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으면 피부에 윤기하나 없을까 싶어서 마음이 아팠다. 아직은 공부하고 응석을 부릴 나이에 부모 곁을 떠나와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산업체 고등학교에서 공부해야 하니 얼마나 힘들까 싶었다.

주경야독의 힘든 생활로 잠이 부족하고 영양실조에 걸린 듯 얼굴이 해쓱해진 모습이었다. 그러나 고향에 부모형제를 만나러 간다는 마음에 고단한 삶은 잠시 잊은 듯 표정이 내내 밝았다.

내가 그녀들이 나누는 얘기를 멍하니 듣고 있을 때 저 앞쪽에서 단발머리 여고생이 웃는 표정으로 손을 흔들면서 다가왔다. 분명 내 쪽을 향해서 흔드는 손인데 누구일까 하고 고개를 기울여봤다.

“오빠 아입니까? 송자인데예, 저 모르겠습니까?”

“송자!? 그렇구나! 오랜만이네.”

자신을 밝힌 송자를 보면서 얼떨결에 대답은 했다. 중학교 때 보고 고교생이 된 후로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지라 나는 최송자라고 하면 시골의 촌뜨기 소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 부산으로 유학 와서 때국물은 빠지고 깔끔한 소녀로 변해 있었다.

송자의 옛 모습을 회상하다가 웃으면서 말했다.

“응, 이제야 분명히 알겠네. 정말 오랜만이야.”

“오빠에 관한 소식은 학교에서 칠공주들로부터 많이 듣고 있어예.”

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었다는 말에 뜨끔했고 한편으론 걱정도 되었다. 최송자의 입방아로 고향에 이상한 소문이라도 나면 안 되는데 싶었다.

“선생님은 잘 계시지요? 언니들도 학교에 잘 다니시고요? 참! 언

“니는 졸업했겠네?”

최송자는 우리 집에 대해 여러 가지 안부를 물었다. 나는 초혜와 도 대화를 자주 나누는지 궁금해서 말을 이어갔다.

“송자야! 행여 추석 때 초혜가 우리 고향에 놀러 온다는 얘기 못 들었어?”

내가 시침을 떼면서 물었다.

“올지 안 올지 반반씩이라 카던데.”

나는 옳거나 하고 그렇게 말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고향에 온다고 뜻을 박아 버리면 떠별이 송자가 고향에서 얼마나 소문을 내고 다닐까 싶어서 은근히 염려가 되어서 물었던 것이다. 초혜가 송자에게 말 못한 사정은 송자의 성품을 벌써 파악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올해도 지난해처럼 충무동 종점에서 출발한 시외버스가 한 시간 연착을 했다. 버스 안에 서서 송자로부터 여러 가지 내가 모르고 있었던 초혜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초혜는 지난해부터 성격이 많이 바뀌었고 학교에서 합창단원으로 활동하기도 하고 성적은 학년에서 상위 급에 들어간다고 했다. 송자가 이런 말을 하면서 내가 무슨 반응을 보일 것을 기대하는 눈치였으나 행여 말이 와전될까봐 묻는 말에 계속 반문하면서 의문 부호만 넣었다.

“정말? 농담이지?”

송자가 떠별이는 소리를 듣다 보니 벌써 고향 면소재지를 지나고 있었다. 버스정류장이 있는 들녘은 고향 마을과는 오백 미터 정도 거리인데 이곳까지 고향 사람들은 가족들의 마중을 나와 있었다.

나와 같이 도회지에서 공부하는 학생을 제외하고 도회지에서 공장에 다니는 가족을 둔 사람들은 모조리 정류장에 다 모여 있었다. 심지어 집에서 키우는 똥개까지 꼬리를 흔들면서 마중을 나왔다. 그들은 도시 공단지역에서 힘겹게 벌어서 보낸 돈으로 동생들 학교도 보내고 생계를 꾸려가는 가장 역할을 하는 셈이다.

“엄마, 올해 농사는 어때요?”

서너 마지기 농사가 전부인 논농사가 그래도 걱정이 되어서 묻는 딸의 물음에 부모들은 긴 한숨을 내 쉬고만 있었다.

“그마저도 도열병 때문에…”

여름에 거칠게 불었던 태풍으로 들녘은 벼들이 마치 큰 물결을 형성하듯 쓰러져 있었다. 더구나 금년에는 유달리 잦은 비로 인해 벼멸구며 도열병과 잎짚마름병까지 겹쳐서 벼는 쪽정이뿐일 거라고 푸념을 하자 공장에 다니는 딸은 그래도 부모를 안심시키려는 듯이 말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이소. 올해 수출을 많이 해서 공장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보너스도 준다 카데예.”

“보너스를 준다꼬? 그기 뭐꼬?”

“봉급 말고 텀으로 더 준다는 말입니다.”

“봉급 말고 더 준다꼬? 아이고 고맙기도 해라. 그 회사 사장님이 댁씨가 디기 좋은 갑다.”

도회지 공장에서 귀향하여 가족들과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뒤에 따라가면서 묵묵히 들으며 우리 논이 있는 지역을 훑어보았다. 우리 벼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넘어진 벼들은 수확을 해도 쪽정이뿐이어서 고생만 했지 수확의 기쁨은 없을 뿐더러 벼가 뒤엎쳐

작업량도 두 배나 들어 힘들고 번거로운 작업임을 알기 때문에 속으로 가벼운 한숨만 쉬었다. 집 대문을 들어서자 조부모님과 누나는 논에 가고 어린 동생들만 장난을 치면서 재작을 부리고 있었다.

나는 초혜에게 받은 오징어 몇 마리를 가방에서 끄집어낸 후 동생들에게 맛이나 보라고 건네준 뒤 들녘으로 나갔다. 넘어진 벼농사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금년 추석은 거꾸로 보내게 되었다고 한숨을 지었다. 해마다 설 명절이면 열리는 노래자랑이 올해는 흥년으로 개최할지가 불투명하다고 4-H 청년들이 말했다.

추석날 아침이 밝았다. 할아버지 형제 일곱 명 중에 여섯 명이 고향 한 마을에 살고 있는지라 당숙부모들이나 재종형제들이 명절만 되면 한 곳에 모두 모여서 차례를 모셨다. 그래서 제일 큰집인 백부모 댁은 대가족을 이루었고 명절이 끝날 때까지 친척들이 드나들곤 했는데, 백모님과 갓 시집온 큰 형수는 눈코 뜰 새 없이 부엌을 들락거렸다. 마당 한편에 설치해놓은 널판에는 처녀부터 아이들까지 줄을 서서 널뛰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고교생 이상 되는 나이를 가진 사람들은 함께 어울려 작은 할아버지 댁을 차례로 인사를 하러 다녔는데 추석만 되면 집집마다 상에 올라오는 포도주와 정종을 마신 당숙과 재종형제들은 얼굴이 벌겋게 되어서 다녔다.

그러다가 내 또래의 사촌이나 재종들이 하나의 그룹으로 형성되었고, 비슷한 나이에 시집을 온 형수를 찾아서 작은댁으로 모이게 한 후 장구 장단에 맞춰서 신나게 놀곤 했다.

오늘도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 형수들과 제수들을 모으고 있을 무렵 첫째 누이가 나를 찾아 달려 왔다.

“오빠. 박초혜라는 학생이 역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단다. 빨리 가봐.”

나는 초혜가 우리 집에 온다면 추석 다음날 찾아오리라 생각했는데 당일에 온 점에 사뭇 놀랐다.

초혜의 집안도 밀양 박씨 문중이 상당히 넓다고 들었고 그 집안도 명절이 되면 외지에서 많이 귀향한다고 들었는데, 한 해에 한두 번 만나는 일가친척들이라 별반 정이 없나보다 하고 오토바이 시동을 걸었다.

집 마당을 나올 때 여동생들이 초혜의 모습이 궁금한지 등 뒤에서 당부를 주었다.

“오빠! 초혜라는 여학생 태우고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곧장 집으로 와.”

누이들이 그렇게 말하는 뜻은 오빠의 애인이기도 하지만 내가 다쳐서 초혜 아버지한테 치료를 받았다는 것과 더구나 치료비는 물론이고 보약까지 무료로 지어준 고마운 사람의 딸이 어떻게 생겼을까 몹시 궁금하고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은 듯 했다. 그것은 가족으로서 당연한 생각인지 모른다.

그리고 초혜가 오면 무엇으로 보답을 해야 할지 부모님과 누이들이 걱정도 된다고 말한 바 있었다. 부잣집이라고 하니 고구마나 찐 쌀을 선물로 줄 수도 없고 그런 것을 주어도 먹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하고 있었다.

나는 오토바이 속력을 내어서 단숨에 한림정역으로 달려갔다. 초혜는 역 마당 모퉁이에 피어있는 코스모스를 바라보고 서 있었다. 나는 반가운 나머지 클릭슨을 울리며 불렀다.

“초혜야!”

초혜는 뜻밖에 오토바이를 타고 온 나를 보면서 눈이 둥그레졌다.

“와! 오빠 근사해요! 오빠 집에 오토바이도 있었어요?”

“응, 인척 중에서 경남오토바이 선수가 있는데 그 분이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를 아버지가 구입했어. 이곳 면소재지에서는 유일해.”

“그런데 오빠는 오토바이 타는 방법을 누구한테 배웠어요?”

“아버지가 시동을 어떻게 걸고 클러치를 어떻게 당기는 지를 유심히 관찰해서 아버지가 주무시면 오토바이 키를 몰래 훔쳐서 아버지가 했던 방식으로 해보니 되던 걸. 하하하”

“내가 오긴 왔는데 오빠 집에 내가 가도 괜찮을까요? 뭐라 흥보지는 않을까요?”

“아냐. 외려 가족들이 너를 무척 보고 싶어 하고 있어. 사실 나는 초혜를 데리고 북동쪽의 낙동강 둑길로 데려가고 싶었는데 동생들이 셋길로 빠지지 말고 곧장 오라고 다짐을 주었으니 집엘 먼저 가야겠어.”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좁은 부담스럽네요. 낙동강 제방에 가서 데이트 하다가 약간 어두워질 때 천천히 집으로 가는 것이 좋겠어요.”

나는 초혜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 낙동강 둑길을 향해 액셀러레이터를 힘껏 당겼다.

낙동강 둑을 가는 길에 마을 신작로에서 점방을 하는 친구 가게에 들렀다. 친구 어머니는 나를 알아보고 반겼다.

“추석이라고 고향에 왔는가베.”

“친구는 어디 갔어요?”

“몰라. 어데 갔는지. 가시나 만나러 갔는지 지금 집에 없다.”

점방에서 사이다와 진해콩과 박하사탕을 사서 초혜에게 건네주면서 놓치지 말고 꼭 잡으라고 주의를 주면서 낙동강 독길을 따라 질주했다.

“오빠. 조금 천천히 달리면 안 되나요? 우와! 머리카락이 마구잡이로 훑날리니 눈을 찌르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유유히 흐르는 낙동강이 바다다 보이는 독길에 오토바이를 세웠다.

“야호!”

초혜와 나는 길게 뻗어있는 낙동강 백사장을 바라보면서 양팔을 벌려 소리쳤다.

“오빠, 저쪽이 어디예요?”

“음, 강 건너 보이는 곳은 밀양이고 왼쪽 버드나무 숲이 보이는 곳은 창원군이고 우리가 서있는 곳은 김해지.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서있는 곳은 삼개지역의 군이 나뉘지는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지.”

“참 신기하네요! 지도책에서나 볼 수 있는 점선에 우리가 서 있다는 말이네요?”

“그렇지. 저 앞에 보이는 밀양군 하남읍 쪽에서 물이 흐르다가 삼랑진 쪽으로 커브를 트는 관계로 많은 모래가 퇴적이 되어 백사장이 아주 멋있게 형성되었지. 그리고 미루나무 숲도 아름답고.”

초혜는 밀양이라는 말에 관심을 가지면서 낙동강 너머 밀양방향을 가리키면서 마을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명례라는 마을이야.”

“마을이 섬처럼 동그랗게 홀로 서 있는 느낌이 드네요. 저곳에 건

너 가본 적 있어요?”

“응, 장마철에 경북 경산이나 대구지역에서 떠내려 오는 사과 건지려고 낙동강을 헤엄쳐서 건너 가본 적 있어.”

“뭐라고요? 떠내려 오는 사과를 건지려고 낙동강에 헤엄쳐 들어갔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돼지도 떠내려 오곤 했는데 수영을 아주 잘하는 청년들은 죽은 돼지를 건지려고 물속에 뛰어들곤 했지. 그런데 언젠가 죽은 돼지 위에 큰 흑뱀이 꼬리를 틀고 있어서 혼비백산을 하고 되돌아 왔었는데 그 소문이 퍼지고 나서는 돼지 건지러 가지 않는다 했어.”

“오빠도 헤엄 잘 쳐요?”

“도회지 아이처럼 자유형으로는 할 줄 몰라도 개구리헤엄이라고 하는 평형은 자신 있어. 수영을 너무 좋아해서 물에 빠져 몇 초 상간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난 적도 있어.”

“뭐? 몇 초 상간에 살았다고? 어찌다가요?!”

초혜는 죽다가 살았다는 점에 엄청 놀라워하면서 경위를 들려달라고 졸랐다. 나는 발가벗고 물놀이 하던 개구쟁이 시절을 떠올리며 마치 영웅담처럼 얘기를 시작했다.

낙동강 지류에서 태어난 나는 어릴 때부터 여름이면 친구들과 어울려 못이나 저수지 그리고 샨강 등지에서 멍을 감고 즐겼다. 이런 늪에서는 수영을 하는 즐거움보다는 맨손으로 붕어를 잡는 다든지 대칭이나 우렁이를 잡는 재미가 솔솔 했고 갈대 사이에 집을 지어 놓은 뜬부기를 찾아서 알이나 새끼를 생포하는 재미가 너무 좋았다. 또 연꽃이 피고 나면 연밥, 가시연꽃의 씨앗인 말밥의 상큼한 맛

이 좋아서 강으로 늪으로 알몸으로 헤엄쳐 다녔다. 온몸이 갈대나 연 줄기에 스쳐 별장게 부어올라 생채기가 나고 추워서 입이 시퍼렇게 변해도 또다시 물속에 들어갔다. 오들오들 떨면서도 그 재미에 푹 빠졌었다. 그리고 연근 밭에서 건져 올린 시커먼 머드로 독길 언덕에 미끄럼대처럼 발라서 위에서 아래로 미끄럼 타듯 미끄러져 내려와서 물속에 다이빙하는 그 놀이를 여러 수십 번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엉덩이는 잔디에 긁혀 별장게 변하곤 했다.

그런 후 저수지와 작은 도랑을 연결하는 곳이 있는데 양쪽을 연결하는 오 미터 정도 되는 통로를 숨을 쉬지 않고 왔다 갔다 했는데 안경태라는 친구와 나는 거의 매일같이 했었다. 그런 날은 반드시 귀에 물이 들어가서 귓병이 생겨 면소재지 의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잉크약이라고 불렀던 시퍼런 약을 귀에 바르고 다녔다. 그렇게 물놀이를 좋아하던 중2때였다. 그 해도 어김없이 장마가 찾아왔고 저수지에 물이 불어나서 독이 넘칠 정도였는데 작은 물에서 놀던 나와 동무 그리고 마을 아이들이 물이 많은 저수지가 너무 좋아 불어나있는 물속으로 겁도 없이 풍덩 뛰어 들었다. 큰물을 만난 나와 동무들은 노는데 정신이 없었고 그렇게 한참을 놀고 있는데 내 다리에 물풀이 감기더니 몸을 자꾸만 에워쌌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외쳤으나 동무들은 겁을 집어 먹고 아무도 물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제방에서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었다.

나는 정신이 또렷했다.

‘물에 빠지면 이렇게 죽는구나. 이젠 부모형제를 보는 것도 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물을 먹고 또 먹으며 누가 나를 구출해주려

나 하고 주위를 계속 살피다가 또 물을 먹고 이렇게 삼십여 분을 물과 투쟁을 하고 있었다. 시골 5일장에 다녀오던 아낙네들은 이런 나의 사투를 보면서도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 하고 있었는데, 그 때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던 박상규라는 형이 나를 발견했고 군인답게 군복을 재빠르게 벗은 후 물에 뛰어 들어 왔다.

뛰어들면서 “광휘야! 내 몸을 껴안지 말고 내 손을 잡도록 해라 알겠지?”라고 말했다.

나는 물은 많이 먹었지만 정신이 또렷한지라 대답을 한 후 손을 잡고 천천히 물 밖으로 나왔다. 물으로 나온 나는 물속에서 얼마나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지 다리가 풀려서 일어설 수 없었고 자지와 불알은 물론 하체는 죽은 사람 시체처럼 시퍼렇게 변해 있었다. 함께 수영하던 동무들은 미안해서 나한테 오지도 못하고 죄지은 사람처럼 도망가듯 사라졌다. 이 소문을 전해들은 할머니와 어머니는 맨발로 내가 퍼질러 앉아 있는 곳으로 달려와서 나를 부축하며 일으켜 세웠으나 아랫도리가 힘이 없어서 일어설 수조차 없었다. 한참 만에 일어나 마치 전투에서 진 패잔병처럼 할머니와 어머니가 양쪽에서 부축을 해서 겨우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물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구경만하고 있었던 동무들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수영이야기를 하면 입을 굳게 닫아 버린다.

그럴 때면 “네 이놈들! 그때 내가 죽었으면 물귀신이 되어서 네 놈들을 다 잡아갔을 거야.”하고 농담을 한다.

우리 가족들은 그렇게 위기를 넘기고 살 수 있었던 것을 부처님과 용왕님의 은공으로 여겨 우리 집의 불심은 더 깊어만 갔다. 나는 그 이후로는 물에 대한 공포가 엄청나서 내가 물에 빠진 그곳을 보면

현기증이 들곤 했다. 부산으로 유학을 와서 광안리나 해운대 해수욕장을 몇 번 갔지만 그렇게 좋아하는 물과 수영이 겁이 나서 친구들의 웃지킴이로만 있었다. 얼마나 물에 대한 공포가 컸던지 물속에서 사경을 헤매지 않은 사람은 결코 짐작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낙동강을 바라보면서 물에 빠졌다가 구사일생 살았던 얘기를 길게 늘어놓자 초혜는 넋을 잃고 듣고만 있었다.

“까딱했으면 오빠를 못 만날 뻔 했네요!”

초혜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내 손을 잡고 각지를 세게 꺾다.

“그런데 초혜야! 지금 부모님과 서혜는 밀양에 있니?”

내가 물었지만 초혜는 깊은 고심이 있는 듯 말이 없었다.

“왜? 무슨 일이라도 있어?”

“그게 아니고 엄마는 할아버지 댁에 가지 않았어요.”

“명절인데 시댁에 안 갔단 말이지? 무슨 일이라도 있어? 내가 듣기로는 아버지가 종손이고 어머니가 종부라고 들었는데 그런 위치에서 명절에 고향에 오질 않았다면 집안이 조금 시끄러웠을 것 같은데…”

내가 염려 섞인 말을 계속하자 초혜는 마음을 먹은 듯 천천히 가족사를 설명했다.

어머니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셨을 당시, 한의원에서 큰 사고가 터졌다고 했다. 한의원에서 보조원으로 일하던 사람이 아버지가 서울 출장을 간 사이에 환자에게 침을 놓았는데 환자 두 명이 전신마비 증세를 일으켰다. 그것이 사건화가 되어 영업정지는 물론 피해가족들이 한의원을 찾아와 행패를 부려서 법적인 문제까지 발생했다. 재판에서 거액의 피해보상금을 물게 되었는데 개원한지 얼마

되지 않아 변상해줄 돈이 없었다. 그래서 고향 시부모님께 돈을 부탁했지만 돈을 가진 형제들조차도 모두 냉담하게 거절을 했다. 그동안 집안의 길흉사 등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시댁 일을 돌보았던 지난날을 뒤돌아보며 후회까지 할 정도로 엄청난 배신감을 느낀 어머니는, 결국 다니던 학교를 사직하고 받은 퇴직금과 동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근근이 사건을 무마했다고 했다.

그날 이후, 그동안 신봉했던 불교를 개종해서 기독교 성도가 되었고 시댁과 거의 의절을 하다시피하고 지낸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사사로운 일로 의절을 하고 개종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하고 안타까웠지만 남의 가정사를 두고 내가 왈가왈부하면 초혜가 난처해 할까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초혜도 그 문제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그것은 명절마다 되풀이 되었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어머니를 수없이 나무라는 것 때문에 이젠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라고 했다.

“그렇다면 아버지도 개종을 했니?”

나는 초혜 아버지의 종교관이 궁금해서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생존하는 동안에는 개종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어머니와 자주 다투다고 했다.

나는 초혜의 가족사가 자꾸 궁금해져서 묻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어머니는 교사를 하신 분이 어떻게 해서 공동어시장에서 그런 어산물 사업을 하게 되었어?”

나는 전직 교사라는 직업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길을 걷고 있는 초혜 어머니가 궁금해서 물었다. 초혜는 지난날을 회상하듯이 말했다.

“어머니는 학교에서 퇴직한 후 한의원에서 보조일을 하고 있었는데 환자 중에서 공동어시장에 일하는 중매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느 날 지리산 등지에서 간벌해서 나오는 잡목을 목재상에게서 켜 후 고기상자를 만들면 납품처를 알선해주겠다는 말을 했고, 어머니께서는 과감하게 시작했어요. 사업은 잘 됐고 나중에는 거래처가 많이 넓혀져서 전국 어시장은 물론 제주도 밀감상자까지 만들어 납품을 해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돈벌이는 잘 되었지만 지리산에서 잡목을 가져다 상자를 만드는 현장이며 전국 곳곳에 산재한 어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한다는 게 여자의 몸으로 여간 힘 드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까운 지인에게 거래처와 생산품을 인계한 후, 원양어선은 물론 연근해 어선에서 잡은 고기까지 통째로 사서 도소매 생선장수를 상대로 판매하는 쪽으로 업종을 변경했어요.”

초혜 어머니가 살아온 삶도 평탄하지 않았다는 짐작이 들었고 오죽했으면 종교를 개종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집안이나 문중에서 초혜 아버지의 처세도 여간 힘들지 않겠구나 싶었다.

나는 초혜 어머니가 더욱 궁금해서 제사나 시사 때는 오느냐고 물었더니 아예 제사 종류하고는 담을 쌓았다고 했다.

어쩌다 양심의 가책이 들어 제사 모시는 날 참석해도 시택 어른들은 크리스천이 만든 음식은 귀신이 먹지도 않을 뿐더러 제사 모실 때 서있기만 해도 귀신이 십자가를 보고 되돌아 가버린다고 해서 제사 지내는 곳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한다고 했다.

나는 초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암담하고 고달플까 싶었다.

이렇게 낙동강 독길을 산보하듯 걸으면서 얘기를 주고받다가 집

으로 돌아오자, 재종 집들을 둘러서 인사를 하고 돌아왔던 사촌 형·동생과 재종형·동생들 수십 명이 우리 집에 모여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더불어 백부모님, 당숙부모님, 숙부모님 일족이 우리 집으로 몰려 왔다.

할아버지 형제 중에 유일하게 생존해 계신 분은 우리 할아버지뿐 인지라 일족들은 집안에서 제일 큰 어른께 인사드리러 모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점에 내가 낯선 여학생을 오토바이에 태우고 집으로 들어서니 시선이 모두 우리에게 집중되었다. 나와 같은 형제 항렬에 해당하는 그룹에서는 자기들 방으로 데려오라고 소리를 쳤다. 그들은 얼굴에 익살이 가득 찬 표정으로 큰소리로 외쳤다.

“형수님 이쪽으로.”

“재수씨 이쪽으로, 헤헤헤.”

초혜는 그렇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을 보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그런 소리를 듣고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어머니가 있는 부엌 쪽으로 숨어 버렸다.

그럴 즈음 마을 회관에서 집으로 돌아오신 아버지는 사랑채에서 기다리고 있는 문중어른들과 절을 나눈 후 위채로 올라오면서 나를 찾았다.

“부산에서 네가 신세를 많이 졌다는 그 여학생이 왔다면서? 이리로 데려와서 인사를 시켜 보거라.”

도포와 유건을 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주눅이 든 초혜는 시선을 깔고 앉아 있었고 재종형제들과 누이들은 도회지에서 온 피부가 뽀얀 여학생에게 모두들 관심을 갖고 빙 둘러 앉아서 지켜봤다.

아버지는 아들이 초혜집에서 치료를 받아 완쾌시켜 준 점과 치료비를 한 푼도 받지 않고 치료해준 점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며 언제라도 초혜 아버지를 만나 뵙기를 희망했다.

그런 후 두루마리 창호지를 가져오라고 한 후 노트 크기로 여러 장을 잘라 놓고 재종형제에게 먹을 갈게 한 후 세필을 초혜에게 건네주면서 말씀하셨다.

“이름을 한자로 적어 보게. 조부모님과 부모님 함자와 본관도 적어 보게.”

붓을 받아든 초혜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떨리는 손으로 난초 그림을 그리듯이 한자를 썼다.

초혜가 서투른 붓글씨로 쓴 종이를 아버지가 받아든 후 관심을 가지듯 물으셨다.

“조부모님은 밀양에서 뭐하고 계시는가?”

“연세가 많으셔서 아무 일도 안하시고 그냥 편히 쉬고 계십니다.”

초혜는 엄한 훈장 앞에 앉은 학생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원래 농사일을 하셨는가?”

“아닙니다. 원래 조부님은 고종 황제의 어의였습니다.”

“어의라? 그렇다면 임금님의 건강을 돌보셨다는 얘긴데, 그래서 부친이 한의사가 되셨는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영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고 3학년이라고 들었는데 대학은 어떤 과목을 전공하려 하는가?”

“저는 어머니 말씀도 있고 저도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아 교육대나 사범대로 가려 합니다.”

“나는 아들 중에 한 명이라도 교육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아들들은 교육계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아쉬워하고 있네. 나중에 저쪽 서재에 가서 책을 한 번 보게. 서재에는 교육과 관련된 국내의 책들은 없는 게 없을 정도인데 저 책을 물려받을 자식이 있으면 좋으련만. 그래서 며느리라도 교사를 맞고 싶다네.”

초혜는 자신의 실력이 아직 교대나 사범대에 진학할 수준이 못된다고 겸손하게 말했다. 그런 모습을 눈여겨보시던 아버지는 많은 학생을 지도하고 진학을 시켜보아서 학생들의 외모와 걸음걸이 태도만 보아도 공부 잘하는 학생과 불량학생을 가려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초혜를 보시고는 지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어서 열심히 하면 사범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했고 또 입시라는 게 운도 많이 따른다면서 최선을 다하면 뜻한 바를 이룰 것이라고 격려를 하셨다. 이런 광경을 멀찌감치 지켜보고 계시던 어머니는 초혜의 긴장을 풀어주시려는 듯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저 양반은 우리 문중에 누구라도 방문하면 이렇게 상대 문중에 대해 알고 싶어 하니 학생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거래이.”

어머니는 누이동생들에게 초혜를 데리고 가서 편히 쉬게 하라고 일렀다.

사랑채에 자리 잡은 문중어른들은 대청마루에 앉아 있는 재종형제들과 사촌동생들을 모두 내려오게 했다.

나는 초혜에 대해 또 무언가 물어 보실 일이 있나하고 아래채로 내려갔는데 대중회에 관한 의논을 하기 위해서였다.

초헌관은 누구를 하고, 아헌관은 누가 맡고, 종헌관은 누가 담당해라는 것이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재종형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으나 도시 공단에 취업한 재종형들은 첫 주와 셋째 주에만 노는 날이라며 참석하기 곤란하다고 하소연하듯 말했다.

육십 평생을 살아오시는 동안 직장 생활은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오로지 농사만 지으셨던 당숙부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화를 내는 표정을 지으셨다.

“그깟 공장은 하루 결근하고 조상을 잘 모셔야지.”

해질녘이 되자 우리 형제, 누이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각자가 맡은 청소 구역으로 나갔다.

아버지는 우리 집의 대지 평수가 넓은지라 청소구역을 정해 놓았는데 큰방은 큰 딸, 작은방은 둘째 딸, 사랑채는 셋째 딸, 나는 마당과 대문에서 좌우 옆집 대문까지 대빗자루로 청소할 것을 지정해 두었다.

평소 하루 일과가 끝나고 나면 아버지는 청소구역을 검사하신 후 청소를 하지 않은 구역의 책임자는 밥 먹을 때 한 쪽에서 밥상을 들고 벌을 세우곤 했다. 그 중에 제일 벌을 많이 받는 사람은 셋째와 넷째 여동생이 맡은 사랑채와 머슴들이 자는 방 앞의 대청마루였다. 아래 대청마루는 빗자루를 쓸고 물걸레질을 해놓고 나면 어느새 닭장에서 뛰쳐나온 닭들이 나타나서 퐁을 싸놓고 가기 때문이다. 퐁덩어리야 빗자루로 쓸어버리면 되지만 물퐁을 쏟아놓고 가면 누이동생들은 기겁을 하고 청소하기를 꺼려했다. 그래서 불평 많은 여동생들은 닭들만 보면 대빗자루로 쫓아내곤 했고, 닭들은 이리저리 용하게 피한 후 보복이라도 하듯 다시 마루에 올라가서 분변으로 재작을 부려 놓곤 했다. 그래서 누이들은 틈만 나면 닭들을 모이

로 유인해서 닭장에 몰아넣곤 했지만 할머니는 닭을 가둬서 키우면 살이 빠진다고 닭장 문을 열어 주곤 하셨다.

나는 내 구역인 마당을 대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광경을 문틈으로 훑쳐보던 초혜는 너무 신기했던지 뚫어져라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집집마다 저녁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을 때 마을방송 마이크에서는 오늘 저녁 노래자랑을 알리려는 듯 뽁뽁거리는 앰프소리가 들리더니 ‘새마을’ 노래와 ‘새마을 아가씨’라는 노래 소리가 울려 퍼졌다. 행진곡풍의 씩씩한 노래 소리가 끝난 후 안내방송이 흘러 나왔다.

“알리겠습니다. 객지에 나갔다가 명절을 맞아 고향에 돌아오신 동민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해마다 설 명절이면 거행하는 콩쿠르를 올해도 개최하게 되었으니, 저녁을 잡수시고 저녁 7시부터 방앗간 근처에 있는 공터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노래도 하시고 장기자랑도 하셔서 훈훈한 가족애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내 방송이 끝나자 ‘비둘기 집’이라는 노래를 틀어주었다. 마을이 떠나갈듯 울려 퍼지는 노랫소리를 듣고 초혜는 신기했던지 눈알을 굴리면서 말했다.

“도시에서는 별로 느끼지 못했던 새마을운동이 시골에는 굉장하네요. 노래도 온통 그런 노래 일색이구요.”

“그리고 보니 초가집이 많이 없어졌군. 우리 집도 위채는 갈대로 지은 집인데 기와집으로, 아래채는 슬레이트지붕으로 탈바꿈했으니.”

“그런데 오토바이를 타고 오면서 마을 집 모양을 유심히 보았는데 밀양 할아버지 동네와는 달리 갈대집들이 상당히 눈에 많이 띄었어요. 이곳에 어디 갈대가 많은가요?”

“응, 이곳은 낙동강 인근이라 늪들이 많아. 늪에는 갈대들이 많이 서식하지. 특히 화포천 늪에 가면 온통 갈대밭이고 마을 뒤쪽의 뜰도 일제강점기까지는 갈대밭이었어. 짚으로 만든 초가집은 한 해가 지나고 나면 썩어서 새로운 짚으로 지붕을 입혀야 하지만 갈대로 만든 지붕은 수십 년이 지나도 괜찮거든.”

“그러면 모두 갈대 집으로 지으면 좋을 텐데 왜 해마다 지붕을 바꿔야 하는 초가집으로 짓나요?”

“하하하. 그것은 갈대로 지으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엄두를 못 내지.”

마을 방송이 끝나고 나자 여동생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둘째 여동생은 스포츠에 뛰어난 자질을 갖고 있었고 성격 또한 발랄한지라 오늘밤에 열리는 노래자랑에 나가서 반드시 대상을 받아서 대상으로 시상되는 큰 대야를 꼭 들고 오겠노라고 호언하면서 노래 연습을 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여동생이 많아 어리둥절하던 초혜도 금세 어울려 웃으면서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했다.

셋째 동생이 초혜에게 말을 붙였다.

“언니도 노래 잘 할 것 같은데 오늘 저녁에 대회에 한번 출전하면 어떨까요?”

“남의 동네에 와서 어떻게 노래를?”

“괜찮아예. 콩쿠르는 우리 마을 사람뿐만 아니라 이웃마을 사람

들도 참여해요. 더구나 우리 마을은 예전부터 우리 집안이 우승권에서 벗어난 적 없어요. 그리고 오빠들이나 동생들, 삼촌, 당숙들이 응원을 많이 해줘서 노래하면 신이 나거든요.”

이렇게 동생들이 옆에서 노래자랑에 나가라고 부추기자 초혜는 자신감을 내비치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오빠는 노래 안 해요?”

초혜가 묻자 동생들이 한목소리로 답했다.

“오빠도 당연히 노래하지예.”

그런 말을 들은 후에야 초혜는 납득이간 듯 머리를 끄덕였다.

형제자매와 초혜는 마을 공터에 설치된 가설 콩쿠르장으로 향했다. 기름 드럼통을 수십 개 받힌 후 그 위에 평상을 여러 개 올려놓고 그 위에다 명석을 깔아놓은 무대였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싱어로 활동하고 있는 고향친구가 색소폰과 드럼을 두드리면서 악기 테스트를 하고 있었다.

이윽고 기다리던 노래자랑이 시작되었다.

어떤 출전자가 무대에 오르면 그 집 일가족이 무대아래에 몰려와서 잔치처럼 노래도 하고 춤도 함께 추는 이판사판 노래자랑인 셈이 되어 콩쿠르 무대는 마치 축제의 한마당 같았다. 노래를 무대에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온 가족이 하다 보니 분위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우리 가족도, 내가 부를 때와 둘째 여동생이 부를 때도 마찬가지였다. 나와 누이동생이 노래 할 때는 그 숫자가 엄청 많아서 개인노래자랑인지 단체노래자랑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다. 다음은 우리 가족으로 출연 신청한 초혜가 노래를 할 차례였다.

나와 연인 사이라는 걸 귀동냥으로 들은 사회자는 멘트를 넣기 시작했다.

“다음은 이 답에 광휘의 색시가 될 아가씨가 노래하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자 우리 집에서 초혜를 만났던 재종형 동생들과 사촌들이 일제히 무대 앞으로 나와서 미리 춤을 추고 있었다. 그런데 초혜가 부르는 노래는 신나는 노래가 아니고 슬로우락 노래를 부른 관계로 리듬에 맞춰 춤을 추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곤 멋쩍어하면서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서 명석에 앉았다.

“뭐 저런 노래도 있노? 처음 들어본 노래인데?”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반주를 맡은 밴드들은 음악 반주를 멋지게 뽑아내고 있었다.

그 노래 제목은 바니걸스라는 쌍둥이 자매가수가 불렀던 ‘파도’였다.

노래자랑이 끝나고 나서 시상을 하는데 모두들 옛날 노래나 신나는 노래를 부른 사람이 대상을 받을 거라고 내다보고 있었는데, 우리 마을에 살면서 중학교 음악 선생님이로 재직하고 있는 심사위원은 초혜를 대상으로 호명했다. 아무튼 나와 여동생은 상을 못 받았지만 초혜가 대상을 받음으로써 우리 집안이 받은 것과 같은 기쁜 마음으로 작은 할아버지 덕으로 몰려가서 장구치고 놀기 시작했다. 노래자랑 뒤풀이를 신나게 하고 있는데 나보다 세 살 위의 당숙부가 나를 불러냈다.

“당숙부, 왜 찾아요?”

“광휘야, 다름이 아니고 집에 가서 오토바이 좀 끌고 나오나.”

“당숙, 어데 갈라꼬 그래요?”

“말곤이 고모집 누나 공달자라고 알제? 달자하고 데이트 좀 할라꼬.”

“응, 당숙 애인 말인가요? 하하하.”

“니는 어데서 소문 들었노?”

“그 소문은 동네에 다 나 있던데요. 히히.”

나는 집으로 부랴부랴 달려와서 먼저 아버지가 어느 방에 있는지 유심히 살폈고 큰방에서 술에 취해 코를 골면서 주무시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했다. 다행이다 싶어서 문을 조심스럽게 연 후 바지에서 오토바이 키를 꺼내들고 창고로 가서 시동을 걸지 않고 살짝 대문 밖으로 끌고 나왔다.

대문에서 길가로 나오는 길은 경사가 있어 시동을 걸지 않아도 십 미터 넘게 갈 수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당숙부에게 오토바이를 넘겨주고 초혜가 있는 작은할아버지 댁에 가서 다시 어우러져 놀았다.

초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시골, 우리 집안만의 특이한 놀이문화를 보고 한편은 놀라워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부러워했다.

“오빠 집안사람들은 참 우애가 있어 보이네요. 우리 집안은 사촌 이상은 남처럼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사촌이나 재종간이 마치 친형제처럼 잘 어울리네요?”

“음, 그것은 할아버지 자손들이 한 마을에 집성촌을 이루고 살아왔고, 항상 가르침이 우애 있게 지내라고 강조하시고 어른들이 먼저 그런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시니까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본받아서 그렇다.”

흥겹게 놀고 있는데 마을 청년이 나를 급히 찾았다. 자초지종을 들어 보니 오토바이를 몰고 간 당숙부가 사고를 냈다는 것이다.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듣자 말문이 탁 막혔지만 길게 심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자전거를 타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술을 마신 당숙부는 공달자라는 애인을 태우고 마을 독길로 달려다가 끝 지점에서 급커브를 돌다가 운전 부주의로 십 미터 아래 낭떠러지로 떨어졌다. 오토바이는 언덕 아래 바위에 떨어졌고 당숙부와 공달자는 물웅덩이에 나란히 떨어졌다고 했다. 영화 같은 장면이 발생한 것이다.

오토바이는 완전 파손되었지만 두 사람은 부러진 곳 하나 없이 타박상만 약간 입었다. 참말로 끔찍한 일이 일어날 뻔 했지만 사람이 다치지 않았으니 다행이었다. 그러나 다음이 문제였다. 몰래 끌고 나온 오토바이 때문에 아버지께 야단을 들을 것을 생각하니 난감했다.

종이를 구겨 놓은 것 같이 쭈그러진 오토바이를 보니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질 않았다. 그렇다고 그냥 둘 수도 없어 어찌나하고 있는데 당숙부는 면소재지에 오토바이센터가 없으니 자전거방에라도 일단 맡기자고 말했고, 여러 사람이 오토바이를 끌고 2킬로미터 거리를 들고 가다시피 끌고 가서 겨우 맡겼다.

“당숙부! 아버지한테 뭐라 케야 되겠소? 디기 야단칠 낀데!”

“우야겠노. 내가 급한 볼일이 있어서 니보고 키를 가져오라 췌다꼬 실토해야지.”

“모르겠소. 당숙한테는 아버지가 사촌형이니 당숙이 말 잘 해주이소. 부탁해요.”

그렇게 당숙부와 약속을 하고 헤어졌다.

추석의 후끈한 열기는 서늘한 가을 밤공기에 잦아들었다. 아침에 다시 가족들과 대면하기가 왠지 꺼끄러울 것 같아 새벽답이 올라 초혜를 깨워 자전거에 태우고 한림정역으로 와서 도망치듯이 부산 가는 첫차를 탔다.

초혜는 오토바이가 걱정이 되는 듯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어서 열차 안에서 곡절을 말해주었더니 어이없어하며 웃기만 했다.

7. 검은 선글라스

선글라스는 직업과 신분에 따라 색깔이 변한다.

추석에 도망치듯이 부산으로 내려온 후 그간의 소식이 궁금해서 일주일 만에 다시 고향을 찾았다.

아버지의 야단이 두려워서 도망치듯 부산으로 왔지만, 범죄자가 자신이 저질렀던 현장에 꼭 다시 가고 싶은 심리가 있다고 했듯이 부서진 오토바이는 수리를 했는지 또 당숙부는 얼마나 야단을 맞았는지 모두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대문을 들어서자 어머니는 크게 웃으면서 반겨주셨다.

“광휘가 죄를 지어 놓고 부산으로 도망갔다고 너거 아버지가 말 하더라. 니가 떡이며 송편, 고기부침개, 고구마부침개를 좋아해서 부산 갈 때 보자기에 싸줄라꼬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언제 가

버렸는지 없더구나.”

“어머니! 아버지께서 화가 많이 났지예?”

“처음에는 너거 당숙부한테 화가 많이 났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중학교도 못가고 큰집에서 머슴 산다 아이가. 불쌍해서 야단을 칠 수도 없고 더구나 오토바이를 몰릴 수도 없고 해서 그냥 그 오토바이는 폐차 시켜버리고 새 오토바이를 다시 샀다 아이가.”

“예? 새로 샀다꼬예?”

“응. 그때는 검은색 오토바이였지만 이번에는 빨강색으로 샀는데 색이 정말로 곱더라. 조금 있으면 너거 아버지 올 낀데 한번 보거라.”

나는 조금 있으면 아버지가 오신다는 말을 듣고 겁도 나고 눈이 마주치기 싫어서 당숙부집으로 도망가듯 달려갔다. 그렇게 당숙부집으로 가고 있을 때 검은 지프차가 마을로 들어섰다. 그 지프차는 당숙부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점방 앞에 멈춰서더니 검은 정장에 검은 선글라스를 낀 건장한 청년들 세명이 내렸다. 나는 언제부터인가 검은 선글라스를 낀 사람을 만나면 며칠간 기분이 안 좋았다.

검은 안경잡이가 나타난 것은 이웃 동네 J선배와 K선배 때문이었다. 두 선배는 유신헌법을 반대하다가 긴급조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수배중인 인물이 되어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 있었고 그런 두 사람을 검거하기 위해서였다.

중앙정보부에서는 이들이 멀다하고 우리 고향을 방문했는데 주로 중앙정보부 경남본실에서 나오거나 어떤 때는 서울에서 내려오기도 했다.

진영 방향으로 오는 길이 더 가깝지만 연고지 소재가 우리 면에 있으므로 우리 마을 앞으로 주로 와서 마을 사람들에게 동태를 물

어보곤 했다.

“그 새끼들 나타난 적 없소?”

선글라스를 낀 사람이 보기 싫은 까닭은 또 있다. 그것은 우리 먼 소재지 지서 순경들도 덩달아서 끼고 다녔기 때문에 검은 선글라스는 검은 그림자 같은 존재였고 누구에게나 두려움의 상징이 된 것이다.

지서 순경들은 일과 중에는 물론이고 점심이나 저녁을 먹은 후 소화시킬 겸 혹은 무료하면 두 선배를 검거하기 위해 슬그머니 나타나 마을 주민들에게 위압감을 주면서 정보를 캐려고 기웃거렸다.

그것은 마치 소발에 쥐잡기식이어서 잡힐 확률은 천분의 일도 못 되어 보였다. 물론 두 선배를 검거만 하면 현상금 천만 원이니 도시 최고급 맨션아파트 한 채를 얻는 셈이 된다. 거기다가 일 제급 특진 까지 주어지니 잡기만 하면 주택복권 당첨보다 더 큰 행운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시도 때도 없이 들락거리는 것이다.

그러나 어리석고 무지한 시골마을 사람들이지만 분명한 것은 두 선배가 도둑이나 강도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마을사람들은 그들이 순경의 말처럼 김일성을 추앙하면서 빨갱이천국을 만들고자 운동하는 사람이 결코 아님을 알고 있었다. 순박한 국민의 등을 치는 몰이배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직접 들은 바는 없었지만 소문과 느낌으로 알고 있었다.

중앙정보부나 보안대에서 시골 사람들을 붙잡고 그들은 이적분자에 빨갱이라고 덧칠을 하기도 하고 빨강색을 무작정 뿌려놓아도 그 알맹이는 흰색임을 누구나 잘 알고 있었다. 검은 선글라스 뒷면에 숨은 거대한 음모를 간파하고 있었고 그들은 야수보다 더 잔인

하다는 것을 이미 짐작으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고향 사람들의 반공에 대한 정신무장은 여타지역에 비해서 남달랐다.

한국전쟁이 낙동강 전선으로 압축되어졌을 때 김해지역에서는 좌익세력들이 인민을 해방시키고 곧 적화통일이 된다고 선전을 하면서 면민들에게 보도연맹 가입을 종용했다.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협박을 하고 다녔다. 그렇게 해도 끝내 보도연맹에 가입하지 않으면 낮에는 가만히 있다가 밤이 되면 그 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댔다.

“봉석아! 니도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일 모레면 공산당이 우리 남조선을 해방시킨다네!”

다른 집안보다 형제간의 우애가 두텁다고 소문난 우리 집안도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져 좌익을 따르는 백부와 우익을 따르는 할아버지가 끝내는 보도연맹 가입문제로 의절을 하고 말았다.

그러나 끝끝내 좌익계열에 서서 해방운동에 매진하던 몇몇 친족들은 안하리 골짜기로 끌려가서 총살을 당했다. 그것은 곧 공산당 천지가 된다고 호언장담한 좌익 계열과 죽었으면 죽었지 공산당은 절대 반대라고 주장한 우익 계열과의 치열한 싸움으로, 인천상륙작전이 있는 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지리산 빨치산들처럼 김해평야에서도 좌·우익 간의 생존을 위한 전쟁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얼굴을 드러내놓고 활동하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보도연맹에 도장이나 지장을 찍은 사람 색출작업이 계속 이루어졌다. 위기를 느낀 보도연맹 당원들은 인천상륙작전 때 북한군이 남한에서 고립되었을 때 그들과 합류해서 월북한 사람들도 더러 있었다.

그런 경험을 몸소 겪은 고향 사람들은 좌익은 어떤 것이고 빨갱이가 하는 행동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더 나아가 그와 유사한 시대적 사건에 대한 진위는 타지역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었다.

십 년 전후에 일어난 학보병사건, 경향신문 간첩사건, 동백림사건, 통일혁명당사건, 간첩사건, 인혁당 재건위사건까지 나는 유심히 지켜보았다. 저게 정말로 참일까 거짓일까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언론보도와는 다른 해석을 하고 있었다.

검은 선글라스는 항상 불길함의 상징이 되었다. 알랑 드롱이나 장 폴 벨몽드 그리고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연예인이 낀 선글라스는 멋있는데 독재 정권의 하수인이 낀 검은색 선글라스는 음흉스럽고 차가운 칼날이 번득였다. 그러므로 순박한 시골 사람들에게겐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검은색 선글라스 뒤에 움직이고 있는 야수의 눈동자를 크게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겹게 여기는 안경 색깔은 색상이 없는 투명한 유리알에 빨테 돋보기안경이었다. 김구 선생, 조만식 선생, 정지용 시인의 동그란 검은색 빨테 안경과 투명한 유리알 너머로 보이는 다정한 눈동자를 보고 정겨움을 느끼고 친밀감을 표시한다.

오늘도 선글라스 무리들이 우리 면을 방문한 목적은 두 선배를 잡기 위해서 왔고, 그들은 두 선배가 추석날은 피하고 며칠 후에 올지도 모른다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찾아온 것이다.

선글라스를 낀 그들은 마치 물풀이 많은 늪의 계곡에서 잠복해 있다가 나타나는 악어 떼처럼 순식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했다. 하얀 먼지를 내고 달려오는 지프차는 늪 속에서 이동하는 악어들

무리처럼 그렇게 은둔을 번갈아 하면서 움직였다.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고통이야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일반 국민들도 피해자이기는 마찬가지였다. 언론자유가 봉쇄되어 자칫 잘못하면 빨갱이로 몰려 붙들려가기도 하고, 눈과 귀가 막혀서 방송이 나와도 저게 사실일까 하면서 어용언론이라 치부하면서 의심부터 했다.

가요마저 약간만 의식이 있다고 생각되는 노래는 음반관리법으로 방송금지령을 내렸고 그런 노래가 술하게 나왔다.

김민기 노래를 필두로 한대수 노래 ‘물 좀 주소’, 어제까지 즐겨 불렀던 송창식의 ‘고래사냥’, ‘왜불러’와 양희은의 ‘아침이슬’ 등 술한 노래들이 어느 날 방송에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런 가수들이 방송국과 사이가 나빠서 음반을 틀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방송금지 사유가 너무나 코믹했다. 노래 가사가 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었는데, 장발 단속에 걸린 대학생이 달아났을 때 경찰이 체포하기 위해서 ‘거기서!’ 하고 부르면 달아나던 청년이 ‘왜 불러?’ 하고 반말을 하는 느낌이 든다는 등 이런 식으로 얼토당토 않는 이유를 붙여 금지곡으로 명했다. 이렇게 금지된 노래가 술하게 많아서 어떤 가수의 음반 표지는 붉은색 사선이 그어진 노래가 더 많을 정도였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젊은 층에 사랑을 많이 받았던 이장희가 한국에서는 가수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며 태평양을 건너 가버렸다.

그와 반면 고향을 노래의 주된 소재로 해서 재미를 톡톡히 본 가수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가수는 나훈아와 김상진이었다. 아무리 들먹이고 우려먹어도 금지되지 않고 잘 한다고 박수만

받고 돈도 잘 벌고 있으니 고향이야말로 그들에겐 보배와 같은 명칭이었다.

‘머나먼 고향’, ‘고향역’, ‘고향아줌마’, ‘너와 나의고향’ 등 많기도 하다. 제목이든 가사든 약간 고향 냄새만 넣고 만들어 곱탕을 우려내듯 자꾸 우려먹으면 되었다. 해방과 한국전쟁, 그리고 1·4후퇴가 일어난 후 수십 년 만에 고향을 소재로 재미를 톡톡히 본 가수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도 머리를 길게 해서 멋을 맘껏 내고 싶었다. 나는 어느 날 오후에 장발로 귀를 덮고 빗으로 곱게 빗어 돌리고 청바지를 입고 셔츠의 깃을 깔끔하게 다려 입은 후 초혜를 만나기 위해 광복동에 있는 르네상스 음악실을 향했었다. 모처럼 만난다고 생각한 나는 무척 마음이 들떠서 걸어가고 있는데 남포극장을 돌자 거리가 웅성거리기 시작하더니 순경들이 산발적으로 나타나서 장발단속을 벌였고 나도 끌려가서 순경 입회하에 머리카락을 잘렸는데 그 모습은 마치 오래 사용한 싸리빗자루 모양 같았다.

그날은 하숙집으로 곧장 돌아오고 싶었으나 초혜가 기다리고 있을 게 염려되어 그러지 못하고 약속시간보다 한 시간이나 늦게 만났고, 잘린 머리는 내가 봐도 우스꽝스러워 초혜 앞에 오래 있을 수가 없어서 집으로 가야겠다고 말하며 버스를 타고 하숙집으로 돌아왔다.

“참, 기분 더럽네! 제 것도 제 마음대로 못하는 세상이 아닌가. 야, 이 등신들아! 그래도 독재가 좋으냐? 생각 없는 등신들아!”

총선 때만 되면 아무 생각 없이 여당인 공화당을 찍겠다고 설치는 친구들에게 흥분하면서 말했다.

나는 자전거를 타고 고향의 후미진 곳을 돌아다녔다.

낙동강 백사장에서 한국전쟁 때 사망한 이름 없는 무명용사의 것으로 보이는 해골이 모래톱에 불거져 나온 것을 목격했다. 순간 아직도 우리 고향의 산야에 전쟁의 상흔으로 남아 있는 반공호를 떠올렸다. 그리고 베트남전쟁은 아직도 종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고교시절에 3부두에서 월남파병 환송식을 하고 참전용사들에게 위문편지를 계절마다 쓴 기억도 뚜렷하게 갖고 있다.

그 중에 대구가 고향이라는 황의완이라는 육군 병장과는 졸업할 때까지 편지를 나누었다. 그리고 그 분이 보낸 사진 중에는 정글 속에서 큰 뱀을 목에 걸고 찍은 게 있었는데, 나는 소중히 간직하면서 귀국하면 꼭 만나기로 했으나 졸업을 하고 집을 챙기는 과정에서 주소를 분실해버렸다.

우리 마을 앞 동네에 사는 초등학교 2년 A선배 집 대문에는 연중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다. 그 선배는 월남 전쟁 때 청룡부대로 참전했다가 전사했다. 한편으로는 면소재지에서 촌뜨기 건달들이 폭력배로 분류되어 국토재건사업단으로 제주도로 끌려가서 강제 노역을 당하고 있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건달과 폭력배의 기준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도대체 감을 잡을 수 없었고 어떻게 분류를 해서 색출하는지 조차도 알 수 없었다. 그들 중에는 건달도 폭력배도 아닌 그저 직업 없이 돌아다니는 실업자였을 뿐이었는데 그게 이유가 되어 끌려가기도 했다. 주거가 확실한 것도 가족이 있는 것도 아무소용이 없었다.

내가 폭력배라 칭하는 무리들은 하동의 조폭들이나 부산 범일동

조폭들처럼 단체로 몰려다니면서 각목을 사용하거나 잭나이프를 소지하면서 집단 폐싸움을 벌이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우리 고향 면소재지의 건달들은 싸움이라야 기껏 고교생 집단싸움보다 못한 초라한 싸움일 뿐인데 그런 사람을 폭력배라고 체포해 갔다고 하니 우습고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았다. 누군가 모함한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지배적이었다.

이를 즈음 면소재지에서 유일하게 아버지 혼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 이래 요란스럽게 등장한 또 한 대의 오토바이가 나타났다.

파월장병들이 돌아온 후 정부에서 창설한 것이 예비군인데 면사무소 곁에 설치된 예비군 본부에 국방색 오토바이가 보급되었다. 그것은 독일 계슈타포처럼 큰 소음을 내면서 거리를 활주하면서 다녔다.

또 매 시간마다 텔레비전 방송은 물론 라디오에 나타나는 박정희 대통령의 동향과 공화당 소식은, 이 나라는 박정희가 없으면 안 되는 나라로 여겨졌고 그는 이미 신격화 되어가고 있었다.

거대한 바위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 앞에서 그 벽을 깨기 위해 홍길동이나 임꺽정처럼 뛰어다니는 J선배를 이해할 무렵 K선배가 부산에서 누나집 다락방에 숨어 있다가 매형의 신고로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유명 법대에 입학해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고향 친구가 유신헌법 철폐를 주장하는 가두데모에 참여했다가 잡혀갔다. 그는 중앙정보부가 광화문 근처 건물 옥상에 설치해둔 비디오카메라에 찍혀서 움짍할 수 없는 증거가 되어 제적당했다는 소문도 들려왔다.

귀가 떨어진 국민들, 알 권리마저 빼앗긴 국민들 앞에 간간히 풍

경소리처럼 들려오는 지성인들의 목소리가 있었다. 젊은 청년들에게 이 시대 상황을 알리는 연세대 김동길 교수의 메시지를 비롯해서 함석헌 선생의 싸움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발돋움의 초석이 되었다. 임창영 님의 ‘위기에 선 조국에 부치는 글’, 부완혁 선생의 ‘헌정과 위헌’, 장준하 선생의 ‘위기에 대한 책임’, 홍사중 선생의 ‘자유와 폭력’, 지명관 선생의 ‘한국정치풍토의 재검토’, 문익환 선생은 시국 강연을 통해서 참 민주주의를 설파하며 국민들의 의식을 일깨우고 있었다.

국민들에게 눈을 똑바로 뜨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라는 지성인과 재야인사들의 이런 가르침은 국민과 청년들에게 한줄기 샘물처럼 목마름을 적셔주고 있었다.

또 시대의 아픔을 문학적인 방법으로 우회적으로 글을 쓴 장준하 선생이 발행인으로 있는 ‘사상계’ 잡지나 백낙청 선생이 발행인으로 있는 ‘창작과 비평’ 등의 잡지는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의 참뜻과 방향을 제시해 주었지만 결국 불순한 잡지라고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 그 후로는 진실을 당당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잡지로 변해갔다. 그것을 박 정권 하수인들이 그냥 놔둘 리가 만무했기 때문이다.

고향 마을 점방에서 재종형을 만났다. 그 형은 갓난 애기 때 유행처럼 지방을 휩쓸고 간 콜레라로 아버지를 잃고 유복자로 태어났던 형이다. 내게는 당숙모인 젊은 새댁을 지아비도 없는 집에서 청상과부로 늙게 할 수 없다며 문중에서는 회의를 했고 결론은 갓난아이를 숙모가 키우고 당숙모님은 재혼을 하게 했다.

그렇게 자란 재종형은 유달리 노래를 잘 불렀다. 마치 외로움과 슬픔을 털어내고 토해내려는 듯 노래하기를 좋아했다. 그래서 우리

재종형제들은 봉화마을의 잔치는 물론 창원군 동면 대진교에 있는 종가에서 결혼이 있으면 그곳까지 십오 킬로 길을 장구를 메고 가서 며칠간 놀다 오곤 했다.

그런 재종형이 지난해 봉화마을 재종고모가 결혼을 해서 닷새 정도 밤낮없이 놀다온 적이 있었다. 그때 봉화마을에는 시골에선 보기 드문 아름다운 처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재종숙모님한테 들으니 허은숙이라고 했는데 소문대로 조신하고 미려한 처녀라고 칭찬이 자자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 소문을 우리 마을에 와서 친구들에게 말하자, 그 처녀에게 한번 프러포즈 하자며 해질녘에 청년들이 떼를 지어서 그녀의 집 앞으로 찾아가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큰 목소리로 불렀다. 당황한 허은숙은 약혼자 강송현이 고시공부를 하고 있는 봉화사를 찾아가 상황을 일러바쳤고 화가 난 강송현은 주먹을 불끈 쥐고 산에서 함께 내려 왔다. 이런 사실도 모르고 대문 앞에서 처녀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던 마을청년과 재종형은 한참 만에 허은숙이 어떤 청년과 함께 나타나자 왜소하게 보였던 강송현을 알아보지 못했다. 체격이 작다고 방심하고 있었던 순간에 강송현은 느닷없이 우리 마을 청년 중에 제일 체격이 큰 K를 향해 달려와서 얼굴에 헤딩으로 박았다. 순간적인 일격을 당한 K는 코뼈가 부러지면서 코피를 줄줄 흘리며 그 자리에 뒤로 나자빠져 버렸다. 당찬 강송현에게 일격을 당해서 순간 당황했지만 화가 치민 우리 마을 총각들은 보복하겠다고 에워쌌다. 강송현은 자신의 집에 달려가 쇠스랑을 들고 나와 못등 위에 올라가서 공격해오면 찌를 태세로 저항을 해서 더 이상 공격을 하지 못하고 그 길로 얼굴이 묵사발이 된 K를 부축해서 마을로 돌아갔다. 재종형은 몇 년 전의 그 순간을

떠올리며 말하고 있었다.

“강송현, 쪼깐 새끼가 비호처럼 달려 오갔고 K를 목사발 내뺏파
아이가.”

강송현 사건이 진영 읍내에 번질 무렵 후기 대학 발표가 나고 있
었다. 서너 곳의 체대에서 합격통지서를 받았다.

“내가 깡패 새끼를 키웠구나.”

아버지는 체대 합격통지서를 내민 나를 보며 노발대발하며 합격
통지서를 찢어버렸다. 평소에 잘못이 있으면 야단을 치던지 매를
드시던 아버지는 내 뺨을 후려 갈겼다. 그래도 흥분이 가시지 않은
듯 마당을 서성였다.

아버지는 조금만 더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흔히 말하는 공상법
대학을 갈 수 있는데 아버지의 당부를 거역한 점에 엄청나게 분노
를 하셨던 것이다.

나는 이런 아버지의 말씀에 굴하지 않고 서울 쪽으로 대학에 가
겠다고 고집을 부렸으나 네가 그렇게 가고 싶으면 너 스스로 벌여
서 다니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말을 자른 후 집을 나가셨다.

나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초혜는 조바심이 나서 시골집
으로 전화를 했다.

나는 아무런 답을 줄 수가 없었고 부산에 내려가는 대로 초혜집
을 찾겠다고 했다. 나는 더 이상 고향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
고 앞으로도 그러하리라고 마음속으로 느끼면서 또 다른 다짐도 했
다.

시외버스를 타고 부산역 앞에서 환승하기 위해 내린 후 전화국으
로 가서 초혜한테 전화를 걸었다. 초혜는 전화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지 한 번의 벨소리를 듣고 바로 전화를 받았다.

“초혜야! 내 마음이 우울해서 너희 집에는 가기 싫어. 네가 우리 하숙집으로 오면 안 되겠니?”

“오빠의 심정이 그렇다면 조금 있다가 과외수업 선생님이 오면 일찍 마치고 오빠가 좋아하는 문어를 삶아서 가져갈게요.”

초혜가 문어를 삶아 온다는 말에 흐뭇하기도 했다. 문어 좋아한다고 어찌다 한마디 내뱉은 말을 기억하고 있다가 문어를 삶아 오겠다는 말을 들으니 한편 부끄럽기도 했다. 해질녘이 되니 초혜가 하숙집 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방으로 들어온 초혜는 보자기를 푼 후에 문어를 내 놓았다.

“초혜야, 아무래도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겠어.”

“왜? 시골 부모님이 반대를 하나요?”

“그렇게 되었어. 더 이상 묻지 말아 주었으면 좋겠어.”

“오빠가 대학 진학을 하지 않으면 나도 진학을 포기해야겠어요.”

“그건 안 돼! 어머니가 그렇게 바라던 교사의 길인데 합격을 했는데도 안 가겠다니, 그건 옳은 선택이 아니야. 절대로 안 돼!”

“오빠가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하면 따라가서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면서 내년에 다시 서울지역에 있는 교육대나 사범대에 진학하면 되잖아요.”

초혜는 나한테 보여주려고 들고 왔던 교육대 합격 통지서를 미련 없이 찢어버렸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나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으나 초혜는 태연했다. 나는 잠시 흥분된 마음을 가다듬고 초혜의 손을 잡고 말했다.

“초혜야, 너는 진학을 하고 나는 먼저 군대부터 다녀올게. 그리고

제대 후 다시 아버지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도록 해야겠어. 아버지가 저렇게 반대하면서 싫어하시는데 거역할 수가 없었어. 나도 어쩔 수 없어. 내가 불효자식이 될 수는 없잖아.”

초혜와 나는 안타까운 현실을 원망하며 부둥켜안고 울었다.

저녁밥도 굵은 채 울면서 그렇게 함께 밤을 보낸 후 새벽에 눈을 뜬 초혜는 퐁퐁 부은 눈으로 들릴 듯 말 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우리 학교 졸업식 날이 이월 이십팔일인데…”

초혜는 편하지 않은 내 마음을 감안한 듯 말을 흐리고 있었다.

나는 졸업식장에 가겠다는 말은 미룬 채 헤어진 후 부전동에 위치한 병무청으로 달려갔다.

병무청 입구에 있는 게시판에는 삼군마다 지원병 모집 포스트가 붙어 있었다. 나는 낙하산 그림이 있는 공수부대 모집 안내문을 유심히 읽어 보았다. 공수부대는 하사관 모집뿐이었고 5년 의무복무제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병무청 안쪽으로 들어가서 모병관에게 공수부대는 삼년은 없느냐고 물었더니 일반병의 모집은 하지 않고 육군 징집병 중에 훈련소에서 차출한다고 했다.

나는 병무청 앞의 게시판으로 갔다. 군함이 그려진 해군병 모집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다. 그러나 해군은 별로 내키지 않았다. 그것은 중2 때 물에 빠져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 물에 대한 공포심이 아직도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육군은 더욱 자신이 없었다. 그것은 국군방송에서, 완전 무장을 해서 하루에 삼십 킬로 구보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인데 마라톤에 자신이 없는 나는 끄찍스럽기까지 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해군은 군함을 타니 함정 내에서 구보는 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멋쩍게 쓴 웃음을 띠고 있었다.

진학의 길이 막힌 상태에서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었다. 그래서 더 이상 생각을 미룰 수가 없어서 해군에 지원하기로 했다. 그런데 해군은 지원자가 엄청 많아 합격을 낙관할 수 없을 거라는 모병관의 말을 전해 듣고 왜 그러냐고 물었다. 일반 회사의 취업문은 좁고 학력을 요구하는 반면 선원모집에는 그런 사항이 필요 없고 봉급도 말단공무원 봉급의 일곱 배는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상선에서는 해군 출신을 선호하고 군 경력마저 가산점을 주는 혜택 때문에 젊은이들이 많이 선호해서 평균 경쟁률이 삼십대일 정도 된다고 했다.

“쳇! 군대 가는 것이 대학 진학보다 경쟁률이 더 심하다는 뜻이군.”

지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후 내가 서울에 올라올 것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김병헌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 우체국으로 달려갔다.

“광휘야! 서울에 왜 안 올라 오노?”

“서울 얘기는 이 답에하기로 하고 방학 중에 계속 서울에 있을 끼가?”

“방학 중에 연극 발표할 일이 있어 요즘 매일 연극연습 중이야. 근데 왜 묻노?”

“다름이 아니고 칠공주들의 졸업식이 다 되었는데 함께 갔으면 싶어서.”

“그래,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서 가능한 모두 참석하는 방향으로 해보자.”

며칠 후 에트랑제 회원들은 범일동 아귀찜 식당에서 만났다. 김병현과 임대근을 제외한 에트랑제 회원들은 서면 오스카양과자점에서 이미영의 금반지사건 이래로 처음 만났다. 그동안 각자가 대학 생활에서 있었던 미팅 이야기며 고교 생활과는 다른 대학 생활에 대해 끝없는 대화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지난해 하동역으로 맺은 인연으로 칠공주들의 졸업식까지 참석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으며 이구동성으로 즐거워했다.

‘질긴 게 인연이라더니’

올해부터는 졸업식제도가 바뀌어서 졸업식장에 화환이나 꽃다발을 일절 가져갈 수 없다고 하니 칠공주들한테 무엇을 들고 가면 좋을까 하고 모인 목적을 의논하기로 했다.

박성곤이 사진첩을 하나씩 선물하면 어떨까 하고 제의하자 황수문은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각자 자기 짝꿍들한테 줄 사진첩을 하나씩 들고 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우성이는 가타부타 말이 없어서 미영이 선물은 내가 맡기로 했다.

이쯤 결론을 내고 오늘이 토요일인지라 개인적으로 약속이 많은 관계로 졸업식 날 부산역 앞 분수대에서 아침에 만나기로 약속을 한 후 헤어졌다.

나는 초혜와 헤어진 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자꾸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 초혜는 전화를 받자마자 내가 있는 곳으로 나오려고 했다. 그러나 내일 모레면 졸업식인데 그때 보자고 달랜 후 전화를 끊었다.

지루했던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드디어 기다리던 칠공주들의 졸업식 날이 다가왔다. 내가 졸업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가슴이

설레는지 나 자신도 알 수가 없었다. 아마도 내가 아직 여고 졸업식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아서이고 또 한편은 사랑하는 사람의 졸업식이라서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아침 일찍 집을 나서서 부산역으로 향했다.

버스에서 내려 신호등을 건너고 있는데 에트랑제 친구들은 벌써 다 모여 있었고 김병현은 꽃다발 여러 묶음을 안고 키득대고 있었다.

“졸업식장에 못 들고 갈 꽃다발을 머한다꼬 가지고 왔노?”

우리들이 묻자 김병현은 졸업식이 열리는 운동장에서 전달은 못 해도 교문을 나오면 전달하면 된다고 태연하게 말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서울에는 다 그렇게 하더라.”

“자식, 서울물 먹었다고 생각이 틀리네. 니 서울 가서 눈치만 는 거 아이가? 하하하.”

“그것참! 이바구가 되는 애기네.”

모두들 좋은 생각이라고 박수를 보내며 칠공주들 학교 쪽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에트랑제 친구들은 칠공주 학교 위치를 말만 들었지 학교의 진입로도 모르는 채 중앙동에서 내려 골목길을 들어서는데 학부형들이 말쑥하게 차려입고 삼삼오오 모여서 올라가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앨범을 포장한 꽃무늬가 눈에 띄었다. 우리들은 그들이 졸업식장에 가는 것이라 생각하고 과일가게 아저씨한테 물어보았다.

“이쪽으로 가면 B여고 있나요? 계속 가면 정문이 나오니까?”

우리들이 묻자 이쪽은 후문이고 정문은 좌측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버씨의 말을 듣고 좌측으로 나오니 큰길이 나왔고 사람들이 구름처럼 학교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띄엄띄엄 승용차들도 올라오고 있었는데 부자학생이 많이 다닌다고 소문난 학교처럼 승용차들도 고급스러웠다. 그러나 꽃다발을 든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외려 꽃다발을 든 우리들을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학교는 경사가 급한 곳에 위치에 있었다. 우리들은 이렇게 경사가 심하면 여학생들의 다리에 알통이 크게 생겼을 게 분명한데 칠공주들은 다리가 늘씬하니 이상하다며 깔깔 웃었다.

교문 입구에는 교직원들이 올해부터 바뀐 졸업식장 꽃다발 금지를 모르고 들고 온 몇몇 가족들을 설득시키느라 진땀을 빼고 있었다.

“우린 그런 말 못 들었어요.”

“라디오방송과 신문에도 났는데요?”

“우리 집에는 라디오도 없고 신문도 안 봐요. 그러니 인정할 수 없어요. 봐요. 저쪽 뒤에도 들고 오잖아요.”

꽃다발 시비는 우리 쪽으로 불뚱이 튀었다. 꽃을 들고 온 몇몇 사람과 교직원 사이의 실랑이는 끝이 없었고 결국엔 학부형이 뾰로통한 표정을 지으며 교문 밖으로 나갔다.

우리는 꽃다발 때문에 더 이상 진입을 하지 못하고 교문에서 엉거주춤 서 있었는데 김병현이 학교 담벼락 옆으로 가서 소변을 보면서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고 우리들을 모두 모이게 했다.

“한 사람은 학교 안에 들어가지 말고 꽃다발을 가지고 운동장에서 졸업행사를 마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김병현이가 제의를 하자 아무도 남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다시 작전회의를 하듯 숙의했다.

“그렇다면 할 수 없다. 가위 바위 보로 남은 사람을 결정하자.”

결과는 김병헌이 꽃을 지키는 사람으로 결정이 나고 말았다. 김병헌은 담배를 꺼내서 불을 붙이더니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났다면 손뼉을 쳤다.

“야호! 아주 좋은 생각이 났어.”

“좋은 생각이라니? 너만 그냥 기다려면 될 일인데 무슨 잔피를 부리노?”

“음, 다름이 아니고 말이야. 저쪽 옹벽 있지 저 높이가 5미터 정도 되거든. 그래서 여섯 명이 교문으로 들어가서 그쪽으로 모여 핵대를 연결해서 내려주면 거기다가 꽃을 묶어서 올리면 되잖아.”

“이야! 핵대 길이가 1미터 내외니 참으로 기똥찬 아이디어네. 히히”

모두들 좋은 발상이라며 환호했다. 김병헌을 남겨두고 졸업식 준비가 한창인 운동장으로 들어가서 김병헌과 약속한 담 쪽으로 갔다. 그리고 핵대를 풀어서 서로 연결한 후 아래로 내렸다.

이윽고 졸업식이 거행되었다.

“선행상을 받을 사람은 삼학년 육반 박초혜, 활동상은 김봉자!”

우리는 함성과 함께 우렁찬 박수로 축하해 주었다.

운동장에서 행사를 마친 학생들은 줄을 서서 각반 교실로 들어갔는데 친구들은 운동장에서 눈여겨 봐두었던 자신들 짝꿍반 행렬 뒤를 따라갔다. 나는 앨범 두 개와 꽃다발 두 개를 들고 박초혜가 소속된 학반의 행렬을 따라 교실로 들어갔다. 교실에 들어간 학생들은 자리에 앉아 담임선생님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이때 전달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되어서 교실 문을 열었다.

박초혜 반 급우들은 일제히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저 사람 누구야? 누구 남자 친구야? 우와! 아무도 없는 꽃다발을 들고 왔네?”

나는 얼굴이 발개져서 나를 보고 있는 박초혜 앞으로 다가가서 꽃다발을 건네주며 졸업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꽃다발을 든 박초혜의 눈가에 눈물이 글썽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진학도 그렇고 앞날이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숙집에서 밤새 나는 터라 우리 두 사람만 아는 내밀한 소통이었다.

“어머나!! 초혜야, 너무 부럽다. 가시나 저렇게 멋진 남자 친구를 숨겨놓고 내숭을 떨고 있었구나. 가시나!”

급우들은 꽃다발에 코를 파묻어 가면서 부러운 눈빛으로 나와 초혜를 번갈아 보고 있었다.

나는 머리를 긁적이다가 초혜에게 미영은 몇 반이냐고 물었다.

“바로 옆 반인데 오늘 졸업식장에 안보이던데요?”

초혜가 대답하자 옆에 있던 급우가 나서면서 말했다.

“칠공주 이미영 말인가요? 저가 미영이 집근처에 사는데 함께 학교에 오려고 집을 찾아 갔더니 대문이 잠겨 있더군요. 오늘 학교에도 오질 않았어요.”

“미영이집 가족들이 모두 어디에 갔을까요? 그렇다면 미영이 만나면 꽃다발과 사진첩을 꼭 전해주세요.”

나는 미영이 집 근처에 산다는 여학생에게 전해주면서 말했다.

“누구라고 말하면 되나요?”

“미영이집에서 하숙한 K고교생이라고 하면 알 겁니다.”

미영이집 근처에 산다는 여학생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박초혜

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두 사람이 내 편지 전달 사건으로 마음의 골이 아주 깊어있음을 나는 눈치로 알 수 있었다.

내가 박초혜의 교실에 있는 동안에 다른 교실에서도 함성이 터졌는데 그런 곳은 어김없이 에트랑제 친구들이 들어갔던 교실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간 꽃다발은 각 반마다 소품이 되어 소중한 졸업식 날 배경사진으로 남게 되었다.

교실에 담임이 들어와서 졸업장과 졸업 앨범을 나눠줄 때 우리들은 운동장으로 나와서 모였다.

에트랑제 친구들은 스크럼을 짜서 박수를 친 후 파이팅을 외쳤다. 교실 유리 창문을 통해 우리들이 벌이고 있는 진풍경을 쳐다본 졸업생들은 그제야 구덕운동장 학도호국단 검열 때 화제가 되었던 K고교생임을 알아차리고 창문으로 목을 뺀 후 소리쳐 외쳤다.

“K고교 오빠들 최고! 오빠들 멋쟁이!”

“이제 칠공주들 졸업 축하도 해주었고 우리도 모처럼 만났으니 남포동 학사주점에 가서 팝송을 들으며 동동주 한잔 하러 가자꾸나.”

최대성이 우리들이 서있는 한가운데로 나와서 말하자 김병헌이 덧붙여 말했다.

“칠공주들과 함께 가면 좋을 텐데 가족들이 있어서 안 되겠제? 광휘야! 네가 박초혜한테 한번 물어봐라. 만약 가족들과 일찍 헤어지면 남포동 ‘대학가’라는 학사주점으로 오라고 말이다.”

그런 말을 주고받고 있을 쯤 많은 가족들 틈에서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광휘 총각! 나 좀 보게.”

가족 잠바를 입고 나를 찾는 사람은 박초혜의 아버지였고 옆에는

초혜 어머니와 식모 봉순이 그리고 김 기사까지 함께 모여 있었다.

나는 인사를 꾸벅하면서 그들이 서있는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운동장에 들어설 때부터 가족들을 찾았는데 안 보이시더라고 말씀드리자 초혜 아버지는 우리들이 운동장에서 떠드는 소리를 듣고 나를 목격했다고 했다.

나는 멧쩍어서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다.

“우리가 너무 소란을 피웠지예?”

“그래서 젊음이 좋다고 하는 거야. 만약 내같은 중년들이 모여서 그런 행동을 하면 주책이라고 했겠지.”

초혜 아버지는 미소를 띠면서 내 등을 쓰다듬은 후 내 손을 꼭 잡고 와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초혜가 나오면 집으로 함께 가자고 했다.

나는 초혜와 약속한 얘기를 숨긴 채 친구들과 모여서 어디 갈 곳이 있다고 말한 후 에트랑제 친구들 쪽으로 걸어갔다.

“광휘야, 저 사람들 누구? 박초혜 가족들 맞제?”

“응, 가족들이 모두 오셨네.”

“이야, 인마! 어떻게 된기고? 부모들도 다 알고 벌써 사위가 된 분위기네? 잘해봐라. 우와, 부럽다 짜식!”

에트랑제 친구들이 한목소리로 녀살을 떨었지만 대꾸하지 않고 초혜 가족들과 눈인사를 나눈 후 우리들은 희희낙락하며 남포동을 향했다.

대학가라는 학사주점에 들어서니 오늘 졸업식이 있었던 인근 남자 고교생들이 밀가루를 뒤집어쓴 모습과 찢어진 교복 윗도리를 벗어 던지고 무슨 한풀이라도 하듯 동동주를 별컹별컹 마시고 있었다.

우리는 명태알탕, 두부부침, 파전을 안주로 주문을 한 후에 잔에

동동주를 가득 부었다.

“칠공주들이 이곳으로 과연 오겠나? 오면 좋을 텐데, 그자? 히히히.”

김병헌은 칠공주들이 오면 모종의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라도 있는 듯 말했다. 듣고 있던 박성곤은 그냥 우리끼리 한잔하고 헤어지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칠공주와 어울려 다니면서 사고 친 것을 들먹거리며 평범하게 생긴 계집애들과 다니면 주위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예쁘게 생긴 계집애들과 어울리면 사고가 난다고 점잖을 떨면서 경험 많은 어른처럼 말했다.

해가 지고 어둠사리가 내릴 즈음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오늘 졸업식에 참석한 칠공주들이 모두 주점으로 찾아왔다.

오늘 뜻밖의 선물을 받아 너무 고마웠다면서 학사주점에서 한 잔 한 후 고고장에 가서 자기들이 한잔 사겠다고 말했다. 내 곁에 앉은 초혜는 에트랑제 친구들은 모두 대학생이고 칠공주들도 대학을 모두 진학했는데 우리들만 진학이 이뤄지지 않아 함께 놀 기분도 아니고 하니 우리끼리 하단에 있는 에텐공원으로 가자고 했다.

나는 이런 상황을 화장실 입구에서 만난 박성곤에게 설명했다. 박성곤은 우리들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우리 더러 먼저 살짝 나가라고 일렀다. 그렇지만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칠공주와 친구들에게 그냥 갈 수 없다며 직접 말을 했다.

“친구들 그리고 칠공주들. 나와 초혜는 미리 가족들과 언약을 해놓은 게 있어서 먼저 가야 되겠어. 미안하다. 이해해줘.”

“어머! 초혜하고 언제부터 저 정도로 발전한 거니? 우와, 부럽다. 얘!”

에트랑제 친구들과 칠공주들을 남겨 놓고 나와 초혜는 먼저 주점에서 나와 에텐공원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

에텐공원 일대는 거대한 갈대숲을 이루고 있었다. 아직도 아무르강 쪽으로 귀향하지 않은 철새들이 떼를 지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다. 가까이 보이는 을숙도에서는 자맥질하는 오리 떼들이 먹이다 툼이라도 하는 듯 가끔씩 침범침범 물소리를 내면서 비명을 지르기도 했다.

갈대숲속에 지은 남촌이라는 식당으로 들어갔다. 식당 안은 손님들이 만원을 이뤄서 옥외에 설치해 놓은 천막아래의 의자에 초혜와 마주보고 앉았다. 생굴이 들어간 파전과 동동주를 한 잔씩 마시면서 나는 졸업식에 나타나지 않은 미영이가 여전히 궁금해서 초혜에게 다시 물었다.

“내가 아는 미영이 가족은 어떤 행사나 모임에는 반드시 참석하는 사람들로 알고 있는데 미영이가 졸업식에 오지 않은 것은 분명 무슨 일이 난 것 같다. 초혜는 알고 있제?”

초혜는 한 동안 말이 없더니 말을 더듬거리며 눈물을 왈각 쏟아내며 말했다.

“미영이 아버지가 인도양 마다가스항 근처에서 조업을 마치고 인근의 항구로 돌아가다가 해일을 만나 배가 침몰해서 승선 선원 모두가 사망했대요.”

나는 너무 놀라워하면서 되물었다.

“미영이 아버지는 상선 선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상선보다 어선이 봉급도 많고 고기를 많이 잡으면 배당금도 많이 받는다고 해서 금년 봄부터 선적회사를 바꿔서 원양어선을 탔대요.”

“그렇다면 친구들에게 얘기를 해야지, 왜 그냥 있었어!?”

내가 크게 나무라듯 말하자 초혜는 약간은 겸연쩍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영도에 사는 삼천포횃집 친구로부터 전해 들었대요. 그리고 졸업식 날 좋은 소식도 아닌 것 같고요.”

초혜는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다. 또 그동안 미영이와 생긴 골 깊은 갈등을 무척 후회하는 모습이 역력해 보였다.

“초혜야! 미영이한테 위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졸업식도 했으니 내일이라도 갈려고 해요.”

“어찌지? 만나서 함께 가면 좋을 텐데. 미영이가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고…”

“그런 점도 있겠지요. 그러나 상관하지 않고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일 아침 일찍 갈려고 해요.”

“다른 친구들한테도 연락을 취해야하지 않을까?”

“졸업식하고 나오면서 봉사한테 말했으니 친구들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잠시 말을 잊지 못하고 강변을 쳐다보고 있었다. 낙동강 변의 기후는 짙은 해무로 가득했다가 별이 숨더니 다대포쪽에서 짙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갑자기 비를 뿌리기 시작했다.

초혜는 동동주를 연거푸 석 잔을 마시더니 술기운이 도는 듯 발그레한 얼굴로 이마에서 열이 난다고 말했다. 그런 후 이마를 만져 보라는 듯 얼굴을 내밀었다.

“오빠! 내 얼굴에 열이 많이 나죠?”

내가 열을 확인하려고 초혜의 이마에 손을 대자 내 손등 위로 손을 포개면서 말했다.

“손이 차군요. 그런데 나는 시원해서 좋아요.”

초혜는 밤색 코트를 입었지만 다리 사이로 파고드는 한기를 느끼는지 다리를 오무작거리며 치마를 모아서 허벅지 뒤쪽으로 당겨서 조았다.

“꽤 추워 보이네. 내 가죽 잠바로 다리 위를 덮어봐라.”

나는 가죽 잠바를 벗어서 초혜의 무릎 위에 얹어 주었다.

“초혜야! 오늘 졸업식 마치고 아버지가 다른 말씀은 없었어?”

졸업식장에서 초혜 아버지가 나를 자신들 가족과 어울리기를 바라는 표정 같아서 물었다.

“아버지가 다른 말씀은 없었고 지난해 오빠 졸업식 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고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느냐고 물었어요.”

“말씀은 고맙지만 졸업한지 한 해가 지났는데 새삼스럽게…”

“음, 아버지가 꼭 졸업을 생각해서라기보다 오빠한테 뭔가 해주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오빠를 만나면 물어 보겠어요. 무엇이 필요한지.”

나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서 주전자 밑바닥에 깔린 동동주를 흔들면서 잔에다 부었다.

“이게 마지막 술인데 나눠 마실래?”

“좋아요.”

잔을 비운 후 초혜는 계속 말했다.

“오빠가 양복이 없는 것 같고 구두도 낡았다며 아버지가 자주 가시는 광복동 단골집에 가서 양복과 구두를 맞춰 주겠다고 하셨어

요. 괜찮죠?”

“광복동에서?”

“그래요. 김석창 테일러라고 부산에서 양복을 최고로 잘 뽑아내는 곳이 있어요. 각자의 체형에 맞춰서 재단을 하므로 결혼을 앞둔 총각들이 예복으로 많이 맞춰 입는대요. 국회의원 등 정치인과 기업체 사장들도 많이 찾아오나 봐요.”

“그런 곳이라면 양복 한 벌이 꽤 비쌀 텐데…”

“오빠는 참!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우리 집 돈 많은 것 저번에 보았잖아요.”

초혜는 어린애처럼 해맑게 웃고 있었다.

“양복점과 양화점 가는 날씨는 이번 주 토요일로 미리 정합니다. 알았죠?”

나는 아무런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초혜야! 이젠 그만 마시고 집으로 가자. 시계를 보니 열시가 넘어가고 있네. 부모님이 걱정하며 기다릴지도 모르잖아.”

“나는 오빠하고 밤을 새우고 싶은데…”

“그럴 날은 앞으로 얼마든지 있을 거야. 그보다 내일 미영이집에도 가야하고…”

“아참! 오빠한테 말 못한 게 하나 있어요.”

“말 못한 거?”

“음, 배신했다고 욕하지 마세요. 부모님 극성에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2차로 서울에 있는 사립대 사범대학에 합격했고 등록금도 냈어요.”

“그사이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건 아주 잘한 거야. 배신이라고

할 수 없어. 정말 잘했어. 그리고 축하해. 재수한다는 거 정말 힘든 거야. 실력이 크게 향상되기도 쉽지 않고.”

“그런데 송혜림도 학과는 다르지만 같은 학교에 진학했어요.”

“음, 아버지가 농장한다는?”

“개 아버지는 농대를 가서 아버지 뒤를 이어 임업가가 되기를 바랐지만 혜림은 여자가 무슨 농대를 가느냐고 하면서 지리교육학과를 지원했어요.”

초혜와 나는 남춘주점을 나와서 버스를 타기 위해 터벅터벅 걸어 나왔다. 길옆에는 갈대들이 가랑비에 사각사각 소리를 내고 있었다. 초혜는 팔짱을 꼭 낀 후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걸으면서 말했다.

“오늘 오빠한테 특별한 선물을 받고 싶은데요.”

나는 오늘 졸업식장에서 준 사진첩을 선물한 게 마음에 들지 않았나 싶어서 무슨 선물을 더 받고 싶은지 말해보라고 했다.

그러나 초혜는 “그런 선물 말고…” 하면서 걸음을 멈추고 그윽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부탁을 들어주면 말하겠다면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현재 내 형편을 다 알고 있는데 무슨 큰 부탁이라 싶어서 손가락을 걸면서 말해보라고 했다.

초혜는 내 귀를 당긴 후 속삭이듯 말했다.

“오빠하고 롱 키스를 하고 싶어요.”

“여긴 주점의 진입로라서 사람들이 많이 오가서 좀 그렇고, 그렇다고 비 내린 갈대숲으로 가면 진흙에 발이 빠질 테고…”

“참! 오빠는…. 저쪽에 나무가 있잖아요. 어서 가요.”

초혜가 가리키는 쪽에는 키가 크고 수관 폭이 큰 사철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나와 시선을 맞춘 초혜는 팔짱을 낀 손을 살짝 꼬집

었다.

초혜와 함께 사철나무 곁으로 다가가자 나뭇가지에서 보금자리를 틀고 있던 작은 새들이 인기척을 느낀 듯 푸드덕 마른가지에 날개를 부딪치는 소리를 내면서 밖으로 뛰쳐나왔다.

초혜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나를 꼭 껴안았고 우리는 어둠과 하나가 되어 평화롭게 긴 키스를 나누었다.

남촌주점에서 술을 많이 마셨는지 취기가 잔뜩 오른 중년남자가 노래를 흥얼거리며 어둠속에서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서야 우리는 입술을 떼고 버스정류장으로 향했다.

버스 뒷좌석에 나란히 앉은 초혜는 대티터널을 지나고 나서 내가 깨울 때까지 잠을 자고 있었다.

“초혜야! 집이 가까워졌어. 이젠 정신을 가다듬고 내릴 준비를 해.”

내일 미영이집에서 만나기로하고 초혜는 버스에서 내렸다. 버스는 영주터널을 지나 중앙동을 향하고 있었다. 자정이 다가오고 있다는 듯 혹은 지친 하루를 마치고 쉬어야 될 시간이 다가왔다는 듯 버스는 썩썩 거칠게 달렸다.

하숙집으로 돌아오니 방 문 앞에는 낮익은 신발 두 켤레가 놓여 있었다.

방 안에는 김병현과 박성곤이 담요를 둘둘 감고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방은 짙짙 끓고 있는데도 둘은 담요를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하듯 둘둘 감고 있었다.

나는 아궁이의 연탄불 상태를 살피려 나갔다. 불을 조절하는 함석 뚜껑은 온 데 간 데 없었고 하숙집 아줌마가 불구멍을 막아놓은

양말 마개도 빠져나와 있었다.

이미 연탄은 생명을 다한 듯 하얀 재로 변해가고 있었다. 절반가량은 다 타고 위쪽에 분홍색 불꽃이 조금 남아 있었다. 지금이라도 갈아주어야 새벽녘에 춥지 않고 따뜻한 아침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연탄불을 갈기로 했다. 그러나 지금 남은 작은 불씨로 새 연탄에 불이 이어질지가 미지수였다. 나는 새 연탄을 올리고 불 조절 뚜껑을 활짝 열어 놓고 깊은 잠에 빠졌다.

소의 피로 만든 선지국을 먹기 위해 솔뚜껑을 열었더니 솔단지에 선지들이 늘어붙어 있었다. 내가 검게 타고 있는 메케한 연기를 피해 손에 들고 있던 솔뚜껑을 내팽개치고 부엌문을 열고 나오자 윗도리를 벗은 근육질의 남자 여섯 명이 앞을 가로 막아섰다. 그들은 나를 공동묘지로 데리고 갔다. 공동묘지에는 이장을 하는 인부들이 무표정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봉분을 걷어내고 시신들을 끄집어낸 후 아직도 썩지 않은 시체들을 무명천으로 감아서 한 곳으로 옮기고 있었다. 그리고 시신을 담은 관들을 실은 트럭이 바로 옆에 서 있었다. 나는 무표정한 그들과 공동묘지를 걷고 있었는데 환청처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고 어디에선가 수많은 사람들이 합창으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트럭 위에 올라가서 짐칸에 있는 관을 발로 툭툭 차서 아래로 밀쳐 내렸다. 바닥에 떨어진 관의 뚜껑이 열리면서 수의를 입고 하얀 무명천으로 퐁퐁 묶인 시신의 모습이 드러났다. 트럭 위에서 관들이 먼지를 내면서 땅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을 때였다. ‘광휘야! 광휘야!’ 하면서 어머니가 부르는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목소리를 들었다.

“광휘 총각! 광휘 총각!”

여자의 목소리가 귓전에서 또렷하게 들릴 즈음 어둠이 걷히고 밝은 햇살이 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광휘 총각이 살았어! 눈꺼풀 속에 눈동자가 움직이고 있어! 빨리 일으켜 세워 보소! 동치미 국물 좀 가져 오이소 .어서요. 그리고 그 쪽 총각들도 일으켜 세워 좀 먹여보이소!”

머리는 깨어질 듯 아프고 현기증도 나고 구토가 나고 속이 더부룩했다. 나를 일으켜 세운 하숙집 아주머니는 입을 벌린 후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밀어 넣었다. 희미하게 햇바닥 끝에서 느껴지는 신맛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 하숙집 아줌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어제 저녁에 갈아 놓은 연탄을 한밤중에 또 갈아 놓았다 아이가. 그래가지고 방문을 꼭 닫고 잤으니 그 연탄가스가 어디로 가겠노? 총각 셋을 한꺼번에 줄초상 칠 뻔 했다 아이가. 아이고! 십년감수 했네. 나무관세음보살!”

김병헌과 박성곤 그리고 나는 한참동안 먼 여행을 한 후 지친 것처럼 꼼짝없이 누워서 서로를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하숙집 아줌마가 놀라서 지른 고함 소리를 듣고 이웃집 아저씨와 아줌마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우리가 누워있는 방문 앞에서 우리를 지켜보며 연탄가스 마셨을 때는 동치미나 백김치 국물이 좋다고 말했다.

그런 것을 가져온 온 이웃사람들과 약국에 약을 사러 간 사람들, 방문 앞을 오가는 사람들이 북새통을 이루었다. 밤새도록 연탄가스 가 스멀스멀 방안으로 스며들어 생명을 앗아갈 뻔 했다면, 혹여 방안에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 연탄가스를 빨리 바깥으로 내보내기 위해 모든 창문을 활짝 열어둔 상태였다. 그래서 한기가 들어 온몸이

덜덜 떨렸다.

우리들은 약을 먹고 다시 잠이 든 후 오후 다섯 시경에야 겨우 정신이 들어서 일어 날 수 있었다.

지독한 가스에 정신을 잃었는지 바지에 오줌을 썼는지 지린내가 온 방에 가득했고 이런 사실을 알아 찬 하숙집 아줌마는 큰 솥에다가 물을 올려놓았다.

“총각들 정신이 들거든 밖에 세면장에서 샤워라도 하소. 물은 내가 양동이에 담아 옮겨 줄 테니까.”

김병헌이 먼저 씻은 후 방으로 들어 왔다. 나는 팬티와 러닝 그리고 바지를 비키니 옷장에서 꺼내서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차례대로 샤워를 한 후 벽에 기대어 죽을 고비를 넘긴 간밤의 일을 떠올리며 대화를 나누었다.

“야! 어제 우예된 기고? 그라고 너거들은 우째 내 하숙집에 올라꼬 생각 했노? 몇 시에 왔노?”

“열한 시쯤 왔다 아이가. 통행금지도 한 시간밖에 안 남았고 어데 마땅하게 갈 데도 없고 해서.”

“광휘 니는 언제 왔노?”

“나는 어제 통행금지 얼추 다 났을 때 왔다 아이가.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되었노?”

“충무동 고고장에 갔다 아이가. 거기서 봉자가 양주 두 병을 샀는데 그걸 맥주에 넣어서 폭탄주라고 마시자고 해서 마셨더니 머리가 뺱 돌아뿐다 아이가. 봉자 가시나 어디서 그런 것을 배워가지고, 하하하.”

“그라믄 칠공주들은 잘 갔나?”

“모르겠다. 우리들이 문제였지. 저거들은 할매집에 가서 회국수 먹고 간다 카면서 갔다 아이가.”

“와? 너거들도 가서 회국수 한 그릇 하지, 와 안 갔노?”

“회국수가 뭐꼬! 술이 팽 돌아뿌던데.”

“그래, 오기는 잘 왔는데 연탄가스를 마셔가지고 거기 문제였지만.”

“오늘 너거 어데 갈 끼고?”

나는 두사람을 살피며 말했다.

“나는 해운대 누나 집에 갔다가 서울 갈 끼고 성곤이는 모교 담임 선생님 좀 만난 후 학교에 간단다. 그런데 뭐 좋은 일이 있나? 와 문노?”

“음, 다름이 아니고.”

“다름이 아니고 뭐? 말해봐라, 뜬말이지 말고. 어서.”

“미영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미영이 아버지가!?! 우짜다가 그런 일이 생겼노?”

“마다가스항으로 귀향하다가 해일을 만나서 배가 침몰했나봐.”

“그라믄 시신은 어떻게, 찾았다 카더나?”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고 중요한 것은 사망했다는 거 아이가.”

“아하! 그래서 미영이가 졸업식장에 안 왔구나. 우리가 서울에 있으면 몰라도 부산에 있으니 함께 문상 가자. 다른 친구들도 함께 갔으면 좋을 텐데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 우야겠노. 그라고 칠공주 애들은 온다 카더나?”

“잘은 모르겠지만 초혜 말로는 올 거라고 보고 있던데 그것은 저거들 일이고.”

“에이 참! 이럴 때 미영이하고 이우성이가 잘 사귀었으면 그놈이

따뜻한 말이라도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 친구는 미영이한테 꽤 씬 죄까지 덧붙여 놓았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야, 지발 지난 얘기는 콩쥐팥쥐 하지 말고 오늘 언제 가면 되겠노?”

“조금 있다가 부산진역 앞에 가서 따끈한 시래기국이라도 한 그릇 먹고 가보던지 하자.”

우리들은 방안에 흐트러진 옷가지며 베개로 삼았던 책들을 책꽂이에 정리한 후 얼굴에 스킨로션을 발랐다. 친구들은 스킨을 손으로 착착 두드리며 얼굴에 바르며 아무렇지 않게 서 있었지만 나는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고 웃었다.

“야, 지금부터 너거들은 나한테 잘 보여야 한다.”

“그건 웬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고?”

“자신의 몸을 돌아 보거래이. 알몸만 각자의 것이고 나머지 불알을 만지고 있는 것도 내 팬티고, 근육 가슴을 어루만지고 있는 것도 내 러닝이고, 불알이 얼지 않도록 보온해주는 것도 내 바지 아이가? 하하하.”

“광휘야! 고마 니는 소설가 데뿌라. 지금부터는 내 옥체를 보존해 준 니를 폐하로 모시오리라. 폐하! 킁킁.”

우리들이 한바탕 웃고 있을 즈음 아줌마가 문을 뺨뚱이 열면서 밥을 차려두었다고 어서 가자고 독촉했다.

“우리들은 밖으로 나갈라꼬 합니더. 오늘 아침에 아줌마를 너무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더.”

나는 민망한 표정으로 말했다.

“친구들이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그렇지. 연탄가스라고

생한 총각들이 밥이라도 먹는 모습을 봐야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안심이 되지. 미안해서 그냥 못 보낸다.”

“괜찮아예. 저희들이 괜히 친구 집에 와서 아주머니에게 민폐를
끼쳐 드렸어예. 그것만도 미안한데 밥까지야 어떻게 먹겠습니까.”

“고마 총각들 괜찮소. 자식빨인데 뭘…”

하숙집 아주머니의 손에 끌리다시피 가서 밥상에 앉았으나 입안
이 까칠해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국물만 한 그릇 먹고 돌아왔다.
우리들은 아직도 정상적인 몸이 아니었다. 김병헌은 가끔 어지럽다
고 두통을 호소했지만 꺾전 밖으로 흘러보냈다. 그것은 내일이면
각자가 제 갈 길로 떠나야하므로 미영이 집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
도 문상 가야 했기 때문이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을 때 미영이가 살고 있는 전포
동 가는 버스를 탔다. 전포동은 내가 일 년 남짓 살았던 동네라 걷는
도중에 안면이 있는 사람들도 몇몇 만나서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만화가게 윤씨 아저씨와 개비 담배를 파는 영식이 할머니와 연탄집
춘자 아줌마도 만났다. 춘자 아줌마는 밤 시간에 연탄 배달신청이
들어온 듯 리어카에 연탄을 싣고 있었다. 춘자 아줌마는 오랜만에
나를 보자 안면이 있다는 듯 멀뚱하게 쳐다보면서 고개를 가우뚱거
렸다. 내가 먼저 인사를 하면서 웃었더니 그때서야 생각이 난 듯 얼
굴에 검은 연탄이 묻은 얼굴로 피식 웃어 보이며 말했다.

“미영이 집에서 지난해 하숙했던 학생 맞지요?”

“잘 계셨지요?”

“네, 지야 항상 안 그렇습니까. 하숙을 옮긴 후 통 코빼기도 안 보
이데예? 미영이하고 싸웠습니까?”

“하하하. 아뇨.”

“그나저나 미영이 아버지가 돌아가뻘서 앞으로 그 집도 큰일입니더. 켓돈도 떼엿뻘고.”

“예? 아줌마도 그 집에 상문 다녀왔는가베예?”

“지야 미영이 엄마하고 형님 동생하고 지내는 사이니 시도 때도 없이 그 집에 들락거립니더. 조금 전에도 그 집에 있다가 배달이 있어서 나왔다 아닌교.”

우리들이 미영이 집 대문 앞에 다다랐을 때 여자의 곡소리가 문 밖으로 구슬피 흘러 나왔다.

“아이고! 불쌍한 내 자식아! 한 평생을 바다에 떠서 살다가 이역만리 깊은 바다에서 물귀신이 되다니! 서럽고 애달프다. 억울한 영혼이 그 면에서 이곳까지 어째 오겠노. 영영.”

우리들은 조심스레 발을 옮기면서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마당 명석에는 시골에서 온 미영이 친척뻘로 보이는 사람들이 삼베 두건을 쓴 채 오갔고 조문객들은 앉아서 돼지고기 수육에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 마루에는 영클어진 머리로 바닥을 치며 통곡하고 있는 미영이 할머니와 그 옆에서 달래는 여자도 있었다.

“엄마요. 죽은 사람을 자꾸 그렇게 애달파 해사문 구신도 좋은데 못 간다 캅니더. 오빠도 좋은데 갔을 깍니더. 이젠 고만 우이소.”

미영이 고모로 보이는 여자는 퐁퐁 부은 눈으로 할머니를 달래고 있었다. 그러다가 미영이 고모는 영거주춤하게 서있는 우리를 쳐다보며 말했다.

“총각들은 누군기요? 이 집과 우째 지내는 사인기요?”

나는 지난해 이집에서 하숙을 했던 학생이라고 말한 후 미영이

엄마와 미영이는 어데 갔느냐고 물었다.

그때서야 미영이 고모는 미영이 방을 두드리며 밖에 손님이 왔다고 말했다. 미영이 방문 근처에는 여자들의 신발이 수북이 놓여 있었고 옛되어 보이는 여자의 목소리도 간간히 들려왔다.

나는 그 신발들 속에서 초혜의 구두를 금방 찾을 수 있었고 방안에는 칠공주들이 왔음도 알아차렸다.

미영이 고모의 목소리를 듣고 먼저 미영이 엄마가 안방에서 나왔고 뒤따라서 미영이도 퐁퐁 부은 눈으로 어머니 뒤를 따라 마당으로 내려왔다. 칠공주들이 우리를 보자 반갑다는 표정을 지었고 구석자리에 앉은 초혜가 머리를 빼면서 눈인사를 했다. 모두들 미영이와 함께 울었는지 눈자위가 불그레해져 있었다.

그리고 지난해 내가 살았던 방에서 긴장한 청년 두 사람이 나오더니 어떻게 아는 사이냐며 미영이와 나를 번갈아 보았다.

미영이 할머니는 이런 광경을 보더니 퐁퐁스러운 말투로 내뱉듯이 말했다.

“너거 새엄마하고 잘 아는 사이라 카네.”

“안녕하세요? 지난해 이 집에 하숙했던 학생입니다.”

내가 먼저 두 청년에게 인사를 하고 있을 때 미영이 할머니는 빈정거리는 말투로 내 뱉었다.

“서방을 돌이나 잡아먹은 년이 복도 많아 가지고 하숙했던 총각들까지 문상을 다 왔단다.”

그런 말을 듣고 있던 미영은 화가 머리끝까지 난 듯 큰 목소리로 할머니에게 항변했다.

“할매예, 말씀은 우째 그리 합니까? 언제 우리 엄마가 아버지보

고 죽어라꼬 했습니까? 잡아먹는 거 보았습니까?”

미영이가 바락바락 악을 쓰면서 달려들자 상가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미영이의 이복 오빠로부터 안내받은 방은 내가 하숙을 했던 그 방이었다. 잠시 후에 미영이 엄마가 머리를 산발한 채로 우리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섰다.

미영이 엄마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북받쳤던 울음을 토해내듯 소리쳐 울었고 뒤따라 들어온 미영이도 어머니 등 뒤에 머리를 기댄 채 낮이 나간 듯 울었다

“사십 중반에 두 번 과부가 된 것도 서러운데 내보고 백여우라고 하니께. 이 서러움을 어찌 풀꼬. 흑흑.”

나는 그냥 아무런 말도 없이 한없이 슬퍼하는 모녀를 바라보고만 있었고 친구들도 무어라고 위로할지 몰라 전전공공하고 있었다.

그렇게 한동안 듣고만 있다가 나는 손수건을 꺼내서 미영이 엄마와 미영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러나 슬픔이 너무도 크게 보여서 할 말을 잊은 채 몇 시간을 보낸 후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시신은 내일 점심께 대한항공편으로 온다는 미영이 말을 듣고 미영한테 아버지 영혼이라도 정성껏 잘 모시라고 당부한 후 방에서 나왔다.

창호지 문구명으로 우리들이 나오는 것을 지켜본 듯 초혜가 뒤따라 나오더니 내게 말했다.

“오빠, 모레 오후에 서울 갑니다. 개학이 다 되어서 학교 근처에 하숙집도 알아보려고요.”

초혜는 나를 두고 자신만 대학을 가게 된 점이 무척 무안한지 죄 지은 사람처럼 말을 했다.

“그런데 오빠는 어떻게 할 건가요? 계속 부산에 있을 건가요? 해군 지원은 어떻게 되었나요?”

나는 편지를 하겠다고 대답한 후 옆에 있던 미영이 손을 꼭 쥐어준 뒤 골목길을 빠져나왔다.

김병헌과 박성곤 그리고 나 셋은 문현로터리 근처에 있는 정다방으로 들어갔다.

미영이집에서 일체 말이 없었던 김병헌이 말문을 열었다.

“오늘 미영이 집에 갔더니 미영이 엄마가 후처인 것 같더라. 니 방에서 나오던 두 청년은 배다른 오빠인 것 같고. 그런데 미영이 엄마의 첫 남편은 이십대에 죽은 모양이지? 그렇다면 미영이 엄마도 팔자가 센 여자네. 두 남자와 모두 이혼한 게 아니고 사별했으니. 그자?”

나는 초혜 어머니 친구로부터 재혼한 얘기를 이미 들은 적이 있어서 새삼 놀라운 얘기는 아니었지만 배다른 오빠가 둘이나 있다는 점에 당황한 건 사실이었다.

“광휘야! 니 하숙집에 갈꺼가?”

어젯밤 연탄가스 악몽을 떠올린 듯 김병헌이 등 뒤에서 내 어깨를 안으면서 말했다.

“그래도 가야지. 지금 이 시간에 어디로 갈 끼고?”

“광휘 하숙집은 꺼림칙해서 가기 싫어. 그러지 말고 모두 해운대 우리 누나 집으로 함께 같이 가서 거기서 자자.”

나 또한 하숙집 아궁이가 자꾸 떠올라서 겁이 나던 참이었는데 김병헌이 누나 집으로 가자고 하니 두말하지 않고 박성곤과 함께 뒤따라갔다.

해운대 우동에 있는 김병현의 누나 집 근처에 다다랐을 때 통행 금지 5분 전 사이렌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김병현 누나가 사는 방은 미닫이 식으로 된 방 두 칸인데 방문 입구에는 남녀 구두 두 켤레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여자구두는 병현이 누나 구두인데 남자구두는 누구일까? 처녀인 누나가 애인이 생겼단 말인가. 김병현이 몇 번이고 불렀으나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방안에서는 뜨거운 사랑에 빠진 듯 거친 신음소리만 들려왔다. 김병현은 우리를 쳐다보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나와 박성곤은 김병현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소리 지르지 말고 조용히 해라고 말했다. 거친 숨소리가 문 밖까지 들리는 오랫동안, 우리들은 통행금지 시간이라 이리저리도 저리저리도 못하고 방안에 있는 두 사람이 교성소리를 멈추고 불을 켤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베란다에 앉아서 한참동안 말을 삼간 채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병현의 누나가 우리가 피우고 있는 담뱃불을 발견하고 창문을 약간 밀치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거기 누구니까?”

동생과 함께 찾아온 우리들을 발견하고 당황한 김병현의 누나는 방에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이불을 옮기고 정리하는 모습이 불빛에 비쳤다. 그렇게 십여 분이 지난 후 김병현의 누나가 들어오라는 신호를 보내왔고 김병현은 당황한 표정이 역력해 보이는 누나에게 문간방에서 잘 테니 이불만 두고 건너가라고 등을 떠밀었다. 그리고 우리들은 아무것도 모른 척하고 죄지은 사람처럼 방에 들어가서 숨을 죽인 채 잠에 빠졌다.

김병헌 누나 집에서 새벽에 일어난 나는 해운대 바닷가로 나왔다. 이른 아침부터 해변을 따라 개를 몰고 함께 달리는 사람들과 파도 소리를 들으며 체조하는 부부들, 인근 부두에서 나온듯한 군인들이 상의를 벗은 채 대오를 지어서 힘찬 구호를 외치며 둔탁한 워커 소리를 내며 아스팔트길을 구보하는 모습도 보였다.

나는 동백섬으로 가지 않고 송림공원을 돌아 나오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일단 짐을 몽쳐서 시골에 보내고 며칠 후 발표가 나는 해군지원병 결과와 상관없이 시골에 가서 농사일을 도우다가 내년엔 영장을 받아서 입영하기로 했다.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서 송림공원 숲길을 마구 달렸다. 그렇게 달리다가 수비삼거리까지 달려와서 버스를 탔다. 수영로터리를 지나고 한적한 시골마을인 민락동과 광안리 해변 근처를 지나칠 때 어촌마을에서는 굴뚝마다 아침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구보하듯 하숙집에 도착한 나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는데 책갈피 속에 붙썩 나타나는 초혜가 보낸 편지와 유도단증들을 보자 마음이 울적했다.

몇 해 전 고교를 유학 왔을 때 그 많던 부푼 꿈들을 생각해보았다. 오늘까지 진정으로 내가 한 것이 무엇인가? 결과는 진학을 하지 못한 절름발이 인문고 졸업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에트랑제 친구들은 진학을 해서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 있고, 상고를 졸업한 친구들은 은행으로 취직하고, 공고를 졸업한 친구들은 공장과 건설 회사에 취직해서 돈벌이 하고 있는데 나는 무엇이란 말인가. 이 꼴이 되려고 부산으로 유학 왔단 말인가. 자괴감이 큰 파도가 되어서

나를 휩쓸고 지나갔다.

고향마을 친구들 중에 유일하게 나만 고교를 진학했는데 이 꼴이 라니. 나는 도회지에 나와서 도대체 무엇을 배우고 깨닫고 귀향하는가. 내가 부산으로 내려와서 처음 만났던 일상의 것부터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도회지 문명을 떠올려보았다.

도회지에서 처음 만났던 모든 것들, 네온 싸인, 호떡, 양과자, 당구장, 만화방, 독서실, 마네킹, 미용실, 백화점, 꽃시계, 큰 배 등 그런 모든 것들은 내가 알고 있는 도회지 용어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결국 나는 값비싼 회비를 주고 현대 문명을 배우고 가는 셈이었다.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기로 했다. 그러나 긴 한숨은 자꾸 나왔고 결국은 허탈함이 음습해 와서 방바닥에 퍼질러 앉고 말았다.

“총각 왔능교?”

하숙집 아줌마가 미닫이문을 열면서 종이쪽지를 내밀었다.

“이번 달 하숙비는 절반만 주면 되겠고 돈이 없으면 시골에 가서 우체국으로 보내주던지 안 그러믄 한번 댕기 가쇼. 나도 엇그제 연탄가스 사고가 난 후 너무 놀래가지고 방 수리를 하고, 앞으로는 하숙을 그만 칠라 카요. 우리 아저씨하고 조그만 만화방이나 독서실이나 한번 해볼라 카요. 총각은 대학 못 갔으니 군대라도 빨리 갔다 오는 기 맞는 것 같네요.”

짐을 챙기고 나니 한시라도 빨리 회색도시를 벗어나고 싶었다. 이런 내 심정을 헤아리듯 부산진역으로 가는 입석버스는 금세 다가왔다.

완행열차에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뇌리 속에는 자꾸만 부산생활 4년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졌다. 그런 마음은 만선을 꿈꾸던 어부가 빈 배로 돌아오는 심경 같은 것이었다.

〈전 3권 중 상권 끝〉

하동역(驛) 상권

초판발행 2019년 03월 30일

지은이 전원일
펴낸이 전원일
펴낸곳 도서출판 문학마을
(등록2012-000005호)

출판등록 615-91-37520

통신판매 신고증 (제2017-경남 김해 0295호)

주소 경남 김해시 분성로517번길1,502호(어방동 y빌딩)
전화 055-325-0002
팩스 055-323-0907

ISBN 979-11-86025-07-9 04800
979-11-86025-06-2 04800(세트)

값 15,000원

